博 士 學 位 論 文

한글 필사본 《을병연행록》의 동사구문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專攻

洪 銀 珍

2001年 8月 日

博 士 學 位 論 文

한글 필사본 《을병연행록》의 동사구문 연구

指導教授 이 옥 련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6月 日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專攻

洪 銀 珍

洪銀珍의 文學博士 學位請求論文을 認准함

한글 필사본《을병연행록》의 동사구문 연구

2001年 6月 日

심사위원장 ______________________ 敎授(印)

위 원 ______________________ 敎授(印)

위 원 ______________________ 敎授(印)

위 원 ______________________ 敎授(印)

위 원 ______________________ 敎授(印)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목 차

<국문 개요>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자료적 성격 · 2
    1.2.1. 한글본 · 3
      1.2.1.1. 장서각본 · 3
      1.2.1.2.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소장본 · · · · · · · · · · · · · · 4
      1.2.1.3. 한글본의 제목 및 내용 비교 · · · · · · · · · · · · · · 5
    1.2.2. 한문본 ≪湛軒燕記≫ · · · · · · · · · · · · · · · · · · · 8
  1.3. 연구사 · 11

2. ≪을병연행록≫과 국어문법사 · · · · · · · · · · · · · · · · · · 14

3. 동사구문의 특징과 유형 · 37
  3.1. 계사구문 · 39
    3.1.1 계사구문의 특징 · 39
    3.1.2 계사구문의 유형 · 40
      3.1.2.1. ‘이-’ · 40
      3.1.2.2. ‘아니-’ · 44

  3.2. 존재동사구문 · 47
    3.2.1 존재동사구문의 특징 · · · · · · · · · · · · · · · · · · · 47
    3.2.2 존재동사구문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48
      3.2.2.1. ‘잇-/이시-’ · 48
      3.2.2.2. ‘업-’ · 54
      3.2.2.3. ‘계시-’ · 59

  3.3. 평가동사구문 · 61

3.3.1. 평가동사구문의 특징 · 61
3.3.2. 평가동사구문의 유형 · 61
3.3.2.1. '둏-' · 61
3.3.2.2. '어렵-' · 66
3.3.2.3. '쉽-' · 69
3.3.2.4. '올ᄒᆞ-' · 70
3.3.2.5. '맛당ᄒᆞ-' · 71

3.4. 비교동사구문 · 74
3.4.1. 비교동사구문의 특징 · 74
3.4.2. 비교동사구문의 유형 · 75
3.4.2.1. '더으-' 와 '더ᄒᆞ-' · 75
3.4.2.2. '비ᄒᆞ-' · 78
3.4.2.3. '낫-' · 82
3.4.2.4. 'ᄀᆞᆽᄒᆞ-' · 83
3.4.2.5. '다ᄅᆞ-' · 87

3.5. 심리동사구문 · 95
3.5.1. 심리동사구문의 특징 · 95
3.5.2. 심리동사구문의 유형 · 95
3.5.2.1. '긹-'과 '깃거ᄒᆞ-' · 95
3.5.2.2. '졓-'과 '져허ᄒᆞ-' · 97
3.5.2.3. '슬프-' · 99
3.5.2.4. '슳-'과 '슬허ᄒᆞ-' · 100
3.5.2.5. '즐기-'와 '즐겁-' · 101

3.6. 사유동사구문 · 104
3.6.1. 사유동사구문의 특징 · 104
3.6.2. 사유동사구문의 유형 · 105
3.6.2.1. '밋-' · 105
3.6.2.2. '싱각ᄒᆞ-' · 107

3.6.2.3. ‘의심ᄒᆞ-’ ························ 109
3.6.2.4. ‘너기-’ ························ 111
3.6.2.5. ‘혜-’ ························ 114

3.7. 인지동사구문 ························ 118
3.7.1 인지동사구문의 특징 ························ 118
3.7.2. 인지동사구문의 유형 ························ 118
3.7.2.1. ‘알-’ ························ 118
3.7.2.2. ‘모ᄅᆞ-’ ························ 121

3.8. 지각경험동사구문 ························ 123
3.8.1. 지각경험동사구문의 특징 ························ 123
3.8.2. 지각경험동사구문의 유형 ························ 123
3.8.2.1. ‘보-’ ························ 123
3.8.2.2. ‘듣-’ ························ 127

3.9. 청원동사구문 ························ 131
3.9.1. 청원동사구문의 특징 ························ 131
3.9.2. 청원동사구문의 유형 ························ 132
3.9.2.1. ‘원ᄒᆞ-’ ························ 132
3.9.2.2. ‘청ᄒᆞ-’ ························ 133
3.9.2.3. ‘ᄇᆞ라-’ ························ 136

3.10. 화법동사구문 ························ 138
3.10.1 화법동사구문의 특징 ························ 138
3.10.2 화법동사구문의 유형 ························ 139

4. 결론 ························ 147
참고문헌 ························ 152
ABSTRACT ························ 159

<국문 개요>

한글 필사본 《을병연행록》의 동사구문 연구

홍 은 진

본고는 18세기 후기의 한글 필사본《을병연행록》에서 보이는 문법사적 특징과 동사구문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자료적 성격, 연구사를 검토하였다. 1.1에서는 한글 필사자료의 국어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1.2에서는 《을병연행록》의 한글본 2종과 한문본을 형태·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3에서는 ≪을병연행록≫의 고전문학· 역사적인 측면의 연구, 한글 필사본 연구, 국어 통사 구조의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을병연행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적들은 고전문학·역사학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을병연행록》을 국어문법사적인 측면에서 형식명사, 격조사, 용언의 어미 변화 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이 자료가 19세기 이전의 국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동사구문의 특징과 유형을 다루었다. 3.1에서는 계사구문 '이-'와 '아니-'를 살펴보았다. 이 자료에서 보이는 '이-' 구문 가운데 'NP_1'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문장을 살펴 보았는데 이는 특이한 문장임을 알 수 있었다. '아니-' 는 'NP_0', 'NP_1'에 '-은', '-도' 등이 통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보조사 '-도'가 통합된 문장은 매우 드물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2에서는 존재동사구문 '잇-/이시-', '업-', '계시-'를 존재구문과 소유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계시-'는 존재구문 만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겨시-' 외에, 제2음절의 'i' 모음의 영향으로 제1음절에 'j'가 더 개재된 '계시-'로 나타난다. 따라서 근대국어 시기에 필사된 이 자료 역시 '겨시-'보다 '계시-'가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동사어간을 '계시-'로 표기하였다. 3.3에서는 평가동사구문 '둏-', '어렵-', '쉽-', '올ᄒᆞ-', '맛당ᄒᆞ-'를 살펴보았다. 3.4에서는 비교동사구문 '더으-'와 '더ᄒᆞ-', '비ᄒᆞ-', '낫-', 'ᄀᆞᆽᄒᆞ-', '다ᄅᆞ-'를 살펴보았는데 중세국어 시기에 실현된 구문 유형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5에서는 심리동사구문 '깄-/깃거ᄒᆞ-', '졓-/져허ᄒᆞ-', '슬프-', '슳-'과 '슬허ᄒᆞ-', '즐기-'와 '즐겁-'을 살펴보았는데 주로 타동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깃거'에 통합되어 있는 '-어'는 '계기성'의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슬프-'는 슬픈 마음이나 슬픈 뜻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의미하며, '슬프다' 만으로 발화되는 문장은 감탄문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6에서는 사유동사구문 '밋-', '싱각ᄒᆞ-', '의심ᄒᆞ-', '너기-', '혜-'를 살펴보았는데 이 구문들은 목적어 중심 구문으로 기본 구조는 'NP_0이 NP_1을 V'의 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목적어 중심 구문이긴 하지만 구문에 따라 생략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3.7에서는 인지동사구문 '알-'과 '모ᄅᆞ-'를 고찰하였는데 이 구문은 상당히 의미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알-'과 '모ᄅᆞ-'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양상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3.8에서는 지각경험동사구문 '보-', '듣-'을 살펴보았다. 3.9에서는 청원동사구문 '원ᄒᆞ-', '쳥ᄒᆞ-', 'ᄇᆞ라-'를 다루었는데 '원-'구문의 '원ᄒᆞ-'는 성격상 여격어를 요구하지 않는 동사이지만 경우에 따라 '원ᄒᆞ-'가 '쳥ᄒᆞ-'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때는 여격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10에서는 화법동사구문 '니ᄅᆞ다', 'ᄀᆞᆯ다', '묻다' 구문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구문은 'NP_0이 니ᄅᆞ-', 'NP_1이 NP_2ᄃᆞ려 니ᄅᆞ-', 'NP_1를 니ᄅᆞ-', 'NP_1이 ᄀᆞᆯ-' 등의 구조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니ᄅᆞ-'와는 달리 '묻-'은 주로 의문문을 인용하는 동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묻-'구문은 '니ᄅᆞ-' 구문과는 달리 'ᄀᆞᆯ오ᄃᆡ, 닐오ᄃᆡ, 니ᄅᆞᄃᆡ' 앞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했다.

1. 서　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한글 필사본≪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에 대한 서지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 문헌에 나타나는 구문의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이 자료가 필사되었던 근대국어의 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조망해 보는 데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국어사 연구에서는 중앙에서 간행된 판본 중심의 문어체로 작성된 문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자료에 반영된 언어 현상과 해석이 마치 당대의 언어를 모두 반영한다는 시각이 전제되었다. 그렇지만 판본 중심의 문헌 연구들은 대부분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의 정음으로 작성된 문헌들로 모두가 중앙의 간행물들이고 대부분이 언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언해 자료의 대다수가 불경언해류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국어의 전반적인 모습을 체계적으로 알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문어체로 작성된 판본 연구는 당시의 문어체에 대해서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구어체는 사실상 잘 알 수 없었는데, 이런 점은 필사본의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근대국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필사본으로 작성된 자료는 그다지 많이 다루어진 편은 아니었다. 필사본들은 대개 필사연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느 시기, 어느 지방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어학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한글 필사본 ≪을병연행록≫을 연구하는 이유는 문어체로 작성된 문헌 자료보다 다양한 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자료와 같은 한글 연행록은 한문 연행록과는 달리 우리의 정서를 간곡하면서도 완전하게 표현하고 적절히 사용된 고어와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음표문자로 기록된 만주어 등이 혼재함으로써 국어사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지금까지 중앙에서 간행된 문어체 위주의 판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은 국어의 예를 보여 주기에 본고에서는 이를 국어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근거가 된다.

본고의 목적은 주로 고전문학 분야에서만 다루어 왔던 18세기 한글 필사본인 ≪을병연행록≫을 서지학과 국어통사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을병연행록≫이 작성된 18세기 중기는 여러 문법 체계의 변화가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이 자료를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다룰 때 나타날 수도 있을 문제점[1]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을병연행록≫은 조선조 역관

---

1) 국어사의 측면에서 한글로 씌어진 문학 작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의 한계는 그 작자의 생존시에 간행된 것이 아닐 경우, 그에 담겨 있는 언어가 작자의 생존 연대와는 다른, 필사 또는 간행된 시기의 언어인 것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이다. 설혹 ≪을병연행록≫과 같이 작가가 알려져 있어도 작자의 친필본이 아니라 전사본일 경우, 지금까지는 국어사의 연구 자료로 삼아 오지 않은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들이 중국에 간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료로서 권수에 따라서는 대화체로 되어 있고 어휘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문물을 반영한 것으로 그 당시 국어의 공시적인 모습과 통시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다룰 대상은 동사구문으로서 개별 동사가 갖는 구문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한다. 서술어가 문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국어는 동사구문 자체만으로 국어의 통사구조의 일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2. 자료적 성격

≪을병연행록≫은[2] 1765(영조 41)년・1766(영조 42)년에 걸쳐 湛軒 洪大容(1731～1783)[3]이 35세 때 季父인 洪檍의[4] 燕行使行에 자제군관으로[5] 수행하였을 때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보이는 새로운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그가 가장 원하는 바였던, 異域의 아름다운 秀才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그들과 토론하는 모습이 실려 있는 한글 필사본이다.

대부분의≪연행록≫은[6] 공식적인 사행의 일정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을병연행록≫처럼

---

2) 이하에서 이 필사본의 명칭은 한자를 따로 쓰지 않고≪을병연행록≫으로 지칭함. 을병연행록은 乙酉年(1765년)과 丙戌年(1766) 두 해에 걸쳐 작성된 연행록이라 하여 그 간지의 첫 글자를 따서 湛軒이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다.

3) 湛軒 洪大容(자는 德保, 호는 湛軒)은 조선후기 실학파의 선구적 인물로 1731년(영조 7년)에 충청도 天原郡 修身面 長山里에서 牧使 洪櫟(1708～1767)과 군수 杬의 딸인 清風 金氏(1708～1809) 사이에서 태어났다. 홍대용은 12살에 집을 떠나 楊洲에 있는 石室書院에 입문하여 김창협의 손자인 김원행의 문하생이 되었는데 이후 두 사람은 30여년간 사제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였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홍대용은 전통적 유학보다는 천문, 지리, 산학 등 과학적 지식에 더 해박하였으며 서양의 과학문명에 앞서 나름대로의 과학이론을 확립하였으며 선진국 학자들과의 교섭을 통하여 자기 이론의 객관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새로운 학문적 이론을 수입하여 체계화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4) 연행할 당시 숙부 洪檍(1722～1809)은 홍대용보다 9살 연상이었다(김태준, 1987:16).

5) 자제군관이란 自辟軍官・打角이라고 하였는데 사신으로 임명된 사람이 자신의 자제나 가까운 친족 중에서 선정하여 조정의 승인을 얻어 수행원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명칭이 軍官으로 되어 있지만 반드시 武官일 필요는 없다. 다만 출성시에는 군복을 착용하였다. 따라서 홍대용은 자제군관의 신분으로 공식적인 임무에 구속됨없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문화적 충격을 글로 남겼는데 평소에 열망해 온 연행이 실현되자 내면의 지식과 정서는 새로운 세계의 견문을 통해 뛰어난 글을 남기게 되었다. 위의 제목을 토대로 한글본인 장서각본과 숭실대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현재 남아 있는 100여 종의 연행록은 17세기 중반 이후 청나라와의 빈번했던 외교 관계에서 나온 사행 기록문이다. 우리 민족이 중국과 교섭하면서 남긴 사행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 ≪노가재 연행일기≫의 작자인 김창업은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보다 반세기 앞서

저자의 신분에 따라 개인의 감정과 가치관이 투사되어 있는 기행문도 있다. 이렇게 신분에 따라 쓰여진 기행문은 다른 문헌과는 달리 이국의 산천, 풍물, 풍속을 접하게 된 한 개인이 받은 문화적 충격과 갈등, 다양한 체험 등이 당시의 구어체를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료는 고향을 떠나서 중국 여행을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의 기행을 필사본으로 작성한 약 2600면에 이르는 방대한 기행문학 작품이며 홍대용 개인의 연행에 대한 감회와 열정을 말하는 가사가 실려있다. 한문본인 ≪湛軒燕記≫[7]와는 달리 날짜별 서술 방식으로 신변에서 일어난 일이나 개인적인 정서 등을 서술하고 있다. 홍대용은 김창협의 손자인 渼湖 金元行(1702-1772)의[8] 제자로 ≪노가재 연행일기≫의 작자인 김창업과 형제인 김창협, 사제 관계였던 김원행과 홍대용 등은 일찍이 김창업의 ≪노가재 연행일기≫의 연행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널리 읽어 연행에 임했다. 홍대용이 연행에 오른 것은 김창업이 연행했던 53년 후인 1765년이다. 그의 행장에는 ≪노가재 연행일기≫ 등과 같은 연행록이 안내서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일례로 홍대용은 동북의 명산인 醫巫閭山을 방문했을 때 안내자를 찾지 못하자, '어제 稼翁의 일기를 읽어두어서 온 골짜기의 경로가 내 눈에 환하니 안내자가 없는 걱정은 할 것 없다'[9]라 하기도 한다. 또 그 일대를 두루 살펴보고는 '복숭아 나무에 종을 매단 것이 稼翁의 기록 그대로였다[10]'고 한다.

본절에서는 한글 필사본인 장서각본과 숭실대 기독교박물관본, 한문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1. 한글본

1.2.1.1. 장서각본

장서각본[11] ≪을병연행록≫은 38.2×19㎝이고 20권 20책으로 되어 있다. 표지 서명은 한문

서 북경을 다녀왔는데 개인의 북경에 대한 다양한 체험은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의식세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연행록은 사행 후 조정에 제출하는 보고서처럼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연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견문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 중에서 오늘날에 평가되는 연행록은 개인의 다양한 경험, 특히 새로운 문물에 직면한 개인이 받은 충격과 갈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7) ≪을병 연행록≫은 홍대용이 한문으로 작성한 ≪湛軒燕記≫보다 앞서서 저술한 것이다.

8) 金元行(1702-1772)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湖洛論爭에서 낙론을 이끌었던 학자인데, 그는 당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9) ≪湛軒書≫,「燕記」(232면)

10) 같은 글 234면.

11) 장서각본은 1983년에 국학자료 총서 제3집으로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학자료간행 위원회에서 영인본을 펴 낸 바 있다.

으로 "燕行錄"으로만 되어 있고 각 권의 본문 첫 머리에는 "을병연행록권지○"이라 씌어져 있다. 총 장수는 1,296장으로 각 면마다 정확히 10줄씩 한글 궁체로 씌어졌다. 필사자와 필사 연대는 미상으로 되어 있다. 지질, 필체, 표기법 등에서 보면 숭실대본과는 달리 필사자가 동일한 인물로 필사 형태도 뛰어나고 읽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숭실대본과 내용이 같지만 卷數를 보면 20책으로 되어 있기에 숭실대본을 두 배로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숭실대본의 제 1권이 장서각본의 제 1, 제 2권이 된다. 이것은 숭실대본의 한 권을 두 권으로 만들 때 대략 분량을 계산하여 일기의 날짜가 새로 시작하는 곳에서 나누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권마다 분량은 일정하지 않다.

1.2.1.2.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소장본[12)]

숭실대본[13)]은 1400면 430,000여 자로 구성된 10권 10책으로 제 1권은 ≪담헌 연행록≫이라 쓰여 있으나 2권부터 10권까지는 ≪을병 연행록≫으로 되어 있다. 장서각본과 마찬가지로 연행 일정을 꼼꼼하게 적어 놓았던 것을 귀국한 후 한문본과는 별도로 정리하였다.

매 권의 끝에 필사한 연대의 干支[14)]와 10권의 끝에 간단한 필사의 경위를 적고 있는데[15)],

---

12) 이하의 논의에서는 '숭실대본'으로 지칭함. 이 책의 서지적 고찰은 김태준 편(1983)과 소재영 외(1997)를 참고하였다.

13) 장서각본의 母本으로 추정되는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본 ≪을병 연행록≫(10책)은 무려 1,400면 430,000여 자에 이르는 대 장편으로, 주제별로 편집된 한문본과는 별도로 일자별로 기술되어 있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을 촉발해 주는 기행문학의 일대 명편이다. ≪을병 연행록≫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르면, 작자가 어머니에게 보여 드리기 위하여 연행길의 노정마다 꼼꼼하게 기술해 놓았던 것을 귀국한 후 한문본과는 별도로 한글본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담헌의 따님이 다시 이를 手寫하여 후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매권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긔튝 계츄 이십팔일 시작ᄒᆞ야 듕동 초뉵일 필셔ᄒᆞ다(권 1).
· 기튝 듕동 초뉵일 시작ᄒᆞ야 경인 윤하 념일일 년산와셔 필셔ᄒᆞ다(권 2).
· 셰ᄎᆞ 신묘 원월 십삼일 관동하방의셔 필셔ᄒᆞ다(권 3).
· 셰 경인 초츄 념삼일 필셔(권 4).
· 셰지 경인 ᄆᆡᆼ츄 슌삼일 관동 동창 하의셔 츄필 죵셔ᄒᆞ다?(권 9).
· 경인 팔월 념ᄉᆞ일 필셔(권 10).

이러한 후기에서 보면, 필사가 1829년(乙丑年)·1830년(庚寅年) · 1831년(辛卯年) 3년 동안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순서대로 씌어진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分冊하여 각기 나누어 썼기 때문에 책마다 필사 연대가 다르고 필사체도 조금씩 다르다. 필사된 장소는

≪을병연행록≫이 다 상하여 湛軒의 며느리(평산신씨)가 중심이 되어 그 손부와 손자들이 나누어 몇 년에 걸쳐 다시 베낀 사연담을 적고 있으며, 또 그 아래에는 손자 洪良厚가 絶江 文士에게 보낸 편지와 이에 답한 潘庭筠의 아들 潘恭壽의 편지가 번역되어 실려 있다. 이로 보아 이것은 담헌 집안의 전래본으로 담헌이 작성한 원본에서 직접 복사한 사본으로 가장 원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2.1.3 한글본의 제목 및 내용 비교

본절에서는 한글본인 두 이본의 체제 및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매 책의 첫 제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6]

[1] 장서각본

제1권: 을유 십일월 초이일 경셩셔 니발ᄒᆞ야 고양 슉소ᄒᆞ다
제2권: 초이일 솔참셔 니발ᄒᆞ야 초ᄉᆞ일 감슈뎜의 니ᄅᆞ다
제3권: 초십일 심양셔 니발ᄒᆞ야 십이일 쇼흑산 니ᄅᆞ다
제4권: 이십일일 유관셔 이발ᄒᆞ여 이십이일 사하역 ᄌᆞ다
제5권:이십팔일 네부 ᄌᆞ문밧치ᄂᆞᆫ ᄃᆡ 싸라가다
제6권: 초ᄉᆞ일 뎡양문 밧긔 가 희ᄌᆞ 노름 보다
제7권: 초칠일 관에 머무다
제8권: 초십일 진가 푸ᄌᆞ의 ᄃᆞᆫ녀오다
제9권: 십ᄉᆞ일 법장ᄉᆞ의 가다
제10권: 이십일일 푱한님 집의 가다
제11권: 이십오일 븍셩 밧긔 가다
제12권: 초이일 텬쥬당 가다

連山・관동 하방으로 되어 있다.
15) 연행록의 끝장에 '경인 팔월 념사일 필셔'라는 필사 연대가 부기되어 있는데, 이 庚寅年은 1830년으로 담헌이 연행에서 돌아온 후 64년만이 된다.

> 본젼이 다 상ᄒᆞ야 젓ᄉᆞ온 즁 수젹이 업서디옵ᄂᆞᆫ 줄 답답. 쏘 ᄒᆞᆫ 벌 벗기랴 경영터니 년산지장 장디와 쟈근 아히 구일졔 상격지필노 시작ᄒᆞ야 슈년 만의 일우니, 집안 귀ᄒᆞᆫ 칙을 두 아들의 노둔지필로 일운 일 내 ᄆᆞ옴의 긔특 귀ᄒᆞ고 두 며ᄂᆞ리 글시도 들고 시죵은 내가 뻐시니 ᄀᆞᆺ득 졸누ᄒᆞᆫ 글시 뉵팔노필의 셩ᄌᆞ를 못ᄒᆞ야시나 일운 일 깃브다.

16) 제목의 띄어쓰기는 필자 임의로 했음을 밝힌다.

제13권: 초뉵일 ᄐᆡ화뎐 보고 뉴리챵 가다
제14권: 초구일 관의 머므다
제15권: 십삼일 관의 머므다
제16권: 이십일 관의 머므다
제17권: 이십ᄉᆞ일 관의 머므다
제18권: 이십칠일 관의 머므다
제19권: 초ᄉᆞ일 송가셩 보고 봉산뎜 즁화ᄒᆞ고 옥젼현 자다
제20권: 십팔일 쇼흑산셔 니발ᄒᆞ야 이십일 심양 니ᄅᆞ다

[2] 숭실대본

제1권: 을유 십일월 초이일 경셩셔 니발ᄒᆞ여 고양 슉소ᄒᆞ다
제2권: 초십일 심양셔 니발ᄒᆞ야 십이일 쇼흑산 니ᄅᆞ다
제3권: 이십팔일 녜부 ᄌᆞ문바치ᄂᆞᆫ ᄃᆡ 짜라가다
제4권: 초칠일 관의 머므다
제5권: 십ᄉᆞ일 법장ᄉᆞ의 가다
제6권: 이십오일 븍셩밧긔 가다
제7권: 초뉵일 태화뎐 보고 뉴리창 가다
제8권: 십삼일 관의 머므다
제9권: 이십ᄉᆞ일 관의 머므다
제10권: 초ᄉᆞ일 송가셩 보고 봉산졈 듕화ᄒᆞ고 옥젼현자다

위의 제목을 토대로 연행한 일정과 그 연대를 보면 을유년(1765) 11월 2일 경성을 떠나 병술년(1766년) 4월 27일에 한양에 도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담헌은 이 제목을 합쳐보면 을유년에는 2개월, 병술년에는 4개월을 연행하여 총 6개월을 연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을병 연행록≫은 을유년과 병술년의 간지를 따서 이름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제목을 토대로 한글본인 장서각본과 숭실대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서각본	숭실대본	내 용
卷之 1 : 62장 卷之 2 : 64장 반	卷之 1	1765년 11월 2일 경성을 떠나 12월 9일 심양에 묵은 일기
卷之 3 : 65장 卷之 4 : 67장 반	卷之 2	12월 10일 심양을 떠나 12월 27일 북경에 도착한 일기
卷之 5 : 58장 반 卷之 6 : 60장 반	卷之 3	12월 28일 禮部를 예방한 일로부터 1766년 1월 6일까지의 일기
卷之 7 : 56장 반 卷之 8 : 58장 반	卷之 4	1월 7일 천주당을 가 볼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1월 13일 천주당까지의 일기
卷之 9 : 67장 반 卷之10 : 63장 반	卷之 5	1월 14일 일기부터 1월 24일 동 천주당에 간 일기
卷之11 : 67장 卷之12 : 63장 반	卷之 6	1월 25일 북성 밖 구경한 일로부터 2월 5일의 일기
卷之13 : 66장 卷之14 : 70장 반	卷之 7	2월 6일 유리창(琉璃廠)에 간 일로부터 2월 12일 건정동(乾淨衕)에 간 일기
卷之15 : 76장 반 卷之16 : 68장	卷之 8	2월 13일 관에 머문 일기부터 2월 23일 건정동(乾淨衕)에 간 일기
卷之17 : 78장 卷之18 : 69장	卷之 9	2월 24일 농수각(籠水閣)의 내력을 쓴 일기부터 3월 1일 북경을 떠나 3일 계주(薊州)에 묵은 일기
卷之19 : 53장 반 卷之20 : 52장 반	卷之 10	3월 4일 송가성(宋家城)을 구경한 일부터 4월 27일 한양에 도착한 일기

위에서 언급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체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원본의 체재가 원래는 10권 10책으로 되어 있었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20권 20책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필사본 사이의 내용상의 차이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지만, 간혹 고유명사의 옆에 붓뚜껑 표시를 한 사실 등에서 20권 20책의 장서각본의 체재상의 의도가 달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태준 1983 참조). 또한 이 연행록은 한문본과 한글본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두 가지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문학 향유층이나 독자층의 이중구조를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서각본과 숭실대본을 비교해 본 결과 본 자료가 18세기 중기의 작품으로 판본의 문헌들과 특별히 다른 국어학적인 차이점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필사경위나 매 권 말미의 필사부기에 따라 숭실대본을 母本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숭실대본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장서각본도 18세기 중기의 국어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자료로 삼은 것은 장서각본 ≪을병연행록≫이나 논의에 필요할 경우 숭실대본도 참고로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 외에 근대국어의 자료에 있는 문장들도 필요에 따라 인용하겠지만 이것은 본론의 논의를 보충할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자료 이름은 따로 밝히지 않고 괄호 속에

넣어서만 밝힌다.

1.2.2. 한문본 ≪湛軒燕記≫[17]

≪을병연행록≫과 체재가 다른 한문본이 실려 있는 ≪湛軒書≫는 홍대용이 직접 지은 것으로 內集 4卷, 外集 6卷의 총 10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燕記'는 外集에 실려 있기에 본절에서는 外集만 살펴보기로 한다. 外集 卷1은 杭傳尺牘으로[18] 되어 있는데 담헌이 연행길에서 의형제를 맺었던 항주의 선비 陸飛, 嚴誠, 潘庭筠 등과 교환한 서신을 모은 것이다. 外集 卷2 역시 杭傳尺牘으로 했으며 내용은 乾淨衕 筆談으로 乾淨衕에서 陸飛, 嚴誠, 潘庭筠을 만나 필담한 내용이 담겨 있다.

外集 卷3 역시 杭傳尺牘으로 乾淨衕 筆談이 이어지고 있다. 外集 卷4에서 外集 卷6은 燕行과 관련이 없는 籌解需用으로[19] 數學著述을 담고 있다. 外集 卷7에서 外集 卷10은 燕記라는 제목으로 통일시켜 놓았다. 燕記는 北京旅行日記라는 말로 外集 卷7은 英祖 42년 병술(1766년) 正月 初 1日부터 3月 初 10日까지 대략 7일 사이의 연행기인데 吳彭問答, 蔣周問答, 劉鮑[20]問答, 衙門諸官, 兩渾, 王擧人 등의 22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었다. 外集 卷7의 내용은 각 사람들을 만나서 문답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外集 卷8은 孫進士, 周學究, 王文擧, 希員外, 白貢生, 沿路記略, 京城記略의 7개 소제목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孫進士에서 白貢生은 山海關으로부터 瀋陽을 거쳐 安東까지 오는 길에 蒙學訓長, 학생, 하급관리 등을 만나 그들의 교육정도, 생활실태, 풍습 등을 기록한 것이며 沿路記略은 義州를 출발하여 瀋陽을 거쳐 義州로 돌아오는 노정을 적은 것이다. 京城記略은 北京 城內, 城外 등을 다니면서 皇室, 市街, 店鋪, 서점, 고적 등을 관광한 기록이다. 外集 卷9는 望海亭, 射虎石, 盤山, 夷齊廟, 桃花洞 등 32편으로 되어 있다. 外集 卷10은 方物入闕, 幻術, 場戲, 市肆, 寺觀, 飮食, 屋宅, 巾服, 器用, 兵器, 樂器, 畜物, 留館下程, 財賦總略, 路程의 15개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

17) 자세한 내용은 민족문화추진회(1767/1989), 국역 담헌서 참조.
18) 항주의 선비 陸飛, 嚴誠, 潘庭筠 등과 귀국 후 오간 편지를 말한다.
19) 籌解需用은 數學에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20) 劉鮑는 劉松齡이고 鮑는 鮑友官으로 利瑪竇(마테오리치)의 뒤를 이어 중국에 온 선교사로 천문과 曆象에 정통한 사람들로 淸나라에서 欽天監으로 등용시켰다. 劉松齡의 본명은 Augustinus von Halberstein이고 鮑友官은 Antonius Gogeisl로 담헌이 연행한 해는 그들이 중국에 온 지 26년이 되어 劉松齡은 62세가 되고 鮑友官은 64세가 된 해이다.

○ 을병연ᄒᆡᆼ녹 권지십

○ 이십일일 평ᄒᆞᆫ날 지ᄌᆞᆷ의 가다

이번 길ᄒᆡ ᄉᆞᄀᆡ의 ᄇᆞᆫ화 장ᄉᆡ ᄒᆞᆫ ᄌᆞᄅᆞᆯ

ᄒᆞ번 ᄌᆡ졍ᄒᆞᆫ ᄒᆞᆷ이 ᄋᆡᄋᆡ와 ᄅᆞᆫ본 제ᄌᆞᄅᆞᆫ 넘

흔셩ᄇᆡ ᄒᆞᆯ 어ᄃᆡ ᄒᆞᆷ으ᄉᆞ 졍라 ᄀᆞᆫᄒᆞᆼ ᄒᆞᄋᆡ

의ᄒᆞᆼ 상ᄒᆞᆯ 바ᄒᆞᆫ 앎ᄋᆞᆯ 져ᄒᆞᄂᆞᆫ 지라 이ᄯᅥ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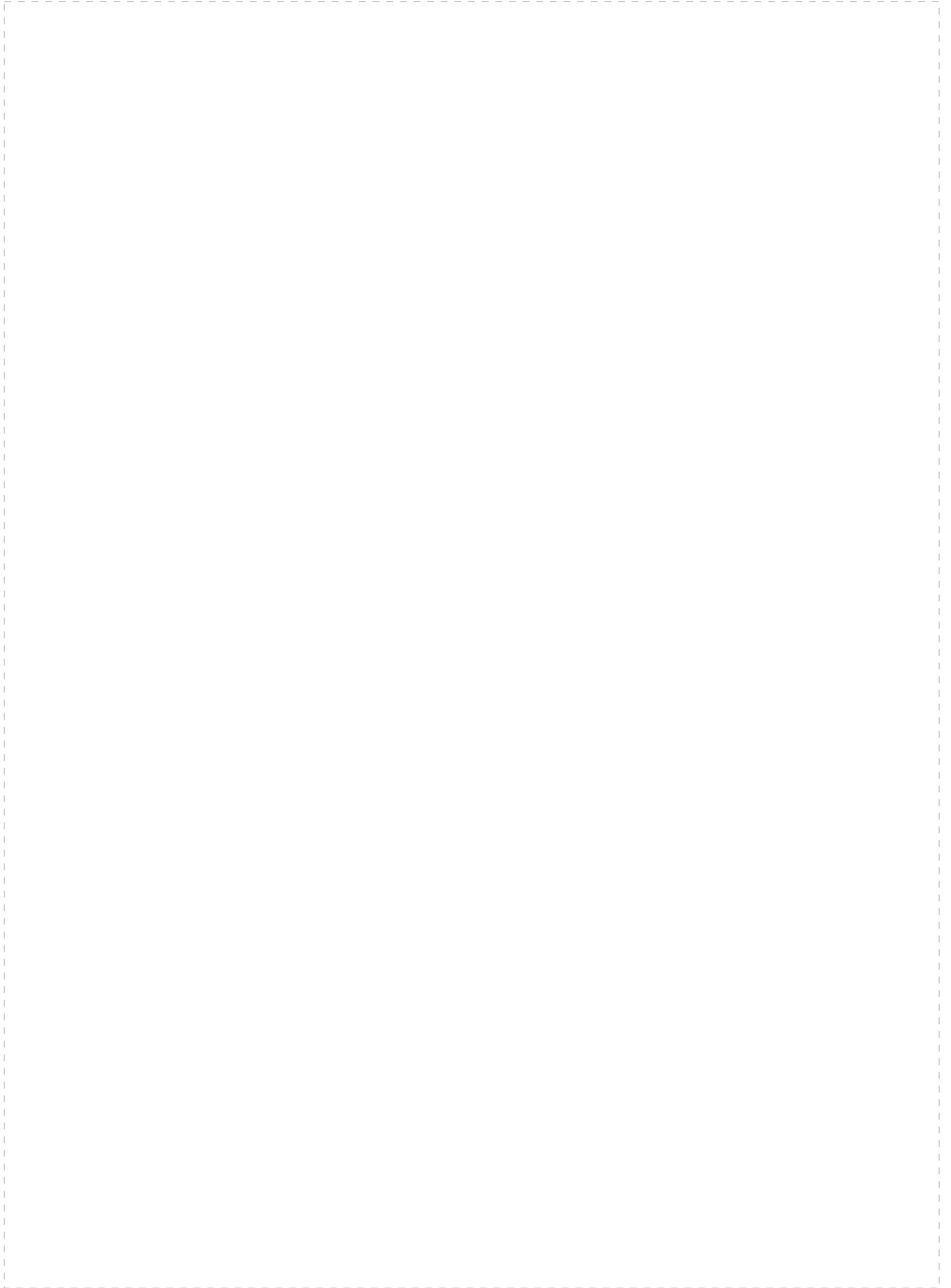
ᄅᆞᆫ부 장셩ᄋᆞᆼ의 ᄂᆞᆯ혼ᄒᆞᆫ 얼ᄋᆞᆷ이 ᄒᆞᆯ

ᄒᆞ야 ᄆᆞᆫᄉᆞ의 ᄃᆡᄅᆞᆯ ᄀᆞ진 샹ᄅᆞᆨ이 ᄃᆡ비ᄅᆞᆯ고

ᄒᆞ의 ᄒᆞᆼᄒᆞᆯ 져이라 ᄅᆞ부ᄃᆡ 새ᄀᆞᆫᄃᆡ 지아ᄂᆡ

말ᄉᆞᆷ글 ᄀᆞᄉᆞ 젼ᄋᆞᆯ 시험ᄒᆞ며 보ᄅᆞᆫ ᄒᆞᆼ시

숭실대본 ≪을병연행록 권 5≫ 원문



이상으로 한글본과 한문본을 살펴 보았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글본은 날짜순으로 기록한 반면 한문본은 주제별로 작성이 되어 각각 다른 목적과 의도에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글본은 한글 계층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널리 읽히다가 궁중의 장서각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문본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1.3. 연구사

≪을병연행록≫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관계로 ≪을병연행록≫의 고전문학· 역사적인 측면의 연구, 한글 필사본 연구, 국어 통사 구조의 연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에 관한 연구는 한문본인 ≪담헌 연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이나 역사 분야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21] 이 연구들은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8세기 실학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로는 강동엽(1988), 김문식(1994), 김태준(1983, 1984), 박성래(1976, 1981), 유봉학(1982), 이인규(1977), 임기중(1993), 황원구(1973) 등을 들 수 있다. 《을병연행록》과 《담헌서》에 관련된 연구들은 김태준(1981, 1982, 1983, 1985, 1996), 소재영(1984, 1985), 이상은(1974) 등을 들 수 있으며, 홍대용에 대한 연구는 김태준(1987, 1991), 신동욱(1982), 이이화(1985, 1988), 조광(1980), 천관우 (1984) 등을 참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홍대용과 ≪을병연행록≫연구에 대한 주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담헌서'에 대한 '文學', '史學', '哲學', '科學'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가 '진단학회(1994)'에서 이루어진 바도 있다. [22]

지금까지 한글 필사본 자료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언간, 언간독, 한글 필사본과 한글 고문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언간은 구어체 필사자료로 각 계층을 망라한 생활과 의식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김일근(1986)에서는 시기를 초월한 언간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는데 연구 대상을 언간 뿐만아니라 한글 문서까지 포괄하여 문학, 역사, 민속 등의 측면을 다루었다. 언간의 국어학적 연구에서는 1977년 충북 청주 순천김씨묘에서 출토된 언간(전철웅, 1995의 판독문)과

21) 여기서 말하는 ≪연행록≫은 한글 필사본과 한문본을 포함한다.
22) 이외의 고전문학과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업적으로는 참고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1989년 4월 경북 달성 소재 진주하씨묘에서 출토된 언간을 자료로 하여 이들 언간에 나타난 상대경어법을 다룬 황문환(1997), 현풍 곽씨 언간을 다룬 백두현을 (1997, 1998)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밖의 연구로는 필사본 諺文簡札에 대한 국어학적 분석을 다룬 정신문화연구(1996)를 들 수 있다.

언간독에 대한 연구로는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던 한글 편지의 套式을 모아 방각본으로 간행된 '諺簡牘'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장서각 소장, 경북대 남권희 교수가 소장한 27개의 언간독을 유형화하여 분류한 홍은진(1997, 1998ㄱ, 1998ㄴ, 1999ㄱ, 1999ㄴ)을 참조할 수 있다. 홍은진(1999)에서는 이들 언간독 가운데 '징보언간독'을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한글 필사본 연구는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年代 추정의 어려움으로 세조 10년 상원사 중창권선문과 선조 26년의 선조 국문유서를 비롯하여 적은 분량의 언간 만이 언급되어 왔다. 그렇지만 吏讀와 관련된 자료를 연구하면서 한글 필사본 자료의 중요성, 古文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古文書는 발급한 날짜가 분명하여 필사 당시의 자연 언어 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글 필사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로는 안병희(1999), 이광호(1999), 이현희(1999) 등을 들 수 있다. 안병희(1999)에서는 王室資料인 한글 필사본(18・19세기 필사 추정)의 書名에 대한 주의점을 시작으로 그 내용을 '經史子集'[23]으로 나누어 국어사 자료로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였다. 즉, '書名'은 현대어 발음으로 고쳐 써서 채택하고, 국어사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의 연구, 필사본의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한글 궁체의 체계적인 연구를 언급하였지만 개략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다. 이광호(1999)에서는 53권 53책인『죠야쳠지』(19세기)에서 보이는 의문법을 '-고'계와 '-가'계로 나누어 17세기에 정착된 근대국어 의문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현희(1999)에서는 장서각의 한글 문헌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藏書閣 소장의 英祖代 한글 문헌'의 목록과 그 성격을 소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필사본의 국어학적 연구는 자료의 방대함과 작성 연대 추정의 어려움으로 내용 소개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글 고문서에 대한 연구로는 홍은진(1988)과 조선후기 한글 고문서의 양식을 '토지매매문서', '牌字', '노비 매매 문서', '手標・手記', '告目'으로 나누어 '작성연원일, 받는 사람,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계약 위배시의 문제, 작성자 성명과 署名' 등으로 나누어 양식과 특징을 살펴본 홍은진(2000)을 들 수 있다.

중세국어의 용언에 나타난 통사 구조는 15세기 국어의 인용구문의 구조를 다룬 강인선

---

23) 그렇지만 이미 잘 알려진 集部의 국문소설류는 제외하여 다루었다.

(1977), 15세기 국어의 구문을 유형별로 나누어 문법사적인 측면에서 다룬 이현희(1988ㄴ, 1990ㄱ, 1991ㄱ, ㄴ, 1994)가 있다. 16세기 국어 역시 16세기 문헌의 동사구문을 유형별로 살펴본 한재영(1996)을 들 수 있다.

문법 층위에서 그 변화 양상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권재일(1985, 1987, 1988, 1989ㄱ, ㄴ, 1991ㄱ, ㄴ)을 들 수 있다. 현대국어의 그것은 강은국(1993), 고영근(1969ㄱ,ㄴ), 배해수(1977), 성광수(1971), 정교환(1974), 조항근(1974), 천기석(1970)을 들 수 있으며, 고영근(1986), 엄정호(1989), 이남순(1984, 1985), 이익섭(1978) 등에서도 용언의 통사구조를 다루고 있다. 근대국어 용언의 통사구조를 다룬 연구는 아주 적은 편이다.

지금까지 ≪을병연행록≫의 고전문학·역사학적인 측면의 연구, 국어의 한글 필사본 연구, 국어 통사 구조에 관한 연구 업적들을 살펴보았는데 ≪을병연행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적들은 고전문학·역사학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을병연행록≫이 필사되었던 18세기 국어의 연구 업적 가운데 문법론, 문법사의 대부분은 판본 중심의 문헌들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필사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활발히 그것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는 국어사적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본과 필사본 문헌에 나타난 언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2. ≪을병연행록≫과 국어문법사

중세국어의 형식명사의 성립조건과 형태, 통사론적 특성은 고영근(1982/1995:69-94), 정호완(1987), 이주행(1987)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형식명사 가운데 중세국어에서와 차이를 보이는 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ㄱ. 반찬 어려온 줄을 모ᄅᆞ고 왕ᄂᆡᄒᆞ니라 (1: 5ㄱ)

ㄱ'. 그 우희 젹셜이 ᄡᅡ혀 ᄆᆞᆯ을 ᄐᆞ고 디나ᄆᆡ 강인 줄을 ᄭᆡ닷지 못ᄒᆞᆯ너라 (1: 15ㄴ)

ㄱ'. 이날 블너 귀경ᄒᆞᆯ 곳을 뭇고 ᄯᆞ라 ᄃᆞᆫ닐 줄을 니ᄅᆞᄃᆡ (5: 10ㄱ)

ㄴ. 아문이 ᄆᆞ양 이곳을 념녀ᄒᆞ야 ᄆᆞᆯ을 ᄐᆞ고 가ᄂᆞᆫ 냥을 보면 필연 의심이 이실 거시니 (6: 13ㄴ)

ㄴ'. 내 ᄀᆞᆯ오ᄃᆡ 내 집을 ᄯᅥ나올 ᄯᅢ의 겨오 니러셔ᄂᆞᆫ 냥을 보아시니 (2: 23ㄱ)

ㄷ. 이번은 일기 이러ᄒᆞ니 밋쳐 합빙ᄒᆞᆯ 니 업ᄉᆞ리라 ᄒᆞ더니 (1: 5ㄴ)

중세국어에서는 형식명사 '줄'에 대격조사가 통합한 예가 거의 없었는데,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위의 예문 (1ㄱ, ㄱ')에서처럼 대격조사에 결합한 예가 많이 보인다. (1ㄴ, ㄴ')의 '냥'은 원래 중세국어에서의 '양'(←樣)을 이어받은 것이다. 표기상의 차이를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1ㄷ)의 '니'는 근대국어 단계에 새로이 쓰이기 시작한 '리'(←理)가,[24] 'ㄹㄹ'의 연쇄가 'ㄹㄴ'으로 많이 적히는 이 시기의 표기 경향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난 것이다.

중세국어의 미지칭에는 '어느', '어듸', '므스', '므슥', '므슴', '현마', '언마', '엇뎨', '엇디', '엇더ᄒᆞ-' 등이 있고, 부정칭으로는 '아모', '아ᄆᆞ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중세국어 이래 未知稱으로만 사용되던 '엇더ᄒᆞ-', '어느', '므슴'과 같은 것들은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부정칭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

24) '리(理)'는 완전명사로 받아졌을 가능성이 컸을 듯하나, 여기서는 현대국어에서처럼 형식명사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명사 '길(ㅎ)'이 사용된 다음의 예도 환경에 따라 완전명사가 형식명사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었음을 암시한다.

귀경도 잘ᄒᆞᆯ 길히 업ᄉᆞ니 브ᄃᆡ 미리 아름즉ᄒᆞᆫ 거시오 (1: 6ㄱ)

위 예의 '잘ᄒᆞᆯ 길히 업ᄉᆞ니'는 문자 그대로 "잘할 길이 없으니"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으나, 문맥상으로는 오히려 "잘할 수(방법)가 없으니"로 파악하여 '길(ㅎ)'이 형식명사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2) ㄱ. 어ᄃᆡ셔 종 치ᄂᆞᆫ 소ᄅᆡ 나거ᄂᆞᆯ 아ᄒᆡᄃᆞ려 무로니 ᄃᆡ답ᄒᆞᄃᆡ (1: 27ㄴ)

ㄴ. 문 밧긔 나가니 겻집으로셔 쥬인 계집이 무ᄉᆞᆫ 그ᄅᆞᄉᆞᆯ 들고 나오다ᄀᆞ (1: 22ㄴ)

ㄷ. 무ᄉᆞᆷ 분부ᄒᆞᆯ 일이 이시면 뒤희 사ᄅᆞᆷ이 ᄆᆞᆯ을 모라 압희 와 말을 듯고 (2: 19ㄴ)

ㄹ. 그 겨집이 본 체ᄅᆞᆯ 안이ᄒᆞ고 무ᄉᆞᆷ 말을 일양ᄒᆞ더니 안ᄒᆞ로셔 엇던 사람이 나오ᄃᆡ 관원의 모양이라 (6: 10ㄱ)

위 (28ㄱ)의 ‘어ᄃᆡ셔’, (28ㄴ)의 ‘무ᄉᆞᆫ’, (2ㄷ, ㄹ)의 ‘무ᄉᆞᆷ’ 다 부정칭으로 사용되었다.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부사 ‘그르’에 접미사 ‘-ㅅ’이 더 통합한 ‘그릇’이라는 파생부사가 새로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그릇’은 보이지 않고 모음조화에서 어긋난 ‘그ᄅᆞᆺ’이 보인다.25)

(3) ㄱ. 아ᄅᆡ 션 즁이 ᄂᆡ 말을 그ᄅᆞᆺ 드러 벗겨 보쟈 ᄒᆞᄂᆞᆫ 말노 듯고 크게 노ᄒᆞ야 (중략) ᄂᆡ ᄀᆞᆯ오ᄃᆡ ᄂᆡ 말을 그ᄅᆞᆺᄒᆞ엿거니와 너희도 잘못 드럿다 ᄒᆞ니 (3: 3ㄱ)

ㄴ. ᄒᆞᆫ 번 밤의 ᄲᅡᄒᆞᆯ 식 도적과 셔로 어즈러워 그ᄅᆞᆺ 우리 군ᄉᆞᄅᆞᆯ 무슈히 죽이니 일노ᄒᆞ야 거의 ᄑᆡᄒᆞᆯ 번 ᄒᆞ니라 (3: 11ㄴ)

ㄷ. 여러 말을 슈작ᄒᆞ니 그ᄅᆞᆺᄒᆞᄂᆞᆫ 말이 이시면 (4: 24ㄴ)

ㄹ. 그ᄃᆡᄂᆞᆫ 그ᄅᆞᆺ 드ᄅᆞᆫ 말이로다 (13: 12ㄱ)

ㅁ. 손개 ᄀᆞᆯ오ᄃᆡ 셩을 헐믄 그ᄅᆞᆺ 뎐ᄒᆞᆫ 말이라 ᄒᆞ거ᄂᆞᆯ (19: 16ㄴ)

ㅂ. 셔반 구실이 만일 ᄆᆞ옴을 그ᄅᆞᆺ 가지면 (20: 7ㄴ)

중세국어의 부사 ‘將次・쟝ᄎᆞ’, ‘이믜’, ‘ᄌᆞᄆᆞ・ᄌᆞ모’에 접미사 ‘-ㅅ’이 통합하여 파생부사 ‘將次ㅅ・쟝ᄎᆞᆺ’, ‘이믯’, ‘ᄌᆞ못’이 형성된 것처럼, 원래 형용사 ‘그르-’에서 영파생에 의해 형성된 부사 ‘그르’에 ‘-ㅅ’이 통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가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26)

조사가 그 기능이나 의미의 변화를 겪은 것은 주로 근대국어 초기로부터로 볼 수 있다. 특히 문법화 과정뿐만 아니라 각 통사범주의 변화와 조사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형태상으

25) ‘그르-’가 ‘그ᄅᆞ-’로도, ‘그릇’이 ‘그ᄅᆞᆺ’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은 ‘서르’가 ‘서ᄅᆞ’로도 나타나던 현상과 동궤의 것이다. 이와 같이 모음조화를 어기는 표기양상은 17세기 국어 자료에서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6) 형용사 ‘그르-’에 강세접미사 ‘-ㅊ-’이 통합한 것이 중세국어의 ‘그릋-’인데 근대국어 단계에서 그에서 다시 영파생에 의해 형성된 파생부사가 ‘그릇’이라고 달리 파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현희 1997 참조). 이 문헌에는 ‘그릇’이 보이지 않고 ‘그ᄅᆞᆺ’이 보였던 것과 평행하게 ‘그릋-’이 보이지 않고 ‘그ᄅᆞᆾ-’이 보인다. 이러한 점은 ‘뉘 감히 그ᄅᆞᆺᄎᆞ리오 ᄒᆞ더라 (1: 21ㄴ)’에서 ‘그ᄅᆞᆾ-’의 한 예를 보인다.

로나 통사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예컨대 속격조사 '-ㅅ'이 존칭의 의미를 잃는다든가, 호격조사 '-하'가 존칭의 기능을 잃는 것, 탈격의 기능을 나타내던 '-ᄭᅴ셔'가 존칭을 표시하는 주격 표지의 조사로 변화한 것은 17세기 말경의 일이었다. 17세기 국어까지는 존칭의 주어 명사구에 일치하는 동사구에 존경법의 선어말어미 '-시-'를 통합시키기도 하고 통합시키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의 근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 '-ᄭᅴ셔'가 통합한 명사구에 일치하는 동사구에서는 예외없이 '-시-'를 통합시키고 있다. 따라서 탈격의 '-ᄭᅴ셔'가 주격의 기능으로 변하는 것은 경어법의 변화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17세기 초부터이며 그 완성은 18세기 중기로 볼 수 있는데 조사의 변화는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져 온다.

이 문헌에서 나타나는 조사 가운데 중세국어의 그것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격 표지이다. 중세국어 단계에서 '-의그에/-ㅅ그에', '-의거긔/-ㅅ거긔', '-의게/-ᄭᅴ', '-ᄃᆞ려'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던 여격조사는 근대국어 단계에서 평칭의 '-의게', 존칭의 '-ᄭᅦ'로 거의 통일되었다고 말해지곤 한다. 또한, 중세국어에서는 '게'가 '-ㅅ'이나 '-의'가 개재되지 않은 채 명사구에 직접 통합하는 예는 극히 드물어 'ᄆᆞᆯ'(馬)에 '게'가 직접 통합한 'ᄆᆞᆯ게' 정도만 확인되었으나, 이 문헌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명사구에 '게'가 직접 통합한 듯한 예가 상당수 목격된다. 이것은 18세기 후반의 국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4) ㄱ. 나무 ᄉᆞᆺ히 두 줄을 ᄆᆡ여 <u>나귀게</u> 메여시ᄃᆡ 밧겻 쥴은 길고 (2: 10ㄴ)
ㄴ. 됴졍 ᄌᆡ상이 셰비ᄅᆞᆯ 위ᄒᆞ야 길히 ᄀᆞ득ᄒᆞ여시니 만일 만나면 <u>우리게</u> 큰 ᄉᆡᆼ경이 될 거시니 (5: 26ㄱ)
ㄷ. <u>계부게</u> 나가ᄂᆞᆫ ᄉᆞ연을 엿ᄌᆞ온ᄃᆡ ᄇᆞᄃᆡ 일즉이 도라와 아문의 욕이 업게 ᄒᆞ라 ᄒᆞ시더라 (6: 2ㄴ)

(5) ㄱ. 도라와 밥을 먹은 후의 <u>계부긔</u> 악가의 말ᄉᆞᆷ을 ᄉᆞ로고 (2: 6ㄱ)
ㄴ. 졔되 극히 빗나고 <u>ᄆᆞᆯ긔</u> 메오기ᄂᆞᆫ 안장으로 ᄀᆞᆽ초아시ᄃᆡ (3: 21ㄱ)
ㄷ. 그ᄅᆞᄉᆞᆯ ᄂᆡ여 <u>ᄉᆞ신긔</u> 드리고 버거 날을 먹이며 (5: 14ㄴ)

위의 예 (4)는 속격조사 '-의'나 '-ㅅ'을 개재시키지 않은 채 명사구에 '게'가 직접 통합한 예들이다. 근대국어 단계의 문헌에 'ᄆᆞᆯ' 같은 명사에 '-ㅅ'이 더 개재되어 있는 예도 없지 않으나[예: ᄆᆞᆯ<u>ᄭᅦ</u> 쒸여 오르다(한청문감 4:90)], 그러한 예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일뿐더러, 이 문헌에는 그러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5)의 예들은 명사구에 '게'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긔'도 직접 통합할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긔'는 17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예로(김승곤 1978: 114),

‘끠’에서 존칭을 나타내던 ‘ㅅ’이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물’에도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역시 존칭으로 사용하지 않은 듯하다.

다음은 ‘-으로셔’의 예들이다. 그 기능이 변화한 것이 주목된다.

(6) ㄱ. 괴이타 네 유문의 무리로셔 호반의 의복을 도ᄅᆞ혀 종ᄉᆞᄒᆞ는도다 (1: 4ㄱ)
ㄴ. 세 건냥으로셔 각각 됴희와 부체롤 주어 ᄂᆡ여 보ᄂᆡ니 하인들이 닐오ᄃᆡ (7: 13ㄱ)

(7) 그 졔도롤 ᄌᆞ시 아지 못ᄒᆞ나 다만 여러 집을 다 오ᄉᆡᆨ 디와로셔 긔여 니어시ᄃᆡ 온갓 쏫문을 ᄆᆡᄃᆞ라 히빗치 ᄇᆡ이미 찬난ᄒᆞᆷ들 형용치 못홀 거시오 (9: 21ㄴ)

(8) ㄱ. 졔독이 쏘 말을 보ᄂᆡᄃᆡ 만일 엄히 다ᄉᆞ리지 아니면 아문으로셔 다시 다ᄉᆞ리리라 ᄒᆞ니 일이 ᄀᆞ장 욕된지라 (10: 16ㄱ)
ㄴ. 아국이 근년의 흑각이 극귀ᄒᆞᆫ지라 묘당으로셔 흑각 일쳔댱을 사 오라 ᄒᆞ야 ᄉᆞ힝의 관ᄌᆞ롤 ᄒᆞ야시니 샹방 건냥관 됴명회롤 맛뎌는지라 (11: 32ㄱ)
ㄷ. 잇는 토산이 업셔 이리 초초ᄒᆞ니 허믈치 말나 ᄒᆞ고 ᄉᆞ힝으로셔 각각 면피롤 보ᄂᆡ여시ᄃᆡ 회례홀 계교롤 아니ᄒᆞ니 고이ᄒᆞ더라 (12: 5ㄴ)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으로셔’가 시발점의 기능을 보였으나 위 (6)의 ‘-으로셔’는 자격의 기능을 보이며, (7)의 ‘-으로셔’는 도구의 기능을 보이고, (8)의 ‘-으로셔’는 경로의 기능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27]

중세국어 명사 ‘즈슴’에서 변화된 ‘즈음’이 명사적인 용법 외에 조사적인 용법을 보이는 현상이 보인다.

(9) ᄒᆞᆫ 아히 안으로셔 나오니 나히 열여닐곱 즈음이오 인믈이 심히 단정ᄒᆞ거늘 (4: 26ㄴ)

---

27) 물론 이 문헌에서도 ‘-으로셔’가 시발점의 기능을 보이는 예들을 살필 수 있는데, 이런 용법을 보이는 예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

강 우흐로셔 믈 ᄐᆞᆫ 군ᄉᆞ들이 함셩을 웅장이 지ᄅᆞ고 (1: 13ㄴ)
강ᄀᆞ의 절벽이 쳔 쳑이 넘으니 우흐로셔 ᄎᆞ마 아래롤 보디 못홀디라 (1: 14ㄱ)
문 밧긔 나가니 겻집으로셔 쥬인 계집이 무슨 그ᄅᆞ술 들고 나오다ᄀᆞ (1: 22ㄴ)

중세국어의 명사 ‘즈슴’은 “간격, 사이”라는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불완전명사였었는데, 그에서 변화한 ‘즈음’이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미들 외에 “쯤, 정도”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더 가지게 된 것이다.[28)]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겟-’(내지 ‘-ᄀᆡᆺ-’)이 새로이 출현하였음이 특징적이다. 이 형태는 ‘-게 ᄒᆞ엿- ~ -게 ᄒᆞ여시- > -게 엿- ~ *-게 여시- > -겟-(-ᄀᆡᆺ-) ~ -게시-(-ᄀᆡ시-) > -겠-’과 같은 단계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문법화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0) ㄱ. ᄂᆡ일 일즉 와 문을 여러 <u>드리게 ᄒᆞ엿다</u> ᄒᆞ니 (1: 19ㄴ)
ㄴ. 쥬인이 ᄀᆞᆯ오ᄃᆡ 도라올 적은 다 <u>알게 ᄒᆞ엿다</u> ᄒᆞ더라 (1: 25ㄱ)
ㄷ. 거ᄆᆞᄅᆞᆯ 통티 못ᄒᆞ게 ᄒᆞ고 ᄉᆞᄅᆞᆷ이 겨오 <u>나들게 ᄒᆞ엿더라</u> (3: 27ㄴ)
ㄹ. 나ᄂᆞᆫ 가난ᄒᆞᆫ 사ᄅᆞᆷ이라 갑시 만흐면 못 <u>사게 ᄒᆞ엿노라</u> (4: 13ㄴ)
ㅁ. 이런 치위의 어러 죽기 <u>쉽게 ᄒᆞ엿다</u> <u>ᄒᆞ고</u> (7: 10ㄱ)

(11) ㄱ. 이리 막아 셔시니 답답ᄒᆞ여 못 <u>견ᄃᆡ게 ᄒᆞ여시니</u> 너희 날을 블상이 넉여 조곰 플너 셔미 엇더ᄒᆞ뇨 (2: 27ㄴ)
ㄴ. ᄆᆞᆺᄎᆞᆷᄂᆡ 저의 ᄯᅳᆺ을 펴지 <u>못ᄒᆞ게 ᄒᆞ야시니</u> 극히 ᄋᆡᄃᆞᆯ온지라 (4: 18ㄱ)
ㄷ. 그 살흘 남그를 ᄆᆞᆫ든 거시오 씃히 ᄉᆞ쌜 고도리를 박앗시ᄃᆡ 속이 뷔고 여ᄉᆞᆺ 굼글 ᄯᅮ러 소ᄅᆡ를 <u>나게 ᄒᆞ여시니</u> 일홈은 향븍두라 ᄒᆞ더라 (4: 29ㄴ)
ㄹ. 여러 귀를 이 온갓 흉독ᄒᆞᆫ 형벌을 베프러 못 견ᄃᆡ여 ᄒᆞᄂᆞᆫ 거동이 ᄎᆞᆷ아 보지 <u>못ᄒᆞ게 ᄒᆞ여시니</u> 이ᄂᆞᆫ 쳔만죄악의 음픙이 웃듬이오 사람의 뎨일 경계ᄒᆞᆯ 일을 알 게 ᄒᆞᆫ고로 각별이 흉ᄒᆞ게 ᄆᆞᆫᄃᆞᆯ미러라 (4: 32ㄴ)

(12) 차를 권ᄒᆞ려 ᄒᆞᄃᆡ 밧바 못 <u>먹ᄀᆡᆺ노라</u> ᄒᆞ고 문을 나니 (2: 21ㄴ)

(10)과 (11)의 예들에서는 장형사동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 이 문헌에는 (10)과 같은 ‘-게 ᄒᆞ엿-’의 예는 많이 나타나나 (11)의 ‘-게 ᄒᆞ야시-’ 내지 ‘-게 ᄒᆞ여시-’나 (12)의 ‘-ᄀᆡᆺ-’은 많이 나오지 않는 점이 특이하게 보인다. ‘-ᄀᆡᆺ-’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도 이 문헌이 19세기 이전의 국어를 담고 있음을 방증해 준다.

28) 19세기 국어에서는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즈음’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쯤’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이현희 1994 참조).

15세기 국어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연결어미 '-ㄴᄃᆡ'(내지 '-ㄴ데')는 '-ㄴ# ᄃᆡ'라는 통사적 구성이 문법화 과정을 거쳐 16세기 국어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법화한 '-ㄴᄃᆡ'는 '-ㄴ댄'이 먼저 'ㄴ' 탈락을 경험하고 모음이 달리 표기된 '-ㄴᄃᆡ'와는 구분되어야 한다.[29] 이 문헌에 나타나는 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ㄱ. 이 ᄯᅳᆺ을 ᄉᆞᆯ와 가기ᄅᆞᆯ 쳥ᄒᆞᆫᄃᆡ 냥친이 ᄯᅩᄒᆞᆫ 평ᄉᆡᆼ의 고심이 잇ᄂᆞᆫ 쥴 아ᄅᆞ시ᄂᆞᆫ디라 (1: 3ㄱ)

ㄴ. 내 왕가ᄃᆞ려 드러ᄀᆞ 보고져 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니ᄅᆞᆫᄃᆡ 왕개 ᄀᆞᆯ오ᄃᆡ 이곳은 죡히 볼 거시 업ᄉᆞ니 (2: 20ㄱ)

ㄷ. ᄒᆞᆫ 번 만나고져 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니ᄅᆞᆫᄃᆡ 다 ᄀᆞᆯ오ᄃᆡ (8: 3ㄱ)

ㄹ. ᄂᆡ 드ᄃᆡ여 캉의 올나 방석 우히 ᄭᅮ러 안ᄌᆞᆫᄃᆡ 종밍이 ᄯᅩ 편히 안ᄌᆞ믈 여러 번 쳥ᄒᆞ거ᄂᆞᆯ (7: 17ㄱ)

ㅁ. 내 쥬인ᄃᆞ려 무ᄅᆞᆫᄃᆡ 겨집이 ᄯᅩᄒᆞᆫ 머리ᄅᆞᆯ ᄡᅡᄂᆞᆫ ᄂᆡᆯ이 업ᄉᆞ니 이ᄂᆞᆫ 아ᄒᆡ 죵이라 (2: 22ㄴ)

(14) ㄱ. 만일 이러ᄒᆞᆯ진ᄃᆡ ᄂᆡ 황뎨의게도 절ᄒᆞ기ᄅᆞᆯ 욕되이 너겨 (8: 4ㄱ)

ㄴ. 나ᄂᆞᆫ ᄯᅳᆺᄒᆞ건ᄃᆡ 그 노야의 말이 일시 ᄇᆞ졀업ᄉᆞᆫ 긔롱이 아닌가 넉이노라 (4: 20ㄴ)

ㄷ. 업드려 ᄉᆡᆼ각건ᄃᆡ 신원의 큰 복을 바다시리로다 (7: 20ㄴ)

ㄹ. ᄯᅩ 니ᄅᆞ건ᄃᆡ 미원댱과 됴숑셜 두 사ᄅᆞᆷ은 아담ᄒᆞᆫ 픙운이 쳔고의 일홈을 드리오고 문목을 슝샹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우러러 흠모ᄒᆞ미 ᄐᆡ산 북두와 다ᄅᆞᆷ이 업ᄉᆞ나 유식ᄒᆞᆫ 군ᄌᆞ로 볼진ᄃᆡ 그 ᄃᆡ교ᄅᆞᆯ 듯지 못ᄒᆞ고 ᄒᆞᆫ갓 적은 ᄌᆡ조로 일ᄉᆞᆷ으미 ᄂᆞᆽ고 ᄂᆞᄌᆞ니 엇지 족히 일ᄏᆞᄅᆞᆯ 거시 이시리오 (14: 32ㄱ)

ㅁ. 만일 다시 먹을진ᄃᆡ 이ᄂᆞᆫ 기리 법을 모ᄅᆞᄂᆞᆫ ᄉᆞ람이 될지라 (17: 17ㄱ)

(13)의 '-ㄴᄃᆡ'는 문법화를 겪고 생성된 연결어미이지만, (14)의 '-ㄴᄃᆡ'와 '-건ᄃᆡ'는 중세국어의 '-올 딘댄'과 '-건댄'에서 '-오-'의 소멸 및 'ㄴ' 탈락의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나온 것이다. 중세국어에는 이들과는 그 기능이 전혀 다른 연결어미 '-ㄴ대'("-니까"의 의미를 가짐)가 존재하였으나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극히 위축되어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

29) 'ㆍ'가 비음운화하면서 그것이 'ㅏ'로 적혀 나올 수 있었던 한편, 역으로 'ㅏ'는 'ㆍ'로도 적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구개음화가 극성에 이르렀을 때 'ㄷ, ㅌ'이 'ㅈ, ㅊ'으로 표기되는 한편, 역으로 원래의 'ㅈ, ㅊ'이 'ㄷ, ㅌ'이나 'ㄱ, ㅋ'으로 잘못 표기되던 양상과 동궤의 것이라고 할 만하다.

중세국어 단계에서 '만ᄒᆞ-'(多), '올ᄒᆞ-'(是)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용언들은 근대국어 초기 단계에 '많-'과 '옳-'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어간의 재구조화 현상을 본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5) ㄱ. 이즈음 니ᄅᆞ러 길가의 비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흐ᄃᆡ 아ᄒᆡ ᄃᆞ린 계집이 만하 혹 아ᄒᆡ롤 ᄀᆞᄅᆞ쳐 길 ᄀᆞᄒᆡ 업ᄃᆡ여 절ᄒᆞ고 ᄀᆞᆯ오ᄃᆡ (4: 10ㄴ)

ㄴ. 남 편의 ᄒᆞᆫ 푸지 ᄀᆞ장 보암즉ᄒᆞᆫ 셔칙이 만타 ᄒᆞ거ᄂᆞᆯ (8: 13ㄴ)

ㄷ. 몽고 ᄉᆞ람이 목욕을 위ᄒᆞ여 머므ᄂᆞ니 만흐ᄃᆡ 다 인믈이 녕한ᄒᆞ여 아국 ᄉᆞ람을 보ᄆᆡ 젼혀 녜법이 업고 (19: 20ㄱ)

ㄹ. 수리롤 힝ᄒᆞ야 큰 ᄂᆡ흘 건너니 이ᄂᆞᆫ 소릉하 상뉴오 길이 ᄀᆞ장 너ᄅᆞ고 거ᄆᆞ와 힝인이 극히 만흔지라 (19: 21ㄱ)

(16) ㄱ. 악개 고개롤 그덕이고 ᄀᆞᆯ오ᄃᆡ 올타 ᄒᆞ니 건냥관이 ᄀᆞᆯ오ᄃᆡ 가속을 만니의 니별ᄒᆞ고 (2: 5ㄱ)

ㄴ. 은이 남을 거시니 젹디 아닌 지믈을 일홈 업시 구쳐ᄒᆞᆯ 길히 업ᄉᆞ니 엇지ᄒᆞ여야 올흐리오 (8: 1ㄴ)

ㄷ. 그ᄃᆡ 동모 ᄒᆞ나히 우리 나오믈 보고 ᄀᆞ장 욕저은 말이 이시니 사람의 본심을 술피지 아니ᄒᆞ고 외국 사람을 공연히 침노ᄒᆞ미 올흐냐 (11: 10ㄴ)

ㄹ. 왕개 듯고 노야의 말이 올타 ᄒᆞ고 나가더라 (11: 17ㄱ)

ㅁ. 엄싱이 ᄀᆞᆯ오ᄃᆡ 피ᄎᆞ의 셩의롤 귀히 넉임이 올흐니 (13: 17ㄴ)

(15)는 어간 '많-'이 쓰인 예들을 보이고, (16)는 어간 '옳-'이 쓰인 예들을 보인다. (15ㄱ)에 보이는 '만하'라는 어형은 어간 '많-'의 존재를 극명하게 잘 보여 준다. (16)의 예들은 '옳-'에 어미가 통합한 어형이다. 어간 형태소가 '올ᄒᆞ-'였었다면 '올ᄒᆞ리오'나 '올ᄒᆞ니'로 나타났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올하'라는 어형이 나타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쉽게도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중세국어의 '졈-'은 "幼"의 의미와 "壯"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30] 근대국어 단계에 '어리-'가 "愚"에서 "幼"로의 의미변화를 일으킴으로써 "幼"의 의미를 가졌던 '졈-'은 사라지고 "壯"의 의미를 가지는 '졈-'만 살아 남게 되었다.

30) 그러나 "幼"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많이 보이고, "壯"의 의미로 사용된 예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다는 차이가 있었다.

(17) ㄱ. 나히 어리고 인믈이 믭지 아니타 ᄒᆞ야 내게로 보ᄂᆡ엿더라 (1: 26ㄴ)
ㄴ. 왕개 나히 어려 (1: 33ㄱ)

(18) ㄱ. 쥬인의 나히 졈고 심히 경망ᄒᆞᆫ 인믈이라 (2: 29ㄴ)
ㄴ. 님가ᄂᆞᆫ 나히 졈고 인믈이 조츌ᄒᆞᄃᆡ (5: 27ㄱ)
ㄷ. 즁국 사람과 분변이 잇고 나히 늙어 슈발이 세여시나 얼골은 졈으니 긔쉭이오 두 눈이 깁고 ᄆᆡᆼ녈ᄒᆞ야 (7: 23)
ㄹ. 져녁의 져믄 쥬인을 블너 말을 슈쟉ᄒᆞᆯ ᄉᆡ 노비 브리ᄂᆞᆫ 법을 므ᄅᆞ니 ᄃᆡᄃᆡ로 노비ᄅᆞᆯ 삼ᄂᆞᆫ 법이 업ᄭᅩ 다만 ᄉᆞ람을 어더 집의셔 기로면 졔 몸이 ᄆᆞᆺ도록 ᄉᆞ환을 당ᄒᆞ고 혹 서로 ᄆᆡᄆᆡᄒᆞᄂᆞᆫ 법이 잇다 ᄒᆞ더라 (19: 20ㄴ)

예문 (17)에서는 ‘어리-’가 “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8)에서는 ‘졈-’이 “壯”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8ㄷ)의 ‘졈으니’는 “젊으니”의 의미를 가진다. ‘졈-’과 ‘어리-’의 의미 변화와 어휘의 경쟁 현상은 형태변화까지 일으켜 ‘졈-’이 ‘졂-’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19세기 국어에서까지도 ‘졈지 아는 사ᄅᆞᆷ이 졀문 사ᄅᆞᆷ과 힐란ᄒᆞ야 무엇허리(정정인어대방 6:5)’에서처럼 ‘졈-’과 ‘졂-’이 공존하고 있었으나(이현희 1994: 65), 이 자료에는 아직 ‘졂-’이 보이지 않았다.

중세국어의 동사 ‘우ᇫ-(笑)’은 “ㅿ”의 음가 소실로 인해 ‘우어, 우으니’ 등의 활용형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 문헌에는 그 외에 방언형이라고 판단되는 ‘웃-’의 활용형도 함께 나타난다.

(19) ㄱ. 압희 나아ᄀᆞ 소ᄅᆡ를 크게 ᄒᆞ야 ᄀᆞᆯ오ᄃᆡ 극히 황공ᄒᆞᄋᆞᆸ거니와 쇼인이 능히 ᄃᆡ힐가 ᄒᆞᄂᆞ이다 ᄒᆞ니 여러 역관이 다 우음을 ᄎᆞᆷ디 못ᄒᆞ여 믈너가니 (2: 22ㄴ)
ㄴ. 모ᄅᆞᄂᆞᆫ 속인의 우음을 ᄯᅩᄒᆞᆫ 붓그릴 거시 업술지라 (4: 7ㄱ)
ㄷ. 말이 드믈고 우숨을 즐기지 아니ᄒᆞ니 (8: 5ㄱ)

‘우ᇫ-’의 사동사는 ‘우ᇫ이-’로서 그 후대형은 ‘우이-’로 나타난다. 그런데 ‘웃-’의 사동사는 ‘웃기-’일 터인데 이 문헌에서는 ‘우이-’는 보이지만[예: 노야의게 우임을 볼가 붓그려 ᄒᆞᄂᆞ니라 (4: 4ㄴ)], ‘웃기-’는 보이지 않는다.

인용이란 언어 형식을 표현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필영 1993:12)으로 여기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인용은 형식 위주의 인용이고 간접 이용은 내용 위주의 인용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인용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 인용은 ‘본래의 언어 형식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간접 인용

은 '본래의 언어 형식을 인용 화자가 임의로 그것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바꾸어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세국어에서 피인용문 뒤에 나오던 인용동사 'ᄒᆞ-'는 뒷 구절과 이어질 때 'ᄒᆞ고'보다는 대개 'ᄒᆞ야'로 나타났었는데(이현희 1986 참조), 이 자료에는 'ᄒᆞ야'와 'ᄒᆞ고'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난다. 여기서 살펴볼 인용문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있었던 'ᄒᆞ야'를 포함하여 아주 다양한 양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편의상 피인용은 ' '로 표시하기로 한다.

(20) ㄱ. '여예 다시 이 곳의 니ᄅᆞ면 즉시 ᄂᆞ와 보리니 브ᄃᆡ 알게 ᄒᆞ라' ᄒᆞ고 왕ᄌᆞ롤 향ᄒᆞ야 여러 번 치샤ᄒᆞ니 (8:10ㄱ)

ㄴ. 앗가 당상 역관들이 저롤 블너 '임의로 아문의 말을 통ᄒᆞ고 귀경ᄒᆞᆯ 길히 일족이 여러 싱ᄉᆞᄒᆞ기롤 념녀티 아니ᄒᆞ다' ᄒᆞ고 ᄭᅮ지ᄌᆞ니 극히 민망ᄒᆞ여라 ᄒᆞ니 (6: 2ㄱ)

(21) ㄱ. '그 사람이 말을 몰나 듯는다' ᄒᆞ야 사람을 블너 '지필을 ᄀᆞ져오라' ᄒᆞ고 긔식이 졈졈 황망ᄒᆞ야 소견이 고이ᄒᆞ거늘 (8: 17ㄱ)

ㄴ. 부식 ᄯᅩᄒᆞᆫ 가는 길힉 뉴리챵을 드러 셔칙 잡믈을 귀경코져 ᄒᆞ니 날을 '여러 슌 ᄃᆞᆫ니고 약간 말을 통ᄒᆞᆫ다' ᄒᆞ야 ᄒᆞᆫ가지로 가기로 간권ᄒᆞ니 (9: 1ㄴ)

(20)은 근대국어 단계에서 새로이 보이기 시작한 'ᄒᆞ고'가 통합된 예들이고, (21)은 중세국어적인 'ᄒᆞ야'가 통합된 예들이다. 중세국어에서 연결어미 '-고'의 영역까지 아울러 나타낼 수 있었던 연결어미 '-아'가 그 영역을 대폭적으로 '-고'에 넘겨 주게 됨으로써 'ᄒᆞ야' 외에 'ᄒᆞ고'도 이런 환경에서 쓰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피인용문과 그 후행문 사이에 'ᄒᆞ야'가 게재된 예로 다양한 구문으로 나타난다. 이현희(1985)에서는 중세국어에서의 간접인용구문, 의도 · 목적구문, 의심구문에 나타나는 'ᄒᆞ야'의 공통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들을 묶어 내적 화법이라고 부른 바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ᄒᆞ야'는 대개 인용동사와 이어지지만 여기서는 그 외에 다른 문장과 이어져 나타나기도 한다.

(22) ㄱ. 혹 'ᄌᆞ뎨 군관이라' ᄒᆞ야 겻상ᄒᆞ야 주는 곳 잇더라 (1: 5ㄴ)

ㄴ. 하속들이 '나으리라' 일ᄏᆞᆺ고 잇는 곳을 '비댱쳥이라' ᄒᆞ야 진디와 힝ᄎᆞ 거춰를 무로니 극히 우ᄉᆞ오ᄃᆡ ᄒᆞᆯ 일이 업더라 (1: 5ㄱ)

ㄷ. '먹으면 ᄀᆞ장 됴타' ᄒᆞ거늘 '가져오라' ᄒᆞ여 ᄆᆞ라 먹으ᄃᆡ 산도빨노 지은 밥이라

마시 ᄃᆞᄅᆞ고 여러 음식을 먹은 숫치라 만히 먹지 못ᄒᆞᆯ너라 (2: 9ㄴ)

ㄹ. 보기ᄅᆞᆯ 파ᄒᆞ고 문을 나매 김가 관원이 ᄉᆞ힝을 제 집의 잠간 쉬여 차ᄅᆞᆯ 권코쟈 ᄒᆞ니 ᄉᆞ힝이 '블안ᄒᆞ다' ᄒᆞ여 아니 드러가니 계뷔 ᄯᅩᄒᆞᆫ 바로 도라 가시고 나ᄂᆞᆫ 쥬인의 집으로 다시 드러ᄀᆞ 차 두어 그ᄅᆞ슬 먹고 도라올시 쥬인이 문의 와 보ᄂᆡ거ᄂᆞᆯ 낭즁의 큰 쳥심환 ᄒᆞ나흘 내여 쥬니라 (2: 31ㄱ)

ㅁ. 쥬인ᄃᆞ려 귀경ᄒᆞ기ᄅᆞᆯ 쳥ᄒᆞ니 쥬인이 ᄀᆞ로ᄃᆡ '귀경ᄒᆞᄂᆞᆫ 사람이 다 젼긔라' ᄒᆞ여 맛초ᄂᆞᆫ디라 (6: 7ㄱ)

중세국어에서 인용동사 앞에 오는 'ᄒᆞ야'는 일종의 전이어의 성격을 가지는 형식동사적인 것이었지만, 피인용문과 일반 문장 사이에 오는 'ᄒᆞ야'는 '닐어'의 대동사적인 성격을 가졌었다. 그러나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전이어의 성격을 가지는 'ᄒᆞ야'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피인용문 뒤에 'ᄒᆞ고'가 온 예들이다.

(23) ㄱ. 'ᄌᆞ가ᄂᆞᆫ 회환ᄒᆞᆯ ᄯᅢᄂᆞᆫ 역관의 진일이 업더니라' ᄒᆞ고 인ᄒᆞ야 한어로 여러 말을 ᄒᆞ더라 (1: 6ㄱ)

ㄴ. 마두ᄃᆞ려 무로니 'ᄭᅯᆼ을 몃치나 어덧ᄂᆞ냐' ᄒᆞ니 'ᄒᆞ나도 못 어덧노라' ᄒᆞ고 고기ᄅᆞᆯ 잡앗ᄂᆞ냐 ᄒᆞ니 없다 ᄒᆞᆫ다 ᄒᆞ고 혹 됴션말노 ᄃᆡ답ᄒᆞ다 ᄒᆞᄃᆡ 다 아라 드ᄅᆞᆯ 길히 업더라 (1: 18ㄱ)

ㄷ. 상히 심히 쥰슈ᄒᆞ거ᄂᆞᆯ 캉 우희 올녀 안티고 말을 무로니 '글은 ᄉᆞ셔ᄅᆞᆯ 닑엇노라' ᄒᆞ고 거동이 극히 녕니ᄒᆞ더라 (1: 27ㄴ)

ㄹ. 졔 혹 됴을닌 ᄢᅢ면 ᄆᆞᆯ채ᄅᆞᆯ 날을 맛뎌 노애 'ᄆᆞ을 보라' ᄒᆞ고 내 무룹흘 베고 누어 이릐ᄒᆞᄂᆞᆫ 거동을 ᄒᆞ니 극히 우ᄉᆞ오ᄃᆡ 먼길의 ᄯᅩᄒᆞᆫ 소일ᄒᆞᆯ 도리 되고 나도 ᄯᅩᄒᆞᆫ 조을닐 적이 만흐니 만일 좀을 드러ᄂᆞᆫ 병이 나기도 쉬올 ᄲᅮᆫ 아니라 머리ᄅᆞᆯ ᄌᆞ로 다쳐 ᄃᆡ단히 상ᄒᆞ고 놀나올 적이 만흐니 (2: 1ㄴ)

ㅁ. 왕가ᄅᆞᆯ 식여 '무ᄉᆞᆷ 말을 ᄒᆞ라' ᄒᆞ면 왕개 'ᄒᆞᆯ 말이 업노라' ᄒᆞ고 왕왕이 괴로이 넉일 적이 잇더라 (2: 2ㄱ)

ㅂ. 그 연고ᄅᆞᆯ 무로니 '말이 이셔도 길히셔 니ᄅᆞ라' ᄒᆞ고 가기ᄅᆞᆯ 지촉ᄒᆞ거ᄂᆞᆯ (2: 3ㄴ)

ㅅ. 그 즁 ᄒᆞᆫ ᄉᆞ름이 덕유ᄅᆞᆯ 보고 '평안ᄒᆞ더냐' ᄒᆞ고 심히 반겨ᄒᆞ니 (2: 28ㄴ)

이미 16세기 국어에서 나타나던 현상이었지만, 연결어미 '-아/어'는 종속적 연결어미의 성격을 띠는 '-고'[31]에 의해 상당한 부분이 대체되게 되었다. 중세국어에서 연결어미 '-고'의

영역까지 아울러 나타낼 수 있었던 연결어미 '-아'가 그 영역을 대폭적으로 '-고'에 넘겨 주게 됨으로써 'ᄒᆞ야' 외에 'ᄒᆞ고'도 이런 환경에서 쓰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ᄒᆞ고'는 두 피인용문 사이에서 게재되어 두 피인용문을 잇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예들을 잘 살펴보면 'ᄒᆞ고' 앞에 오는 문장들은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등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의 'ᄒᆞ고'도 '니ᄅᆞ고'와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는 대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계사에 결합되어 나타나는 피인용문의 양상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24) ㄱ. ᄃᆡ청 뒤히 ᄒᆞᆫ 누의 올나 안ᄌᆞ니 누 일홈은 '운영누라' ᄒᆞ엿더라 (1: 7ㄴ)
ㄴ. 이 벽 일홈은 '쳥뉴벽이라' ᄒᆞ엿더라 (1: 8ㄴ)
ㄷ. 나와 강당의 안ᄌᆞ니 현판의 '홍범당이라' ᄒᆞ엿더라 (1: 10ㄴ)
ㄹ. ᄃᆡ 우희 두 층 놉흔 집이 이시니 현판의 '슝덩뎐이라' ᄒᆞ엿더라 (2: 30ㄱ)
ㅁ. 뎡문의 다혀시니 좌편은 '비룡각이라' ᄒᆞ엿고 우편은 '샹봉각이라' ᄒᆞ엿더라 (2: 30ㄴ)

이들은 命名의 기능을 한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NPi-ᄋᆞᆯ NPi-이 NP-이라 ᄒᆞ-'의 구조에서 동일지시적인 명사구가 생략됨으로써 나타난 문장들이 (24)의 문장들이다. (24ㄴ, ㅁ)의 '이 벽 일홈은'과[32] '좌편은' 및 '우편은'은 'NPi-ᄋᆞᆯ' 부분이 주제어로 실현되어 나온 것이다. 이러한 문장들에서 피인용문 뒤에 오는 'ᄒᆞ-'도 화법동사 '니ᄅᆞ-'의 대동사라고 파악된다. 그러한 사실은 'ᄀᆞ온ᄃᆡ 큰 현판의 금ᄌᆞ롤 삭여시ᄃᆡ 인졍 창화라 ᄒᆞ야시니 옹뎡의 어필이라 니ᄅᆞ고 (5: 2ㄴ)'와 같은 문장이 잘 보인다.

명명 표현과 관련하여 'NP_1-이라 ᄒᆞᄂᆞᆫ NP_2'와 같은 명사구도 주목된다.

(25) ㄱ. 안히 벽댱을 ᄡᆞ라실 분이로ᄃᆡ 안계의 광활ᄒᆞ믄 년관뎡과 다로미 업고 압흐로 능나되라 ᄒᆞᄂᆞᆫ 셤 졀 뒤히 ᄒᆞᆫ 줄노 ᄲᅡᆫ 우믈이 이시니 (1: 9ㄴ)
ㄴ. ᄉᆞ방으로 도라 보니 젹셜이 뫼와 들을 덥헛고 셩 밧 남 편의 남당이라 ᄒᆞᄂᆞᆫ 녀염이 셩안이 예셔 비히 더 번셩ᄒᆞ야 (1: 11ㄴ)
ㄷ. 십늌일 가산 슉소 십칠일 뎡위 슉소ᄒᆞ고 십팔일 션쳔 니ᄅᆞ니 이곳의 의검뎡이라 ᄒᆞᄂᆞᆫ 집이 ᄯᅩᄒᆞᆫ 일홈잇ᄂᆞᆫ 누각이라 (1: 12ㄱ)

31) 연결어미 '-고'는 대등적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것과 종속적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것의 두 종류가 존재한다.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종속적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고'와 '-아/어'의 교체 현상이다.
32) 'ᄒᆞᆫ 발 남글 넙게 다ᄃᆞ마 엇게의 메고 두 ᄭᅳᆺ히 줄을 ᄆᆡ여 셥흘 ᄃᆞ라시니 이것 일홈을 편담이라 ᄒᆞᄂᆞᆫ디라 (4: 8ㄱ)'와 같은 예문이 그 사실을 잘 보인다.

ㄹ. 이 집은 오뉵십 간이 남고 새로 슈부ᄒᆞ야 관쳥이 찬난ᄒᆞ고 셔편은 관덕당이라 ᄒᆞᄂᆞᆫ 집이니 활 ᄡᅩᄂᆞᆫ 곳이라 (1: 12ㄱ)

ㅁ. 좌챠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의쥐셔 수릐를 ᄆᆞᆫ다라 우흘 가마 모양으로 ᄭᅮ며 ᄐᆞ고 가ᄂᆞᆫ 거시라 (1: 15ㄴ)

ㅂ. 븍 편으로 ᄇᆞ라보니 놉흔 누각이 졔되 당ᄂᆡᄒᆞ니 이ᄂᆞᆫ 뇽봉ᄉᆞ라 ᄒᆞᄂᆞᆫ 졀이라 (1: 28ㄴ)

ㅅ. 허로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국슈 모양이오 분탕이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슈면 모양이오 변시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만두 모양이니 (1: 30ㄴ)

ㅇ. 댱궤디를 브ᄅᆞ니 댱궤디라 ᄒᆞᄂᆞᆫ 것ᄉᆞᆫ 숫박 죵놈이 ᄀᆞᆺᄐᆞᆫ 것시라 (1: 30ㄴ)

ㅈ. 징ᄌᆞ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마을악이 우희 쥬홍실 영ᄌᆞ를 덥고 영ᄌᆞ 우희 ᄯᆞ로 ᄒᆞ여 박은 거시오 (1: 31ㄴ)

ㅊ. 다만 셕탄ᄂᆡ로 ᄒᆞ야 머리 알프고 숨이 눅눅ᄒᆞ야 오래 안ᄌᆞ실 길히 업ᄉᆞ니 셕탄이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돌로 ᄆᆞᆫ든 숫티니 (2: 27ㄱ)

ㅋ. 졍관이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븍경셔 아국 ᄉᆞ힝관원을 녜브터 삼십으로 뎡ᄒᆞ엿ᄂᆞᆫ지라 (5: 6ㄴ)

중세국어에서는 'NP$_1$-이라 {ᄒᆞ논, 혼} NP$_2$'식 표현이나 'NP$_1$-이랏 NP$_2$'식 표현이 주를 이루었는데,[33] 근대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오-'가 쇠퇴함으로써 'ᄒᆞ논'이나 '혼'이 아니라 'ᄒᆞᄂᆞᆫ'이나 'ᄒᆞᆫ'이 개재되거나 '-ㅅ' 대신 '-ㄴ'이 개재된 표현이 나타나게 되었다(이현희 1986 참조). 그런데 이러한 'ᄒᆞᄂᆞᆫ', 'ᄒᆞᆫ' , '-ㄴ' 등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ᄯᅩ 슈빅 보를 힝ᄒᆞ여 ᄯᅩ 픠쥐 이셔 슝교방이라 ᄒᆞ여시니 사람 ᄀᆞᄅᆞ치믈 슝상ᄒᆞᆫ다 말이라(6: 18ㄴ)'와 같은 문장이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ᄒᆞ니'가 앞뒤 문장을 연결해 주는 문장은 선행문이 후행문에 대해 전제의 기능을 한다.

(26) ㄱ. '뇽마를 ᄐᆞ고 굴노 드러가 난을 면ᄒᆞ다' ᄒᆞ니 그 말이 극히 허황ᄒᆞ고 죠고만 우믈의 깁흔 구멍을 보디 못ᄒᆞ니 후릐의 메이여 막힌가 시브더라 (1: 9ㄱ)

ㄴ. '고기를 잡앗ᄂᆞ냐' ᄒᆞ니 없다 ᄒᆞᆫ다 ᄒᆞ고 혹 됴션말노 ᄃᆡ답ᄒᆞ다 ᄒᆞᄃᆡ 다 아라 드를 길히 업더라 (1: 18ㄱ)

ㄷ. '우리 말을 만히 안다' ᄒᆞ니 더러 드러지라 ᄒᆞ니 희미히 웃고 ᄃᆡ답ᄒᆞᄃᆡ(1:26ㄱ)

ㄹ. 젹은 집이 이셔 아로삭인 창에 단쳥을 ᄉᆞ려히 ᄒᆞ엿거ᄂᆞᆯ '문을 열나' ᄒᆞ니 ᄒᆞᆫ ᄉᆞ룸이 문을 열고 (1: 29ㄱ)

---

33) 드물게 'NP$_1$-이라 {ᄒᆞᄂᆞᆫ, ᄒᆞᆫ} NP$_2$'식 표현도 보이기는 하였다.

ㅁ. 내 벼술을 뭇거늘 닉 공작우롤 ᄀᆞᄅᆞ쳐 '새로라' ᄒᆞ니 동힝 역관들이 듯고 웃더라 (1: 31ㄴ)

ㅂ. '쥬인을 블너 ᄃᆞ리라' ᄒᆞ니 쥬인이 두어 번 ᄃᆞ딕고 힘을 쟈랑ᄒᆞᄂᆞᆫ 긔식이 잇더라 (2:12ㄱ)

ㅅ. 닉 벼술 픔슈롤 뭇거늘 '션비로라' ᄒᆞ니 (20: 6ㄴ)

ㅇ. 길ᄀᆞ의 셧다가 ᄒᆞᆫ 군ᄉᆞ롤 블너 승부롤 무롤시 '너희 군ᄉᆞᄂᆞᆫ ᄒᆞᆫ번도 픽치 아니ᄒᆞ엿ᄂᆞ냐' ᄒᆞ니 그 군ᄉᆡ 듯고 크게 놀나 창황이 제 귀롤 막으니 이ᄂᆞᆫ 군즁의 픽ᄒᆞ다 ᄒᆞᆷ을 듯기의 샤외ᄒᆞᄂᆞᆫ 일인가 시브다 ᄒᆞ더라 (20: 8ㄱ)

ㅈ. 동기창의 그림 유무롤 뭇거늘 '진젹이 업ᄂᆞ니라' ᄒᆞ니 셰관이 닐오딕 이 그림은 즁국도 진젹이 극히 드므러 만일 진젹을 엇고져 ᄒᆞ면 갑시 빅냥이 넘는다 ᄒᆞ더라 (20: 22ㄴ)

위 (26)의 예문에서 S[34] ᄒᆞ니'라는 선행문은 후행문에 대해 전제의 기능을 한다. 중세국어에서라면 'S ᄒᆞᆫ대'로 표현되었을 곳이다. 연결어미 '-ㄴ대'는 근대국어에 들어 매우 위축되어 쓰이기 때문에 'S ᄒᆞ니'[35]와 같은 표현이 나타났음이 주목된다.

다음은 화법동사가 피인용 앞으로 전치된 문장 표현들이다.

중세국어에서 '닐오딕 S ᄒᆞ-'에 오는 S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다 가능하였는데 이는 근대국어의 모습을 보여 주는 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세국어에서 'S (ᄒᆞ야) 니ᄅᆞ-'에서 '니ᄅᆞ-'는 S 앞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 화법동사에는 양보 · 전제의 의미를 가지는 '-오딕'가 통합하여 피인용문과 연결되었다. 여기서 '닐오딕'는 후행문인 피인용문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는 통사적 기능을 갖게 된다. 중세국어의 '니ᄅᆞ-'는 이동한 후에 대동사 'ᄒᆞ-'가 뒤에 남기도 하지만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였고, S가 직접인용문일 경우에는 잘 생략됨을 볼 수 있었다(이현희 1986 참조).

(27) ㄱ. 닉 젼닙을 ᄀᆞ릭쳐 닐오딕 '여긔 눈이 만히 잇다' ᄒᆞ거늘 놀나 버셔 보니 ᄒᆞᆫ 편의 눈이 허여킈 두어줌이 엉긔여 흔드러도 즉시 쩌러디지 아닛는디라 (1: 17ㄴ)

ㄴ. 하인들이 다 우셔 닐오딕 '안즈신 곳이 방이라' ᄒᆞ니 (1: 21ㄱ)

ㄷ. 내 ᄯᅩ ᄀᆞᆯ오딕 '아국의 금녕이 이셔 먹디 못ᄒᆞ노라' ᄒᆞᆫ딕 그 사ᄅᆞᆷ이 동뉴롤 도

34) 여기서 S는 피인용문을 대신하는 기호로 사용하기로 한다.

35) 근대국어에서 어미 '-ㄴ대'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쓰임새가 매우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ㄴ대' 대신 '-니'가 쓰였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 보아 ᄀᆞᆯ오ᄃᆡ '술을 먹으라' ᄒᆞ니 '무삼 금녕이 잇다' ᄒᆞ니 고이ᄒᆞ도다 (1:29ㄴ)

ㄹ. 두예ᄅᆞᆯ 덥고 두예 틈으로 조금 마셔 뵈며 니로ᄃᆡ '이리ᄒᆞᄂᆞᆫ 거시라' ᄒᆞ니 (2: 8ㄴ)

ㅁ. 니ᄅᆞᄃᆡ '음식이 이졋디 못ᄒᆞ여 궁지 다만 맛만 보고 바이 안히 먹으니 무류ᄒᆞ다' ᄒᆞ더라 (2: 9ㄴ)

ㅂ. 쥬인이 아ᄅᆡ셔 건냥관ᄃᆞ려 니ᄅᆞᄃᆡ '어미 노병이 이셔 쳥심환을 엇고ᄌᆞ ᄒᆞᆫ다' ᄒᆞ거ᄂᆞᆯ (2: 17ㄴ)

ㅅ. 덕형이 닐오ᄃᆡ '이곳은 다 아희들을 모화 노름을 식이ᄂᆞᆫ디라 ᄆᆞᆯ식과 절치 ᄃᆡ단티 아니ᄒᆞ니 다ᄅᆞᆫ ᄃᆡ로 가자' ᄒᆞ거ᄂᆞᆯ (6: 6ㄱ)

ㅇ. 셰팔이 닐오ᄃᆡ '이ᄂᆞᆫ ᄆᆡ매ᄒᆞᄂᆞᆫ 사람이 이거술 가져 힝인을 만히 모하 졔 ᄆᆡᄆᆡ의 우익ᄒᆞ게 ᄒᆞᆷ이라' ᄒᆞ더라 (6: 16ㄴ)

ㅈ. 셰팔이 닐오ᄃᆡ '년젼의 셔장이 이 남글 ᄃᆡ술이 ᄎᆞ져 보며 닐오ᄃᆡ 녯 일긔의 이 남기 드럿다 ᄒᆞ더라' ᄒᆞᄃᆡ (6: 20ㄱ)

ㅊ. 덕유ᄅᆞᆯ 보ᄂᆡ여 은가의 집을 뭇고 다시 만나기ᄅᆞᆯ 쳥ᄒᆞ라 ᄒᆞ니 도라와 니로ᄃᆡ '집은 하다문 밧기니 다시 보쟈' ᄒᆞ더라 ᄒᆞᄃᆡ (6: 6ㄱ)

ㅋ. 종슌이 ᄀᆞ마니 닐오ᄃᆡ '황샹을 보ᄂᆞᆫ다' ᄒᆞ거ᄂᆞᆯ (20: 8ㄴ)

ㅌ. 덕위 닐오ᄃᆡ '져믄 쥬인이 구지 감초고 누누히 모ᄅᆞ노라' ᄒᆞ야 'ᄒᆞᆫ가지로 너희 노야ᄅᆞᆯ 보아 발명ᄒᆞ리라' ᄒᆞ거ᄂᆞᆯ (20: 6ㄱ)

ㅍ. 이윽고 도란와 닐오ᄃᆡ 아문의 나아ᄀᆞ 이 ᄉᆞ연을 니ᄅᆞᆫᄃᆡ 셔통관이 ᄃᆡᄉᆞ와 다ᄅᆞᆫ 통관의 말을 드럿ᄂᆞᆫ지라 쾌히 허락ᄒᆞ야 닐오ᄃᆡ '궁ᄌᆞ의 귀경ᄒᆞᄂᆞᆫ 뜻을 ᄂᆡ 임의 아라시니 사람을 적게 ᄃᆞ리고 임의로 ᄃᆞᆫ니라' ᄒᆞ고 (7: 3ㄱ)

ㅎ. 슈역이 닐오ᄃᆡ '우리 둘흔 ᄒᆞᆫ 탁ᄌᆞ의 먹으려니와 궁ᄌᆞᄂᆞᆫ ᄯᆞᆫ 탁ᄌᆞᄅᆞᆯ 노흐라' ᄒᆞ니 쥬인이 '아노라' ᄒᆞ고 (2: 8ㄴ)

위의 예들은 다 모두 화법동사 '니ᄅᆞ-'가 피인용문 앞으로 나감으로써 그 뒤에 대동사 'ᄒᆞ-'를 남긴 문장들이다. 중세국어에서처럼 '닐오ᄃᆡ'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니로ᄃᆡ'나 '니ᄅᆞᄃᆡ'로 나타난 것은 '-오ᄃᆡ'의 '오'가 소멸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인다. (27ㅂ)의 '년젼의 셔장이 이 남글 ᄃᆡ술이 ᄎᆞ져 보며 닐오ᄃᆡ 녯 일긔의 이 남기 드럿다 ᄒᆞ더라 ᄒᆞᄃᆡ' 부분은 피인용문 속에 다시 피인용문이 들어 있음을 보인다. 'ᄒᆞ더라'는 가운데 들어 있는 '닐오ᄃᆡ'의 대동사이며 'ᄒᆞᄃᆡ'는 '셰팔이 닐오ᄃᆡ'에 들어 있는 '닐오ᄃᆡ'의 대동사이다. 또한 (27ㅅ)의 '도라와 니로ᄃᆡ 집은 하다문 밧기니 다시 보쟈 ᄒᆞ더라 ᄒᆞᄃᆡ'의 'ᄒᆞ더라'는 '니로ᄃᆡ'의 대동사이지만 'ᄒᆞᄃᆡ'는

그에 대등하는 ‘니ᄅᆞ-’ 동사가 문면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음은 피인용문 S가 직접인용문으로 사용된 예문이다. 피인용문 S는 중세국어 시기에서처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다 가능하다.

(28) ㄱ. 부ᄉᆡ 날ᄃᆞ려 <u>니ᄅᆞᄃᆡ</u> ‘우리ᄂᆞᆫ 체면의 거리껴 두루 보디 못ᄒᆞ거니와 그ᄃᆡᄂᆞᆫ 허물이 업ᄉᆞ니 두로 ᄌᆞ셔히 보고 됴흔 말을 더러 듯게 ᄒᆞ라’ (1: 23ㄴ)

ㄴ. 내 ᄃᆡ흰 사ᄅᆞᆷᄃᆞ려 <u>니로ᄃᆡ</u> ‘ᄂᆡ 절을 ᄒᆞ고져 ᄒᆞ니 엇더ᄒᆞ뇨’ (2: 16ㄱ)

ㄷ. ᄂᆡ 캉의 ᄂᆞ려 읍ᄒᆞ야 마ᄌᆞ니 쥬인이 븟잡아 닐오ᄃᆡ ‘이거시 ᄂᆡ 집이니 먼 ᄃᆡ 손이 엇지 쥬인을 마ᄌᆞ리오’ (2: 32ㄱ)

ㄹ. 쥬인이 <u>닐오ᄃᆡ</u> ‘어로쇠ᄅᆞᆯ 보앗ᄂᆞ냐’ (2: 32ㄴ)

ㅁ. 내 <u>닐오ᄃᆡ</u> ‘보디 못ᄒᆞ엿노라’ (2: 32ㄴ)

ㅂ. ᄂᆡ 왕가ᄃᆞ려 <u>니ᄅᆞᄃᆡ</u> ‘이 휘항이 여긔 이시니 네 엇디 모ᄅᆞ노라 ᄒᆞᄂᆞᆫ다’ (3: 18ㄴ)

위의 예문은 S가 직접인용의 피인용문으로 쓰였으며 대동사 ‘ᄒᆞ-’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은 문장들이다.

이외의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9) ㄱ. 졔 ᄯᅩᄒᆞᆫ ᄃᆡ답ᄒᆞᄃᆡ ᄒᆞᆫ 말을 아라 듯디 못ᄒᆞ고 마두ᄃᆞ려 무ᄅᆞ니 ‘쪙을 몃치나 어덧ᄂᆞ냐’ ᄒᆞ니 ‘ᄒᆞ나토 못 어덧노라’ ᄒᆞ고 ‘고기ᄅᆞᆯ 잡앗ᄂᆞ냐’ ᄒᆞ니 ‘업다 ᄒᆞᆫ다’ ᄒᆞ고 혹 ‘됴션말노 ᄃᆡ답ᄒᆞᆫ다’ ᄒᆞᄃᆡ 다 아라 드ᄅᆞᆯ 길히 업더라 (1: 18ㄱ)

ㄴ. 집의 톱과 ᄃᆡ픠 이시니 아국 댱인의 ᄡᅳᄂᆞᆫ 것과 ᄀᆞᆺ고 셰 길은 ᄒᆞᆫ 긴 남긔 삼디창을 맛초아 셰웟거ᄂᆞᆯ 무로니 ‘고기 잡ᄂᆞᆫ 연장이라’ ᄒᆞ더라 (2: 2ㄴ)

ㄷ. ‘ᄂᆡ 업노라’ ᄒᆞ고 무어ᄉᆡ ᄡᅳ믈 므로니 ‘희ᄌᆞ 노름ᄒᆞᆯ ᄡᆡ의 ᄡᅳᆫ다’ ᄒᆞ더라 (2: 6ㄴ)

ㄹ. 왕가ᄃᆞ려 무ᄅᆞ니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니블 ᄃᆡᆷ이라’ ᄒᆞ더니 수리ᄅᆞᆯ 힝ᄒᆞ야 (3: 8ㄱ)

ㅁ. 그 ᄉᆞ싱을 무ᄅᆞ니 ‘셩은 쥬요 이곳 션비라 맛ᄎᆞᆷ 나갓다’ ᄒᆞ거ᄂᆞᆯ (20: 3ㄱ)

ㅂ. 그 긔이ᄒᆞᆫ 경치ᄅᆞᆯ 니로 긔록지 못ᄒᆞ고 두어 즁과 도ᄉᆞ ᄒᆞ나히 이셔 ᄃᆡ졉이 관곡ᄒᆞ고 차ᄅᆞᆯ 권ᄒᆞ거ᄂᆞᆯ 이ᄯᅢ 심히 번갈ᄒᆞ여 년ᄒᆞ야 서너 그ᄅᆞ술 마시며 산즁의 고젹을 무ᄅᆞ니 도ᄉᆡ 여러 말을 ᄃᆡ답ᄒᆞᄃᆡ 분명치 못ᄒᆞ고 글ᄌᆞᄅᆞᆯ 젼혀 아지 못ᄒᆞ니 ᄌᆞ시 무ᄅᆞᆯ 길히 업더라 (20: 16ㄱ)

ㅅ. 아국 ᄉᆞ람이 초막을 의지ᄒᆞ고 머므ᄂᆞ니 잇거ᄂᆞᆯ 무ᄅᆞ니 ‘의쥐 문안 군관이 창군

을 거느려 문 열기를 기다린다' ᄒᆞ더라 (20: 20ㄱ)

위 (29)의 '무로니', '므로니', '무ᄅᆞ니'도 중세국어에서라면 '무른대'로 나타났을 것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S ᄒᆞ니'가 중세국어에서는 'S ᄒᆞᆫ대'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파악한 것과 동궤의 현상이다. 이 (29 ㅂ)은 '묻-' 뒤에는 'ᄃᆡ답호ᄃᆡ' 식 표현이 나타난 예이다.

중세국어에서처럼 '드로니 S ᄒᆞ-' 식 표현이 이 문헌에서도 보인다.

(30) ㄱ. 내 어졔 쥬인의게 드ᄅᆞ니 '이즈음 년시 참흉이라' ᄒᆞ니 (2: 4ㄱ)
ㄴ. 뎐의 드ᄅᆞ니 '한녀ᄂᆞᆫ 발이 젹은고로 바람이 블면 ᄃᆞᆫ니지 못ᄒᆞ고 ᄃᆞᆫ녀도 ᄇᆞᄅᆞᆷ벽을 븟들고 겨오 건ᄂᆞᆫ다' ᄒᆞ더니 (4: 10ㄴ)
ㄷ. 셰팔이 닐오ᄃᆡ '젼의 드ᄅᆞ니 과거 뵈ᄂᆞᆫ 곳이라 ᄒᆞ더라' ᄒᆞᄃᆡ (6: 19ㄴ)
ㄹ. ᄇᆡᆨ경셔 왕가의 아비 말을 드ᄅᆞ니 '왕가의 혼인을 뎡ᄒᆞ야 ᄇᆡᆨ경 져재의 여러 필 비단을 사간다' ᄒᆞ거ᄂᆞᆯ (20: 11ㄴ)

'드ᄅᆞ니 S ᄒᆞ-'로 표현되는 점이 중세국어의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30ㄷ)의 'ᄒᆞ-'는 '듣-'의 대동사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현희 1994 참조).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현대국어와 비교해 볼 때 체언에 보조사, 인칭, 의문사의 사용에 따라 형태가 달리 나타난다.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의문문들은 15세기 이후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ㄴ고', '-ㄴ가' 의문문 중에서 '-ㄴ고'가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물론 '-ㄴ가' 어미도 사용되지만 그 예는 '-ㄴ고'에 비해 아주 적은 편이다. 중세국어의 '-ㄴ고', '-ㄴ가' 의문문은 간접의문문에 쓰이던 어미로서 주어는 1인칭이나 3인칭으로 화자의 내적 의구심을 나타내는 예가 많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직접의문문에 사용된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2인칭 직접의문어미 '-ㄴ다'는 근대국어 시기에는 쇠퇴기에 있었던 의문어미로서 이 자리에 '-냐', '-뇨'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본 자료에서는 '-뇨', '-냐'와 마찬가지로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는 근대국어 시기의 '-ㄴ다'를 단순히 쇠퇴하는 과정에 있었던 의문형 어미라고 말하기는 어렵게 한다. 본 자료에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와 호응되어 '-ㄴ다'가 나타난다.[36] 이 2인칭 의문문에 사용되었던 '-ㄴ다'가 다소 쇠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36) 이현규(1995)에서는 17・18세기에 주로 의문사가 있는 구조에서 '-ㄴ다'의문문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이 나타나는 문헌이 16세기나 그 이전에 초간본을 내었던 중간본이기에 '-ㄴ다'는 보수적인 표기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도 보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도 '-ㄴ다'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판본 중심의 중간본에만

생명력은 끈질겨서 개화기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본 자료에서 보이는 '-ㄴ다' 의문문 중 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ㄱ. 그러ᄒᆞ면 어이 즉시 니ᄅᆞ디 아니ᄒᆞᆫ다 (2: 7ㄱ)
ㄴ. 그ᄃᆡ 무ᄉᆞᆷ 벼ᄉᆞᆯ이며 과거ᄅᆞᆯ ᄒᆞ엿ᄂᆞᆫ다 (2: 32ㄱ)
ㄷ. 아ᄂᆞᆫ다 ᄒᆞ거ᄂᆞᆯ (3: 2ㄴ)
ㄹ. 그러ᄒᆞ면 그ᄃᆡ 어이 절을 아니ᄒᆞᄂᆞᆫ다 (3: 2ㄴ)
ㅁ. 그 득실이 내게 관계ᄒᆞᆫ 일이 업ᄂᆞᆫ 줄을 네 아ᄂᆞᆫ다 (3: 24ㄱ)
ㅂ. 십니 밧긔 이시ᄃᆡ 천여년 픙산의 남은 거시 업ᄉᆞ니 무어ᄉᆞᆯ 귀경코ᄌᆞ ᄒᆞᄂᆞᆫ다 (4: 5ㄱ)
ㅅ. 네 호두셕을 아ᄂᆞᆫ다 (4: 5ㄴ)
ㅇ. 언졔 나라흘 ᄯᅥ나시며 어ᄃᆡ셔 ᄇᆡᄅᆞᆯ ᄂᆞ려 븍경을 언졔 드러왓ᄂᆞᆫ다 (5: 14ㄴ)
ㅈ. 네 어인 놈인다 (6: 5ㄱ)
ㅊ. 무ᄉᆞᆷ 벼ᄉᆞᆯ이며 셔울을 무ᄉᆞᆫ 일노 왓ᄂᆞᆫ다 (6: 12ㄱ)
ㅋ. ᄯᅩ 무ᄅᆞᄃᆡ 만세산의 ᄌᆞ명종이 이시니 귀경ᄒᆞ얏ᄂᆞᆫ다 (12: 2ㄴ)

이들은 평칭의 2인칭 주어 '너'나 '그ᄃᆡ'와 '-ㄴ다' 의문어미와 일치하는 예들이다. 'ᄒᆞ라체'의 성격을 가지며 '-ㄴ다' 어미에 통합하는 서술어로는 동사나 계사는 가능하지만 형용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중세국어에서와 같다(이현희 1982ㄱ 참조).

중세국어 시기에는 3인칭 주어에만 호응하여 쓰였던 '-ㄴ가'와 '-ㄴ고'는 이 자료의 예에서는 2인칭주어와 호응해서도 나타난다.

(32) ㄱ. ᄂᆡ 너ᄅᆞᆯ 여러 번 ᄭᅮ지져 갑 바들 계교ᄅᆞᆯ 말니기ᄂᆞᆫ 무ᄉᆞᆷ ᄆᆞ음으로 그리ᄒᆞᄂᆞᆫ고 (3: 24ㄱ)
ㄴ. 은딩ᄌᆞᄅᆞᆯ 다라시니 무ᄉᆞᆫ 픔인고 (4: 28ㄱ)
ㄷ. 녯 사ᄅᆞᆷ이 과거ᄅᆞᆯ ᄃᆞᆼᄒᆞ야 일홈 브ᄅᆞ믈 ᄃᆞ로ᄆᆡ 오ᄉᆞᆯ ᄯᅥᆯ치고 믈너간 사ᄅᆞᆷ이 이시니 이ᄂᆞᆫ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런고 (15: 21ㄱ)

(32ㄱ, ㄴ)의 예들은 2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문장들이고, (32ㄷ)은 3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문장이다.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한글 필사자료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냐', '-뇨' 의문어미가 사용된 예문들이다.

(33) ㄱ. 무삼 일을 <u>일웟더뇨</u> (1: 16ㄱ)

ㄴ. ᄉᆞ롬을 엇디 가난으로 <u>의논ᄒᆞᄂᆞ뇨</u> (2: 3ㄴ)

ㄷ. 네 집 농ᄉᆞᄂᆞᆫ <u>엇더ᄒᆞ뇨</u> (2: 4ㄱ)

ㄹ. 첫번이면 엇디 말을 능히 <u>ᄒᆞᄂᆞ뇨</u> (2: 32ㄱ)

ㅁ. 노애 무ᄉᆞᆷ 과거ᄅᆞᆯ ᄒᆞ여시며 ᄐᆡ혹 조교ᄂᆞᆫ 무ᄉᆞᆷ <u>벼ᄉᆞᆯ이뇨</u> (2: 32ㄴ)

ㅂ. ᄂᆡ ᄀᆞᆯ오ᄃᆡ 너희 혼인 ᄒᆞᄂᆞᆫ 녜문은 <u>엇더ᄒᆞ뇨</u> (3: 13ㄱ)

(34) ㄱ. 첫 길히 능히 한어ᄅᆞᆯ <u>ᄒᆞ더냐</u> (2: 7ㄱ)

ㄴ. 네 아비ᄅᆞᆯ 보고 절ᄒᆞᄂᆞᆫ 닐이 업ᄉᆞ니 너희 풍속이 본ᄃᆡ <u>이러ᄒᆞ냐</u> (2: 7ㄴ)

ㄷ. ᄂᆡ ᄀᆞᆯ오ᄃᆡ 네 댱가ᄅᆞᆯ <u>드렷ᄂᆞ냐</u> (3: 13ㄱ)

(35) ㄱ. 네 풍뉴ᄅᆞᆯ 드로니 엇지 비창ᄒᆞᆫ ᄆᆞ음이 <u>잇ᄂᆞ냐</u> (1: 28ㄱ)

ㄴ. 쥬인 아희 드러 오거ᄂᆞᆯ ᄂᆡ 무ᄅᆞᄃᆡ 그 션비 밧비 나가니 무ᄉᆞᆷ 연괴 <u>잇ᄂᆞ냐</u> (4: 4ㄴ)

(33)은 의문사가 '-뇨'와 호응하는 설명의문문이고, (34)는 의문사 없이 '-냐'가 쓰인 판정의문문이다. 이미 이현희(1982ㄱ)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설명의문문에서도 '-o' 계열의 어미 대신 '-a' 계열의 어미가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그러한 현상을 예문 (35)에서도 살필 수 있다.

드물지만 의문조사 '-가/고'가 쓰인 문장도 보인다.

(36) 이거시 무ᄉᆞᆷ <u>일고</u> (1: 16ㄱ)

한편 수사의문의 어미로는 '-리오' 형태만 나타난다. 18세기 이전의 수사의문문이나 순수의문문에서는 '-리오', '-료'가 차이없이 쓰일 수 있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문맥 의미에 따라 형식을 분화·고정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즉, '-리오'는 주로 수사의문문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37) ㄱ. 그 ᄌᆞ족ᄒᆞᆫ 긔샹과 악착ᄒᆞᆫ 언논이 다시 셰샹의 큰 일이 이시며 텬하의 큰 짜히 잇ᄂᆞᆫ 줄을 모로니 <u>엇지</u> 가련티 <u>아니ᄒᆞ리오</u> (1: 1ㄴ)

ㄴ. 만일 듕도의 병들미 업ᄉᆞ면 하셕 경년별 엇디 ᄒᆡ 지나ᄂᆞᆫ 긔별을 앗기리오 (1: 4ㄱ)

ㄷ. 비록 밧븐들 네 인ᄉᆞᄅᆞᆯ ᄎᆞᆯ이랴 ᄒᆞ면 내 엇디 막으리오 (2: 11ㄱ)

ㄹ. 엇지 족히 무셔오리오 ᄒᆞ니 (2: 14ㄴ)

ㅁ. 아모리 혼인이 즁ᄒᆞᆫ들 엇지 감히 ᄃᆡ인의 복식을 ᄒᆞ리오 (3: 13ㄴ)

ㅂ. 무ᄉᆞᆷ 연괴 이시리오 (4: 4ㄴ)

ㅅ. ᄂᆡ 엇지 수리 길흘 괴로이 녁이리오 (4: 10ㄴ)

ㅇ. 네 ᄯᅳᆺ이 그러ᄒᆞ면 ᄂᆡ 엇지 의심ᄒᆞ리오 (4: 10ㄴ)

ㅈ. 우리ᄂᆞᆫ 쳐쳡이 업ᄉᆞ니 엇지 ᄌᆞ식 유무ᄅᆞᆯ 의논ᄒᆞ리오 (12: 3ㄴ)

이 문장들은 다 수사의문문이라는 공통성을 보인다.

이제 이 자료에 사용된 ‘의사타진구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타진구문은 글자 그대로 대화 참여자인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구문, 즉 어떤 사태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 여부나 기호를 묻는 구문을 말한다. 이러한 구문은 15세기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본고의 자료에서 대화체로 되어 있는 구문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 구문은 화자의 제안 대상이 되는 사태는 모두 화자와 청자가 주체가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 방향에 대한 권유의 대상이 되는 사태가 되기도 한다. 이 구문은 15세기에도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화자의 어떤 사태에 대한 제안에 청자의 수용 여부, 기호를 묻는 것이었다. 이때 화자의 제안 대상이 되는 것은 화자와 청자 모두가 주체가 되지만 상대방이 행동 방향에 대한 권유의 대상이 되는 사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VP-오ᄃᆡ’, ‘VP-옴’에 통합되는 주어는 2인칭 대명사인 ‘네’가 되기도 한다. 의사타진구문은 화자가 어떤 사태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제 3자가 하는 행위를 청자에게 그 수용여부를 묻는 것은 드물다. 의사타진구문의 ‘-오ᄃᆡ’, ‘-오미’에 통합되는 용언은 항상 동사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ᄃᆡ’나 ‘-옴’이 이끄는 절이 화자나 청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형용사문이나 계사문은 이러한 점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자료의 경우 ‘VP-오ᄃᆡ’는 나타나지 않고 ‘VP-오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이후의 경향으로 보인다. 또한 ‘VP-면’이 나타나는 예도 찾을 수 있다.

(38) ㄱ. ᄒᆞ나히 나아와 무ᄅᆞᄃᆡ 노야의게 망건이 여벌이 잇거든 ᄑᆞᆯ미 엇더ᄒᆞ뇨 ᄒᆞ거ᄂᆞᆯ (2: 6ㄴ)

ㄴ. 이리 막아 셔시니 답답ᄒᆞ여 못 견ᄃᆡ게 ᄒᆞ여시니 너희 날을 블상이 넉여 조곰

믈너셔미 엇더ᄒᆞ뇨 (2: 27ㄴ)

ㄷ. 필믁을 ᄂᆡ여 서로 ᄯᅳᆺ을 통홈이 엇더ᄒᆞ뇨 (3: 4ㄱ)

ㄹ. 날을 위ᄒᆞ야 아는 ᄉᆞ룸을 어더 길흘 ᄀᆞᄅᆞ쳐 먼 ᄃᆡ ᄉᆞ룸을 ᄒᆞ여곰 고인의 긔이ᄒᆞᆫ ᄉᆞ젹을 보게 ᄒᆞ미 엇더ᄒᆞ뇨 (4: 4ㄴ)

ㅁ. ᄂᆡ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임의 우리 의관을 됴히 넉이면 머리롤 삭지 말고 우리의 관을 조춤이 엇더ᄒᆞ뇨 (4: 23ㄴ)

ㅂ. 왕개 ᄀᆞᆯ오ᄃᆡ 노야의 ᄒᆡᆼ졍ᄒᆞᆯ 거ᄉᆞᆯ 다 날을 맛디면 엇더ᄒᆞ뇨 (5: 21ㄴ)

ㅅ. ᄂᆡ ᄀᆞᆯ오ᄃᆡ 노야의 뉴렴홈이 고맙거니와 ᄉᆞ십일 뉴관의 여러 날이 아니니 보롬 후롤 어이 기ᄃᆞ리리오 금명일이라도 나가기롤 허홈이 엇더ᄒᆞ뇨 (5: 27ㄱ)

ㅇ. ᄂᆡ 몬져 ᄀᆞᆯ오ᄃᆡ 우리ᄂᆞᆫ 니령공을 인연ᄒᆞ야 셩화롤 니기 드러실 ᄲᅮᆫ 아니라 두 시권을 보매 놉흔 문댱을 흠모ᄒᆞ야 망녕되이 나아와시니 당돌ᄒᆞᆫ 허믈을 용셔홈이 엇더ᄒᆞ뇨 (12: 8ㄱ)

ㅈ. ᄯᅩ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이곳의 니로매 지은 시뉼이 만흘 거시니 두어흘 ᄀᆞᄅᆞ치미 엇더ᄒᆞ뇨 (12: 10ㄴ)

ㅊ. 엄싱이 감구집 열 권을 ᄂᆡ여 와 쥬며 니ᄅᆞᄃᆡ 이 ᄎᆡᆨ의 임의 쳥음 션싱 글이 드러시니 가져가미 엇더ᄒᆞ뇨 (12: 17ㄱ)

ㅋ. 평즁이 ᄯᅩ ᄀᆞᆯ오ᄃᆡ 나도 ᄒᆞᆫ 집을 지어 양허당이라 일홈을 지엇ᄂᆞ니 두 형이 각각 시문을 허홈이 엇더ᄒᆞ뇨 (12: 25ㄱ)

ㅌ. 김복셰 댱경ᄃᆞ려 닐오ᄃᆡ 오늘은 죵용ᄒᆞᆫ 의논이 만흔지라 다시 후당으로 드러가미 엇더ᄒᆞ뇨 (13: 9ㄱ)

ㅍ. 올 씨의 복든 댱 ᄒᆞᆫ 통을 덕유롤 맛졋더니 덕유롤 블너 봉ᄒᆞᆫ 거ᄉᆞᆯ ᄡᅳ러 두 ᄉᆞ람을 주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동국 콩으로 ᄆᆞᆫ든 쟝이라 반찬이 ᄡᅳᄂᆞᆫ 거시오 동국은 웃듬마ᄉᆞᆯ 일ᄏᆞᆺᄂᆞᆫ 거시니 머므러 ᄀᆡᆨ즁의 반찬을 ᄀᆞᆺ초미 엇더ᄒᆞ뇨 (15: 14ㄴ)

위 예들은 다 'VP-오미 엇더ᄒᆞ뇨'의 구문들이다. 물론 VP는 다 동사라는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예는 의사타진구문에서 드물게 보이는 문장들이다.

(39) ㄱ. 내 ᄃᆡ흰 사롬ᄃᆞ려 니로ᄃᆡ ᄂᆡ 절을 ᄒᆞ고져 ᄒᆞ니 엇더ᄒᆞ뇨 (2: 16ㄱ)

ㄴ. 이 놀 날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노애 망희뎡 호두셕을 보니 엇더ᄒᆞ더뇨 (4: 10ㄱ)

위 예들은 다 'VP-니 엇더ᄒᆞ뇨'의 구문들이다. 연결어미 '-니'가 전제 표현의 기능을 가지

기 때문에 그 표현 효과는 'VP-오미 엇더ᄒᆞ뇨'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세국어의 사동문은 사동사나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동사가 결합된 방식에 의해 성립될 수 있었다. 이러한 중세국어의 사동사는 동사어근에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호-/후-', '-ᄋᆞ-/으-'가 붙어 형성되며 형용사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사동문은 보조적 연결어미 '-게/긔'와 보조동사 'ᄒᆞ-'가 결합한 장형사동의 '-게/긔 ᄒᆞ-' 구성이었다.

여기서는 사동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형사동구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40) ㄱ. 이 다ᄉᆞ리ᄂᆞᆫ 곡졀을 관원의게 젼ᄒᆞ(라) ᄒᆞ시고 각각 곤댱 다ᄉᆞᆺ술 티되 검댱ᄒᆞᄂᆞᆫ 소릐롤 별양 웅댱이 질너 문안ᄭᆞ지 진동ᄒᆞ게 ᄒᆞ고 (1: 20ㄱ)

ㄴ. 군관 역관과 삼힝ᄎᆞ 하인 밧긔ᄂᆞᆫ 일병 먼니 믈니쳐 각각 한둔홀 긔구롤 출히게 ᄒᆞ니 (1: 20ㄱ)

ㄷ. 상부ᄉᆞ 힝ᄎᆞ롤 몬져 쳥ᄒᆞ여 드러ᄀᆞ게 ᄒᆞ딕 군노롤 곤댱을 들녀 문 좌우의 셰워 잡인을 엄히 금ᄒᆞ고 (1: 20ㄴ)

ㄹ. 열구ᄌᆞ탕을 그릇새 숫블을 픠워 가온딕 드려 놋코 젹은 구기롤 노하시니 국을 쩌 먹게 ᄒᆞᆫ 거시라 (2: 9ㄴ)

ㅁ. 늙은 쥬인이 슈슈딕롤 가디로 블을 ᄡᅡ히며 ᄀᆞᆯ오딕 블을 ᄀᆞᆺ 녀허시니 조곰 기다리면 더울 거시어늘 쥬인을 못 견딕게 ᄒᆞᆫ다 ᄒᆞ니 (2: 13ㄴ)

ㅂ. ᄯᅩ ᄒᆞᆫ 번을 ᄡᅩ와 날을 보게 ᄒᆞ라 ᄒᆞ니 그 사람이 웃고 즉시 ᄒᆞᆫ 번을 ᄡᅩ더라 (4: 29ㄴ)

ㅅ. 여러 가디 등의 다 오식 실노 층층이 뉴소롤 믹ᄌᆞ 주줄이 드리워시니 이ᄂᆞᆫ 다 긔구롤 ᄀᆞᆽ초아 사람의 눈을 홀난ᄒᆞ게 홈이오 (6: 8ㄱ)

ㅇ. 이ᄂᆞᆫ 줄을 믹야 오ᄅᆞᄂᆞ리게 홈이라 (11: 6ㄴ)

ㅈ. 젼면의 시ᄌᆞᆨ 분슈롤 삭이고 밧그로 뉴리롤 브쳐 문을 여지 아니ᄒᆞ야도 속을 슬피게 ᄒᆞ얏더라 (12: 4ㄱ)

ㅊ. 시팔년의 황샹이 관동의 거동ᄒᆞ미 비로소 만쥬롤 참셥ᄒᆞ야 ᄡᅳ게 ᄒᆞ엿ᄂᆞ니라 (20: 4ㄴ)

(41) 납으로 ᄆᆞᆫ든 초딕의 육초롤 혀시니 눈빗ᄀᆞᆺ치 별양 희고 초 기릐ᄂᆞᆫ 세 치ᄂᆞᆫ 되고 몸픠ᄂᆞᆫ 칼ᄌᆞ로만 ᄒᆞ딕 아릐ᄂᆞᆫ 쏀게 ᄆᆞᆫᄃᆞ라 우흘 크게 ᄒᆞ여시니 (2: 9ㄴ)

(42) ㄱ. 그 겻히 조고만 나모픠루를 셰우고 두 편의 남그로 버티워 너머지디 아니케 ᄒᆞ여시니 다 거믄 칠을 ᄒᆞ고 그 우희 긔명과 니구를 뻐시니 이ᄂᆞᆫ 아국 댱승 모양이라 (2: 34 ㄱ)

ㄴ. 슈갑 안흔 절노 깁허디게 홈이오 (11: 6ㄴ)

(40)은 '-게 ᄒᆞ-'가 동사와 통합한 예들이고, (41)는 형용사와 통합한 예이다. 이 자료에서는 형용사와 통합한 예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42)는 장형피동의 '-어디-' 내지 '-어지-'가 통합한 구성이 다시 '-게 ᄒᆞ-'와 통합한 예들이다. (42ㄱ)은 '-어지-'가 동사에 통합한 것이 다시 '-게 ᄒᆞ-'와 통합한 것이며, (42ㄴ)은 '-어디-'가 형용사와 통합한 것이 다시 '-게 ᄒᆞ-'와 통합한 것이다. 여기의 '-게 ᄒᆞ-' 구성은 이미 앞에서 살핀 바 있는 미래나 의지 · 추량 표현의 '-게 ᄒᆞ엿-' 내지 '-게 ᄒᆞ여시-' 구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셩댱이 무슴 연괴 이셔 닉일 일즉 와 문을 여러 드리게 ᄒᆞ엿다 ᄒᆞ니(1:19ㄴ)'와 같은 문장은 모양상으로는 장형사동문과 같지만, 그 내용은 사동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국어에서는 형식명사 '줄'에 대격조사가 통합한 예가 거의 없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대격조사에 결합한 예가 많이 보이며, '냥'은 중세국어에서의 '양'(←樣)을 이어받은 것인데 표기상의 차이를 보이는 점이 특이하게 나타난다.

둘째, 중세국어 이래 不定稱으로 사용되지 않고 未知稱으로만 사용되던 '엇더ᄒᆞ-', '어느', '므슴'과 같은 것들이 부정칭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대국어 단계에 부사 '그르'에 접미사 '-ㅅ'이 더 통합한 '그릇'이라는 파생부사가 새로이 나타났는데, 이 자료에는 모음조화에서 어긋난 '그룻'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중세국어의 것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여격 표지를 살펴보았다. 중세국어에서는 '게'가 '-ㅅ'이나 '-의'가 개재되지 않은 채 명사구에 직접 통합하는 예는 극히 드물어 'ᄆᆞᆯ'(馬)에 '게'가 직접 통합한 'ᄆᆞᆯ게' 정도만 확인되었으나, 이 문헌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명사구에 '게'가 직접 통합한 경우가 상당수 보인다. 조사의 기능이 변화한 예로는 대표적으로 '-으로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자격, 도구의 기능, 경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세국어 명사 '즈음'에서 변화된 '즈음'이 명사적인 용법 외에 조사적인 용법(열여닐곱 즈음이오(4:26ㄱ))을 보이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넷째, 근대국어 시기에 '어리-'가 "愚"에서 "幼"로의 의미변화를 일으킴으로써 "幼"의 의미를 가졌던 '졈-'은 사라지고 "壯"의 의미를 가지는 '졈-'만 살아 남게 되었다. 이것은 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중세국어 단계에서 '만ᄒᆞ-'(多), '올ᄒᆞ-'(是)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용언들은 근대국어 초기 단계에 '많-'과 '옳-'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어간의 재구조화 현상을 본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섯째, 동사 '웃-'은 "ㅿ"의 음가 소실로 인해 '우-'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문헌에는 '우-' 외에 방언형이라고 판단되는 '웃-'도 함께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쌍형적인 모습을 보이던 존재동사 '이시-', '잇-'은 19세기 중엽에 가서 '잇-'으로 단일화되지만 이 자료에서는 '이시-'와 '잇-'의 쌍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인다. 중세국어에서 피인용문 뒤에 나오던 인용동사 'ᄒᆞ-'는 뒷 구절과 이어질 때 대개 'ᄒᆞ야'로 나타났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ᄒᆞ고'로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7) 이 자료에서는 '-갓-'이나 현대국어의 '-겠-'에서 파악되는 추정이나 의지의 의미가 파악되고 있지만 '-갓-'은 많이 나오지 않는 점이 특이하게 보인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이 자료가 19세기 이전의 국어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3. 동사구문의 특징과 유형

언어는 음운층위, 형태소층위, 어휘층위, 의미층위, 통사층위 등 각각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층위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의한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음과 모음을 중심으로 음소결합의 법칙이나 그 변화들이 음운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단어, 구, 문장들은 통사층위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다. 언어의 이러한 층위 체계들은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의 역사적 연구에서 당시 국어의 모습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기제가 된다.

그렇지만 필사본 자료를 대상으로 그 언어의 규칙을 연구하려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음운과 표기법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은 그 필사 자료 자체가 당시의 음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표기법 역시 일률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본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통사론에서 중요시되는 바, 특히 동사들이 지배하는 명사구의 실현양상은 오히려 판본 자료보다 필사본 자료가 자연언어 상태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동사구'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본 자료에 나타나는 문장들 가운데 비교적 많이 보이는 동사구문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동사구문의 명칭은 편의상 의미상의 특징을 고려할 것이며 명칭이 없는 것은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었던 것을 따르기로 한다. 또한 사술어의 지배를 받는 명사구는 수의적인 요소는 제외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쓰인 것들에 주된 관심을 가지기로 한다. 명사구는 동사구문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문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문장에서는 명사구가 필수적으로 실현되거나 수의적으로 그것이 생략된 것인가에 초점이 놓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사 구문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언급되는 동사구문의 구조는 홍재성 외(1997)의 기술 방법을 따른다.[37]

먼저 명사구 분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38]

---

37) 홍재성 외(1997:2)에서는 각 동사의 가능한 다양한 용법을 보여 주기 위해 실제로 사용된 예문보다 만든 예문이 훨씬 적절하다는 생각에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든 예문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점은 18세기 중기에 구어체로 작성된 ≪을병연행록≫의 구문구조를 다 기술하기에는 한계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필자 나름대로의 구조기술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38) 홍재성(1997:7-14)에서는 동사구문의 구조를 '형태론적 속성, 구조적 속성, 분포적 속성(명사 분포, 보문 분포), 변형적 속성, 어휘적・의미적 속성'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

(1) 구조 기술 다음에 NP_0, NP_1 등 각 통사 위치에 분포하는 명사류에 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지적한다. 제시된 명사구의 분포는 다음의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한다.

● 최상위 명사 하위 부류(분포가 개방적인 경우)
  인물, 사물, 추상, 장소, 신체, 교통, 직위, 관계, 동물, 식물……
● 특정 소부류(분포가 비교적 제한된 의미 영역에 한정될 경우)
  인쇄물, 식사, 먹이, 국가……
● 명사 어휘 자체(분포가 극히 제한된 경우, 또는 위의 두 부류의 예시)
  운동장, 물, 신문, 아침……

(2) 명사 분포에 따라 동사 구문의 의미가 특징적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분포를 하위 분류별로 나누어 1,2,3…… 또는 1) 2) 3) 등의 체계로 제시한다.
(3) 격조사의 교체에서 격조사의 규칙적 조사 변이는 NP_0 NP_1-(에+에서)와 같이 표시한다.

본 장에서 사용할 약호는 다음과 같다.

NP	명사구
V	동사
S	문장적 성분: 보문
ADV	부사어적 성격의 성분: 부사어, 'Adj-게, N-처럼' 등
Adj	형용사
Adv	부사
Npr	적정부사
0, 1, 2	N, C 또는 Npr과 명사구의 통사 위치를 표시한다. N_0은 주어, N_1은 제1보어, N_2는 제2보어이고, N_1에 '-을, -에, -와' 등 조사가 뒤따르면 목적 보어, 비목적격[사격] 보어를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 방법을 토대로 계사구문, 존재동사구문, 평가동사구문, 비교동사구문, 심리동

렇지만 본 장에서는 위의 5가지 속성 중에서 분포적 속성만을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구문, 사유동사구문, 인지동사구문, 지각경험동사구문, 청원동사구문, 화법동사구문 등을 유형화하면서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계사구문

3.1.1. 계사구문의 특징

계사 '이-'에 통합되어 나타나는 구문을 계사구문이라고 한다. '이-'는 그 성격에 따라 '종지사'[유길준(1909) ~ 최현배(1930)], '지정사(잡음씨)'[최현배(1930) ~ 정인승(1949)], '체언토'[정인승(1949) ~ 학교문법 통일안(1986)]의 단계를 거쳐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서술격조사'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서술격이란 용언적 특성과 조사라는 체언적 특성을 결합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이광정 1994: 45-60). 그렇지만 '이-'는 학교문법에서 '서술격조사'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 가지 용어로 나뉘어 불리는데 지정사(잡음씨)라는 용어와 서술격조사가 그것이다. 전자는 '이-'의 활용에, 후자는 '이-'가 선행 요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의 용언적인 성격은 형태론적 특성뿐만 아니라 통사론적인 면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국어의 여러 가지 구문 가운데 계사구문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다'의 성격이나 용어 문제보다는 '이-'가 들어간 구문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명사구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기로 한다.

계사구문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활용의 측면에서 후행하는 어미류의 변동에 초점을 둔 이숭녕(1956)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계사 뒤에 오는 어미류의 활용에 관심을 둔 이 연구는 河野六郎(1948), 유동석(1987)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는 어미류의 頭音 'ㄱ'이 'ㅇ', 모음 어미류인 '-아'나 '-오-' 등이 '-라'나 '-로-'로, 어미류의 頭音 'ㄷ'이 'ㄹ'로 변하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계사의 기원은 河野六郎(1948)에서는 동사어간 '일-(成)', 이숭녕(1956)에서는 변위격조사 '-이'에서 기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호완(1987)에서는 형식명사 '이'에서 기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세국어의 계사구문에 대한 성격은 이현희(1994)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중세국어의 계사 '이-'는 선행요소의 말음에 따라 세 가지의 모습을 보인다. 자음 뒤에서 '이-'로, '이'를 제외한 모음 뒤에서는 'ㅣ-'로, 모음 '이'와 이중모음의 부음(ｙ) 뒤에서는 'Ø-'로 실현되는데 이는 주격조사 '-이'의 실현양식과 동일하다. 그렇지만 16세기의 국어부터는 그러한 실현양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예들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은 근대국어의 자료에서는 더욱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격 조사의 표기와 계사의 표

기에서 음절합자법을 어기는 예들이 출현한다는 것인데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 주격조사가 빠져 버리는 현상이 계사에까지 확대되어 모음 뒤 계사의 생략현상까지 초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은 19세기 국어 자료에서 모음 뒤 계사 '-이'가 완전히 빠져 버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39]

이제 중세국어 계사문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글 필사본≪을병 연행록≫에서 계사문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1.2. 계사구문의 유형

3.1.2.1. '이-'

표면적인 구문의 측면에서 보면 계사구문의 구조는 단조로울 수 있지만 개별 명사구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다. 본 절에서는 중세국어의 '이다'구문을 토대로 ≪을병 연행록≫에 나타난 계사구문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문 (1)은 표면구조가 단순한 구문이다. 이들은 'NP_0이 NP_1이-' 구문유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명사구 'NP_0'이나 'NP_1'은 단순명사 외에 관형사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 등 다양한 명사구가 다 가능하다.

(1) ㄱ. 문밧긔 길히 계유 두어 뵈오 (1: 8ㄱ)
ㄴ. 평양이 그 도읍ᄒᆞ엿던 ᄶᅡ히라 (1:10ㄱ)
ㄷ. 강 셔편은 셤이 이셔 수플이 울연ᄒᆞ니 이거시 곳 나귀셤이라 (1:13ㄴ)
ㄹ. 일홈이 뇨죵이니 들네논 ᄌᆞ명죵이란 말이라 (11: 4ㄱ)
ㅁ. 십구일 빅긔로 중화ᄒᆞ고ᄌᆞ ᄒᆞ야 츔의 니ᄅᆞ니 큰 개롤 잇그러 ᄑᆞ논 ᄉᆞ람이 만ᄒᆞ니 딕뎌 아국의 나오논 호박이 죵뉴라 (20: 1ㄱ)
ㅂ. 숑골산 밧그로 쳡쳡ᄒᆞᆫ 봉이 다 아국 뫼히라 (20: 20ㄴ)

NP_0에 대해 NP_1은 그 상태, 성격, 속성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다음의 문장들은 (1)과는 성격이 다르다.

(2) 븍경이 ᄯᅩᄒᆞᆫ 즁국의 동편이오 (4: 31ㄱ)

39) 예를 들면 '쇼'(牛)의 주격형이 'ᄉᆈ'로 실현되다가 주격조사 '가'가 출현함으로써 'ᄉᆈ가', '쇼가'로 나타나는데 이는 계사에까지 확대되어 계사의 생략까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3) ㄱ. 셔죵현이 그 관원을 ᄀᆞᄅᆞ쳐 닐오ᄃᆡ 이ᄂᆞᆫ 유친왕이니 황샹의 ᄉᆞ촌이라 ᄒᆞ니 ᄃᆡ개 냥혼의 부친이라 킈ᄂᆞᆫ 비록 젹으나 구간은 극히 웅장ᄒᆞ고 완완ᄒᆞᆫ 거롬이 극히 진즁ᄒᆞ야 지쳑의 외국 사람이 여러히 이시ᄃᆡ ᄒᆞᆫ 번 눈을 둘너 보지 아니ᄒᆞ니 진짓 ᄌᆡ샹의 체면이오 귀인의 풍되러라 (13: 6ㄴ)

ㄴ. 나ᄂᆞᆫ 됴션 오픔 벼ᄉᆞᆯ이오 (19: 13ㄱ)

(2)는 NP_0에 대해 NP_1가 처소의 의미를 가진다. 이 예문은 "북경이 또한 중국의 동쪽이고"나 "북경이 또한 중국의 동쪽에 있고"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의미상 존재구문과 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은 NP_0이 NP_1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을 가진다. (3ㄱ)은 "관원이 진짜 재상의 면모요 귀인의 풍도더라"나 "관원이 진짜 재상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귀인의 풍도를 가지고 있더라"의 의미를 가진다. (3ㄴ)은 "나는 조선의 5품 벼슬이고" 내지 "나는 조선의 5품 벼슬을 가지고 있고"의 의미를 가진다. 이 (3)은 의미상 소유구문과 통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사구문이 의미상 존재동사구문과 통하는 문장들은 이미 중세국어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던 것이었다(이현희 1994 참조).

NP_0 뒤에는 주격조사 '-이' 외에 주제의 보조사 '-은'이나 亦同의 보조사 '-도' 등이 통합할 수도 있다.

(4) ㄱ. 이ᄂᆞᆫ 일힝 머무ᄂᆞᆫ 곳이니 일홈은 구련셩이니 (1: 16ㄴ)

ㄴ. 이ᄂᆞᆫ 즁화ᄒᆞᄂᆞᆫ 곳이라 산조ᄅᆞᆯ ᄡᅵ여 ᄡᆞᆯ고 (1: 18ㄱ)

ㄷ. ᄯᅩ 다ᄅᆞᆫ 악긔ᄅᆞᆯ 가져왓시나 일홈은 호금이니 (2: 5ㄱ)

ㄹ. 관왕은 텬하 영웅이라 범 ᄀᆞᆺᄒᆞᆫ 위엄과 금셕 ᄀᆞᆺᄒᆞᆫ 듕셩으로 (3: 22ㄱ)

ㅁ. 층층이 문을 ᄂᆡ고 문마다 굼기 이셔 시셕을 통ᄒᆞ게 ᄒᆞ여시니 이ᄂᆞᆫ 적누 졔되러라 (11: 7ㄱ)

ㅂ. 여여ᄂᆞᆫ 댱후ᄒᆞᆫ 사람이라 비록 이ᄀᆞᆺ치 의심치 아니ᄒᆞ나 (11: 10ㄱ)

ㅅ. 즁화뎐은 단층 우산각 졔양이오 보화뎐은 두 층 집이오 (13: 6ㄱ)

ㅇ. 일홈은 ᄉᆞ민이오 ᄌᆞᄂᆞᆫ 건여오 별호ᄂᆞᆫ 문헌이라 (18: 28ㄱ)

ㅈ. 셩은 손이오 일홈은 유의오 ᄌᆞᄂᆞᆫ 심지오 별호ᄂᆞᆫ 용뤄오 ᄒᆞᄂᆞ흔 셩은 도요 일홈은 육동이오 ᄌᆞᄂᆞᆫ 승션이오 별호ᄂᆞᆫ 뫼헌이라 (18: 30ㄴ)

ㅊ. 우리ᄂᆞᆫ 뎐진도ᄉᆡ라 (20: 16ㄱ)

(5) 한군도 ᄯᅩᄒᆞᆫ 한인이로ᄃᆡ (2: 4ㄴ)

다음의 예문 (6)과 (7)은 위의 (4)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6) 동편은 ᄐᆡ산이오 셔편은 화산이오 남편은 형산이오 븍편은 항산이오 즁간은 슝산이니 (4: 31ㄱ)

(7) ㄱ. ᄒᆞ나흔 오개오 ᄒᆞ나흔 ᄑᆡᆼ개니 다 한인이오 오가ᄂᆞᆫ 산동사람이오 ᄑᆡᆼ가ᄂᆞᆫ 하람사람이로라 ᄒᆞ더라 (5: 20ㄴ)

ㄴ. 댱가ᄂᆞᆫ 오십 세오 ᄑᆡᆼ가ᄂᆞᆫ 십칠 세니 단쇼ᄒᆞᆫ 구간이오 감은 얼골의 젹은 나로시반 나마 셰엿고 치아ᄂᆞᆫ 남은 거시 젹으니 극히 잔녈ᄒᆞᆫ 인믈이오 (11: 11ㄴ)

(6)은 "동편은 태산이 있고, 서편은 화산이 있고, 남편은 형산이 있고, 북편은 항산이 있고, 중간은 숭산이 있으니"의 의미를 가진다. 이 문장은 '븍경이 ᄯᅩᄒᆞᆫ 즁국의 동편이오(4: 31ㄱ)'와 같은 문장에서 두 명사구의 순서를 바꾸고 첫째 명사구에 보조사 '-은'을 통합한 것이다. (7ㄱ)은 "한 사람은 성이 오가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성이 팽가인데 다 한인이고, 오가는 사람이(출신이) 산동사람이고 팽가는 사람이(출신이) 하남사람이라고 하더라"의 의미를 가지는데 '성이', '사람이(출신이)' 등에 해당하는 명사구가 생략된 문장이다. (7ㄴ)은 "장가는 나이가 50 세요, 팽가는 나이가 17 세인데"의 의미를 가지는데, '나이가'가 해당하는 명사구가 생략된 문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7)의 문장들은 'NP_0이 NP_1이 NP_2이-' 구문유형에서 'NP_1이' 부분이 생략된 것으로 파악된다.

'NP_1이' 부분이 생략되지 않은 'NP_0{이, 은} NP_1이 NP_2이-' 구문유형을 보이는 문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9) ㄱ. 오림포의 죵왕가의 아ᄃᆞᆯ은 일홈이 혜송이오 나히 십오 셰라 (11: 18ㄱ)

ㄴ. 이 ᄃᆡᄂᆞᆫ 일홈이 위원ᄃᆡ니 위엄이 머다 니ᄅᆞ미라 (19: 16ㄱ)

(10) 너ᄅᆞ기 동셔 이ᄇᆡᆨ여뵈오 남븍이 ᄇᆡᆨ수십 뵈오 (13: 4ㄴ)

(9ㄱ)은 "오림포의 종왕가의 아들은 이름이 혜송이고 나이가 15세이다"의 의미를 가지고, (9ㄴ)은 "이 대(代)는 이름이 위원대(威遠代)인데 위엄이 멀다고 하는 말이다"의 의미를 가진다. (10)은 "너르기가 동서가 200여 보(步이)고 남북이 백수십 보(步이)고"의 의미를 가진다.

(9)와 같은 문장은 'NP_0의 NP_1{이, 은} NP_2이-'와 같이 나타나는 일이 더 많다. 이것을 단순화해 본다면 'NP_0{이, 은} NP_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앞의 'NP_0의 NP_1' 부분이

'NP_0'이 되고 'NP_2'가 'NP_1'이 된 것으로 (11)이 해당된다.

(11) ㄱ. 쥬인의 셩은 셔개오 나흔 쉰셰히라 (4: 2ㄴ)
ㄴ. 푸즈 주인의 셩은 쥬개니 쥬싱의 일개로라 ᄒᆞ고 (11: 15ㄱ)
ㄷ. ᄃᆡ개 왕양명의 일홈은 슈인이니 ᄃᆡ명적 년간 사람이라 (12: 12ㄱ)
ㄹ. 조교의 셩은 댱이오 일홈은 원관이니 나히 늌십여셰오 비록 조교 벼술을 당ᄒᆞ야 (17: 7ㄴ)

(12)는 'NP_0이-' 구문유형으로 일종의 무주어문이라고 할 수 있다.

(12) 네 사람이 그 즁의 더옥 뛰여난 곳을 모화 열가지 경을 만ᄃᆞ라 셔호십경이라 일ᄏᆞ르니 평호의 ᄀᆞ을돌이오 소졔의 봄 새벽이오 단교의 쇠잔ᄒᆞᆫ 눈이오 뇌봉의 ᄶᅥ러지ᄂᆞᆫ 히오 (12: 9)

이 문장은 일종의 무주어문이라고 할 수 있다.

(13)은 이 문헌에서 보이는 특이한 계사구문으로 NP_1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이다.

(13) ㄱ. ᄯᅩ 다른 악긔롤 가져왓시나 일홈은 호금이니 아국의 힛금 모양이로ᄃᆡ (2: 5ㄱ)
ㄴ. 혹 돐을 ᄆᆞᆫᄃᆞ라 쳔연히 돐의 모양이오 (8: 14ㄱ)
ㄷ. ᄉᆞ면의 층층이 난간을 삭이고 죠고만 블샹을 도도와 아국 법댱의 오빅 나한 모양이로ᄃᆡ (14: 16ㄱ)
ㄹ. 교ᄌᆞ 뎨도ᄂᆞᆫ 아국 가마 모양이로ᄃᆡ 채롤 즁간의 메워시니 (5: 3ㄴ)

이 문장들도 'NP_0{이, 은} NP_1이-'의 구문유형을 보이는데 의미상 소유구문과 통한다. (13ㄹ)을 보면, 그것은 "교자 만드는 법은 우리 나라 가마 모양이로되, 채를 중간에 메웠으니"나 "교자 만드는 법은 우리 나라 가마 모양을 가지고 있되, 채를 중간에 메웠으니"의 의미를 가지는데, 더 나아가서는 "교자 만드는 법은 우리 나라 가마와 같되, 채를 중간에 메웠으니"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1.2.2. ‘아니-’

중세국어 시기의 ‘아니’는 명사, 부사로 다 사용되었지만,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아니’의 명사적 용법은 극도로 위축되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국어 단계에 ‘아니라’는 ‘아니(명사) + 이(계사) + 라(종결어미)’의 구조를 가졌지만, 근대국어 단계에는 ‘아니 + 이-’가 하나의 단위로 굳어지는 재구조화의 과정에 있게 되었다.[40] 근대국어에서도 중세국어에서처럼 ‘아니’가 명사로 사용되는 예가 없지 않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것이다.

(14) 涉疑ᄒᆞᆫ 사ᄅᆞᆷ을 [의심저온 사ᄅᆞᆷ이라] 가져 法 아니로 鍛鍊ᄒᆞ야 [쇠 니기ᄃᆞᆺ ᄒᆞ단 말이라] 承服ᄒᆞ기ᄅᆞᆯ 요구ᄒᆞ니 (將涉疑人ᄒᆞ야 非法鍛鍊ᄒᆞ야 須要承服ᄒᆞ니) (증수무원록언해 1: 3ㄴ)

(14)의 ‘法 아니’는 중세국어에서는 널리 찾아볼 수 있었던 명사구였다.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일종의 ‘기형적 명사문’(이현희 1994ㄱ 참조)을 토대로 계사구문이 형성되었지만,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14)의 ‘法 아니’와 같은 것은 매우 의고적인 문체를 보이는 문헌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대국어 단계의 ‘아니-’는 하나의 용언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제 이 문헌에 나타나는 ‘아니-’ 구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NP_0이 NP_1이 아니-’의 구문유형을 보이는 예문들이다.

(15) ㄱ. ᄯᅩ 그 돌이 든든ᄒᆞᆫ 바회 아니라 다 셕버레 ᄀᆞᆺ흔 거시니 (4: 7ㄱ)
ㄴ. 유ᄌᆞ의 간즐ᄒᆞᆫ 법문이 아니로ᄃᆡ 당초 죵젹이 임의 나의 본식이 아니오 (7: 5ㄱ)
ㄷ. 텬지의 절ᄒᆞ믄 쥬ᄌᆞ의 녜문이 아니로다 (12: 19ㄴ)
ㄹ. 막으면 긋치믄 다 믈의 셩픔이 아니라 (18: ㄴ)
ㅁ. 년ᄒᆞ야 븍으로 향ᄒᆞ고 길히 더옥 희미ᄒᆞ니 필연 ᄉᆞ람의 ᄌᆞ로 왕ᄂᆡᄒᆞᄂᆞᆫ 곳이 아니라 (20: 17ㄴ)
ㅂ. 뎨의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음이 범범ᄒᆞᆯ 교됴의 비ᄒᆞᆯ ᄇᆡ 아니로ᄃᆡ (17: 26ㄴ)
ㅅ. 즁국의 광ᄃᆡᄒᆞᆫ 풍쇽이 진짓 쇼국의 밋ᄎᆞᆯ ᄇᆡ 아니러라 (19: 9ㄴ)

(15)와 같은 구문유형의 ‘아니-’ 부정문은 현대국어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16)은 ‘NP_0이 NP_1이 아니-’에서 ‘NP_0’에 ‘-은’ 등의 보조사가 통합된 예문이다.

---

40) ‘아니’의 통시적 변화양상에 대해서는 이현희(1994ㄹ)을 참조하였다.

(16) ㄱ. ᄃᆡ개 셔종ᄆᆡᆼ은 남역이 만코 비래ᄒᆞᆫ 거시라 족히 더브러 사괼 인믈이 아니로ᄃᆡ (7: 4ㄴ)

ㄴ. 이런 유모ᄂᆞᆫ 족히 관계ᄒᆞᆫ 일이 아니오 ᄯᅩ 비단은 직믈이라 궁직 ᄎᆔ치 아니미 올커니와 이거ᄉᆞᆫ 아담ᄒᆞᆫ 즙믈이오 션ᄇᆡ의 가질 거시니 엇지 구지 ᄉᆞ양ᄒᆞ여 여여의 후ᄒᆞᆫ ᄯᅳᆺ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ᄂᆞ뇨 (11: 9ㄴ)

ㄷ. 이ᄂᆞᆫ 서로 ᄉᆞ랑ᄒᆞᄂᆞᆫ 말이 아니오 (16: 7ㄱ)

ㄹ. 졔도의 사치ᄂᆞᆫ 비록 이졔의 본식이 아니나 산슈의 조출ᄒᆞᆫ 경치ᄂᆞᆫ 븍경픙도의 추악ᄒᆞᆫ ᄀᆡ운을 삐술 ᄃᆞᆺᄒᆞ더라 (19: 7ㄱ)

(16ㄴ)의 ‘궁직 ᄎᆔ치 아니미’는 여기서 문제삼는 ‘아니-’ 구문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세국어 이래 부정 용언 ‘아니ᄒᆞ-’는 ‘아니ᄒᆞ-’, ‘아닣-’(실제로는 ‘아닛-’이나 ‘아닌-’으로 나타남), ‘아니-’의 세 가지 교체형을 보였었다(이현희 1993 참조). ‘아니-’는 매개모음을 동반하는 어미나 ‘-아/어’ 앞에 나타나는 교체형이었다. ‘ᄎᆔ치 아니미’는 ‘ᄎᆔᄒᆞ지 아니ᄒᆞ미’로도 나타날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자면, ‘구구히 도슈의 적은 곳지 거리ᄭᅵ지 아닐지라(18:4ㄴ)’의 ‘아닐지라’는 ‘아니ᄒᆞᆯ지라’의 교체형이라고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17) 외로온 먼 남근 ᄃᆞᆺᄃᆡ로 의심ᄒᆞ니 ᄃᆡᄀᆡ 그 기운이 ᄂᆡ ᄀᆞᆺ흐ᄃᆡ ᄂᆡ 아니오 안개 ᄀᆞᆺ흐ᄃᆡ 안ᄀᆡ도 아니라 ᄶᅡ ᄀᆡ운이 하ᄂᆞᆯ 빗과 셔로 ᄇᆡ익여 되ᄂᆞᆫ 거신가 시브더라 (4: 19ㄱ)

(17)은 ‘NP_0’에 ‘-도’ 가 통합된 예문이다.
(18)은 ‘NP_1’에 보조사 ‘-도’ 가 통합되었다.

(18) 이ᄂᆞᆫ 사람도 즘ᄉᆡᆼ도 아니니 운남 ᄶᅡ히셔 삼긴 거시라 은 이ᄇᆡᆨ냥을 주고 사다ᄀᆞ 압히셔 부린다 ᄒᆞ더라 (11: 21ㄴ)

이 자료에서는 ‘-도’만이 나타나는데, 위와 같은 문장은 드물게 나타나는 편이다.
(19)의 ‘ᄲᅳᆫ(이) 아니-’ 구문유형은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19) ㄱ. 국즁의 졔일 승경이 될 ᄲᅳᆫ이 아니라 ᄯᅩᄒᆞᆫ 즁국의도 흔치 아닐 곳이니라 (15: 10 ㄱ)

ㄴ. 임의 경관의 참예ᄒᆞ면 샹은을 바드미 ᄯᅩᄒᆞᆫ 고이치 아니ᄒᆞ거니와 임의 경관을 당치 아니ᄒᆞ고 샹은을 ᄉᆞ양치 아니홈이 혐의로올 븐이 아니라 여러 역관의게

거두어 주는 일이 비록 네브터 전네 이시나 더옥 미연훈 일이라 (18 :13ㄴ)

ㄷ. 나는 간정동 사룸을 기드릴 뿐이 아니라 샹과 잔치는 참예치 말고져 ᄒᆞ는지라 홀노 관즁의 머므더니 덕위 도라오지 아니커놀 세 사룸의게 각각 편지를 뻐 기드리니 (18: 14ㄱ)

ㄹ. 화친왕은 건늉의 아이라 시격이 놉흘 쁜이 아니라 필법이 더옥 긔이ᄒᆞ더라 (19: 6ㄴ)

ㅁ. 이 날은 일힝이 쳐음으로 신고롤 격그니 디져 의외의 픙우롤 만날 쁜이 아니라 전혀 아국 ᄉᆞ람이 몬져 건너기롤 드토아 (20: 2ㄱ)

ㅂ. 셩명은 디문긔니 셔화의 지조롤 일ᄏᆞ롤 쁜이 아니라 공교훈 싱각이 범사롬의 쒸여는지라 (20: 5ㄴ)

ㅅ. 너른 들의 사오나온 ᄇᆞ람을 면ᄒᆞ고 둇ᄀᆞ온 볏과 온화훈 긔운이 비로소 봄 경식을 씌칠 쁜이 아니라 놉흔 뫼와 흐ᄅᆞ는 믈이 은연이 아국 산쳔 ᄀᆞᆺ흔지라 (20: 11ㄱ)

ㅇ. 이 쎡 날이 임의 느져실 쁜이 아니라 ᄉᆞ면의 놉흔 뫼히 둘너시니 (20:17ㄴ)

이 구문유형은 대개 종속절을 구성한다. 즉, '아니라'의 '-라'는 연결어미 '-아'의 이형태인 것이다. 이 '쁜'은 '븐'으로도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는 '뿐' 또는 '분'으로 나타나던 것이었다. '쁜'과 '븐'은 원순모음화 현상의 역표기가 적용된 것이다. (19ㄷ, ㄹ)의 '나는'이나 '화친왕은'은 '아니라'와 관련된 주제어가 아니라 '쁜' 앞에 통합해 있는 'VP-ㄹ'과 관련된 주제어인 것이다. 이 'VP-ㄹ {쁜, 븐}이 아니라'는 일종의 무주어문을 형성한다. 예문 가운데 (19ㅇ)의 '이 쎡 날이 임의 느져실 쁜이 아니라'만 두고 말하자면, '날이 임의 느져실 쁜이'와 '아니라'가 통사관계를 맺지만 그것들과 관계될 NP_0는 상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존재구문유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	NP_0이 NP_1이-
	NP_0은 NP_1이
	NP_0도 NP_1이
	.NP_0이 NP_1이 NP_2이-
	NP_0{이, 은} NP_1이 NP_2이-
	NP_0의 NP_1{이, 은} NP_2이- =.NP_0{이, 은} NP_1이-
	NP_0이-
아니-	NP_0이 NP_1이 아니-
	NP_0은 NP_1이 아니-
	NP_0도 NP_1이 아니-
	NP_1도 아니-
	VP-ㄹ {쁜, 븐}이 아니라

3.2. 존재동사구문

3.2.1. 존재동사구문의 특징

여기서는 '잇-/이시-', '없-', '계시-'에 의해 표현되는 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용언에 의해 표현되는 구문은 존재와 소유의 두 가지 의미를 가져 각각 존재구문과 소유구문을 이룬다. 중세국어에서 쌍형적인 모습을 보이던 존재동사 '잇-/이시-'는 19세기 중엽에 가서 '잇-'(내지 '있-')으로 단일화된다(이현희 1993, 1994 참조).[41] 그러나 이 문헌에서는 '이시-'와 '잇-'의 쌍형적인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도 이 문헌이 18세기 후반의 자료로 취급되어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41) 이런 표기는 문법화한 '-아시-'가 '-앗시-'로 나타나는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예: 셩은 형디만 남앗시ᄃᆡ 문이 홀노 올연이 셔시니 당초의 ᄃᆞᆫᄃᆞᆫ이 지은 줄을 알너라(11ㄱ)]. 이현희(1993, 1994ㄱ)에서는 이러한 표기양상과 'ㅡ' 모음이 'ㅅ, ㅈ, ㅊ' 등의 치음 뒤에서 'ㅣ' 모음으로 바뀌는 이른바 전설모음화 현상의 역표기(즉, 원래 '시, 지, 치'였던 것이 언중들에 의해 '스, 즈, 츠'에서 변화한 것이라고 잘못 인식되어 '스, 즈, 츠'로 되돌려 표기되는 일)을 결부시켜 19세기 중반에 '잇-'(내지 '잇ㅅ-') 및 '-앗-'(내지 '-앗ㅅ-')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파악한 바 있다.

‘잇-/이시-’와 ‘계시-’는 보조용언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없-’은 본용언으로만 사용되지 보조용언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잇-/이시-’는 동사적인 활용형을 보이나, ‘없-’과 ‘계시-’는 형용사적인 활용형을 보인다.

현대국어에서는 존재구문이 ‘NP_0이 NP_1에 {있-, 없-, 계시-}’의 구문유형을 보이고, 소유구문은 ‘NP_1이 NP_0이 {있-, 없-, 계시-}’의 구문유형을 보인다. 이 문헌자료에서도 그러한 구문유형을 보인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존재구문인데도 이중주어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없지 않고, 소유구문인데도 처격어 명사구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 점은 이미 중세국어의 존재동사구문에서도 나타나던 현상이었다(이현희 1994ㄱ의 제4장 참조).

3.2.2. 존재동사구문의 유형

3.2.2.1. ‘잇-/이시-’

먼저 ‘잇-/이시-’가 존재구문을 이루는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ㄱ. 가온ᄃᆡ 됴고만 셤이 잇고 셤 우희 조고만 뎡ᄌᆞ를 셰워시니 (1: 11ㄱ)
ㄴ. 집의 ᄐᆞᆸ과 ᄃᆡᄑᆡ 이시니 (2: 2ㄴ)
ㄷ. 나 자ᄂᆞᆫ 캉은 동편의 잇고 븍편의 ᄯᅩᄒᆞᆫ 적은 문이 잇고 렴ᄌᆞ를 드리워시니 이ᄂᆞᆫ ᄂᆡ당으로 드러가ᄂᆞᆫ 문이라 (2: 22ㄴ)
ㄹ. 셔편의 큰 문이 잇거ᄂᆞᆯ 그 문을 나니 문 밧긔 ᄃᆡ흰 갑군들이 여러히 이시니 (5: 18ㄴ)
ㅁ. 아ᄅᆡ 십여 줄 글이 이시니 이ᄂᆞᆫ 시방 사람의 문승상 글시ᄅᆞᆯ 찬양ᄒᆞ야 (10: 12ㄱ)
ㅂ. 황뎨의 후궁의 별노 통ᄋᆡᄒᆞᄂᆞᆫ 귀비 ᄒᆞ나히 이시니 황휘 새음ᄒᆞᄂᆞᆫ 연고로 황뎨의게 죄ᄅᆞᆯ 어더 (10: 14ㄱ)
ㅅ. ᄃᆡ개 뫼 ᄀᆞ온ᄃᆡ 일만쳔 봉 만이 이시ᄃᆡ 다 흰 돌이 공즁의 ᄲᅡ혀나고 (15: 9ㄱ)
ㅇ. 십여 리ᄅᆞᆯ 힝ᄒᆞ여 길ᄀᆞ의 큰 븐원이 잇거ᄂᆞᆯ (18: 26ㄱ)
ㅈ. 탑 뒤히 관왕의 묘당이 잇거ᄂᆞᆯ 일힝이 드러가 귀경ᄒᆞ니 (20:11ㄱ)

(1)의 예문은 ‘NP_0이 NP_1에 잇-/이시-’의 구문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1ㄱ)의 ‘가온ᄃᆡ’와 (1ㅁ)의 ‘아ᄅᆡ’, (1ㅅ)의 ‘뫼 ᄀᆞ온ᄃᆡ’에는 처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현희(1999ㄴ)에서는 (1)에서 보이는 ‘가온ᄃᆡ’, ‘아ᄅᆡ’는 ‘그제’, ‘ᄃᆡ’ 등과 같이 공간적 개념

이나 시간적 개념을 가지는 명사로서 하향적 이중모음의 'j'를 가지는 명사류 뒤에는 처격조사 '-예'의 통합이 저지되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운딕'와 '아릭', 'ᄀ온딕'는 표면상으로는 명사어간만으로 실현되어 있으나 심층적으로는 처격조사가 통합한 명사구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ㄹ)의 '문 밧긔 딕흰 갑군들이 여러히 이시니'와 (1ㅂ)의 '황데의 후궁의 별노 통의ᄒᆞ는 귀비 ᄒᆞ나히 이시니'는 처격명사구 '문 밧긔'와 '황데의 후궁의' 뒤에 주어가 둘이 나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렁'이나 'ᄒᆞ낳'이라는 수량사구와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이중주어문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처격명사구는 장소의 개념 외에,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기도 한다.[42]

(2) ㄱ. 역관의 마두들이 도라갈 ᄢᅴ의 제 관원의 상급 주는 은이 이시니 십 냥의 넘지 못ᄒᆞ딕 (11: 17ㄴ)
ㄴ. 션셰의 유명ᄒᆞᆫ 사람이 이시면 그 ᄌᆞ손은 비록 벼술이 업서도 딕딕로 봉은을 주ᄂᆞ니 두어 돌 아히도 다름이 업거니와 (11: 31ㄱ)
ㄷ. 삼츄의 계슈 열매와 십 니의 년쏫치 잇도다 (12: 9ㄱ)
ㄷ. 오월의 여룸이 잇고 남방의 일홈이 잇는 실패라 ᄒᆞ더라 (14: 24ㄱ)
ㄹ. ᄯᅩᄒᆞᆫ 기리 후셰의 말이 이실 거시니 (17: 19ㄱ)

(2)의 '도라갈 ᄢᅴ의'와 '션셰의', '삼츄의', '오월의', '후셰의'는 "돌아갈 때에", "전대에(조상대에", "삼추(三秋: 가을 석 달 동안)", "5월에", "후세에"의 의미를 가진다. (2)에서 보이는 조사 '-의'는 이른바 특이처격조사이다.

(3)은 'NP_0이 NP_1에 잇-/이시-'의 구문유형에서 NP_1이 유정체언일 때에는 여격조사가 통합된 문장이다.

(3) 닉게 ᄯᅩᄒᆞᆫ 두 설의 ᄋᆞ돌이 이시니 (2:23ㄱ)

이 문장은 표면상으로는 존재구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소유구문에 가깝다. 실제로 존재구문과 소유구문은 잘 구분되지 않는 면도 보인다.[43]

다음 문장은 'NP_0이 NP_1에 잇-/이시-'의 구문유형에서 처격명사구 'NP_1에'가 경우에 따라

42) 이현희(1994ㄱ)에 의하면, 중세국어에는 장소, 시간, 원인의 세 가지 의미를 처격명사구가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한다.
43) 박양규(1975:94-97)에서는 현대국어에서도 존재구문, 소유구문은 해당 예문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문면에 나타나지 않는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4) ㄱ. 압흐로 남으로 향ᄒᆞ매 ᄒᆞᆫ 우믈이 이시니 이ᄂᆞᆫ 긔ᄌᆞ뎡이라 ᄒᆞ니 (1: 10ㄴ)
ㄴ. 눈의 ᄃᆞ히고 한ᄃᆡ롤 ᄇᆞ라보ᄆᆡ 침침이 어두어 겨유 희미히 붉은 빗치 잇더니 (9: 32ㄴ)
ㄷ. 됴션은 남븍이 ᄉᆞ쳔 니오 동셰 일쳔여 리라 난화 여ᄃᆞᆲ 도롤 ᄆᆡᆫᄃᆞ니 ᄀᆞ온ᄃᆡᄂᆞᆫ 골온 경긔도니 나라 도읍이 잇고 (15: 5ㄱ)
ㄹ. 이십일 길홀 ᄯᅥ나 듀류하의 니ᄅᆞ니 믈이 비록 너ᄅᆞ지 아니ᄒᆞ나 다만 젹은 ᄇᆡ ᄒᆞ나히 이셔 힝인을 건네ᄂᆞᆫ지라 (20: 1ㄴ)
ㅁ. 그 푸ᄌᆞ의 니ᄅᆞ러 말 슈작이 잇더니 (20: 22ㄱ)

(4)의 문장들은 처격명사구 'NP1에'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는 문면의 내용을 통해 쉽게 복원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문장들은 처격명사구를 쉽게 복원할 수 없다.

(5) ㄱ. 그 어미 이시ᄃᆡ 나히 팔십이라 (2: 16ㄴ)
ㄴ. 임의 보ᄂᆡᆫ 거시 이시니 답장이 이셔야 바든 줄을 알니라 (11: 9ㄱ)
ㄷ. 그 아ᄒᆡ 이시ᄃᆡ 나히 열다엿 ᄉᆞᆯ이오 인믈이 ᄀᆞ장 녕니ᄒᆞᆫ지라 (13: 8ㄱ)

이와 같은 문장들은 'NP0이 잇-/이시-'의 구문유형을 보인다고 할 수밖에 없다. (5ㄱ)은 "그 어머니가 살아 있되, 나이가 80이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그 어미'가 존재하는 처소를 상정하기 어렵다. (5ㄴ)은 "이미 보낸 것이 있으니, 답장이 있어야 받은 줄을 알 것이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임의 보ᄂᆡᆫ 것'과 '답장'이 존재하는 처소를 상정하기 힘들다. (5ㄷ)은 "그 아이가 있되, 나이가 15세고 인물이 매우 영리한지라"의 의미를 가지는데, 역시 '그 아ᄒᆡ'가 존재하는 처소는 상정하기 힘들다.

'잇-/이시' 구문은 'NP0이 NP1로 잇-/이시-'의 구문유형도 보이는데 이러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머리ᄂᆞᆫ 계롤 ᄒᆞ여시니 가난ᄒᆞᆫ 계집이라 ᄭᅩᆺ도 아니 ᄭᅩᆺ고 여러 날 빗디 아냐 얼프시 보ᄆᆡ 아국 ᄉᆞ나ᄒᆡ 상토 바랑으로 잇ᄂᆞᆫ 모양이라 (1: 22ㄴ)

(7) 졔 아비 종슌이 일싱 됴션 통관으로 이셔 (7: 17ㄴ)

(8) 븍편으로 큰 <u>길히</u> <u>잇고</u> 길 좌우로 시ᄉᆞ를 버려시니 (11: 5ㄴ)

표면상으로는 (6)과 (7), 그리고 (8)이 동일한 구문유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격 명사구의 성격이 다르다. (6)의 ‘아국 ᄉᆞ나희 상토 바랑으로’는 상태나 기준을 표시하는 명사구이고, (7)의 ‘됴션 통관으로’는 자격을 표시하는 명사구이고, (8)의 ‘븍편으로’는 방향을 표시하는 명사구라는 차이를 나타낸다. 이 구문유형들은 드문 유형에 속한다.

‘NP_0이 NP_1에 잇-/이시-’의 주어명사구나 처격명사구에는 보조사가 통합해 나올 수 있는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ㄱ. <u>이 누ᄂᆞᆫ</u> 셩 셔편 <u>모퉁이예</u> <u>잇ᄂᆞᆫ디라</u> (1: 12ㄱ)
ㄴ. 장이 밧근 ᄒᆞᆫ 문이오 안흔 두 층도 ᄒᆞ고 혹 셰 층ᄒᆞᆫ <u>것도</u> <u>잇더라</u> (1: 21ㄴ)
ㄷ. 만<u>쥬와 한군은</u> 비록 구실을 당티 아니ᄒᆞ야도 <u>돌마다 봉은이</u> <u>잇ᄂᆞ냐</u> (11: 31ㄱ)

(10) ㄱ. 각식 ᄆᆡ화와 됴화와 모란과 쟉약과 이 밧긔 일홈 모ᄅᆞᄂᆞᆫ 쏫티 혹 <u>만발ᄒᆞᆫ 것도</u> <u>잇고</u> 혹 반<u>만 핀 것도</u> <u>이시니</u> (6: 28ㄱ)
ㄴ. 션유의 의논을 볼작시면 셩니라 <u>니른 곳도</u> <u>잇고</u> ᄆᆞᄋᆞᆷ이라 니른 <u>곳도</u> <u>잇고</u> ᄆᆞᄋᆞᆷ의 셩졍을 겸ᄒᆞ야 니른 <u>곳도</u> <u>잇고</u>, ᄆᆞᄋᆞᆷ의 셩졍을 겸홈을 니른 <u>곳도</u> <u>이시니</u> 그 읏이 드ᄅᆞ니 보기를 잘ᄒᆞ야 말노ᄡᅥ 쓰슬 해롭게 아니ᄒᆞ면 세 말을 가히 서로 통ᄒᆞ리라 ᄒᆞ니 (11: 13ㄱ)
ㄷ. 즁국의셔 ᄆᆞᆫᄃᆞᆫ 것과 일본셔 나온 거시 만코 혹 <u>셔양국 졔작도</u> <u>잇ᄂᆞ니라</u> (12: 2ㄴ)

(9ㄱ)의 NP_0에는 보조사 ‘-ᄂᆞᆫ’이 통합하였고, (9ㄴ)의 NP_0에는 보조사 ‘-도’가 통합하였다. (9ㄷ)은 NP_0에 해당하는 명사구에 보조사 ‘-마다’가 통합한 문장이다. (10)의 문장들은 처격명사구 ‘NP_0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NP_1에는 보조사 ‘-도’가 통합해 있다.

NP_0에 보조사가 통합할 수 있는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ㄱ. 뉴숑녕이 닐오ᄃᆡ 젼됴의 만녁 년간 ᄉᆞ긔를 보아시니 엇지 모ᄅᆞ리오 ᄯᅩ 무ᄅᆞᄃᆡ <u>됴션도</u> <u>ᄌᆞ명죵이</u> <u>잇ᄂᆞ냐</u> (12: 2ㄴ)
ㄴ. 뉴숑녕이 ᄀᆞᆯ오ᄃᆡ <u>일본의도</u> ᄯᅩᄒᆞᆫ <u>ᄌᆞ명죵이</u> <u>잇ᄂᆞ냐</u> (12: 2ㄴ)

(11ㄱ)의 문장은 소유의 이중주어문인지, 존재구문인지 표면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다. 앞

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도 존재구문과 소유구문이 잘 구분되지 않는 면을 볼 수 있다. (11ㄱ)의 '됴션도'는 (11ㄴ)의 '일본의도'를 통해 볼 때 '됴션의도'로 표현될 수 있다.

지금부터 소유구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ㄱ. 쥬인이 괴로이 넉이ᄂᆞᆫ 긔식이 잇거ᄂᆞᆯ (11: 28ㄴ)

ㄴ. 이 곳이 상가의 풍뉴ᄒᆞᄂᆞᆫ 법이 이시니 필연 상갠가 시브다 (11: 29ㄴ)

ㄷ. ᄉᆞ싱이 녕흠이 잇ᄂᆞᆫ지라 (13: 25ㄱ)

ㄹ. 그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운슈ᄂᆞᆫ 텬명이 뎡흠이 잇ᄂᆞᆫ지라 (17: 2ㄱ)

ㅁ. 그러나 도라갈 ᄒᆞᆫ정이 긔약이 이셔 (17: 3ㄱ)

ㅂ. 여러 가지 희롱이 각각 졔목이 잇ᄂᆞᆫ지라 (19: 3ㄴ)

ㅅ. 그 즁이 ᄀᆞ장 노식이 잇거ᄂᆞᆯ (19: 14ㄴ)

ㅇ. 덕유와 ᄆᆞᆯ 가진 역졸이 다 근심ᄒᆞᄂᆞᆫ 빗치 이시니 (20: 14ㄴ)

ㅈ. 븍편 밧 ᄀᆞ온ᄃᆡ 두 ᄉᆞ람이 셧거ᄂᆞᆯ 급히 덕유를 보ᄂᆡ여 길흘 무ᄅᆞ니 두 사ᄅᆞᆷ이 다 노식이 이셔 (20: 19ㄱ)

ㅊ. 두 편 셕츅이 오히려 흔젹이 이시니 이ᄂᆞᆫ 이 시셩 븍믄이라 (20: 19ㄱ)

이 (12)의 문장들은 'NP_0이 NP_1이 잇-/이시-'의 이중주어문을 이루고 있다. '여러 아희들이 글 낡ᄂᆞᆫ 소ᄅᆡ 잇거ᄂᆞᆯ (20: 2ㄴ)'은 표면상으로 이중주어문인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여러 아희들이'이 '잇거ᄂᆞᆯ'과 통사관계를 가지지 않고, 단지 '글 낡ᄂᆞᆫ'의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일 뿐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존재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NP_0이 NP_1이 잇-/이시-'의 NP_0에 보조사가 통합된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ㄱ. 몽고ᄂᆞᆫ 여러 부락이 이셔 셔로 거ᄂᆞ리지 아니ᄒᆞ니 (10: 27ㄱ)

ㄴ. 김형은 진짓 신션의 연분이 잇도다 (17: 30ㄱ)

ㄷ. 부체ᄂᆞᆫ 임의 허락이 이시ᄆᆡ ᄒᆞ나흘 브쳐 보ᄂᆡ고 (18: 1ㄴ)

ㄹ. 남은 말은 뉵형의 셔찰이 이시니 (18: 12ㄱ)

ㅁ. 다ᄅᆞᆫ 곳은 혹 쳐쳡이 이시ᄃᆡ (20: 16ㄱ)

(14) 벼슬ᄒᆞᆫ 사람들도 ᄡᅳᄂᆞᆫ 곳이 잇ᄂᆞ냐 (11: 12ㄱ)

(13)은 NP_0에 보조사 '-ᄂᆞᆫ'이 통합한 것이고, (14)는 보조사 '-도'가 통합한 것이다.

'NP_0이 NP_1이 잇-/이시-'에서 'NP_0이'는 문면에 나타나지 않는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5) ㄱ. 셰 아이 이시되 다 ᄀᆞ음열고 집이 됴흔 고로 (2: 16ㄴ)
ㄴ. 쥬인의 싱니를 무ᄅᆞ니 밧치 십여 일경이 이셔 샹녀의 슈슈와 조흘 삼ᄉᆞ십 셕을 거두엇더니 (2: 3ㄴ)
ㄷ. 머리의 ᄉᆞ모를 쓰고 근농포를 닙혀시니 얼골이 극히 화려ᄒᆞ야 유복ᄒᆞᆫ 왕자의 긔상이 잇더라 (3: 22ㄴ)

(15)는 표면상으로는 'NP$_1$이 이시-' 구문의 모습을 보여 주는데 'NP$_0$이'에 해당하는 명사구를 문맥을 통해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다. (15ㄴ)은 '(그 쥬인이) 밧치 십여 일경이 이셔'의 구조를 보여 삼중주어문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관계구성을 가지는 문장은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표제명사가 존재구문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소유구문에 있던 것인지 알기 힘들게 한다.

(16) ㄱ. 그 즁 벼술 잇ᄂᆞᆫ 쟈ᄂᆞᆫ 머리의 징ᄌᆞ를 브티고 (2: 19ㄴ)
ㄴ. 그ᄃᆡᄂᆞᆫ 벼술이 잇ᄂᆞᆫ ᄉᆞ롬이니 엇지 말을 듯지 아니리오 (4: 12ㄴ)
ㄷ. 곡어ᄉᆞᄂᆞᆫ 문장이 놉하 아국의도 일홈이 잇ᄂᆞᆫ 사롬이니 (4: 13ㄴ)
ㄹ. 빠홈의 공이 잇ᄂᆞᆫ 자ᄂᆞᆫ 그 ᄌᆞ손을 한군이라 일ᄏᆞ라 ᄯᅩᄒᆞᆫ 팔긔의 ᄆᆡ이이고 (20: 4ㄱ)

(16ㄱ)만 가지고 말하자면, '그 쟈ᄂᆞᆫ 벼슬이 잇다'는 문장은 자연스럽지만 '그쟈에게는 벼슬이 잇다'는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16)의 문장을 소유구문과 관련된 문장이라고 파악하고자 한다.

'NP$_0$이 NP$_1$이 잇-/이시-'의 소유구문에 처격명사구가 나타나는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우리ᄂᆞᆫ 눈의 병이 이셔 먼 ᄃᆡ를 보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11: 32ㄴ)

(17)의 '눈의'는 처격명사구이다. "눈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2.2.2. '업-'

'잇-/이시-'의 구문구조에서 보았던 것처럼 본절에서도 존재구문과 소유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존재구문을 보여주는 '업-'의 예문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다음 예문의 후자의 'NP이'는 전자의 'NP이'의 구체적인 대상이 된다.

(18) 터히 빅니를 열닌 들이 업고 믈이 텬니ᄅᆞᆯ 흐ᄅᆞᄂᆞᆫ 강이 업ᄉᆞ니 (1: 1ㄴ)

다음은 'NP_0은 NP_1{이,은} 업-'의 예문이다.

(19)의 'NP_0은'은 'NP_1이'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한다.

(19) ㄱ. 블 빗희 보니 ᄂᆡ 옷시 눈이 두로 ᄧᅥ러졋거ᄂᆞᆯ 고이히 넉여 밤의 눈이 왓ᄂᆞᆫ가 무로니 눈은 일이 업다 ᄒᆞ더니 (1: 17ㄱ)

ㄴ. 관왕과 부쳐ᄂᆞᆫ 거의 아니 위ᄒᆞᆫ 곳이 업ᄉᆞᄃᆡ (2: 14ㄴ)

ㄷ. 이 날은 일긔 덥고 ᄇᆞᄅᆞᆷ이 업ᄉᆞ니 (3: 5ㄴ)

ㄹ. ᄂᆡ ᄀᆞᆯ오ᄃᆡ 네 그 휘항을 어더 공연ᄒᆞᆫ 갑ᄉᆞᆯ 바다도 ᄂᆡ게ᄂᆞᆫ 조금도 해로올 일이 업ᄉᆞᆫ 쥴 네 ᄯᅩ 아ᄂᆞᆫ다 (3: 24ㄱ)

ㅁ. 슈염과 눈섭의 셩에 ᄀᆞ득히 ᄆᆡ치이고 의복의 셔리 ᄒᆞ여시니 몽고의 풍속은 방이 업ᄂᆞᆫ지라 벼ᄉᆞᆯ이 잇ᄂᆞᆫ 자ᄂᆞᆫ 댱막으로 집을 삼고 (4: 22ㄴ)

ㅂ. 그 소ᄅᆡᄂᆞᆫ ᄌᆞ시 알 길히 업ᄉᆞᄃᆡ ᄃᆡ강 이 오시 픔슈ᄂᆞᆫ 놉고 갑ᄉᆞᆫ 젹으니 (6: 30ㄱ)

ㅅ. 다 ᄀᆞᆯ오ᄃᆡ ᄉᆞ오일 안은 변통ᄒᆞᆯ 길히 업ᄉᆞ니 적이 진정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리라 ᄒᆞ니 (7: 3ㄱ)

ㅇ. 보ᄋᆞᄂᆞᆫ ᄂᆞ려지ᄂᆞᆫ 닐이 업ᄉᆞ니 (7: 14ㄱ)

ㅈ. 극히 고이히 넉여 두어 번을 힘ᄡᅥ 브리티고 나종의 보ᄒᆞᆯ 헤쳐보ᄃᆡ 보ᄋᆞᄂᆞᆫ 간 곳이 업ᄂᆞᆫ지라 (7: 14ㄱ)

ㅊ. 뎨ᄂᆞᆫ 졉칙이 업지 아니ᄒᆞᄃᆡ (15: 3ㄱ)

ㅋ. 동방은 처ᄋᆞᆷ의 군당이 업더니 (15: 5ㄴ)

ㅌ. 무명과 면쥬ᄂᆞᆫ 별양 다ᄅᆞᆫ 일이 업ᄉᆞ나 (16: 1ㄴ)

ㅍ. ᄉᆞ람의 힝실은 다ᄅᆞᆫ 말이 업ᄉᆞᆯ지라 (17: 27ㄱ)

ㅎ. 통관과 영송관이 초두의 약간 금코져 ᄒᆞ다가 필경은 ᄒᆞᆯ 일이 업ᄉᆞ니 다만 됴

션 조급ᄒᆞᆫ 풍쇽을 ᄭᅮ지즐 쓴이니 ᄀᆞ장 붓그러온 일이러라 (20: 2ㄱ)

(20) ㄱ. 이런고로 나ᄂᆞᆫ 쥬ᄂᆞᆫ 일이 업노라 ᄒᆞ니 왕개 듯고 웃더라 (3: 6ㄴ)

ㄴ 그 젼은 년ᄒᆞ야 나라 일이 이셔 틈이 업노라 ᄒᆞ니 기ᄃᆞ릴 밧긔ᄂᆞᆫ ᄒᆞᆯ 일이 업다 ᄒᆞ더라 (7: 4ㄱ)

ㄷ. 쥬인은 아모ᄃᆡ 안ᄌᆞ도 허믈이 업ᄉᆞ니 (7: 19ㄱ)

ㄹ. 동편은 문이 업고 셔편의 문을 ᄂᆡ엿고 (11: 5ㄴ)

ㅁ. 쥬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황샹이 과거를 당ᄒᆞ야 시관을 샌ᄂᆞ니 이 밧긔ᄂᆞᆫ ᄡᅳᄂᆞᆫ 곳이 업고 소장의 니ᄅᆞ러ᄂᆞᆫ 한당과 팔가 문댱을 슝샹ᄒᆞᄂᆞ니 팔고 문댱은 ᄉᆞ셔오 경으로 졔를 ᄂᆡ여 경의를 의논ᄒᆞᄃᆡ 여ᄃᆞᆲ가ᄃᆞᆰ을 ᄂᆞᆫ화 파제파승긔강이라 ᄒᆞᄂᆞᆫ 츙졀이 잇ᄂᆞ니 일홈을 시문이라 일ᄏᆞᆺᄂᆞᆫ 거시라 (11: 12ㄱ)

ㅂ. 뎨ᄂᆞᆫ 졉칙이 업지 아니ᄒᆞᄃᆡ (15: 3ㄱ)

ㅅ.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목지ᄂᆞᆫ 인픔이 족히 니를 거시 업ᄂᆞᆫ지라 (15:18ㄴ)

위의 예문에서 보면 ‘NP은’은 ‘인간’과 ‘無情체언’이 올 수 있으며, ‘NP이’는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21ㄱ)과 (21ㄴ)은 ‘업-’ 동사의 이중주어문이다. 전자는 ‘NP_0이’의 성격이 ‘인간’의 자질을 가지지 않을 때는 소유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존재구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잇-/이시-’ 구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유구문과 존재구문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 소유구문의 소유대상물이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1) ㄱ. 녜악 문물이 다시 상고ᄒᆞᆯ 곳이 업ᄉᆞ니 (1: 2ㄱ)

ㄴ. 그 나라히 녜법이 젼여 업셔 (3: 11ㄴ)

ㄷ. 그 긔ᄉᆡᆨ을 보니 ᄀᆞ장 감ᄉᆞᄒᆞ여 ᄒᆞᄂᆞᆫ 모양이라 귀경일이 걱정이 업ᄉᆞ리라 ᄒᆞ더라 (5: 29ㄱ)

ㄹ. ᄒᆞᆫ 편 손의 ᄎᆞ례로 집어 ᄂᆡᆺ터니 홀연이 그 손을 버려 좌우를 뵈ᄃᆡ 다ᄉᆞᆺ 구슬이 간 곳이 업더니 (7: 12ㄱ)

ㅁ. 셔종ᄆᆡᆼ이 크게 노ᄒᆞ야 쥬션ᄒᆞᆯ ᄯᅳᆺ이 업ᄂᆞᆫ지라 (13: 14ㄱ)

ㅂ. 이러므로 풀홀ᄒᆞᆫ ᄆᆞ음이 ᄌᆞ연 즐거옴이 업ᄉᆞ니 (14: 30ㄴ)

ㅅ. 내 ᄀᆞᆯ오ᄃᆡ 녯 사ᄅᆞᆷ이 닐오ᄃᆡ 텬되 아ᄅᆞᆷ이 업셔 등ᄇᆡᆨ도를 ᄒᆞ여곰 ᄌᆞ식이 업다 ᄒᆞ여시니 (18: 28ㄴ)

ㅇ. 이는 나의 졸ᄒᆞᆫ 글시라 필법이 볼 거시 업ᄉᆞ나 (18: 29ㄴ)

ㅈ. 힝싀이 녜법이 업ᄂᆞᆫ지라 (18: 34ㄴ)

ㅊ. 다만 덕유를 ᄃᆞ려시나 쥰쥰ᄒᆞᆫ 인믈이 밋을 거시 업ᄉᆞ니 (20: 13ㄴ)

(21)' 왕지 ᄀᆞᆯ오ᄃᆡ 너희 궁ᄌᆞᄂᆞᆫ 밧지 아니ᄒᆞ야도 ᄂᆡ ᄒᆞᆯ 일이 업ᄉᆞ거니와 너는 아릐 사람이라 ᄂᆡ 말을 어그릇지 못ᄒᆞᆯ 거시오 네 ᄲᆞᆯ 곳이 업셔 ᄒᆞ거든 (11: 22ㄱ)

다음 예문은 ‘NP_1’에 보조사 ‘-도’가 통합된 예이다.

(22) ㄱ. 셩문도 무디게 문 븐이오 문 누도 업더라 (3: 6ㄱ)

ㄴ. 그 ᄆᆞᆯ이 ᄒᆞᆫ 번 ᄎᆞ인후의 별양 겁ᄂᆡᄂᆞᆫ 거동도 업고 노ᄒᆞᄂᆞᆫ 거동도 업셔 심상이 티여 가니 (4: 28ㄴ)

(22)의 ‘-도’는 강조하기 위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제 이 자료에서 보이는 소유동사구문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23)의 ‘NP_0이’는 ‘인간’이 아닌 자질을 가지고 있기에 소유구문으로 다룬다.

(23) ㄱ. 계부를 뫼시고 댱막의 누으니 심히 좁아 편티 아니ᄒᆞᄃᆡ ᄒᆞᆯ 일이 업더라 (1: 17ㄱ)

ㄴ. 버드 남그로 ᄆᆞᆫ든 살이니 ᄀᆞ장 크고 촉이 업ᄉᆞᆫ 살이라 (1: 26ㄱ)

ㄷ. 갑군 ᄒᆞ나히 술위 압히 와 ᄂᆞ리라ᄒᆞ니 저희 국법이 친왕 밧긔는 하마 식이는 일이 업ᄉᆞᄃᆡ (1: 27ㄱ)

ㄹ. 아모 치위를 당ᄒᆞ야도 걱정이 업ᄉᆞᆯ너라 (3: 1ㄴ)

ㅁ. 그 아희 나아ᄀᆞ 절ᄒᆞ야 ᄀᆞᆯ오ᄃᆡ ᄂᆡ 부친이 병이 이셔 온갓 냑이 효험이 업ᄉᆞ니 노야의 쳥심환 ᄒᆞ나흘 엇고저 ᄒᆞ노라 (3: 5ㄴ)

ㅂ. 겨집이 갓나믜 헝거ᄉᆞ로 두 발을 동혀 늙도록 쥬야로 프ᄂᆞᆫ 일이 업ᄂᆞᆫ고로 (3: 7ㄴ)

ㅅ. 우개 가졍을 ᄃᆞ리고 무ᄉᆞᆷ 말을 ᄒᆞᄃᆡ 다 몽고의 말노 ᄒᆞ니 아라 드를 길히 업더니 (3: 12ㄱ)

ㅇ. 덕위 업노라 ᄒᆞ면 도라올제 주마 ᄒᆞ고 거ᄌᆞᆺ 밍셰를 무슈히 ᄒᆞ니 (3: 33ㄴ)

ㅈ. 그 글의 ᄀᆞᆯ오ᄃᆡ …… 몸소 나아가 샤례ᄒᆞᄂᆞᆫ ᄠᅳᆺ을 닐위지 못ᄒᆞ니 졍셩이 업ᄉᆞ미 아니라 (11: 9ㄴ)

ㅊ. 여러 관원을 직희여 집안을 엄히 금ᄒᆞ니 진가 밧긔ᄂᆞᆫ 츌입ᄒᆞᄂᆞᆫ ᄉᆞ람이 업ᄉᆞᄃᆡ (11: 22ㄴ)

ㅋ. 뉴개 믹매의 골몰ᄒᆞ야 조곰도 반겨ᄒᆞᄂᆞᆫ 긔싀이 업거늘 즉시 니러나 올식 이ᄯᅢ 날이 임의 느저 ᄀᆞ장 시장ᄒᆞᆫ지라 (11:29ㄱ)

ㅌ. 혹 의심과 방언이 업지 아닐지라 (18: 10ㄱ)

ㅍ. 계뷔 집ᄉᆞ를 나입ᄒᆞ야 결곤ᄒᆞ시ᄃᆡ ᄒᆞᆯ 일이 업더라 (20: 24ㄴ)

다음은 연결형 '-ㄴᄃᆡ', '-ㄹᄃᆡ'에 '업-'이 결합된 구문이다.

(24) ㄱ. 십ᄉᆞ일 안쥐 슉소의 니로니 셩 졔되 웅댱ᄒᆞ고 시ᄉᆞ의 번화ᄒᆞ미 평양 버금이오 직샤문이 두 층이니 일은바 다ᄅᆞᆫᄃᆡ 업ᄂᆞᆫ 졔되러라 (1: 11ㄱ)

ㄴ. 집이 우리 머믈ᄃᆡ 업ᄂᆞᆫ지라 (4: 9ㄴ)

ㄷ. 놉희와 졔양이 비록 금쥐 빅탑의 밋지 못ᄒᆞ나 ᄲᅣᆼ탑을 셰우믄 다ᄅᆞᆫᄃᆡ 업ᄉᆞᆫ 졔되로라 (19: 27ㄱ)

(25)는 'NP$_0${은, 도} 업-'의 구문유형이다.

(25) ㄱ. 그 즁이 ᄀᆞᆯ오ᄃᆡ 겨집 두ᄂᆞ니ᄂᆞᆫ 업노라 (3: 9ㄴ)

ㄴ. 왕개 ᄀᆞᆯ오ᄃᆡ ᄂᆡ 집은 업ᄉᆞᄃᆡ 다른 집은 흔이 잇ᄂᆞ니라 (4:11ㄴ)

ㄷ. 왕개 ᄀᆞᆯ오ᄃᆡ 그 병을 어더도 죽ᄂᆞᆫ 일은 업거니와 코흘 ᄡᅧ로티고 몸이 허러시면 죽음과 다름이 업ᄉᆞ리라 (4:20ㄴ)

(26) 셩이 허러지기 여디 업고 셩문도 무디게 문 분이오 문 누도 업더라 (3: 16ㄱ)

다음은 'NP$_1$게 NP$_2$ 업-' 구문을 보이는 문장이다.

(27) 내 ᄀᆞᆯ오ᄃᆡ 우리ᄂᆞᆫ 공부를 존슝ᄒᆞ고 부쳐긔 졀ᄒᆞᄂᆞᆫ 일이 업노라 ᄒᆞ니 (3: 2ㄴ)
이ᄂᆞᆫ ᄂᆡ게 믹매 업ᄉᆞᆫ 줄을 알분아니라 (5: 30ㄱ)

다음은 'NP$_1${ᄂᆞᆫ,도} NP$_2$의 업-'의 문장들이다.

(28) ᄂᆡ ᄀᆞᆯ오ᄃᆡ ᄯᅩᄒᆞᆫ ᄃᆡ강 ᄀᆞᆺ흐나 녜젹 졍침 졔도ᄂᆞᆫ 동국의 업술 쁜 아니라 (11: 12ㄴ)

(29) 여러 하인들도 젼녜의 업ᄂᆞᆫ 은냥을 엇ᄂᆞᆫ지라 (11: 17ㄴ)

(30)은 'NP_1의 NP_2이 업-' 구문유형이다.

(30) ㄱ. ᄇᆡᆨ경 ᄡᆞ흘 들매 모당이 별양 만ᄒᆞ니 수십사 ᄆᆞᄋᆞᆯ이 관왕의 모당이 업손 곳이 업더라 (3: 17ㄴ)

ㄴ. 수년 ᄉᆞ이 군시 ᄇᆡᆨ여만이 남아 ᄇᆡᆨ경을 함몰ᄒᆞ니 슝뎡 황뎨 만셰산의 올나 됴졍의 ᄉᆞᄅᆞᆷ이 업ᄉᆞ믈 탄식ᄒᆞ고 (3: 31ㄱ)

ㄷ. 오식 뉴리와 오식 슈정과 온갓 보비의 돌히 업ᄂᆞᆫ 거시 업ᄉᆞ니 (11: 24ㄱ)

ㄹ. 드러가 귀경코져 ᄒᆞᄃᆡ 문의 사람이 업ᄉᆞ니 혹 욕된 일이 이실가 ᄒᆞ야 (11: 29ㄴ)

ㅁ. 힝즁의 셔적이 업셔 ᄆᆞᄋᆞᆷ의 긔록ᄒᆞᄂᆞᆫ 일을 적을 ᄯᆞ람이라 (14: 5ㄱ)

ㅂ. 얼굴이 경ᄌᆞ의 ᄑᆞᄅᆞ러 ᄉᆞ람의 ᄂᆞᆺ빗치 업ᄉᆞ니 이ᄂᆞᆫ 슈역의 ᄒᆞᆫ 말이 졔 ᄉᆞ싱이 달닌 연괴라 (20: 8ㄴ)

ㅅ. 덕위 니ᄋᆞᆨ이 달니다ᄀᆞ ᄒᆞᆯ 일이 업셔 믈너셔니 다시 니러나 창왕이 쒸여 ᄃᆞ로니 잠간 ᄉᆞ이의 간 곳이 업ᄂᆞᆫ지라 (20: 18ㄴ)

(31)은 'NP_1을 NP_2이 업-'의 구문유형이다.

(31) ㄱ. 갑군이 듯고 드러 가더니 이ᄋᆞᆨ고 도로 나와 무어시라 ᄒᆞᄃᆡ 그 말을 아라 들을 길히 업ᄂᆞᆫ디라 (1: 24ㄱ)

ㄴ. 겨을의 ᄭᅩᆺ출 픠워 조화의 공교ᄅᆞᆯ 아ᄉᆞ니 즁국 사람의 지력을 당ᄒᆞᆯ 길이 업더라 (6: 28ㄴ)

ㄷ. ᄂᆡ ᄀᆞ장 붓그려 ᄆᆞᄋᆞᆷ을 표ᄒᆞᆯ 길히 업ᄂᆞᆫ지라 (11: 21ㄴ)

ㄹ. 다시 ᄇᆞᆰ은 의논을 밧들 날이 업ᄉᆞ니 유유ᄒᆞᆫ 이 ᄒᆞᆫ이ᄒᆞᆫ 붓ᄉᆞ로 다ᄒᆞ지 못ᄒᆞᆯ지라 (11: 29ㄱ)

ㅁ. 깁ᄒᆞᆫ 정셩을 표ᄒᆞᆯ 길히 업ᄂᆞᆫ지라 (15: 10ㄴ)

ㅂ. ᄉᆞ람으로 더브러 쇼로 일ᄏᆞᄅᆞ며 ᄇᆡᆨ일의 ᄒᆞᆫ 일을 능ᄒᆞᆷ이 업ᄉᆞ니 (17: 5ㄴ)

ㅅ. 평싱의 밧그로 경계ᄅᆞᆯ 범ᄒᆞᆷ이 업ᄉᆞᄃᆡ (17: 26ㄴ)

ㅇ. 도모지 날을 더러이 너기미니 여러마를 ᄒᆞᆯ 거시 업도다 (17: 34ㄱ)

3.2.2.3. ‘계시-’

현대국어에서는 대우해야 할 인물에 대한 존대의향이 발휘될 때 소유구문의 경우 그 서술어가 ‘있으시-’가 되고 존재구문의 경우 그 서술어가 ‘계시-’가 된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없었다. 본 자료에서 보이는 ‘계시-’ 구문은 우연인지는 모르나 모두 존재구문으로 사용된 문장들만 보일 뿐, 소유구문으로 사용된 예는 없었다.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겨시-’ 외에, 제2음절의 ‘i’ 모음의 영향으로 제1음절에 ‘j’가 더 개재된 ‘계시-’로 나타난다. 따라서 근대국어 시기에 필사된 이 자료 역시 ‘겨시-’보다 ‘계시-’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동사어간을 ‘계시-’로 표기하고자 한다.

본 자료에서 ‘계시-’의 구문유형은 무척 단순한데, 이 유형은 ‘NP_0이 겨시-’로만 나타난다.

(32) ㄱ. 이ᄂᆞᆫ 긔ᄌᆞ 계오시던 대궐 터이러라 (1: 10ㄴ)
ㄴ. ᄯᅩᄒᆞᆫ 화상이 계시더라 (1: 10ㄴ)
ㄷ. ᄒᆞ나흔 마두ᄅᆞᆯ 블너 계부 계신 ᄃᆡ로 보ᄂᆡ고 (2: 31ㄴ)
ㄹ. 큰 집의 드러 두어 구비ᄅᆞᆯ 도라 계부 계신 ᄃᆡ 니로니 ᄉᆞ면의 도멱을 정쇄히 ᄒᆞ고 (3: 29ㄱ)
ㅁ. 계부 계신 ᄃᆡ 가셔 종밍의 말ᄉᆞᆷ을 엿ᄌᆞᆸ고 웃더니 (7: 5ㄱ)

(32ㄱ)의 ‘계오시-’는 ‘계시-’에 화자겸양의 ‘-ᄋᆞᆸ-’이 더 통합된 것이다. 위 (33)의 문장들은 다 존재구문을 이룬다.

‘계시-’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예도 보인다. 다음의 ‘-아 계시-’는 ‘-아 잇/이시-’의 존대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33) ㄱ. 잠간 쉬여 힝ᄒᆞᆯ시 힝치 먼니 가 계시거ᄂᆞᆯ ᄆᆞᆯ을 임의로 모라 가니 상쾌ᄒᆞᄃᆡ (3: 6ㄱ)
ㄴ. ᄆᆞᆯ을 밧비 ᄃᆞᆯ녀 체마소의 니로니 ᄉᆞ힝이 임의 ᄯᅥ나 계신디라 (3: 18ㄱ)
ㄷ. 차ᄅᆞᆯ 나오고져 ᄒᆞ더니 덕쉬 드러와 닐오ᄃᆡ 힝치 님의 ᄯᅥ나 계시고 (4: 3ㄱ)
ㄹ. 힝치 밋처 ᄯᅥ나지 못ᄒᆞ야 계시거ᄂᆞᆯ 계부긔 드러ᄀᆞ 뵈오니 (4: 8ㄴ)
ㅁ. 계뷔 부방의 안져 계시다 ᄒᆞ거ᄂᆞᆯ (6: 12ㄴ)
ㅂ. 나라히 악ᄉᆞᄅᆞᆯ 보ᄂᆡ셔 ᄇᆡ화 오라 ᄒᆞ여 겨시ᄃᆡ (8: 18ㄱ)
ㅅ. 비록 만ᄇᆡᆨ의 나라히라도 힝신이 어렵지 아니타 ᄒᆞ여 계신니 (11: 1ㄴ)
ㅇ. 이ᄂᆞᆫ 네 증조부 부윤으로 계오실 ᄯᅢ의 구룡뎡이라 ᄒᆞᄂᆞᆫ 뎡ᄌᆞᄅᆞᆯ 지여 계오시더

니 (1: 14ㄴ)

(33ㅇ)의 '계오시니'도 화자겸양의 '-옵-'이 더 통합해 들어간 것이다.

본용언으로 사용된 것이건, 보조동사로 사용된 것이건 간에 '계시-'는 형용사적인 활용만 보이고 동사적인 활용을 보이지 않는다. 즉, '계시ᄂᆞ다', '계신다', '계시ᄂᆞᆫ' 등의 활용형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존재구문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잇-	(1)
	NP_0이 NP_1에 잇-/이시-
	NP_0게 NP_1에 잇-/이시-
	NP_0이 잇-/이시-
	NP_0이 NP_1로 잇-/이시-
	NP_0ᄂᆞᆫ NP_1에 잇-/이시-
	NP_0도 잇-/이시-
	NP_0마다 잇-/이시-
	(2)
	NP_0이 NP_1이 잇-/이시-
	NP_0ᄂᆞᆫ NP_1에 잇-/이시-
	NP_0이 NP_1이 잇-/이시-
업-	NP_0이 NP_1이 업-
	NP_0이 NP_1은 업-
	NP_0은 업-
	NP_1게 NP_2 업-
	NP_1ᄂᆞᆫ 업-
	NP_0도 업-
	NP_1의 NP_2이 업-
	NP_1을 NP_2이 업-
계시-	NP_0이 겨시-

3.3. 평가동사구문

3.3.1. 평가동사구문의 특징

'평가하다'는 동사는 그 자체로 수행문을 수행하는 동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내용이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구문은 인식을 하고 있는 주체가 대상이나 일, 사태에 대해 판단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구문을 말한다. 중세국어에서는 평가동사로 '둏-', '맛당ᄒᆞ-', '쉽-', '어렵-' 등의 구문들이 있는데 이들 구문은 'NP이 V', 'NP이 NP이 V', 'NP이 NP곳 V', 'NP이 NP이 NP에 V' 등의 유형을 보인다.

본절에서는 평가동사구문을 이루는데 쓰이는 형용사 '둏-', '어렵-', '쉽-',올ᄒᆞ-', '맛당ᄒᆞ-'의 양상을 유형화하고 그 구문의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3.3.2 평가동사구문의 유형

3.3.2.1. '둏-'

중세국어의 '둏-'은 "善", "好", "正"의 의미를 가지는데 현대국어와는 차이를 가진다.
먼저, (1)은 'NP₁의 NP₂이 둏-' 구문유형을 보여준다.

(1) ㄱ. 왕개 우셔 ᄀᆞᆯ오ᄃᆡ 노야의 말이 됴티 아니토다 (4: 21ㄱ)
ㄴ. 내 ᄀᆞᆯ오ᄃᆡ 노야의 말이 됴타 ᄒᆞ고 (5: 27ㄱ)
ㄷ. 그ᄃᆡ의 말이 됴커니와 너 엇지 공현이 남의 긔믈을 바드리오(11: 33ㄱ)
ㄹ. 본됴의 뎡녕이 일일이 됴흐ᄃᆡ (14: 22ㄱ)
ㅁ. 형의 의논이 ᄀᆞ장 됴커니와 다만 말ᄒᆞ기는 어렵지 아니ᄒᆞ나 (14: 15ㄴ)
ㅂ. 형의 의논이 ᄀᆞ장 됴토다 (17: 36ㄱ)
ㅅ. 그 즁이 우셔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말이 됴타ᄒᆞ고 (19: 19ㄱ)

일반적으로 평가의 주체는 화자나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 위의 예문에서 '둏-'의 대상은 구체적인 물건이 아닌 추상의 '말, 의논'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음으로 'NP₀{는,이} 둏-'의 구문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ㄱ. 건냥관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됴흔 의ᄉᆡ오 (8: 2ㄱ)

ㄴ. 왕ᄌᆡ 진가ᄅᆞᆯ 향ᄒᆞ야 무슴 말을 ᄒᆞ며 여러 번 됴흔 궁ᄌᆡ라 일ᄏᆞᆺ고 덕형을 블너 닐오ᄃᆡ 너희 궁ᄌᆞᄂᆞᆫ 됴하ᄒᆞᄂᆞᆫ 것이 무어시 잇ᄂᆞ뇨 (8: 9ㄴ)

ㄷ.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ᄉᆞ략은 이곳이 감냑이라 일ᄏᆞ라 ᄯᅩᄒᆞᆫ 아ᄒᆡ들을 닑히고 쇼ᄒᆞᆨ은 ᄀᆞ장 됴흔 글이니 (14: 29ㄴ)

ㄹ. 뎨ᄅᆞᆯ ᄀᆞᄅᆞ친 말은 진실노 됴흔 약이오 오형의 병통을 듯고져 ᄒᆞᆯ진ᄃᆡ 별양 의논ᄒᆞᆯ 거시 업ᄉᆞᆯ ᄉᆡ (17: 25ㄴ)

ㅁ. 손을 난호ᄂᆞᆫ 회포ᄂᆞᆫ 더옥 ᄀᆞᆫ절ᄒᆞ고 더옥 어려오니 심ᄒᆞ도다 (18: 2ㄴ)

(3) ㄱ. 쥬인이 ᄀᆞᆯ오ᄃᆡ 활집이 ᄀᆞ장 됴타 ᄒᆞ고 ᄯᅩ ᄒᆞ나ᄒᆞᆯ 다ᄅᆡ라 ᄒᆞ니 (2: 29ㄴ)

ㄴ. ᄂᆡ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내 은이 업셔 비록 사지 못ᄒᆞ나 ᄎᆡᆨ이 됴흐면 날을 ᄒᆞᆫ 번 귀경을 식이미 엇더ᄒᆞ뇨 (4: 14ㄱ)

ㄷ. ᄃᆡ답ᄒᆞᄃᆡ 궁ᄌᆡ 무슴 됴하ᄒᆞᄂᆞᆫ 거시 이시리오 (5: 30ㄴ)

ㄹ. ᄂᆡ ᄀᆞᆯ오ᄃᆡ 겸ᄒᆞᆫ ᄌᆡ조ᄂᆞᆫ 참예ᄒᆞ거니와 운슈 됴흐면 지죄 업ᄉᆞ니도 혹 요ᄒᆡᆼ으로 마치ᄂᆞ니라 (10: 23ㄴ)

ㅁ. 이 의견이 됴ᄒᆞᆯ ᄃᆞᆺ ᄒᆞ도다 (11: 13ㄱ)

ㅂ. 두 사람이 다 됴타 일ᄏᆞᆺ고 (12: 10ㄱ)

ㅅ. 반ᄉᆡᆼ이 됴타 일ᄏᆞᆺ더라 (12: 13ㄱ)

ㅇ. 반ᄉᆡᆼ이 우ᄉᆞ며 호복ᄒᆞᆫ 샹을 ᄀᆞᄅᆞ쳐 닐오ᄃᆡ 이거시 됴흐니라 ᄒᆞ거ᄂᆞᆯ (14: 19ㄴ)

ㅈ. 본됴의 뎡녕이 일일이 됴흐ᄃᆡ (14: 22ㄱ)

ㅊ. 뎨ᄂᆞᆫ ᄌᆞ픔이 비록 됴흐나 비록 시속의 골몰ᄒᆞ야 일허ᄇᆞ릴 시졀이 만흐니 (14: 31ㄱ)

ㅋ. ᄆᆞ음이 서로 됴하ᄒᆞ야 (16: 11ㄱ)

ㅌ. 만일 흉금이 됴티 아닐진ᄃᆡ 븍경이 사ᄅᆞᆷ이 만흐미 쇼의 터럭ᄀᆞᆺ흔지라 (16:32ㄱ)

ㅍ. 반ᄉᆡᆼ이 됴타 일ᄏᆞᆺ거ᄂᆞᆯ (17: 27ㄱ)

'NP_1{의,으로, ᄅᆞᆯ} 둏-'과 같이 속격이나 대격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3) ㄱ. 왕개 듯고 별노 됴하ᄒᆞ니 저도 혹 우ᄉᆞ온 말과 한어의 됴흔 문ᄌᆞᄅᆞᆯ 닐너 일노 ᄒᆡᆼ녁의 괴로오믈 만히 니즐너라 (2: 1ㄴ)

ㄴ. 통관이 ᄯᅩ 닐오ᄃᆡ ᄂᆡ 이 ᄠᅳᆺ을 갑고져 ᄒᆞᄂᆞ니 궁ᄌᆞ의 됴하ᄒᆞᄂᆞᆫ 거시 무어시 잇ᄂᆞ뇨 (5: 30ㄴ)

ㄷ. ᄂᆡ 평싱의 낙양 댱안의 호협ᄒᆞᆫ 소년이 …… 년남 아ᄅᆞᆷ다온 술노 댱부의 흉금을 펴지 못ᄒᆞ니 <u>셰샹의</u> <u>됴흔</u> 일이 완비치 못ᄒᆞᆷ을 애돌나 ᄒᆞ노라 (11: 8ㄱ)

ㄹ. <u>평싱의</u> 심히 <u>됴하ᄒᆞᄂᆞ니</u> (13: 25ㄱ)

ㅁ. 브졀업ᄉᆞᆫ 정ᄉᆞᄅᆞᆯ 썰치고 일용의 곡부의 절ᄎᆞ와 <u>ᄉᆞ우간의</u> <u>됴흔</u> 의논을 들니미 엇더ᄒᆞ뇨 (14: 31ㄱ)

ㅂ. <u>녯 사ᄅᆞᆷ의</u> <u>됴흔</u> 말과 (14: 29ㄴ)

ㅅ. <u>명뉴의</u> <u>됴흔</u> ᄉᆞ젹을 듯고져 ᄒᆞ노라 (15: 19ㄴ)

ㅇ. <u>ᄇᆡᆨ경의</u> <u>됴흔</u> 즙믈은 거의 다 남방 쇼산이라 (15: 32ㄱ)

ㅈ. 진짓 <u>병즁의</u> 맛당ᄒᆞᆫ <u>됴흔</u> 약이니 (16: 23ㄴ)

ㅊ. <u>사ᄅᆞᆷ의</u> <u>됴흔</u> 고졀 보ᄆᆡ 다만 즁심의 ᄀᆞᆷ촐 ᄯᆞᄅᆞᆷ이라 (17: 14ㄴ)

ㅋ. <u>ᄆᆞᄋᆞᆷ의</u> <u>됴화ᄒᆞᆷ은</u> ᄒᆞᆫ갓 입으로 말ᄒᆞᆷ ᄀᆞᆺ흘 쁜이 아닌지라 (17: 15ㄱ)

ㅌ. 동국의 만흔 션비ᄅᆞᆯ 보지 못ᄒᆞᆷ으로 다만 홍형의 됴흐ᄆᆞᆯ ᄭᅵ치노라 (17: 15ㄴ)

(4) ㄱ. 악개 <u>것ᄎᆞ로</u> <u>됴타</u> ᄒᆞ나 긔식이 ᄀᆞ장 무미히 넉이고 다시 졔양을 다시 보고 스ᄉᆞ로 말ᄒᆞᄃᆡ ᄡᅳᆯᄃᆡ 업다 ᄒᆞ더라 (2: 5ㄴ)

ㄴ. 우리 ᄯᆞᄒᆡ <u>오셔림 션싱으로</u> 더부러 서로 <u>됴하ᄒᆞ고</u> 나히 ᄉᆞ십여세로ᄃᆡ (12: 13ㄴ)

ㄷ. <u>닙으로</u> <u>됴흔</u> 말을 니ᄅᆞ고(13:28ㄴ)

ㄹ. <u>ᄆᆞᄋᆞᆷ으로</u> 서로 <u>됴하ᄒᆞ지</u> 못ᄒᆞ고 ᄆᆞᄋᆞᆷ이 셔로 됴하ᄒᆞ지 못ᄒᆞ면 그 자최 ᄯᅩᄒᆞᆫ 날노 머러질지라 (16: 10ㄱ)

(5) ㄱ. 엄싱이 ᄀᆞᆯ오ᄃᆡ 윤화졍을 본바듬이 아니라 <u>능엄경을</u> <u>됴하ᄒᆞ고</u> ᄯᅩ 블도의 보응ᄒᆞ는 일을 <u>니ᄅᆞ기ᄅᆞᆯ</u> <u>됴하ᄒᆞᄂᆞ니라</u> (13: 24ㄴ)

ㄴ. 손조 블경 <u>벗기기ᄅᆞᆯ</u> <u>됴하ᄒᆞ노라</u> (13: 25ㄱ)

ㄷ. ᄂᆡ ᄀᆞᆯ오ᄃᆡ <u>블도ᄅᆞᆯ</u> <u>됴하ᄒᆞᄆᆞᆫ</u> 송젹 션현의 면치 못ᄒᆞᆫ 일이라 (13: 25ㄴ)

ㄹ. <u>근ᄉᆞ록을</u> <u>됴하ᄒᆞ미</u> 외도의 섄지지 아니ᄒᆞᄆᆞᆯ 볼지라 (13: 27ㄴ)

ㅁ. 심술의 정미ᄒᆞᆫ 곳은 죵죵 ᄒᆞᆫ 허믈을 니긔여 니로지 못ᄒᆞᆯ 거시니 <u>시률과 그림을</u> <u>됴하ᄒᆞ미</u> ᄯᅩᄒᆞᆫ 녯 사람의 허ᄒᆞᆫ 일이 아니라 (13: 28ㄱ)

ㅂ. <u>남굴 됴히</u> 넉이면 ᄡᅵᄅᆞᆯ 어더ᄃᆞ가 심으면 즉시 나ᄂᆞ니라 ᄒᆞ더라 (14: 15ㄴ)

ㅅ. <u>이런 글을</u> <u>됴하ᄒᆞᆷ이</u> 족히 일ᄏᆞᄅᆞᆯ 거시 업ᄉᆞ니 (14: 26ㄱ)

ㅇ. 엄싱이 ᄀᆞᆯ오ᄃᆡ 손오병법은 비록 빠홈의 쓰지 아니ᄒᆞ여도 됴흔 말이 만흐니 이ᄅᆞᆯ ᄇᆞ리고 <u>눅임과 둔갑을</u> <u>됴하ᄒᆞᄆᆞᆯ</u> ᄯᅩᄒᆞᆫ 과도ᄒᆞᆫ 일이니라 (14: 27ㄱ)

ㅈ. 평즁이 ᄀᆞᆯ오ᄃᆡ 시젼의 닐너시ᄃᆡ 즐기기ᄅᆞᆯ 됴하ᄒᆞ고 어ᄌᆞ러옴이 업ᄉᆞ믄 어진 션비의 구구함이라 ᄒᆞ여시니 (16: 33ㄴ)

ㅊ. 다만 원도ᄒᆞᆯ 긔상이 아니오 녀ᄉᆡᆨ을 됴하ᄒᆞᄂᆞᆫ지라 (17: 16ㄱ)

ㅋ. 격녈ᄒᆞᆫ 긔운이 유연ᄒᆞ나 혹 함튝ᄒᆞᆫ 긔상이 브록ᄒᆞ고 착ᄒᆞᆷ을 됴하ᄒᆞᆷ이 진실노 궁ᄒᆞᆷ이 업ᄉᆞ나 (18: 15ㄱ)

ㅌ. 임의 그 필법을 됴히 넉이면 (18: 32ㄱ)

다음은 'NP_0을 둏-' 구문유형을 보여준다.

(6) ㄱ. 김복셰 닐오ᄃᆡ 풍뉴 소ᄅᆡ ᄀᆞ장 됴ᄒᆞᆫ지라 잠간 나아가 듯기ᄅᆞᆯ 쳥ᄒᆞ노라(11: 29ㄴ)

ㄴ. 즁국 됴ᄒᆞᆫ 안경을 구ᄒᆞᄂᆞᆫ고로(11: 33ㄱ)

ㄷ. ᄂᆡ 됴타 ᄒᆞ니 즉시 니러 가ᄂᆞᆫ지라(17: 12ㄱ)

(7) ㄱ.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능엄경은 뎨도 ᄯᅩᄒᆞᆫ 보기ᄅᆞᆯ 됴하ᄒᆞ야 ᄆᆞ음을 다ᄉᆞ림이 ᄀᆞ쟝 됴ᄒᆞ니 (13: 24ㄴ)

ㄴ. 네 일을 됴하ᄒᆞ고 나이 님의 칠십이 넘엇ᄂᆞᆫ지라(17:3ㄴ)

(8)은 'NP_1{의,을} NP_2이 둏-' 구문 유형을 보인다.

(8) 그나마 산셔와 병셔와 녁법을 평ᄉᆡᆼ의 됴하ᄒᆞᄃᆡ ᄒᆞᆫ 곳도 실노 어든 것이 업ᄉᆞ니 (14: 25ㄴ)

(9) ㄱ. 각각 졔 풍쇽을 됴ᄎᆞ미 됴ᄒᆞ니라 (13: 17ㄴ)

ㄴ.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능엄경은 뎨도 ᄯᅩᄒᆞᆫ 보기ᄅᆞᆯ 됴하ᄒᆞ야 ᄆᆞ음을 다ᄉᆞ림이 ᄀᆞ쟝 됴ᄒᆞ니 (13: 24ㄴ)

ㄷ. 다만 변복을 약간 다ᄉᆞ리미 됴ᄒᆞ리로다 (17: 25ㄴ)

ㄹ. 닐오ᄃᆡ 필연 글을 알 거시니 글ᄌᆞᄅᆞᆯ ᄲᅧ 말을 통ᄒᆞᆷ이 됴타 ᄒᆞ고 (19: 13ㄱ)

(10) ㄱ. ᄉᆞᄉᆞ로 졔 소견을? 직희고 ᄉᆞ람의 아당ᄒᆞ믈 됴하ᄒᆞ면 ᄆᆞᄎᆞᆷᄂᆡ 쇼인의 도라갈 ᄯᆞ름이라 (17: 27ㄱ)

ㄴ.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ᄆᆞ음이 셰밀ᄒᆞᆷ이 ᄀᆞ장 됴ᄒᆞᆫ 일이로ᄃᆡ (17: 37ㄴ)

다음은 'NP$_1$의 NP$_2$을 둏- ' 구문유형을 보인다.

(11) ㄱ. 평ᄉᆡᆼ의 무ᄉᆞᆷ 글을 됴하ᄒᆞᄂᆞ뇨 (12: 13ㄱ)

ㄴ. ᄂᆡ 평ᄉᆡᆼ의 학문 강논ᄒᆞ기ᄅᆞᆯ 됴하ᄒᆞᄃᆡ 뜻 ᄀᆞᆺᄒᆞᆫ 사람이 업ᄉᆞ믈 ᄒᆞᆫ ᄒᆞ더니 (13: 27ㄴ)

ㄷ. 뎨ᄂᆞᆫ ᄉᆞ람의 기림을 됴하ᄒᆞ고 허믈을 드ᄅᆞ믜 ᄯᅩᄒᆞᆫ ᄆᆞᄋᆞᆷ이 늠연ᄒᆞᄃᆡ (17: 27ㄱ)

ㄹ. 심ᄒᆞ도다 뎔교ᄌᆞ의 혹을 됴하ᄒᆞ미여 ᄒᆞᆫ가지로 됴흔 말을 드로믜 됴히 넉이미 욕심 ᄀᆞᆺ도다 (18: 8ㄴ)

ㅂ. 념낙 관민의 글을 됴화ᄒᆞ고 비로소 셩현의 도의 뜻이 이시나 (18: 16ㄴ)

'NP$_0$은 NP$_1$을 둏-' 구문유형도 보인다.

(12) ㄱ. 진실노 하ᄂᆞᆯ이 덕을 됴하ᄒᆞ고 착ᄒᆞᆫ 사람이 죵시 ᄭᅳᆫ허지지 아닐지라 (12: 27ㄴ)

ㄴ. ᄂᆡ 두샹을 ᄀᆞᄅᆞ쳐 반ᄉᆡᆼᄃᆞ려 무ᄅᆞᄃᆡ 형은 어ᄂᆡ 복ᄉᆡᆨ을 됴타 ᄒᆞᄂᆞ뇨 (14: 19ㄴ)

ㄷ. 족해 녜일을 됴하ᄒᆞᄂᆞᆫ지라 (14: 14ㄴ)

ㄹ. 반형은 녀ᄉᆡᆨ을 됴하ᄒᆞᄂᆞᆫ지라 그 말이 이러ᄒᆞ니라 (14: 22ㄴ)

ㅁ. 반ᄉᆡᆼ이 우셔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녀ᄉᆡᆨ을 됴화ᄒᆞᄂᆞᆫ 연괴니라 (15: 19ㄴ)

(13) 그 아ᄒᆡ 어미 듯고 나와 ᄭᅮ지져 ᄎᆡᆨ을 ᄀᆞ져오라 ᄒᆞ며 닐오ᄃᆡ 놀기만 됴하ᄒᆞ고 글을 닑으라 ᄒᆞ면 슬희여 ᄒᆞ니 무어시 ᄡᅳ리오 (3: 8ㄱ)

(13)은 'NP$_1$'에 조사 '-만'이 결합된 구문 유형이고 아래 예문은 용언에 '둏-'이 통합된 경우이다.

(14) ㄱ.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손오병법은 비록 ᄲᅡ홈의 ᄡᅳ지 아니ᄒᆞ여도 됴흔 말이 만흐니 이ᄅᆞᆯ ᄇᆞ리고 뉵임과 둔갑을 됴하ᄒᆞ믄 ᄯᅩᄒᆞᆫ 과도ᄒᆞᆫ 일이니라 (14: 27ㄱ)

ㄴ. ᄯᅩ 쳡쳡이 경계ᄅᆞᆯ 드리워 됴하ᄒᆞᆯ 진ᄃᆡ 반ᄃᆞ시 그 말을 ᄒᆡᆼᄒᆞᆫ 후의 비로소 져ᄇᆞ리지 아니미 되ᄂᆞ니라 ᄒᆞ니 (18: 17ㄴ)

ㄷ. 나죵의 밥을 드리니 죠고만 보ᄋᆞ의 담아 드리고 졔육국의 ᄆᆞ라 먹으면 ᄀᆞ장 됴타 ᄒᆞ거ᄂᆞᆯ 가져오라 ᄒᆞ여 (2: 9ㄴ)

ㄹ. 니덕셩이 듯고 됴타 ᄒᆞ거ᄂᆞᆯ (7: 8ㄴ)

ㅂ. 평즁이 ᄀᆞᆯ오ᄃᆡ 됴코 됴타 다만 일시ᄅᆞᆯ 일우지 못ᄒᆞᄂᆞ니 이시면 필연 벌을 베플

니라 (16: 30ㄱ)

3.3.2.2 '어렵-'

'NP_0{이. 은} 어렵-'의 구조를 보이는 구문으로 '비히'가 '어렵-' 선행함으로써 '행역이 어렵다는 것을 강하게 평가해 주고 있다.

(15) ㄱ. 녀름을 당ᄒᆞ야 힝역은 비히 어려오ᄃᆡ 오롱뎡의 년꼿치 만발ᄒᆞ엿ᄂᆞᆫ지라 (1: 6ㄱ)
ㄴ. 남방 션비ᄂᆞᆫ 임의 어려이 넉이면 ᄆᆞᄋᆞᆷ이 극히 용속ᄒᆞᆫ지라 (8: 3ㄱ)
ㄷ. ᄂᆡ ᄀᆞᆯ오ᄃᆡ 죵용ᄒᆞᆫ 곳을 어듬은 어려온 일이 아니라 셩 밧 수십ᄉᆞ이의 무슈ᄒᆞᆫ 젼랑이 이셔 왕ᄂᆡ 힝ᄀᆡᆨ이 임의로 머므ᄂᆞ니 (13: 32ㄴ)
ㄹ. ᄂᆡ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어렵지 아ᄂᆞᆫ 일이어니와 ᄉᆞ고기롤 먹지 아니믄 무슘 의시뇨 (13: 30ㄴ)
ㅁ. 셔통관이 오라지 아냐 들어올 거시니 수일을 기ᄃᆞ리미 히롭지 아니타 ᄒᆞ니 오ᄂᆞᆯ은 어려오리라 ᄒᆞ거ᄂᆞᆯ (15: 11ㄱ)
ㅂ. 뎨등은 다시 오고져 ᄒᆞ야도 어렵지 아니ᄒᆞ거니와 (17: 19ㄴ)
ㅅ. 이ᄂᆞᆫ 크게 어려온 일이어니와 (17: 26ㄴ)
ㅇ. 다만 덕유롤 ᄃᆞ려시나 쥰쥰ᄒᆞᆫ 인믈이 밋을 거시 업ᄉᆞ니 힝식이 극히 허슈ᄒᆞ고 평즁은 더옥 어려이 넉이ᄂᆞᆫ지라 (20: 13ㄴ)

(16) ㄱ. 십이일 풍한이 심히 어려오ᄃᆡ ᄂᆡ일은 길흘 뎐진ᄒᆞᆯ거시오 도라올젹 일은 예탁디 못ᄒᆞᆯ디라 (1: 8ㄱ)
ㄴ. 이ᄣᆡ의 셤속의 ᄀᆞᆯ이 ᄀᆞ득ᄒᆞ야 밋쳐 뷔여ᄂᆡ디 못ᄒᆞ고 일습 군뎡을 됴발ᄒᆞ면 폐단이 어렵다 ᄒᆞ야 (1: 13ㄱ)
ㄷ. 이 밤은 ᄇᆞ람이 불고 날이 더 치우니 일힝이 더 어려이 디ᄂᆡ니라 (1:18ㄴ)
ㄹ. 그 계집이 ᄀᆞᆯ오ᄃᆡ 무어시 어려오리오 ᄒᆞ고 (2: 18ㄱ)
ㅁ. ᄒᆞᆫ 우흠의 갑술 은 ᄒᆞᆫ 돈을 쥬니 싱되 어려올 ᄃᆞᆺᄒᆞᄃᆡ (2: 14ㄱ)
ㅂ. 그사람이 어려이 넉이지 아니ᄒᆞ고 (4: 29ㄱ)
ㅅ. 그 사람이 어려이 넉이지 아니ᄒᆞ고 며러 그ᄅᆞ술 ᄂᆡ여 ᄉᆞ신긔 드리고(5:14ㄴ)
ㅇ. ᄃᆡ식 ᄀᆞᆯ오ᄃᆡ 무어시 어려오리오 보롬이 지난후면 (5: 26ㄴ)
ㅈ. 문을 나매 셩번이 미조차 나와 브ᄃᆡ ᄯᆞ라 가고져ᄒᆞ니 여러 사람이 어려오ᄃᆡ (6: 2ㄴ)
ㅊ. 여러 사람이 어려오ᄃᆡ ᄶᅥ로티지 못ᄒᆞ냐 (6: 2ㄴ)

ㅋ. ᄂᆡ ᄀᆞᆯ오ᄃᆡ 셩인이 니ᄅᆞ시ᄃᆡ 말이 츙신ᄒᆞ고 ᄒᆡᆼ실이 독경ᄒᆞ면? 비록 만ᄆᆡᆨ의 나라히라도 ᄒᆡᆼ신이 어렵지 아니타 ᄒᆞ여 (11: 1ㄴ)

ㅌ. ᄉᆞ오일 츌입이 어려오리라 ᄒᆞ니 (15: 1ㄴ)

ㅍ. ᄂᆡ 나아가 잠간 보기를 쳥ᄒᆞ니 그 사람이 어려이 넉이는 긔ᄉᆡᆨ이 업고 여러흘 ᄲᅢ혀 뵈며 사라라 ᄒᆞ니 (9: 17ㄱ)

ㅎ. 십팔일 신뎡 즁화ᄒᆞ야 이도뎡 슉소ᄒᆞ니 이즈음은 들이 너ᄅᆞ고 ᄶᅡ히 오함ᄒᆞ야 술위 길히 극히 어렵더라 (20: 1ㄱ)

다음은 'NP_1의 어렵-'을 보여주는 구문유형으로 '-의'는 주어적 속격의 구실을 한다.

(17) ㄱ. 이러무로 여러 식구의 어려워 (2: 4ㄱ)

ㄴ.임의 ᄒᆡᆼ노의 어려오미 념죡ᄒᆞ도다 (17: 30ㄴ)

ㄷ. 쥬인 조ᄀᆞ 비로소 도라와 손을 잡아 반기는 거동이 극히 은근ᄒᆞ고 (중략) 아ᄃᆞᆯ과 두 ᄯᆞᆯ이 이셔 혼쉬의 어려오믈 일ᄏᆞᆺ거ᄂᆞᆯ (20: 5ㄴ)

(18) 일노 인연ᄒᆞ여 ᄯᅩᄒᆞᆫ 박졀이 지쵹지 못ᄒᆞ니 긴 날의 쇼일이 극히 어려온지라 (20: 25ㄴ)

'NP_1[은,의} NP_2도 어렵-' 구문유형을 보인다.

(19) ㄱ. 요란ᄒᆞ야 안졋기 어렵거ᄂᆞᆯ 손을 다시 보쟈 ᄒᆞ고 다른 ᄑᆞᄌᆞ로 드러 가니 단목과 민강 귤병을 만히 ᄡᅡ핫더라 (1: 25ㄱ)

ㄴ. 혹 니러셔 교위를 ᄀᆞᄅᆞ쳐 안ᄌᆞ라 ᄒᆞ고 혹 담비를 피워 젼ᄒᆞ니 맛시 고이ᄒᆞ야 먹기 어려오ᄃᆡ 마디 못ᄒᆞ야 바다 먹으며 교위의 안졋더니 (1: 29ㄱ)

ㄷ. 부시 ᄡᅣᆼ교를 ᄐᆞ매 사ᄅᆞᆷ이 적어 메기 어려온디라 (2: 12ㄴ)

ㄹ. 이러므로 손이 블의의 와도 ᄃᆡ졉ᄒᆞ기 어렵지 아니ᄒᆞ더라 (2: 27ㄱ)

ㅁ. 덕위 ᄀᆞᆯ오ᄃᆡ 이러ᄒᆞ면 기ᄃᆞ리기 어렵지 아니ᄒᆞ거니와 우리 노애 길가의 오래 안쟛기 어려오니 (2: 29ㄱ)

ㅂ. 그 말이 아라 듯기 어렵지 아니터라 (3: 30ㄱ)

ㅅ. 하인의 말을 밋기 어렵고 ᄃᆡ식 어졔ᄒᆞ던 말이 이셔 갑군을 졍ᄒᆞ야 쥬마ᄒᆞ던 거시니 (6: 1ㄴ)

ㅇ. 다만 서로 ᄀᆞᆯ오ᄃᆡ 죵밍이 죽디 아니ᄒᆞ면 ᄇᆡᆨ경을 ᄃᆞᆫ니기 어려오리라 ᄒᆞ고 (7: 2ㄴ)

ㅈ. 어그럿기 어렵고 ᄯᅩ 이 연고를 어졔 져녁의 셔 ᄃᆡ감이 임의 아라시니 엇지 과

도히 념녀ᄒᆞ리오 (7: 20ㄱ)

ㅊ. ᄉᆞ정을 무ᄅᆞ니 왕개 눈살을 찡긔여 지ᄂᆡ기 어려온 ᄉᆞ연을 누누히 니ᄅᆞ고 (11: 15ㄴ)

ㅋ. ᄒᆞ로 슈작으로 ᄀᆞ업ᄉᆞᆫ 회포ᄅᆞᆯ 펴기 어려오리로다 (15: 37ㄴ)

ㅌ. 아국ᄉᆞ람의게 ᄌᆞ연 안정이 듯거워 져ᄇᆞ리기 어려올 ᄲᅮᆫ이 아니라 (16: 4ㄴ)

(20) ㄱ. 차담은 국슈국을 마셔 어한을 ᄒᆞᆯ ᄯᆞᄅᆞᆷ이오 반찬은 소ᄎᆡᄒᆞ야 먹으니 일노인ᄒᆞ야 길히셔 병이 아니나고 반찬 어려온 줄을 모ᄅᆞ고 왕ᄂᆡᄒᆞ니라 (1: 5ㄴ)

ㄴ. 왕개 다른 길노 가기ᄅᆞᆯ 심히 어려워 ᄒᆞᄃᆡ (3: 25ㄱ)

ㄷ. ᄯᅩᄒᆞᆫ 현연이 허ᄒᆞ기ᄅᆞᆯ 어려히 녁인다ᄒᆞ니 그말이 ᄀᆞ장 유리ᄒᆞᄃᆡ 임의 니익다려 닐넛ᄂᆞᆫ디라 ᄒᆞᆯ일이 업더라 (6: 2ㄱ)

ㄹ. ᄃᆡ개 종밍의 셩식을 저ᄒᆞ야 말ᄒᆞ기ᄅᆞᆯ 다 어려이 녁이ᄂᆞᆫ 거동이라 (7: 3ㄱ)

ㅁ. ᄂᆡ ᄀᆞᆯ오ᄃᆡ 심상ᄒᆞᆫ 말시도 아라 듯기ᄅᆞᆯ 어려워 ᄒᆞ거든 가ᄉᆞ말을 엇지 알니오 (7: 18ㄴ)

ㅂ. ᄂᆡ 진가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문시죵은 긔이ᄒᆞᆫ 보비라 ᄂᆡ 밋쳐 ᄌᆞ시보지 못ᄒᆞ엿고 ᄯᅩ 우리 ᄃᆡ인긔 ᄒᆞᆫ 번 자랑코ᄌᆞᄒᆞᄃᆡ 여여의게 쳥키ᄅᆞᆯ 어려이 녁이노라 (8: 10ㄱ)

ㅅ. 우리 새로 사괴여 친친ᄒᆞᆫ 정분을 ᄉᆡᆼ각ᄒᆞ야 두어 역관의게 ᄒᆞᆫ 말 분부ᄒᆞ기ᄅᆞᆯ 어려이 녁이지 아니ᄒᆞ면 가장 감ᄉᆞᄒᆞ리라 ᄒᆞ거ᄂᆞᆯ (9: 9ㄱ)

ㅇ. 이ᄂᆞᆫ ᄡᅩᄂᆞᆫ 사람을 더옥 어렵게 ᄒᆞ여 지조ᄅᆞᆯ 보게ᄒᆞᆫ 계괴더라 (9: 15ㄴ)

ㅈ. ᄂᆡ 닐오ᄃᆡ 네 말노 쳥ᄒᆞ기ᄅᆞᆯ 어려이 녁이ᄂᆞᆫ가 시브니 ᄂᆡ 두어 줄 글노 도라 가ᄂᆞᆫ ᄉᆞ연을 젹어든 ᄃᆡ인들의게 젼ᄒᆞᆯ가 시브냐 (9: 29ㄴ)

ㅊ.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뎨등은 밥을 먹고져ᄒᆞ거니와 두 형은 밥 먹기ᄅᆞᆯ 어려히 녁일진ᄃᆡ ᄒᆞᆫ 그ᄅᆞᆺ 국수ᄅᆞᆯ 먹으미 엇더ᄒᆞ뇨 (13: 22ㄴ)

ㅋ. 관즁의 드러와실 ᄣᅦ의 ᄂᆡ 밥 먹ᄂᆞᆫ 양을 보앗ᄂᆞᆫ지라 져로? 먹기ᄅᆞᆯ 어려히 녁일가 ᄒᆞ야 (13: 22ㄴ)

ㅌ. ᄯᅩ ᄀᆞᆯ오ᄃᆡ 근년은 인심이 녜일이 업서 죠고만 ᄌᆡ믈을 위ᄒᆞ야 사ᄅᆞᆷ을 죽을 곳의 너키ᄅᆞᆯ 어려히 녁이지 아니ᄒᆞᄂᆞ니 (19: 7ㄱ)

(21) ㄱ. 즉금은 벼ᄉᆞᆯᄒᆞ기도 어려온 셰상이니라 (13: 12ㄱ)

ㄴ. ᄂᆡ ᄀᆞᆯ오ᄃᆡ 형의 의논이 놉흔지라 이곳은 착슈ᄒᆞ야 공부ᄅᆞᆯ 베플 곳이 아니오 착슈ᄅᆞᆯ 아니키도 어려오니 (13: 28ㄱ)

ㄷ. 거의 참참이 와시니 ᄇᆡᆨ경 ᄉᆞᄅᆞᆷ의 ᄉᆡᆼ니도 어려온가 시브더라 (3: 30ㄴ)

ㄹ. 과연 거즌 말이 아니라 사람의 싱계도 어려온 줄을 알녀니와 (6: 3ㄴ)

(22) ㄱ. 닉 골오딕 기드리게 ᄒᆞ기는 어렵지 아니ᄒᆞ딕 아문 ᄉᆞ체를 아지 못ᄒᆞ니 만일 막는 일이 이시면 문 밧긔 조출ᄒᆞᆫ 곳을 어더 죵용이 말홈이 쏘한 해롭지 아니리라 (10: 13ㄱ)

ㄴ. 형의 의논이 ᄀᆞ장 됴커니와 다만 말ᄒᆞ기는 어렵지 아니ᄒᆞ나 말을 붋으미 심히 어려오니 (13: 28ㄴ)

ㄷ. 닉 골오딕 어렵기는 진실노 어렵거니와 욕심을 조차 경계홀ᄆᆞᄋᆞᆷ이 어ᄇᆞ면 쟝ᄎᆞᆺ 엇던 ᄉᆞ람이 되리오 반싱이 ᄀᆞ오딕 엇지 욕심을 조ᄎᆞ리오 다만 졔어ᄒᆞ기는 실노 어렵도다 (17: 27ㄴ)

(23) ㄱ. 두 형이 븍경의 머믈면 년년이 편지를 통홈이 어렵지 아니ᄒᆞ딕 (12: 25ㄱ)

ㄴ. 다만 욕심을 졔어홈이 어렵도다 (17: 26ㄴ)

(24) ㄱ. 산히관을 든 후는 하쳐ᄒᆞ는 집이 거의 다 젼랑이라 나그닉 곳 들면 캉의 블을 너코 업ᄉᆞ면 여러 날을 폐ᄒᆞ는고로 이곳도 캉이 누습ᄒᆞ여 심히 어렵더라 (4: 22ㄱ)

ㄴ. 닉 닐오딕 그러ᄒᆞ면 닉 뉴구관을 둔녀 오고져 ᄒᆞ니 어렵지 아니ᄒᆞ랴 (10: 18ㄱ)

ㄷ. 그딕는 즁국 사람이니 다른 거술 구ᄒᆞ야 사고져 ᄒᆞ야도 어렵지 아닐거시오 (11: 33:ㄱ)

ㄹ. 뎨등은 다시 오고저 ᄒᆞ야도 어렵지 아니ᄒᆞ거니와 대인들은 죵적이 뎨등과 다른지라 ᄒᆞᆫ 번 나아와 별회를 펴지 못ᄒᆞ니 깁히 ᄒᆞᆫ탄홀 쁜이오 더옥 뉵형을 셔로 만나지 못ᄒᆞᆯ ᄋᆡ둘나 ᄒᆞ는이라 (17: 19ㄴ)

3.3.2.3. '쉽-'

먼저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는 'NP$_0$이 쉽-' 구문유형을 보인다.

(25) 셔통관이 쏘ᄒᆞᆫ ᄉᆞ랑ᄒᆞ는지라 만일 덕형을 보닉면 일이 쉬오리라 ᄒᆞ거늘 (7: 3ㄱ)

(26)는 'NP$_2$Ø 쉽-'의 구문유형을 보인다.

(26) ㄱ. 놀기를 탐ᄒᆞ다 ᄉᆞ험ᄒᆞᆫ ᄃᆡ를 드ᄃᆡ기 쉬오리라 (1: 5ㄱ)

ㄴ. ᄯᅩ ᄀᆞᆯ오ᄃᆡ 이곳의 션비를 어더 보고져 ᄒᆞ진ᄃᆡ 이만ᄒᆞᆫ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아니리라 ᄒᆞ거ᄂᆞᆯ (11: 33ㄴ)

ㄷ. 욕심을 파탈ᄒᆞ야 세샹의 거리길 일이 업ᄉᆞ니 이러므로 놉흔 ᄉᆞ룸이 더욱 혹ᄒᆞ기 쉬오니라 (13: 25ㄴ)

ㄹ. 문벌이 놉흔 재 다 어질기 쉽지 아니ᄒᆞ고 어진 ᄉᆞ람이 도로혀 ᄡᅳ이지 못ᄒᆞ리라 (15: 17ㄱ)

(27) ㄱ. 이런 치위의 어러 죽기 쉽게 ᄒᆞ엿다 ᄒᆞ고 넙은ᄃᆡ 좌위 대쇼ᄒᆞ니 ᄃᆡ져 그 말ᄒᆞᄂᆞᆫ 거동이 젼혀 사람을 우이기를 쥬ᄒᆞ야 광ᄃᆡ의 모양이러라 (7: 10ㄱ)

이 구문은 동명사형에 연결되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8) ㄱ. 놀기를 탐ᄒᆞ다 ᄉᆞ험 ᄒᆞᆫᄃᆡ를 드ᄃᆡ기 쉬오리라 (1: 5ㄱ)

ㄴ. 만일 좀을 드러ᄂᆞᆫ 병이 나기도 쉬올 ᄲᅮᆫ 아니라 머리를 ᄌᆞ로 다쳐 (2: 1ㄴ)

3.3.2.4. '올ᄒᆞ-'

먼저,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ㄱ. 진개 이 말이 올타 ᄒᆞ고 니러 나거ᄂᆞᆯ (8: 7ㄱ)

ㄴ. ᄂᆡ ᄀᆞᆯ오ᄃᆡ 네 말이 ᄀᆞ장 올토다 임의 그런 줄을 알면 일시 욕심을 참디 못ᄒᆞ야 (4: 21ㄱ)

위의 예문은 'NP₁이 올ᄒᆞ-' 구문유형을 보여준다.
다음은 'NP₁{의,로,를} NP₂이 올ᄒᆞ-' 구문유형을 보여준다.

(30) ㄱ. 왕개 ᄂᆞᆺ빗출 ᄂᆞ즉이 ᄒᆞ야 ᄀᆞᆯ오ᄃᆡ 노야의 말이 올흐니 ᄂᆡ 엇지 모ᄅᆞ리오 ᄒᆞ고 ᄀᆞ장 감격ᄒᆞ야 ᄒᆞᄂᆞᆫ 긔식이러라 (4: 21ㄱ)

ㄴ. 엄싱이 ᄀᆞᆯ오ᄃᆡ 형의 말이 올커니와 즉금 졔도ᄂᆞᆫ 오픔이샹이 다 념쥬를 허ᄒᆞ고 (15: 24ㄱ)

ㄷ. 왕개 듯고 노야의 말이 올타 ᄒᆞ고 나가더라 (11: 17ㄱ)

(31) 셰팔이 닐오디 아문을 비록 지나시나 두 편 어귀의 막줄으는 갑군이 이시니 (중략) 옥하교 어귀로 도라가는 거시 올타 ᄒᆞ거늘 셔편 길노 힝ᄒᆞ야 어귀의 니ᄅᆞ미(12: 1ㄴ)

(32) ㄱ. 엄싱이 ᄀᆞᆯ오디 피ᄎᆞ의 셩의ᄅᆞᆯ 귀히 넉임이 올흐니 밧겻히 문구의 네수ᄅᆞᆯ 엇지 구구히 도라보리오 (13: 17ㄴ)

ㄴ. 임의 그 힘을 먹고 ᄯᅩ 그 고기ᄅᆞᆯ 먹으미 엇지 올흐리오 ᄒᆞ니 (13: 30ㄱ)

ㄷ. ᄯᅩᄒᆞᆫ 권ᄒᆞᆯ 일이 아니라 다만 당ᄒᆞᆫ 사ᄅᆞᆷ의 ᄯᅳᆺ을 좃게ᄒᆞ미 올흐니라 (14: 28ㄴ)

ㄹ. 일죽이 거츼ᄅᆞᆯ 결단ᄒᆞᆷ이 올흐니라 (15: 22ㄱ)

ㅁ. 각각 풍쇽을 조ᄎᆞ미 올흐리로다 (16: 21ㄱ)

'NP$_1$의 올ᄒᆞ-' 구문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33) 엇지 부인의 올흐미 아니리오 (14: 28ㄱ)

(34)는 'NP$_0$이 NP$_1$이 올ᄒᆞ-' 구문유형을 보인다.

(34) ㄱ. ᄂᆡ ᄀᆞᆯ오디 네 무슴 부졀업슨 말을 ᄒᆞ는다 만니 길을 온 사ᄅᆞᆷ을 ᄎᆞᆫ방의 재와 병이 들게 ᄒᆞ미 올흐냐 (2: 13ㄴ)

ㄴ. 궁진 츼치 아니미 올커니와 이거슨 아담ᄒᆞᆫ 즙믈이오 (11: 9ㄴ)

ㄷ. ᄂᆡ ᄀᆞᆯ오디 ᄯᅩᄒᆞᆫ 즐겨도 음난치 아니미 올흐니라 (14: 22ㄴ)

3.3.2.5. '맛당ᄒᆞ-'

먼저,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P$_0$[은, 이} 맛당ᄒᆞ-' 구문유형을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35) ㄱ. 두 졉 칙은 맛당이 힘을 다ᄒᆞ야 (16: 12ㄱ)

ㄴ. ᄂᆡ ᄀᆞᆯ오디 놉흔 의논이 진실노 맛당ᄒᆞ니 삼가 명을 조ᄎᆞ리로다 (16: 18ㄱ)

ㄷ. ᄯᅩ ᄀᆞᆯ오디 여러 의논이 ᄀᆞ장 맛당ᄒᆞ디 (17: 22ㄴ)

ㄹ. 욕심이 맛당ᄒᆞᆯ 도리ᄅᆞᆯ 일흐니 (17: 26ㄴ)

ㅁ. 이ᄣᅢᄅᆞᆯ 당ᄒᆞ야 오형이 일일이 맛당치 아니미 업ᄉᆞ니 (17: 14ㄱ)

(36) ㄱ. 우리 부친이 아문의 알외라 가시니 오라디 아냐 도라올 거시오 ᄃᆡ인들과 ᄒᆞᆫ 번의 드러ᄀᆞ 귀경ᄒᆞ미 맛당ᄒᆞ도다 (2: 29ㄱ)

ㄴ. 모양이 극히 우습고 오랑킈의 됴롱ᄒᆞ고 업슈이 넉임을 닙으미 맛당ᄒᆞ더라 (4: 28ㄱ)

ㄷ. 이후ᄂᆞᆫ 다 진정의 말을 니ᄅᆞᆷ이 맛당ᄒᆞ도다 (12: 16ㄴ)

ㄹ. ᄆᆞᆺᄎᆞᆷᄂᆡ 즁흥ᄉᆞ업을 일우지 못ᄒᆞ미 맛당ᄒᆞ도다 (14: 22ㄱ)

ㅁ. ᄆᆞᄋᆞᆷ이 서로 됴하ᄒᆞ야 셩명의 교도ᄅᆞᆯ 일우미 맛당ᄒᆞ믈 알니로다 (16: 11ㄱ)

ㅂ. 평즁이 날을 ᄀᆞᄅᆞ쳐 ᄂᆞᆨᄉᆡᆼ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뎨ᄂᆞᆫ 무식ᄒᆞᆫ 사ᄅᆞᆷ이라 더브러 말ᄒᆞᆯ 거시 업ᄉᆞ니 두 션ᄉᆡᆼ이 차ᄅᆞᆯ 먹으며 논어ᄅᆞᆯ 의논ᄒᆞᆷ이 맛당ᄒᆞ도다 (16: 18ㄴ)

ㅅ. ᄒᆞᆺ ᄉᆞ람이 쥬ᄌᆞᄅᆞᆯ 존슝ᄒᆞᆷ이 진실노 맛당ᄒᆞ거니와 (16: 34ㄱ)

ㅇ. 다만 져기 안정ᄒᆞ고 셰밀ᄒᆞ기ᄅᆞᆯ 힘ᄡᅳ미 맛당ᄒᆞᆯ지라 (17: 25ㄴ)

ㅈ. 서로 닙을 잡으미 맛당ᄒᆞ도다 (17: 34ㄴ)

ㅊ. ᄂᆡ ᄀᆞᆯ오ᄃᆡ 형의 망녕된 말을 경계ᄒᆞ미 ᄀᆞ장 맛당ᄒᆞ나 (17: 34ㄱ)

ㅋ. 일ᄉᆡᆼ의 ᄒᆞᆫ 업ᄉᆞᆫ ᄉᆡᆼ각을 지으미 맛당ᄒᆞᆯ다 (18: 10ㄱ)

ㅌ. 년년이 댱셩을 슈보ᄒᆞ야 뎍국을 방비함이 맛당ᄒᆞ거니와 (19: 17ㄱ)

(37) ㄱ. 일젼의 형이 두 ᄌᆞ의 스ᄉᆞ로 브득이 넉임이 진실노 맛당ᄒᆞ도다 (17: 14ㄱ)

ㄴ. 녜일을 비호고져 ᄒᆞᄂᆞᆫ ᄯᅳᄌᆞᆫ 급급히 서로 ᄀᆞᆾ흐미 맛당ᄒᆞ거니와 (17: 22ㄴ)

ㄷ.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엇지 여러 번 ᄉᆞ양ᄒᆞ리오 먼ᄃᆡ 손이 우희 안ᄌᆞ미 맛당ᄒᆞ도다 (16: 17ㄱ)

ㄹ. ᄂᆡ 우셔 ᄀᆞᆯ오ᄃᆡ 동히 ᄀᆞ으로 먼니 보ᄂᆡ미 맛당ᄒᆞ도다 (17: 21ㄱ)

(38) 아희들의 닑으믄 진실노 맛당ᄒᆞ거니와 (14: 30ㄱ)

다음 예문은 'NP1{의,이] 맛당ᄒᆞ-' 구문유형이다.

(38) ㄱ. 음영을 슝샹ᄒᆞᆷ은 더옥 부인의 맛당ᄒᆞᆫ 일이 아니라 (13: 20ㄱ)

ㄴ. 됴션 죠히ᄂᆞᆫ 텬하의 유명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글시의 더옥 맛당ᄒᆞᆫ지라 (17: 11ㄴ)

(39)는 'NP0{은,이] NP1 맛당ᄒᆞ-' 구문유형이다

(39) ㄱ. 형비의 지조와 ᄒᆞᆨ문은 뎨등의 추앙ᄒᆞᆷ이 진실노 맛당ᄒᆞ거니와 (15: 29ㄴ)

ᄂᆞᆨ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ᄆᆞᆺᄎᆞᆷᄂᆡ 어룬으로 일ᄏᆞᄅᆞ니 죵시 ᄇᆞ리고져 ᄒᆞᆷ이라 이후ᄂᆞᆫ 형으로 일

ᄏᆞ롬이 맛당ᄒᆞ도다 (16: 20ㄴ)

ㄴ. 이ᄯᅢ의 캉 문을 나 셔븍으로 뫼 우흘 ᄇᆞ라보니 긔이ᄒᆞᆫ 봉만과 층층ᄒᆞᆫ 암셕이 고금의 일홈이 이시미 맛당ᄒᆞ고 (18: 33ㄱ)

(40)은 '-기 맛당ᄒᆞ-' 구문유형이다.

(40) ㄱ. 그 시의 ᄀᆞᆯ오ᄃᆡ ᄑᆡ미 ᄇᆞᆯ근 ᄃᆞᆯ 아ᄅᆡ 맛당ᄒᆞ고 (18: 11ㄴ)

ㄴ. 죵시 노ᄒᆞ야ᄒᆞ믈 보디 못ᄒᆞ니 이상ᄒᆞ고 아국이 네붓터 즁국의 간사ᄒᆞᆫ 일홈을 엇기 맛당ᄒᆞ더라 (3: 12ㄱ)

ㄷ. 아국이 네붓터 즁국의 간사ᄒᆞᆫ 일홈을 엇기 맛당ᄒᆞ더라 (4: 12ㄱ)

ㄹ. ᄃᆡ개 깁흔 산즁의 홀연이 아국 인물을 만나니 무지ᄒᆞᆫ 아희와 겨집이 놀나기 맛 당ᄒᆞᆫ지라 (20: 18ㄱ)

지금까지 살펴본 평가동사구문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돟-	NP$_1$의 NP$_2$이 돟-
	NP$_0$이 돟-
	NP$_0$ᄂᆞᆫ 돟-
	NP$_1$으로 돟-
	NP$_1$의 돟
	NP$_1$을/롤 돟-
	NP$_0$ NP$_1$을 돟
	NP$_1$의 NP$_2$이 돟-
	NP$_1$의 NP$_2$을 돟-
	NP$_0$은 NP$_1$을 돟-
	NP$_1$만 돟-
어렵-	NP$_0$이 어렵-
	NP$_0$은 어렵-
	NP$_1$의 어렵-
	NP$_1$은 NP$_2$도 어렵-
	NP$_1$의 NP$_2$도 어렵-
쉽-	NP$_0$이 쉽-
올ᄒᆞ-	NP$_0$이 올ᄒᆞ-
	NP$_1$의 NP$_2$이 올ᄒᆞ-
	NP$_1$로 NP$_2$이 올ᄒᆞ-
	NP$_0$이 NP$_1$이 올ᄒᆞ-
맛당ᄒᆞ-	NP$_0$은 맛당ᄒᆞ-
	NP$_0$이 맛당ᄒᆞ-
	NP$_0$의 맛당ᄒᆞ-
	NP$_0$ᄋᆡ 맛당ᄒᆞ-

3.4. 비교동사구문

3.4.1. 비교동사구문의 특징

비교는 항상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의 대비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외형이나 그 성격이 비슷하거나 대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 대상은 기본적으로 두 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러한 비교대상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측면을 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동사구문 속에서 화자가 관심을 갖는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비교동사구문은 이러한 실제 비교과정을 낱낱이 표현하지 않고 그 비교 결과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동사구문은 비교의 내용에 따라 동등비교, 열등비교, 차등비교로 나누기도 하고 이동판정(異同判定)구문, 동등비교구문, 차등비교구문으로 그 용어를 달리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ᄀᆞᆮᄒᆞ-'가 구성하는 동등비교와 '다ᄅᆞ-', '더으-'가 구성하는 차등비교 및 '몯ᄒᆞ다'가 구성하는 열등비교, 부사 'ᄀᆞ장', '第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절대비교가 그것이다. 그렇지만 본 장에서는 이러한 비교동사구문의 명칭보다는 비교동사구문을 유형화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 살펴볼 비교동사구문은 예문에 따라서는 의미적인 면에서 볼 때 평가동사구문과 같은 범주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교한다는 話行 자체가 그 대상에 대한 평가나 판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나 판정 구문은 화자나 문장 주어의 내적 기준인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논의되는 반면, 비교동사구문은 상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44] 이것은 통사적인 면에도 그 구조에 반영되어 '비교의 기준'이 되는 명사구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명사구를 필요로 한다. 이는 통합적인 구문 구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볼 비교동사구문은 동사 차등비교를 나타내는 '더으다'와 '다ᄅᆞ다', 동등비교를 나타내는 'ᄀᆞᆮᄒᆞ다' 구문이며, 그리고 이 동사들이 지배하는 명사구에 통합하는 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3.4.2. 비교동사구문의 유형

3.4.2.1. '더으-' 와 '더ᄒᆞ-'

이 동사구문은 '다ᄅᆞ-' 구문과 같이 차등비교를 나타내는데, 중세국어 시기의 '더으-'는 '深, 熾, 可, 添, 增, 勝'의 의미로서 '어떤 상태를 더 심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한자 가운데 '勝'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더으-'는 다른 한자 의미의 그것들보다 하나 더 많은 명사구를 필요로 하기에 두 개의 명사구가 필수성분으로 필요하다. 바로 이 유형이 비교를 나타낸다. 이러한 '勝'의 의미를 가지는 '더으-'는 구문의 변동 없이 15세기부터 '더으-/ 더ᄒᆞ-'로 쓰이다가 현대국어에 와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다.

'더으-'는 구문의 변동 없이 16세기부터 현대국어의 '더하다'의 의미로 같이 사용되었는데 예문 (1)의 '더으-'는 '加'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NP를 요구하는 구조를 보인다.

4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정아(1986, 1993)을 참조하였다.

(1) ㄱ. ᄂᆡ ᄀᆞᆯ오ᄃᆡ 아국은 ᄀᆡ가ᄅᆞᆯ 아니ᄒᆞ미 부녀의 녜ᄉᆞ 일이라 정표ᄅᆞᆯ 더으지 아닛ᄂᆞ니라 (14: 29ㄱ)

ㄴ. 그 즁 절강ᄌᆞ음 은ᄌᆞ로 구실을 더러 은혜ᄅᆞᆯ 더으니 인심이 더옥 감복ᄒᆞᄂᆞ니라 (14: 34ㄱ)

ㄷ. 두 형이 ᄆᆡ양 과도ᄒᆞᆫ 칭찬을 더으고 허믈을 칙망ᄒᆞ미 없ᄂᆞ니 (15: 30ㄴ)

ㄹ. 오직 형은 뎨ᄅᆞᆯ ᄃᆡᄒᆞ야 당치모ᄉᆞᆯ 칭호와 과람ᄒᆞᆫ 문ᄌᆞ로 경이히 더으니 이ᄂᆞᆫ 벗으로 ᄃᆡ졉홈이 아니라 (17: 14ㄱ)

ㅁ. 이 두 말을 사ᄅᆞᆷ의게 더으믈 어려이 넉이지 아니ᄒᆞ니 (17: 14ㄱ)

이 예문들은 'NP₀{이, 은} NP₁을 더으-'의 구문구조를 가진다. 특히 (1ㅂ)은 '(NP₀은) NP₁을 NP₃의게 더으-'의 구문구조를 보여 여격어가 하나 더 있음을 보인다. 이들은 다 비교동사 구문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 '더으-' 구문은 'NP₀{이, 은} NP₁으로 더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웃사람이 현훈과 속ᄇᆡᆨ으로 더으면 몬져 션비ᄅᆞᆯ 듕히 넉이ᄆᆡ (15: 21ㄱ)

'웃사람이 현훈과 속ᄇᆡᆨ으로 더으면'은 '웃사람이 현훈과 속ᄇᆡᆨ을 더으면'으로 표현되어도 그 의미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에서 '이것을 주세요'라는 문장을 '이것으로 주세요'라는 문장으로 바꿔 볼 수 있음과 거의 같은 현상이다.

위 (1)과 (2)의 '더으-'는 '더ᄒᆞ-'로 바꾸어도 좋은 것으로 보인다. '더으-'가 타동사와 자동사의 두 가지 용법을 다 가지듯이, '더ᄒᆞ-'도 타동사와 자동사의 두 가지 용법을 다 가진다.

(3) 깁히 이시매 반찬을 더ᄒᆞ고 (1: 5ㄴ)

(4) ㄱ. 갑시 젼의 비하면 십여 냥 은이 더ᄒᆞ니 팔포 이쳔 냥의 이ᄇᆡᆨᄉᆞ십 냥이라 (11: 16ㄱ)

ㄴ. ᄌᆞ오시초의 ᄒᆞ나ᄒᆞᆯ 치고 졍의ᄂᆞᆫ 둘ᄒᆞᆯ 치고 ᄎᆞᄎᆞ ᄒᆞ나식 더ᄒᆞ야 ᄉᆞ히시졍의 니ᄅᆞ러ᄂᆞᆫ 열 두번 치ᄂᆞᆫ 줄을 알게 홈이라 (12: 5ㄱ)

(3)은 '더ᄒᆞ-'가 타동사로 사용된 문장이고("더하다"의 의미를 가짐), (4)는 '더ᄒᆞ-'가 자동사로 사용된 문장이다("더해지다"의 의미를 가짐). 이 (3)과 (4)도 비교구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이 구문유형에 대하여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본 자료에 나타나는 ‘더으-’가 비교구문을 이루는 예들에 대해 살피기에 앞서 중세국어의 ‘더으-’ 구문을 살펴보면 <도표 1>과 같다.

<도표 1>

NP_0이 NP_1에셔 V
NP_1에셔 V
NP_1두곤 V
NP_0이 NP_1두곤 V
NP_1두고셔 V
NP_1라와 V
NP_0이 NP_1로셔 NP_2이나 V

<도표 1>에서 NP_1에 통합되는 조사는 모두 차등의 정도나 비교를 표시하는 데 쓰이는 격표지이다. 이 때 NP_0은 비교대상이 되고 NP_1은 비교기준이 된다. NP_1에 결합된 격표지들은 차등을 나타내는 조사들인데 구문에서는 ‘어떤 비교대상이 어떤 비교기준보다 더 낫다’는 의미의 문장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의 격표지에 대해 언급을 해 보면, ‘두곤’은 시대에 따라 ‘두고(15세기) > 두곤/두군(16세기부터 17세기초) > 도곤(17세기부터 18세기중엽)’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두 ‘보다’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두곤/두군’, ‘도곤’은 ‘두고’에 주제의 보조사 ‘ㄴ’이 첨가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동사 ‘더으-’(增) 앞에 나타났으나 점차로 ‘甚ᄒᆞ-, 므겁-, 높-’ 등의 용언 앞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다가 18세기 중엽에 ‘보다가’로 흡수되었다. ‘두곤’은 차등을 나타내는 다른 격표지와는 달리 명사구의 성격과 관계없이 쓰이기도 하였다. 중세국어에서 NP_1에 결합되던 격표지와는 달리, 본 자료에서는 NP_1에 ‘의’, ‘의셔’, ‘으로’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본 자료에서 ‘더으-’나 ‘더ᄒᆞ-’ 구문이 비교구문으로 사용된 것은 매우 드물게 보인다. 이 비교구문을 형성하는 ‘더으-’나 ‘더ᄒᆞ-’는 다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다. 예문 (5)의 ‘더으-’ 구문은 ‘NP_0은 NP_1의 더으-’의 구문유형을 보인다.

(5) 이ᄂᆞᆫ 년광뎡의 업ᄂᆞᆫ 거시 만하 셩시ᄅᆞᆯ 먼니 ᄒᆞ고 디경이 심벽ᄒᆞ니 쳥탈ᄒᆞᆫ 긔상과 표연ᄒᆞᆫ 의ᄉᆞᄂᆞᆫ 년광뎡의 더으더라 (2: 8ㄴ)

‘NP_1의’ 격표지 ‘-의’는 일종의 특이처격조사로서 여기에서는 비교격을 표시한다. 이 문장

은 "이것은 연광정에 없는 것이 많아 성시(城市)를 멀리 하고 지경이 심벽하니, 청탈한 기상과 표연한 의사는 연광정보다 더하더라"의 의미를 가진다. 이 구문유형은 'NP_0은 NP_1의셔 더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조사 '의'나 '의셔'는 다 비교격을 표시한다.

'더ᄒᆞ-'도 위의 (5)와 같은 구문구조를 보일 수 있다. 다음의 (6)이 그것을 보인다.

(6) 불불이라 ᄒᆞᄂᆞᆫ 개 이시니 젹이 쟈근 강아지 ᄀᆞᆺᄒᆞᄃᆡ 소릐 크고 ᄉᆞ오납기 큰 개의셔 더ᄒᆞ더라 (2: 22ㄱ)

위 (5)의 '더으-'와 (6)의 '더ᄒᆞ-'는 다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다.

'더ᄒᆞ-'는 비교기준에 비해 몇 배가 된다는 표현에도 사용된다. 다음의 (7)이 그것을 보인다.

(7) 다 잡믈화 ᄑᆞᄂᆞᆫ 시ᄉᆡᆨ로ᄃᆡ 그 사치ᄒᆞᆫ 거동이 문안 져직의 비ᄒᆞ면 ᄯᅩᄒᆞᆫ 십비나 더ᄒᆞ더라 (6: 4ㄴ)

이곳의 '더ᄒᆞ-'도 형용사로 사용되었다.

3.4.2.2. '비ᄒᆞ-'

용언 '비ᄒᆞ-'는 '비교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이 구문이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음은 '(NP_0이) NP_1ᄋᆞᆯ NP_2의 비ᄒᆞ-'의 구조를 가지는 예문들이다.

(8) ㄱ. 장녀ᄒᆞᆫ 제도와 샤치ᄒᆞᆫ 규모ᄅᆞᆯ 챵츈원의 비ᄒᆞ면 ᄇᆡᆨ층이 남을지라 (14: 8ㄴ)

ㄴ. 슌슈 두 ᄌᆞᄅᆞᆯ 비러 일ᄏᆞᄅᆞ미 과치 아닐 것이오 소체ᄅᆞᆯ 굴송의 비ᄒᆞᆷ은 ᄯᅩᄒᆞᆫ 즁심의 소견이오 (17: 14ㄴ)

'NP_0이'는 문면에 실현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상정하자면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8)의 'NP_2의'에 통합해 있는 조사 '의'도 비교격을 표시한다.

NP_2가 유정체언일 경우에는 조사 '의게'와 통합할 수 있다.

(9) ㄱ. 우리의게 비치 못ᄒᆞ리로다 (5: 5ㄴ)

ㄴ. 우리 의하 ᄉᆞ람의게 비치 못ᄒᆞᆯ 거시니 (17: 17ㄱ)

위의 'NP₁올 NP₂의 비ᄒᆞ-' 구문유형에서 'NP₁올' 부분은 문면에 실현되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10) 임의 노형의 ᄆᆞᄋᆞᆷ을 어더시니 엇지 몸이 ᄆᆞᆾ도록 다만 ᄂᆞᆾ출 보고 그 ᄆᆞᄋᆞᆷ을 엇지 못ᄒᆞᆷ의 비ᄒᆞ리오 (18: 14ㄱ)

위 (10)에서 'NP₁올'에 해당하는 명사구는 보이지 않는다. '임의 노형의 ᄆᆞᄋᆞᆷ을 어더시니'라는 문장을 통해 그것을 비정해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을 구체화하면 '노형의 ᄆᆞᄋᆞᆷ을 얻음' 정도가 될 것이다. 위 문장은 "이미 노형의 마음을 얻었으니, (그것을) 어찌 죽을 때까지 얼굴만 보고 그 마음을 얻지 못함에 비교하겠는가?"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NP₁이 NP₂의 비ᄒᆞ-'의 구문유형도 나타난다.

(11) ㄱ. 아담ᄒᆞᆫ 졔양이 다른 묘당의 공교ᄒᆞᆫ 샤치의 비치 못ᄒᆞᆯ너라 (19: 6ㄴ)
ㄴ. 븕고 싱싱ᄒᆞ기 ᄀᆞᆽ ᄶᅡ 온 모양이오 ᄉᆞᆯ히 둣겁고 마시 상쾌ᄒᆞ야 아국 산사의 비치 못ᄒᆞᆯ너라 (11: 25ㄴ)

(12) ㄱ. 다 잡믈화 ᄑᆞᄂᆞᆫ 시ᄉᆡ로ᄃᆡ 그 사치ᄒᆞᆫ 거동이 문안 져지의 비ᄒᆞ면 ᄯᅩᄒᆞᆫ 십비나 더ᄒᆞ더라 (6: 4ㄴ)
ㄴ. 갑시 젼의 비ᄒᆞ면 십여 냥 은이 더ᄒᆞ니 팔포 이쳔 냥의 이빅 ᄉᆞ십냥이라 (11: 16ㄱ)

(11)의 경우, 공교롭게도 '비ᄒᆞ-'는 부정표현의 '비치 못ᄒᆞ-'로 되어 있고 그에 통합하는 문법형태 부분이 '-ㄹ너라'로 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어미구조체 '-ㄹ너라'는 '-리러라'에서 변화해 나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의관이 감히 ᄃᆡ국의 비티 못ᄒᆞᆯ 거시어늘(5: 20ㄴ)' 식의 문장과는 성격상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계사구문이기 때문에 위 (11)과는 성격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3)의 'NP₁은 NP₂의 비ᄒᆞ-'의 구문유형은 매우 많이 나타난다.

(13) ㄱ. 보충슈슈ᄃᆡ 기릐 거의 셔발이 되고 ᄒᆞᆫ 우흠의 블과 여라문을 뭇거시니 곡셕되ᄂᆞᆫ 슈ᄂᆞᆫ 아국의 비ᄒᆞ면 엉동이 나은ᄀᆞ시브더라 (2: 30)

ㄴ. 이곳 마되 모양은 밋치 좁고 우히 널너 크기ᄂᆞᆫ 아국의 비ᄒᆞ면 두 벌이 거의 들 거시오 (4: 24ㄱ)

ㄷ. 나ᄂᆞᆫ 비록 어진 ᄉᆞ람의 비치 못ᄒᆞ니 (18: 6ㄴ)

(14) ㄱ. 졔도ᄂᆞᆫ 극히 장ᄃᆡᄒᆞᆫᄃᆡ 경치ᄂᆞᆫ 망경누의 비치 못ᄒᆞᆯ너라 (1: 12ㄱ)

ㄴ. 두 발의 ᄀᆞ로 널을 드듸여 닝아ᄅᆞᆯ 오ᄅᆞᄂᆞ리게 ᄒᆞ고 ᄇᆞ듸ᄅᆞᆯ 미러 복을 더지ᄆᆡ 손을 노흐면 ᄇᆞ듸 절노 ᄂᆞ려와 디히이게 ᄒᆞ여시니 이 두 가지ᄂᆞᆫ 아국법의 비ᄒᆞ면 져기 간편ᄒᆞᆫ지라 (20: 7ㄴ)

ㄷ. 비로소 녕을 너므니 젼후 이십여 리오 길흔 쳥셩녕의 비ᄒᆞ면 젹이 슌ᄒᆞ나 좌우의 슈목이 하늘을 덥고 (20: 12ㄴ)

위 (13)과 (14)는 ‘NP_1ᄋᆞᆫ NP_2의 비ᄒᆞ-’의 구문유형을 보인다. ‘NP_1ᄋᆞᆯ NP_2의 비ᄒᆞ-’과 ‘NP_1이 NP_2의 비ᄒᆞ-’ 구문유형이 다 가능하였기 때문에 ‘NP_1ᄋᆞᆫ’이라는 주제어는 ‘비ᄒᆞ-’의 목적어 명사구가 주제어로 실현된 것인지, 주어 명사구가 주제어로 실현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서 NP_1과 NP_2은 서로 직접 비교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13)의 명사구들은 직접 비교가 될 수 있는 것들인 데 비해, (14)의 명사구들은 간접 비교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컨대 (13ㄷ)의 ‘나’와 ‘어진 ᄉᆞ람’, (11ㄴ)의 ‘아담ᄒᆞᆫ 졔양’과 ‘다ᄅᆞᆫ 묘당의 공교ᄒᆞᆫ 샤치’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14ㄱ)의 ‘길’은 ‘쳥셩녕’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14ㄴ)의 ‘이 두 가지’는 ‘아국법’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14ㄷ)의 ‘경치’는 ‘망경누’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 그것들은 ‘아국법’(“우리 나라에서 만드는 방법”의 의미를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베짜는 방법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더 적시되어야 하고, ‘청성녕의 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더 적시되어야 하며, ‘망경루의 경치’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더 적시되어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NP_1ᄋᆞᆫ NP_3이 NP_2의 비ᄒᆞ-’의 구문유형은 ‘NP_1ᄋᆞᆫ NP_3이 NP_2의 비ᄒᆞ-’의 구문유형으로 확장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15) 샹여ᄂᆞᆫ 놉고 너ᄅᆞ기 아국 샹여의 비치 못ᄒᆞᆯ 거시오 (18: 25ㄴ)

여기서 ‘NP_3이’라는 명사구는 비교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 (13)은 “(중국의) 상여는 높이와 넓이가 우리 나라의 상여에 비교하지 못할 것이고”의 의미를 가진다.

‘NP_1이 NP_3이 NP_2의 비ᄒᆞ-’ 구문유형에서 비교기준을 표시하는 명사구 NP_3은 주제어로 실현되어 나올 수도 있다.

(16) 술위와 ᄆᆞᆯ이 거리의 메이고 슌수ᄒᆞᆫ 인믈과 션명ᄒᆞᆫ 의복이 길흘 덥허시니 ᄒᆡᆼ인의 번화ᄂᆞᆫ 뎡양문이 도로혀 비치 못ᄒᆞᆯ 듯ᄒᆞ더라 (11: 8ㄱ)

이 문장에서 ‘NP_2의’는 문면에서 생략되어 있다. 복원하자면, ‘여긔’ 정도가 될 것이다.

‘NP_1이 NP_2의 비ᄒᆞ-’ 구문유형에서 ‘NP_1이 비ᄒᆞᆯ {곳, ᄃᆡ} 없-’과 같은 이중주어문이 가지쳐 나올 수 있다.

(17) ㄱ. 공교ᄒᆞᆫ ᄐᆡ되 비ᄒᆞᆯ 곳이 업ᄉᆞ니 (20: 9ㄴ)

ㄴ. 이ᄂᆞᆫ 통군뎡이라 이역의 ᄒᆡ를 지ᄂᆡ고 고국산천을 다시 만나니 반가온 ᄆᆞᄋᆞᆷ이 비ᄒᆞᆯ 곳이 업더라 (20: 26ㄴ)

(18) 그 마시 ᄀᆞ장 아름다와 즁국 음식의 비ᄒᆞᆯ ᄃᆡ 업다 ᄒᆞ니 (13: 29ㄴ)

(17)의 관계구성에 들어 있는 표제명사 ‘곳’과 (18)의 관계구성에 들어 있는 표제명사 ‘ᄃᆡ’는 ‘NP_1이 NP_2의 비ᄒᆞ-’의 구문유형에서 NP_2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NP_1이 NP_2의 비ᄒᆞ-’ 구문유형에서 ‘NP_1이 NP_2의 비ᄒᆞᆯ ᄇᆡ 아니-’와 같은 부정문도 가지쳐 나올 수 있다.

(19) ㄱ. 뎨의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범범ᄒᆞᆯ 교됴의 비ᄒᆞᆯ ᄇᆡ 아니로ᄃᆡ (17: 26ㄴ)

ㄴ. 형의 ᄌᆡ조와 ᄯᅳᆺ이 시속 션ᄇᆡ의 비ᄒᆞᆯ ᄇᆡ 아니오 (13: 27ㄴ)

ㄷ. ᄂᆡ ᄀᆞᆯ오ᄃᆡ 아국이 ᄃᆡ명의 망극ᄒᆞᆫ 의논을 잇고 지셩으로 셤기미 심샹ᄒᆞᆫ 외국의 비ᄒᆞᆯ ᄇᆡ 아니라 (17: 24ㄱ)

ㄹ. 얼굴이 희고 둥그러 심샹이 슈려ᄒᆞᆫ 인믈이로ᄃᆡ 다만 눈이 ᄆᆡᆼ녈ᄒᆞ고 정신이 ᄉᆞ람의게 ᄡᅩ이니 ᄌᆞ연 ᄆᆞᄋᆞᆷ이 두려워 오ᄅᆡ ᄇᆞ라보지 못ᄒᆞ니 이ᄂᆞᆫ 다른 귀경의 비ᄒᆞᆯ ᄇᆡ 아니라 ᄒᆞ더라 (20: 9ㄱ)

ㅁ. ᄎᆡᆨ문을 나와 샹부ᄉᆞ 일ᄒᆡᆼ을 보ᄂᆡ고 나흘을 묵으ᄆᆡ 그 울적ᄒᆞᆫ 회포ᄂᆞᆫ 더옥 문안히 칠일 고ᄒᆡᆼ의 비ᄒᆞᆯ ᄇᆡ 아니리라 (20: 26ㄱ)

3.4.2.3 '낫-'

중세국어 시기부터 근대국어 시기까지 이 동사의 구문 구조는 <표3>과 같이 실현된다.

<표2>	<표3>
NP_1이 NP_2 낫다 NP_1 NP_2두곤 낫다 NP_1이 NP_2에 낫다 NP_1이 NP_2에셔 낫다 NP_1이 NP_2두곤 낫다 NP_1이 NP_2보다 낫다	⇒ NP_1이 ------NP_2두곤------ 낫다 NP_2에 NP_2에셔

그러나 <표2>에서 보이는 구문 구조 유형은 모두 다른 것이 아니고 비교대상에 따라 <표2>와 같이 정립된다. <표3>의 'NP_2'에 결합되는 명사구 표지는 모두 차등의 나타내준다. '두곤'은 18세기 중엽까지, '에'와 '에셔'는 근대국어까지 사용되다가 현대국어에 와서는 화석형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에', '에셔', '두곤'이 '보다'의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현대국어라면 'NP_1이 NP_2(중, 가운데)에서 가장(제일) V'의 형식으로 최상비교를 나타내겠지만(박양규, 1972:41) 이는 근대국어시기에는 없는 형식이다. 따라서 '두곤', '에', '에셔'는 모두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차등의 정도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보다'는 최상비교를 나타내는 구문에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최상비교구문에만 '낫다' 말하면 구조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표기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뿐 구문의 변화나 의미는 변화되지 않음을 보인다.

본절에서 논의할 '낫-' 구문이 실현되는 양상은 아래와 같다.

(20)은 'NP_1의셔 부사어 #낫-'에 '듯ᄒᆞ다'[45]가 결합되어 나타난 구문으로, 그 뜻은 '드디어

---

45) '듯ᄒᆞ다' 구문은 'NP이 V-stem 듯 ᄒᆞ다'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본절에서 다루는 비교구문처럼 전형적으로 비교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른 비교구문들이 'NP와/과'가 선택적으로 결합될 수 있으나 '듯 ᄒᆞ다/ 만 ᄒᆞ다' 구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의 '듯ᄒᆞ다' 구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정아(1993:98-113)에서 이루어졌는데 '듯'의 의미는 같음(유사성)이며 '듯'에 후행하는 'ᄒᆞ다'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무엇이 -듯 어떠ᄒᆞ다/어찌ᄒᆞᄃᆞ'구조는 '듯'절의 명제 내용과 같음을 이용해서 비교주체인 '무엇'의 특성을 설명하는 동등비교구문이며, 따라서 'ᄀᆞ티'류 구문과 유사한 양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실없이 여러 말을 수작하니 서로 몰라 듯는 말이 많되 처음보다는 비로소 나은 것 같다'의 의미를 지닌다.

(20) ㄱ. 초팔일 황쥐 슉소ᄒᆞ니 치위 져기 낫더라 (1: 6ㄱ)

ㄴ. 드ᄃᆡ여 실업시 여러 말을 슈작ᄒᆞᄆᆡ 셔로 몰나 듯ᄂᆞᆫ 말이 만흐ᄃᆡ 처음의셔 비로소 나은 ᄃᆞᆺ ᄒᆞ더라(2:25ㄱ)

다음은 'NP1이 NP2로셔 낫-' 구문유형으로 "NP1"과 " NP2"은 모두 추상적인 것을 나타낸다.

(21)은 'NP1이 NP2로셔 낫-'이 결합되어 나타난 예로 그 뜻은 '보름 전은 밤마다 켠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팔일에 대에 등 켜는 법이 이것보다 나은가 싶더라'의 의미를 지닌다.

(21) 보름 젼은 밤마다 현다ᄒᆞ니 아국 팔일의 ᄃᆡ에 등 혀ᄂᆞᆫ 법이 이리로셔 낫ᄂᆞᆫ가 시브더라(5:11ㄴ)

위에서 보이는 명사구 표지 '-의셔', '-로셔'는 모두 '-보다'로 해석이 된다. '-의셔', '-로셔'로 교체되는 것은 처소를 나타내다가 '-보다'의 의미로 진입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3.4.2.4. 'ᄀᆞᆺᄒᆞ- '[46)]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어느 한 대상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경우, 두 대상이 차이가 없을 때 이는 당연히 동등비교가 된다. 근대국어시기에는 'ᄀᆞᇀ다, 等ᄒᆞ다, 同ᄒᆞ다, ᄒᆞᆫ가지다' 등이 이 동사구에 속한다. 현대국어에서는 '같다, 한가지다' 등의 동사 앞에 부사가 위치하여 이 동등의 상태를 강조해 주기도 한다. 동등비교구문을 나타내는 조사는 '-이,-에, -의게, -와,-ᄒᆞ고,-씌' 등이 있다. 근대국어시기(홍윤표1994:570)에 나타나는 구문은 <표5>와 같은 구조로 실현된다.

46) '같ᄒᆞ다', '다ᄅᆞ다' 구문에 대한 것은 이광호(1981), 김정아(1993), 홍윤표(1994)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표4>

NP$_1$이 NP$_2$이 ᄀᆞᇀ다
NP$_1$와 NP$_2$이 ᄀᆞᇀ다
NP$_1$이 NP$_2$와 ᄀᆞᇀ다
NP$_1$이 NP$_2$에 ᄀᆞᇀ다
NP$_1$이 NP$_2$으로더브러 ᄀᆞᇀ다

이 가운데 'NP$_1$이 NP$_2$이 ᄀᆞᇀ다' 구문은 '앞뒤의 NP는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없으며[47] 중세국어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던 표현 형식이나 근대국어 후기로 오면서 사라진 구문이다. 'NP$_1$와 NP$_2$이 ᄀᆞᇀ다', 'NP$_1$이 NP$_2$와 ᄀᆞᇀ다' 구문 역시 중세국어에도 쓰였던 구문이나 'NP$_1$이 NP$_2$이 ᄀᆞᇀ다'와는 전혀 별개의 구문이다. 'NP$_1$이 NP$_2$이 ᄀᆞᇀ다'는 비교 대상이 되는 명사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자료에서 보이는 'ᄀᆞᆺᄒᆞ-' 구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22)는 'NP$_1$와 ᄀᆞᆺᄒᆞ-' 구문으로 현대국어에 와서도 널리 사용되는 구문으로 'NP'와는 비교의 기준이 된다.

(22) ㄱ. 그 안ᄒᆡ 셩현 위란을 봉안ᄒᆞ고 션비 다 과거ᄅᆞᆯ ᄀᆞ음 아ᄂᆞᆫ 집이라 아국 향교와 ᄀᆞᆺᄒᆞᆫ 곳이러라 (6: 17ㄱ)

ㄴ. 즉시 남글 ᄢᅵ워 믈을 막고 ᄂᆞ려가ᄂᆞᆫ ᄇᆡ도 이 법과 ᄀᆞᆺ치 ᄒᆞ니 (11: 6ㄴ)

ㄷ. ᄂᆡ 닐오ᄃᆡ 나ᄂᆞᆫ 됴션 사람이라 ᄒᆞᆫ 친ᄒᆞᆫ 사람이 ᄯᅩᄒᆞᆫ 눈의 병이 이셔 그ᄃᆡ와 ᄀᆞᆺᄒᆞᆫ지라 즁국 됴ᄒᆞᆫ 안경을 구ᄒᆞᄂᆞᆫ고로 (11: 33ㄱ)

ㄹ. ᄒᆞᆫ 나라 사람의 잠시 니별과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12: 25ㄴ)

ㅁ. 그런 일이 이시면 관원이 나라히 들녀 약간 포당이 이시니 ᄃᆞ리ᄅᆞᆯ 버히ᄂᆞᆫ 효ᄌᆞ와 ᄀᆞᆺᄒᆞ미니라 (14: 29ㄱ)

ㅂ. 이번 회시ᄅᆞᆯ 보노라 ᄒᆞ니 아국 남힝 벼슬과 ᄀᆞᆺᄒᆞᆫ가 시브고 (17: 7ㄴ)

ㅅ. 다만 머리털을 뒤흘오 모화 족져시니 아국 낭ᄌᆞ 머리 졔도와 ᄀᆞᆺ더라 (19: 20ㄱ)

---

47)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NP이 NP이 같다' 구문은 중세국어와는 달리 앞뒤의 NP를 바꾸어도 결코 비문이 되지 않는다.예들들면 '어머니와 외할머니 얼굴이 같다'는 '어머니의 얼굴과 외할머니 얼굴이 같다'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연결시켜 주는 '와/과'는 김완진(1970ㄱ, 1970ㄴ), 임홍빈(1972)을 보면 병렬로 취급되고 있다.

(23) ㄱ. ᄒᆞᆫ 나라 사람의 잠시 니별과 ᄀᆞᆽ지 아니ᄒᆞ야 (12:25ㄴ)

ㄴ. 형의 회포와 ᄀᆞᆽᄒᆞ니 보지 못ᄒᆞ얏ᄂᆞᆫ지라 (12: 30ㄴ)

ㄷ. 능엄경의 니ᄅᆞᆫ바 아란의 일과 ᄀᆞᆽᄒᆞᆫ지라 (13: 25ㄴ)

(24)는 'NP1ø ᄀᆞᆽ-' 구문으로, 'NP1ø'은 '과'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4) ㄱ. 우리도 그 ᄒᆞᆰ ᄀᆞᆽᄒᆞᆫ 쥴을 모로지 아니ᄒᆞᄃᆡ (2: 15ㄱ)

ㄴ. 븍편 구셕의 큰 ᄀᆞ마 ᄀᆞᆽᄒᆞᆫ 거술 노코 (8: 16ㄱ)

ㄷ. 쏘ᄒᆞᆫ 흰 옷술 닙고 머리의 굴관 ᄀᆞᆽᄐᆞᆫ 졔도를 ᄡᅳ이고 (8: 16ㄱ)

ㄹ. 쥬가ᄂᆞᆫ 가ᄂᆞᆫ 얼골이 옥 ᄀᆞᆽ고 목이 그린 ᄃᆞᆺᄒᆞ고 (11: 11ㄴ)

ㅁ. 송젹으로 니ᄅᆞ면 이쳔 션싱 ᄀᆞᆽᄒᆞᆫ 니를 산림사람이라 니를 거시니라 (11: 14ㄴ)

ㅂ. 늙은 겨집이 빠홈을 말녀 달니ᄂᆞᆫ 소릐 ᄀᆞᆽ더니 (11: 24ㄴ)

ㅅ. 그 즁 산사를 실의 ᄢᅦ여 느러 노하시니 ᄒᆞᄂᆞ히 크기 텅ᄌᆞ ᄀᆞᆽᄒᆞᆫ지라 (11: 25ㄴ)

ㅇ. 금옥 ᄀᆞᆽᄒᆞᆫ 얼골과 규벽 ᄀᆞᆽᄒᆞᆫ 글시의 ᄒᆞᆫ 번 ᄇᆞ라보매 (12: 27ㄴ)

ㅈ. 역관들이 닐오ᄃᆡ 아국 친젼향 ᄀᆞᆽᄒᆞᆫ가 시브다 ᄒᆞ더라 (13: 4ㄱ)

ㅊ. 인간 긔구와 당인의 공교로 일운 것 갓지 아니터라 (13: 4ㄴ)

ㅋ. 틱빅 음셩과 망강 남ᄉᆞ와 화룡비셔와 뉴임병뎐 ᄀᆞᆽᄒᆞᆫ 칙이니라 (14: 26ㄴ)

ㅌ. 엄싱이 ᄀᆞᆯ오ᄃᆡ 감히 형의 위인 ᄀᆞᆽᄐᆞ니를 어더 (14: 31ㄱ)

ㅍ. 진실노 형의 말 ᄀᆞᆽ을지라도 (16: 25ㄴ)

ㅎ. 진실노 그ᄃᆡ의 말 ᄀᆞᆽ도다 (17: 26ㄴ)

다음은 'NP1{ᄂᆞᆫ,이} NP2ø ᄀᆞᆽᄒᆞ-' 구문유형을 보여준다.

(25)의 'NP2ø'는 비교 기준이 되는데 主題化 'NP'가 하나 더 있는 점을 제외하면 예문 (24)와 같은 구조를 보여주는 구문이다.

(25) ㄱ. 그 졔도ᄂᆞᆫ 두 셕튝 ᄉᆞ이ᄂᆞᆫ 삼ᄉᆞ간 너뷔오 병믁 ᄀᆞᆽᄒᆞᆫ지라 (11: 6ㄱ)

ㄴ. 됴희ᄂᆞᆫ 왜지 ᄀᆞᆽᄒᆞᄃᆡ (12: 3ㄱ)

ㄷ. 소릐ᄂᆞᆫ 괴소릐 ᄀᆞᆽᄒᆞ나 (14: 10ㄱ)

(26) ㄱ. 늙은 겨집이 빠홈을 말녀 달니ᄂᆞᆫ 소릐 ᄀᆞᆽ더니 (11: 24ㄴ)

ㄴ. 듯게와 에움이 손바닥 ᄀᆞᆽᄒᆞᆫ지라 (11: 26ㄴ)

ㄷ. 음식이 맛 갓지 아니터니 (12: 20ㄱ)

ㄹ. ᄆᆡ매ᄒᆞᄂᆞᆫ 믈건이 픔수와 믈식이 졈졈 네 ᄀᆞᆺ지 아니ᄒᆞᄃᆡ (16: 3ㄴ)

ㅁ. ᄂᆡ ᄆᆞᄋᆞᆷ이 ᄐᆡ허 ᄀᆞᆺ고 (16: 10ㄴ)

ㅂ. 수십만 군식 ᄲᅢ로기 풍우 ᄀᆞᆺ흐여 (17: 24ㄱ)

ㅅ. 너른 반셕이 혹 희기 눈빗 ᄀᆞᆺ트니 (20: 15ㄱ)

(26)은 'NP$_1$이 NP$_{2Ø}$ ᄀᆞᆺᄒᆞ-'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 구문은 주어의 자리에 있는 'NP$_1$이'를 제외하면 예문 (16)의 구문과 같은 구조이다.

'NP$_1${ᄂᆞᆫ,이} NP$_2${과/와, 이} ᄀᆞᆺᄒᆞ-' 구문유형도 나타난다.

(27) ㄱ. 이ᄂᆞᆫ 태혹관원이라 한님과 ᄀᆞᆺ치 ᄃᆡ졉ᄒᆞᄂᆞᆫ 일이로ᄃᆡ (17: 7ㄴ)

ㄴ. 다른 악긔ᄂᆞᆫ 아국과 ᄃᆡ강 ᄀᆞᆺ흐나 (18: 25ㄴ)

(28) ㄱ. 상복 제도와 상졔의 녜문이 셰상과 더브러 ᄀᆞᆺ지 아닌지라 (12: 20ㄱ)

ㄴ. 알셩 과거법이 다른 과거와 ᄀᆞᆺᄒᆞ냐 (15: 21ㄴ)

ㄷ. 사ᄅᆞᆷ의 얼굴과 의복 졔양이 셔양국 제도와 ᄀᆞᆺ고 안졍의 졍신이 이상ᄒᆞ니 (15: 34ㄴ)

ㄹ. 돌니ᄂᆞᆫ 법이 큰 졔도와 ᄯᅩᄒᆞᆫ ᄀᆞᆺ흔지라 (17: 7ㄴ)

ㅁ. 쥬인이 ᄃᆡ졉이 극히 관곡ᄒᆞ고 됴금고 괴로이 녁이ᄂᆞᆫ 긔식이 업ᄉᆞ니 소문과 ᄀᆞᆺ지 아닌지라 (19: 3ㄱ)

ㅂ. 븍경은 젼혀 벽으로 ᄲᅡᄃᆡ 홀노 이 셩이 젼혀 돌노 무어 동국졔도와 ᄀᆞᆺ흔지라 (20: 19ㄴ)

(29) ㄱ. 쥬가ᄂᆞᆫ 가ᄂᆞᆫ 얼골이 옥 ᄀᆞᆺ고 목이 그린 ᄃᆞᆺᄒᆞ고 (11: 11ㄴ)

ㄴ. 복두ᄂᆞᆫ 졔양이 ᄀᆞᆺ흐나 (15: 23ㄴ)

다음은 'NP$_1${을,의셔} NP$_2$과 ᄀᆞᆺᄒᆞ-'의 구문유형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30) ㄱ. 편벽되이 금옥 사ᄅᆞᆷ을 ᄶᅡᄅᆞᆷ과 ᄀᆞᆺᄒᆞ리오 (15: 4ㄱ)

ㄴ. 일변 ᄉᆞ실을 니ᄅᆞ며 일변 의논을 셕금과 ᄀᆞᆺ흔지라 (16: 15ㄱ)

(31) 나모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만나 ᄃᆡ령ᄉᆞ 길흘 무ᄅᆞ니 젼량의셔 드른 말과 ᄀᆞᆺᄒᆞᆫ지라 (20: 14ㄴ)

다음은 'NP0은 NP1와/과 NP2이 ᄀᆞᆺᄒᆞ-' 구문유형을 보여 주는데 'NP0'와 'NP1'는 모두 인물을 가리키며 'NP2'는 추상적인 것을 가리킨다.

(32) 그 구ᄒᆞᄂᆞᆫ 사람은 날과 병이 ᄀᆞᆺᄒᆞᆫ 사람이라 (11: 33ㄱ)

다음은 'NP1만 ᄀᆞᆺᄒᆞ-' 구문구조를 보여준다.

(33) ㄱ. 마ᄎᆞᆷᄂᆡ ᄒᆞᆫ ᄂᆡ별은 면치 못ᄒᆞᆯ 거시니 아이의 서로 만나지 아님만 ᄀᆞᆺ지 못ᄒᆞ도다 (12: 23ㄱ)

ㄴ. ᄆᆞᄎᆞᆷᄂᆡ 경셔를 닑음만 ᄀᆞᆺ지 못ᄒᆞ니라 (14: 29ㄴ)

ㄷ. 이 말을 ᄂᆡᄂᆞᆫ 재 ᄯᅩᄒᆞᆫ 그 허믈을 드ᄅᆞ미 그 ᄆᆞᄋᆞᆷ의 깃브미 ᄆᆞᄎᆞᆷᄂᆡ 기림을 듯ᄂᆞᆫ 즐거옴만 갓지 못ᄒᆞ니 (17: 27ㄱ)

ㄹ. 그러나 형의 날을 알미 필연 나의 형을 아ᄂᆞ니만 ᄀᆞᆺ지 못ᄒᆞ리로다 (17: 29ㄴ)

ㅁ. 서로 ᄇᆞ라며 셔로 ᄉᆡᆼ각ᄒᆞᆷ의 더옥 ᄀᆡ이ᄒᆞᆷ만 ᄀᆞᆺ지 못ᄒᆞ고 (18: 9ㄴ)

(34) ㄱ.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공현이 ᄒᆞᆫ 번을 보미 도로혀 아니보니만 ᄀᆞᆺ지 못ᄒᆞᆫ 의ᄉᆡ냐(17: 32ㄴ)

ㄴ. ᄒᆞᆫ 조각 ᄆᆞᄋᆞᆷ이 홀연이 ᄭᅳ허지며 홀연이 니이니 도로혀 ᄒᆞᆫ 번 ᄭᅳ허지고 도로 니이지 못ᄒᆞ니만 ᄀᆞᆺ지 못ᄒᆞᆯ지라 (17: 37ㄴ)

(35) ㄱ. ᄯᅩ 병이 ᄀᆞᆺᄒᆞ면 서로 블상이 녁이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ᄂᆞ니 엇지 이ᄀᆞᆺ치 셰쇄ᄒᆞᆫ 말을 ᄒᆞᄂᆞ뇨 ᄒᆞ니 (11: 33ㄴ)

ㄴ. 글이 임의 ᄀᆞᆺᄒᆞ니 (16: 29ㄱ)

(36) 이 일은 아래 우히 허믈이 ᄀᆞᆺᄒᆞᆫ지라 (15: 21ㄱ)

3.4.2.5. '다ᄅᆞ-'

이 '다ᄅᆞ-' 동사 구문은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서로 다를 경우에 나타나며 그 결과는

'다ᄅᆞ-'에 의해 실현된다. 이러한 구문에서 비교의 기준이 되는 'NP_2'에는 보조사 및 격조사 '-에, -와, -ᄒᆞ고, -의게, -에셔, -의게셔' 등이 통합된다.

근대국어시기에 '다ᄅᆞ-'에 관계되는 차등비교는 구문은 <표6>과 같이 나타난다.

<표5>

NP_1이 NP_2에 다ᄅᆞ다
NP_1이 NP_2의게 다ᄅᆞ다
NP1이 NP_2와 다ᄅᆞ다
NP_1이 NP_2ᄒᆞ고 다ᄅᆞ다
NP_1이 NP_2ᄭᅴ와 다ᄅᆞ다
NP_1이 NP_2으로더브러 다ᄅᆞ다
NP_1이 NP_2에셔 다ᄅᆞ다
NP_1이 NP_2의게셔 다ᄅᆞ다
NP_1과 NP_2이 다ᄅᆞ다

이 가운데 'NP_1이 NP_2에 다ᄅᆞ다'에서 'NP_2에'의 '에'는 비교 기준을 나타내는 'NP_2'에 통합되기 때문에 동등비교에 실현되는 'NP_1이 NP_2에 ᄀᆞᆮ다'에서 'NP_2'와 그 용법, 의미, 기능이 동일하다.

이제 본 자료에서 '다ᄅᆞ-' 구문이 실현되는 실제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37)은 'NP_1와/과 다ᄅᆞ-' 구문유형으로 'NP_1'는 다양한 명사구들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37) ㄱ. 숫불을 ᄆᆞᆫᄃᆞ라 년ᄒᆞ야 너흐니 구들과 다름이 업더라 (1:16ㄴ)

ㄴ. 믈이 만하 길과 ᄆᆞ을이 다 뫼 ᄀᆞ온ᄃᆡ 이셔 아국 두메길과 다름이 업더니 (2: 12ㄴ)

ㄷ. ᄯᅩ 됴션 사나희 머리ᄅᆞᆯ 보면 겨집과 다름이 업ᄉᆞ니 잇지 붓그럽지 아니ᄒᆞ리오(4: 11ㄴ)

ㄹ. 마을 음식이라 비음만 ᄒᆞ야 아국 일과 다름이 업더라 (5: 10ㄴ)

ㅁ. ᄂᆡ 무ᄅᆞᄃᆡ 우리ᄂᆞᆫ 외국 사ᄅᆞᆷ이라 그대의 소견의 필연 몽고와 다ᄅᆞᆷ이 업ᄉᆞ리로다 (11:30ㄱ)

(38) ㄱ. 몽고ᄂᆞᆫ 비록 사람이 얼골이나 셩픔이 녕한ᄒᆞ야 금슈와 다름이 업ᄉᆞ니 (11: 30ㄴ)

ㄴ. 만일 말이 즁심으로 나지 아니ᄒᆞ면 엇지 개즘싱과 다ᄅᆞᆷ이 이시리오 (15: 12

ㄱ)

ㄷ. 모양은 아국 ᄆᆞ른 포육ᄀᆞᆺ고 약간 향긔로와 농안 마시 이니시 아국 죽슌과 절연이 다ᄅᆞ고 (15: 14ㄴ)

ㄹ.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김형은 흉치 호방ᄒᆞ야 적은 곡졀의 거리끼지 아니ᄒᆞ니 동국 규모와 다ᄅᆞ도다 (15: 19ㄴ)

ㅁ. 챵시ᄒᆞᄂᆞᆫ 희ᄌᆞ와 다ᄅᆞᆷ이 업ᄂᆞᆫ지라 (16: 3ㄱ)

ㅂ. 셰샹의 부귀ᄅᆞᆯ 보ᄆᆡ ᄯᅳᆫ 구ᄅᆞᆷ과 다ᄅᆞᆷ이 업거ᄂᆞᆯ (16: 10ㄴ)

ㅅ. 별노 ᄒᆞᆫ 졔도ᄅᆞᆯ ᄯᅩᄒᆞᆫ 셰골희로 서로 ᄆᆡ쟈 큰 졔양과 다름이 업고 (17: 5ㄱ)

ㅇ. 그 집의 부귀ᄒᆞᆫ 거동을 ᄒᆞᆫ 번 귀경코져 ᄒᆞ나 ᄉᆞᄉᆞ문뎡과 다ᄅᆞ니 (18: 5ㄱ)

ㅈ. ᄇᆡ 가온ᄃᆡ 죠고만 돗ᄃᆡᄅᆞᆯ 세우고 ᄡᅳ으ᄂᆞᆫ 줄을 ᄃᆡ ᄉᆞᆺ히 ᄆᆡ야시니 아국 졔도와 다ᄅᆞ더라 (19: 7ㄱ)

(39)' ㄱ. 이졔 그ᄃᆡᄅᆞᆯ 보니 몸이 젼랑의 이셔 길 가ᄂᆞᆫ ᄉᆞᄅᆞᆷ의 종과 다ᄅᆞᆷ이 업고 방젼과 나모 갑ᄉᆞᆯ 서로 힐닌ᄒᆞ야 (3: 20ㄱ)

ㄴ. 역관의 ᄆᆡ매와 다름이 업ᄉᆞ면 ᄯᅩᄒᆞᆫ 본심이 아니오 (8: 1ㄴ)

ㄷ. 우리ᄂᆞᆫ 외국 사람이라 그대의 소견의 필연 몽고와 다ᄅᆞᆷ이 업ᄉᆞ리로다 (11: 30ㄱ)

ㄹ. 이ᄂᆞᆫ 우리의 어졔 경샹과 다ᄅᆞᆷ이 업도다 (12: 25ㄴ)

ㅂ. 만일 취홈이 이시면 됴모의 서로 만남과 다ᄅᆞᆷ이 업ᄉᆞ리로다 (18: 15ㄴ)

위의 예문들은 'NP1와/과 다ᄅᆞ-' 구문을 가지는 것으로 '다ᄅᆞ-' 구문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NP1와/과'에 해당하는 명사구(NP)는 모두 무정 체언이나 실제로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39)'는 'NP1의 NP2와 다ᄅᆞ-'의 구조로 'NP1의'는 수식어로 이 점을 제외하고는 예문 (39)와 동일한 구조이다.

'NP1{이,ᄂᆞᆫ} NP2와/과 다ᄅᆞ-'의 구문유형은 가장 보편적인 비교동사 구문이다.

(40) ㄱ. 산영ᄒᆞᄂᆞᆫ ᄂᆡ 쳐쳐의 니러ᄂᆞ니 경ᄉᆡᆨ이 다른 누관과 ᄀᆞᆺ디 아니터라 (1: 15ㄱ)

ㄴ. ᄂᆡ 법이 아국과 ᄃᆞᆯ나 ᄇᆞ람이 브러도 거두치지 아닐너라 (2: 19ㄱ)

ㄷ. 말이 븍경 어훈과 다로니 아ᄅᆞ듯기 분명티 아니터라 (4: 20ㄱ)

ㄹ. 셔양국 복ᄉᆡᆨ이 즁국과 다름이 업ᄂᆞ냐 (7: 24ㄱ)

ㅁ. ᄂᆡ ᄀᆞᆯ오ᄃᆡ ᄃᆡ강은 ᄀᆞᆺᄒᆞ나 ᄲᆞᆯ이 즁국과 다ᄅᆞ니라 (11: 12ㄱ)

ㅂ. 이즈음 즁을 만나면 거동과 말ᄉᆞᆷ이 속인과 다름이 업고 (11: 31ㄴ)

ㅅ. 그 혹문 계경이 쥬ᄌᆞ와 다ᄅᆞᆫ지라 (12: 12ㄱ)

ㅇ. 남방 어음이 븍경과 다ᄅᆞᆫ지라 (12: 18ㄱ)

ㅈ. 다시 드ᄅᆞ매 ᄆᆞ옴을 슬허ᄒᆞᆷ이 이젼과 다ᄅᆞᆷ이 업더라 ᄒᆞ니 (13: 1ㄴ)

ㅊ. ᄎᆞᄎᆞ 도라가ᄂᆞᆫ 거동이 ᄌᆞ명죵과 다ᄅᆞᆷ이 업ᄉᆞᄃᆡ (13: 10ㄴ)

ㅋ.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삼오ᄉᆞᆯ 닙히고 플신을 신겨 ᄃᆡ졉이 도적과 ᄃᆞᄅᆞᆷ이 업ᄉᆞ니 (15: 21ㄱ)

ㅌ. 손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귀국의 준아ᄒᆞᆫ 인믈과 슌아ᄒᆞᆫ 풍속이 즁화와 다름이 업ᄉᆞᆯ지라 (18: 30ㄴ)

ㅍ. 우리의 ᄒᆡᆼ식을 귀경ᄒᆞ며 혹 젹은 긔ᄅᆞᆯ 세우고 븍을 올니며 귀신의게 비ᄂᆞᆫ 거동이 아국과 다ᄅᆞᆷ이 업더라 (18: 27ㄱ)

ㅎ. 몸을 흔들고 ᄃᆞᆺ토아 소ᄅᆡᄒᆞᄂᆞᆫ 거동이 아국 아ᄒᆡ들과 다ᄅᆞᆷ이 업ᄂᆞᆫ지라 (19: 18ㄱ)

(41) ㄱ. 그 안ᄒᆡ 됴ᄒᆡ 가마ᄅᆞᆯ 서너흘 노코 ᄇᆞ야흐로 됴ᄒᆡᄅᆞᆯ ᄯᅳ니 그 모양은 아국법과 다로미 업더라 (2:24ㄴ)

ㄴ. 졔도ᄂᆞᆫ 비록 젹으나 셩녕의 공교ᄒᆞᆷ은 셩안 것과 ᄃᆞᄅᆞᆷ이 업더라 (3: 18ㄱ)

ㄷ. ᄌᆞ셰히 다 됴복을 ᄀᆞᆺ초아시니 마으락이ᄂᆞᆫ 다름이 업사ᄃᆡ (5: 4ㄱ)

ㄹ. 상고들이 년ᄒᆞ여 나들며 인ᄉᆞᄒᆞᄃᆡ ᄒᆡᄅᆞᆯ 무ᄉᆞ히 디ᄂᆡ엿ᄂᆞ냐 ᄒᆞ니 이 풍속은 아국과 다름이 업더라 (5: 21ㄱ)

ㅁ. 그ᄃᆡᄂᆞᆫ 츌신ᄒᆞᆫ 사람 다ᄅᆞ니 (11: 14ㄴ)

ㅂ. 비로소 몽고 겨집의 복식을 보니 의복은 븍경과 다ᄅᆞᆷ이 업ᄉᆞ나 (19: 20ㄱ)

ㅅ. 다ᄅᆞᆫ 곳은 혹 쳐쳡이 이시ᄃᆡ 우리ᄂᆞᆫ 젼진도식라 산즁의 머므러 즁의 ᄉᆡᆼᄋᆡ와 다ᄅᆞᆷ이 업노라 ᄒᆞ더라 (20: 16ㄱ)

(42)는 'NP1의'의 명사구 표지 '의'는 처격의 기능을 갖는다.

(42) ㄱ. 서로 조롱ᄒᆞᄂᆞᆫ 거동이 피ᄎᆞ의 다ᄅᆞᆷ이 업고 (11: 25ㄱ)

ㄴ.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피ᄎᆞ의 다ᄅᆞᆷ이 업거니와 (13: 18ㄴ)

ㄷ. 오직 ᄭᅮᆷ속의 혼ᄇᆡᆨ이 임의 원근의 다름이 업고 (18: 15ㄴ)

(43)는 'NP$_0$이 NP$_1$을 NP$_2$와 다ᄅᆞ-' 구문유형을 보여준다.

(43) 그 반기로 은근ᄒᆞᆫ 거동이 쳔이의 고인을 만남과 다룸이 업고 (19: 8ㄴ)

(44)은 'NP$_1$도 다ᄅᆞ-' 구문유형으로 첨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 '도'에 '다ᄅᆞ-'가 연결된 구조이다. 비교 기준의 'NP$_2$'에 보조사 '도'가 통합된 것은 실제로 'NP$_2$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44) 두어돌 아희도 다름이 업거니와 (11: 31ㄱ)

다음은 'NP$_1$는 NP$_2$와 다ᄅᆞ-' 구문 구조를 보이는 예이다. 'NP$_1$'에 통합된 '는'은 비교 대상을 나타내주는 'NP$_1$'의 보조사이다.
(45ㄱ)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죠금'에 '다ᄅᆞ-'가 통합된 예이고, (48ㄴ)은 '다ᄅᆞ-'가 동명사화한 뒤에 이를 수식하는 의문사가 통합된 구조이다.

(45) ㄱ. 거믄보와 홍젼이 편히 쏠니여 죠금도 ᄃᆞ롬이 업더니 넌ᄒᆞ야 말을 ᄒᆞ며 (7: 10ㄴ)
ㄴ. 비단과 셔칙이 무삼 ᄃᆞ름이 이시리오(8:1ㄴ)

'NP$_1$은/는 NP$_2$이 NP$_3$와/과 다ᄅᆞ-'의 구조를 가진 구문유형도 보이는데, '다ᄅᆞ-'에 지배되는 문장 성분의 최대 구조가 'NP$_1$, NP$_2$이, NP$_3$'임을 보여준다

(46) ㄱ. 됴션은 음식이 듕국과 다름이 업노냐 (11: 12ㄱ)
ㄴ. 나는 힝식이 역관과 다ᄅᆞ고 (11:17ㄴ)
ㄷ. 아문을 지나도 머니 나가믈 의심치 아니ᄒᆞ되 나는 힝식이 다ᄅᆞ고 무상한 츌입이 업술 븐 아니라(12:1ㄴ)
ㄹ. 이밥은 빌 셩이 항쥐와 다롬이 업는고로 (12: 20ㄱ)
ㅁ. 이 흔텬의는 돌니는 법이 믈을 쓰지 아니ᄒᆞ야 녯법과 다른지라 (17: 13ㄴ)
ㅂ. 대인들은 죵적이 뎨등과 다른지라 (17: 19ㄴ)

'NP$_0${은, 이} 다ᄅᆞ-'의 구문유형도 보이는데, 비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NP$_1$'가 'Ø'으로 나타난 예문이다. 이 구문은 청자와 화자 사이에 어떤 비교의 대상이 '무엇과 (NP$_1$)'이 다른지는 이미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문맥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47) 반ᄉᆡᆼ이 눈믈을 뿟고 ᄀᆞᆯ오ᄃᆡ ᄐᆞᄂᆞᆫ 법은 비록 다로나 됴격은 ᄀᆞᆺᄒᆞ니 (12: 24ㄱ)

(48) ㄱ. ᄂᆡ 샹ᄉᆞ의게 고ᄒᆞᄃᆡ 남븍 어음이 다ᄅᆞ니 (12: 18ㄴ)
ㄴ. 반ᄉᆡᆼ이 맛보고 ᄀᆞᆯ오ᄃᆡ 남방의 쇼금과 메죠로 댱을 ᄆᆞᆫᄃᆞ니 마시 다ᄅᆞᆷ이 업고 (15: 14ㄴ)
ㄷ. ᄂᆡ ᄀᆞᆯ오ᄃᆡ 사ᄅᆞᆷ을 ᄃᆡᄒᆞ야 ᄂᆞᆺ빗ᄎᆞᆯ 다ᄉᆞ리믄 군ᄌᆞ와 쇼인이 다ᄅᆞᆷ이 업ᄉᆞ니 (17: 14ㄴ)

(48ㄱ,ㄴ,ㄷ)은 주체(=주어) 명사구 'NP$_0$'이 생략되고 비교의 기준인 'NP$_1$'이 '와/과'에 통합된 예이다.

이밖에 다음과 같은 동사구문도 보인다. 이들 '다ᄅᆞ-'구문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생략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주어명사구(NP$_0$)만 문맥에 실현되어 비교기준의 'NP$_1$'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는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NP$_1$의 다ᄅᆞ-' 구문으로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9) ㄱ. 황샹의 누른 빗ᄎᆞᆯ 슝샹ᄒᆞᆷ은 즁앙을 샹ᄒᆞᆷ이니 녁ᄃᆡ의 다로미 업ᄉᆞ니 (11: 28ㄱ)
ㄴ. 내 형을 아니 피ᄎᆞ의 다ᄅᆞᆷ이 업술 거시오 (17: 29ㄴ)
ㄷ. 어법의 다름이 무ᄉᆞᆷ ᄒᆡ로옴이 이시리오 (18: 30ㄴ)

(50)의 'NP$_0$ᄂᆞᆫ NP$_1$Ø 다ᄅᆞ-' 구문유형을 보인다.

(50) ᄂᆡ ᄀᆞᆯ오ᄃᆡ 그ᄃᆡᄂᆞᆫ 츌신ᄒᆞᆫ 사람 다ᄅᆞ니 우리ᄅᆞᆯ 만나도 쳬례의 구애ᄒᆞᆯ 일이 업술지라(11:14ㄴ)

' NP$_0$이 NP$_1$이 NP$_2$과 다ᄅᆞ-'에 해당되는 예문은 적은 편으로 나타난다.

(51) 이곳 샹고들이 젼혀 염냥을 보ᄂᆞᆫ지라 드러갈 ᄣᅵ의ᄂᆞᆫ 반겨 ᄃᆡ졉ᄒᆞᄂᆞᆫ 거동이 친쳑과 다ᄅᆞᆷ이 업ᄉᆞᄃᆡ

다음의 예문에서는 비교격 조사를 취한 'NP$_1$이 NP$_2$에셔/의셔 V' 형식을 가지고 있는 비교동사 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NP$_0$이 NP$_1$이 에셔/의셔 V' 구문유형은 'NP$_1$는 NP$_2$에셔' 구조이다. 'NP$_1$이 NP$_2$이에

셔 V', 'NP₁이 Ø예셔', 'NP₁이에셔'의 구조로 나타난다.

(52) ㄱ. ᄉᆞ방으로 도라 보니 젹셜이 뫼와 들을 덥헛고 셩밧 남 편의 남당이라 ᄒᆞᄂᆞᆫ 녀염이 셩안이 예셔 비히 더 번셩ᄒᆞ야 다 무릅아래 잇ᄂᆞᆫ 듯ᄒᆞ니 (1: 11ㄴ)

ㄴ. 집 졔되 별양 크고 놉하 아국졔도의셔 수비나 되고 (1: 19ㄱ)

(53) 은 'NP₀는 NP₁이 에셔 V', 'NP₀이 NP₁이의셔 V', 'NP₀이 예셔 V', 'NP₁의셔 V', 'NP₁이라도 Ø이에셔 V' 구문 유형을 보인다.

(53) ㄱ. 문렴ᄌᆞ라 ᄒᆞᄂᆞᆫ 거슨 문의 치ᄂᆞᆫ 발이니 삼승으로 ᄆᆞᄃᆞ라 대쇼ᄂᆞᆫ 문이 에셔 젹이 크게 ᄒᆞ고 (2: 20ㄴ)

ㄴ. 닉 골오ᄃᆡ 삼촌은 벼술이 이셔 나라 명을 밧ᄌᆞ와시니 이에셔 심ᄒᆞᆫ 일이라도 ᄉᆞ양티 못ᄒᆞ려니와 (5: 10ㄴ)

ㄷ. 화셕과 치식이 다른 곳이의셔 각별이 빗나더라 (3: 17ㄱ)

ㄹ. 다른 곳이 예셔 별양 됴키로_일홈이 잇ᄂᆞᆫ지라 (4: 3ㄱ)

ㅁ. 다리의셔 ᄃᆡ단이 크지 아니ᄒᆞ니 ᄃᆡ마ᄃᆡ롤 버혀 셰운 모양 ᄀᆞᆺ더라 (5: 16ㄴ)

ㅂ. 비록 진시황의 아방궁과 한무뎨의 건댱궁이라도 필연 이에셔 디날거시 업ᄉᆞ리니 (6: 22ㄱ)

여기서 'NP₂'에 통합되는 격조사나 보조사의 관계 의미가 문제된다. 즉 'NP₁'에 통합되는 '-에셔'는 비교동사 구문에서 중세국어부터 근대국어까지 사용되다가 현대국어에서는 '-보다'로 흡수 통일되었기 때문에 몇몇 화석화된 예만 보여준다. '-에셔'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차등을 표시해주는 명사구표지로 '-보다'의 의미를 나타냈었지만 홍윤표(1976:601)에 의하면 '-보다'가 최상의 의미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상비교구문에는 '-에셔'가, 차등비교구문에서는 '-보다'를 넘겨 주었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본 자료에서는 비교구문을 나타내는 명사구(NP₂)에 '-보다'는 아직 통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보다'로 흡수 통일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교동사구문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으-/ 더ᄒᆞ-	(1) 형용사
	NP_0{이,은} NP_1을 더으-
	NP_0{이,은} NP_1으로 더으-
	(NP_0은) NP_1을 NP_3의게 더으-
	(2) 비교동사
	NP_1은 NP_1의 더으-
비ᄒᆞ-	(NP_0이) NP_1ᄋᆞᆯ NP_2의 비ᄒᆞ-
	NP_1이 NP_2의 비ᄒᆞ-
	NP_1ᄋᆞᆫ NP_2의 비ᄒᆞ-
	NP_1ᄋᆞᆫ NP_3이 NP_2의 비ᄒᆞ-
	NP_1이 NP_3이 NP_2의 비ᄒᆞ-
	NP_1이 NP_2의 비ᄒᆞ-
	NP_1이 NP_2의 비ᄒᆞᆯ ᄇᆡ 아니-
ᄂᆞᆺ-	NP_1의셔 ᄂᆞᆺ-
	NP_1의셔 NP_1로셔 ᄂᆞᆺ-
ᄀᆞᆺᄒᆞ-	NP_1와 ᄀᆞᆺᄒᆞ-
	NP_1 ᄀᆞᆺᄒᆞ-
	NP_1{ᄂᆞᆫ,이} NP_2 ᄀᆞᆺᄒᆞ-
	NP_1{ᄂᆞᆫ,이} NP_2{와/과,이} ᄀᆞᆺᄒᆞ-
	NP_1{을,의셔} NP_2과 ᄀᆞᆺᄒᆞ-
	NP_1만 ᄀᆞᆺᄒᆞ-
다ᄅᆞ-	NP_1와/과 다ᄅᆞ-
	NP_1{이,ᄂᆞᆫ} NP_2와/과 다ᄅᆞ-
	NP_1{이,ᄂᆞᆫ} NP_2의 다ᄅᆞ-
	NP_0이 NP_1을 NP_2와/과 다ᄅᆞ-
	NP_1도 다ᄅᆞ-
	NP_0{은/는,이} NP_1이 NP_2와/과 다ᄅᆞ-
	NP_0{은,이} 다ᄅᆞ-

3.5. 심리동사구문

3.5.1 심리동사구문의 특징

인간의 정서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를 심리동사라고 하며 심리동사가 이루는 구문을 심리구문으로 부른다.[48] 심리구문은 사유구문이나 인지구문과 비슷한 구문 유형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동사와 형용사가 다 포함된다. 이 장에서 다룰 심리동사는 심리 동사와 심리 형용사를 포함한다. 이러한 심리동사는 목적어 중심의 구문으로 심리동사는 주로 타동사로 쓰인다. 중세국어에서 심리동사의 구문은 [NP이 NP을 V] 구조를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의 'NP이'는 어떠한 정서나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경험주를 표시하는 명사구이며 'NP을'은 정서나 심리 상태를 느끼거나 가지게 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명사구이다. 심리 형용사는 대개 'NP이 V'식의 구문 구조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NP이'는 어떠한 정서의 대상을 표시하는 명사구이다. 중세국어 시기의 심리동사로는 '젛다', '저프다', '저허ᄒᆞ다', '두리다', '두렵다', '깄다', '깃브다', '깃거ᄒᆞ다', '즐기다', '즐겁다', '슳다', '슬허ᄒᆞ다', '슬프다', '시름ᄒᆞ다', '시름ᄃᆞ외다', '셟다', '셜워ᄒᆞ다' 등이 속한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참고로해서 '깄다', '젛다', '슬프다', '즐기다', '슳다'를 의미와 통사적인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5.2. 심리동사구문의 유형

3.5.2.1. '깄-'과 '깃거ᄒᆞ-'

먼저, 예문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1)은 '깄다'가 '깃거ᄒᆞ다'로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구조는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의 의미 만을 강화시킨다. '깄-/깃거ᄒᆞ-'의 선행요소에 부사어가 결합된 것이다.

(1) ㄱ. 제 아븨 듯고 ᄀᆞ장 깃거ᄒᆞᄂᆞᆫ ᄉᆞ식이 잇더니 (2: 23ㄱ)

ㄴ. 왕개 ᄀᆞᆯ오ᄃᆡ ᄂᆡ 어제 마춤 관의 드러 갓더니 (중략) 여러 사람들이 다 은을 ᄀᆞ지고 나가며 별노 깃거ᄒᆞᄂᆞᆫ 거동이어놀 (11: 18ㄱ)

ㄷ. ᄂᆡ 몬져 읍ᄒᆞ야 인ᄉᆞᄒᆞ니 다 공슌이 ᄃᆡ답ᄒᆞ고 ᄀᆞ장 깃거ᄒᆞᄂᆞᆫ ᄀᆡ식이 잇거놀 (18:24ㄱ)

---

48) 중세국어의 심리동사구문에 관한 것은 이현희(1992:178-233), 한재영(1996:313-324)을 참조.

(2) ㄱ. 내 닐오ᄃᆡ 우리 연분이 잇도다 도라올ᄯᅢ의 다시 못쟈ᄒᆞ니 그 <u>사ᄅᆞᆷ이</u> 듯고 크게 <u>깃거</u> 감격ᄒᆞ야 ᄒᆞᄂᆞᆫ ᄉᆞ식을 이긔디 못ᄒᆞ고 (1: 32ㄱ)

ㄴ. 돈 ᄒᆞᆫ 쟈오ᄅᆞᆯ 주니 <u>즁이</u> 크게 <u>깃거</u> 문을 여니 ᄒᆞᆫ 쟈오ᄂᆞᆫ 일ᄇᆡᆨ 뉵십 픈이라 즁들의 풍속이 극히 졀통ᄒᆞ더라 (3: 2ㄱ)

ㄷ. ᄉᆞ힝이 가져 온 찬합을 ᄂᆡ여 약과와 젼복 광어ᄅᆞᆯ 태감과 관원을 권ᄒᆞ고 탁ᄌᆞ의 남은 ᄯᅥᆨ과 실과 두어 가지ᄅᆞᆯ 찬합의 너흐니 <u>태감이</u> ᄀᆞ장 <u>깃거</u> ᄒᆞᄂᆞᆫ 긔식이러라 (8: 22ㄴ)

ㄹ. <u>두 사람이</u> 다 <u>깃거</u> 아닛ᄂᆞᆫ 긔식이오 (11: 33ㄱ)

ㅁ. <u>엄싱이</u> 크게 <u>깃거</u> ᄀᆞᆯ오ᄃᆡ (15: 29ㄴ)

ㅂ. <u>평즁이</u> 크게 <u>깃거</u> ᄀᆞᆯ오ᄃᆡ 엇지ᄒᆞ야 급급히 셔로 만나게 ᄒᆞ리오 (16: 16ㄴ)

ㅅ. <u>셰 사ᄅᆞᆷ이</u> 다 <u>깃거ᄒᆞᄂᆞᆫ</u> ᄲᅵ치 잇고 (17: 23ㄴ)

(3) ㄱ. 드ᄃᆡ여 머리ᄅᆞᆯ ᄭᆞ고 오랑캐의게 항복ᄒᆞ야 ᄒᆞᆫ가지로 ᄌᆞ셩을 쳐 원슈ᄅᆞᆯ 갑흐면 텬하ᄂᆞᆫ 다시 다ᄅᆞᆫᄃᆡ 도라 가지 아니 ᄒᆞ리라 ᄒᆞ니 오랑캐 크게 깃거 허락ᄒᆞᄃᆡ 오히려 관문으로 드러 오기ᄅᆞᆯ 의심ᄒᆞᄂᆞᆫ디라 (3: 31ㄴ)

ㄴ. ᄂᆡ 깃거 ᄀᆞᆯ오디 이ᄂᆞᆫ 나의 소원이어니와 다만 ᄂᆡ 븍경을 처음 드러오ᄂᆞᆫ지라 (4: 4ㄱ)

(4) ㄱ. 큰 왕개 드러와 캉의 안ᄌᆞ 다시 ᄌᆞᆫ청ᄒᆞ거ᄂᆞᆯ ᄂᆡ 가기ᄅᆞᆯ 허ᄒᆞ니 크게 깃거ᄒᆞ더라 (2: 7ㄴ)

ㄴ. 계뷔 드ᄅᆞ시고 즉시 ᄒᆞᆫ 환을 ᄂᆡ여 노파ᄅᆞᆯ 쥬니 노패 손의 쥐고 크게 깃거ᄒᆞ더라 (2: 17ㄴ)

(5) 두 사람이 내 말을 듯고 크게 깃거 벼ᄉᆞᆯ 일홈을 니로니 다 문신 한님이라 (5: 20ㄱ)

(6) ㄱ. 두 사ᄅᆞᆷ이 깃거 머리ᄅᆞᆯ 그덕이고 드ᄃᆡ여 네 그릇 밥을 각각 압히 버리고 두어가지 반찬을 ᄀᆞ온ᄃᆡ 노흐니 싱션탕 ᄒᆞᆫ 그릇과 쇼치 두 졉시러라 (13: 22ㄴ)

ㄴ. 보기ᄅᆞᆯ ᄆᆞᄎᆞᄆᆡ 졉칙을 몬져 샹ᄉᆞ의게 보ᄂᆡ고 엄싱의 ᄠᅳᆺ을 젼ᄒᆞ니 샹시 ᄀᆞ장 깃거 ᄀᆞᆯ오ᄃᆡ 두 사ᄅᆞᆷ이 글시ᄅᆞᆯ 구ᄒᆞᄆᆡ 동국 시률을 긔록ᄒᆞᄂᆞᆫ 거시 업ᄉ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15: 3ㄴ)

(7) ㄱ. 반싱이 나의 잇지 아니ᄆᆞᆯ 깃거 ᄀᆞᆯ오ᄃᆡ 그러ᄒᆞ다 ᄒᆞ거ᄂᆞᆯ (16: 14ㄴ)

ㄴ. 스ᄉᆞ로 긔이ᄒᆞᆫ 만나미 응당이 도으미 이시ᄆᆞᆯ 깃거ᄒᆞᄃᆡ (16: 26ㄴ)

ㄷ. 오직 허물 듯기ᄅᆞᆯ 깃거ᄒᆞ야 능히 고치ᄂᆞᆫ 쟈ᄂᆞᆫ 군ᄌᆞ의 도라가고 (17: 27ㄱ)

ㄹ. 비로소 길흘 일치 아니믈 깃거 갓브믈 닛고 (20: 17ㄱ)

다음은 ‘NP_1의 깃브-’ 구문유형을 보여준다.

(8) ㄱ. 진실노 쳔ᄒᆞᆫ 자최의 등농의 깃브미 이실 ᄲᅮᆫ이 아니라 두 션ᄉᆡᆼ의 널니 ᄉᆞ랑ᄒᆞ야 원근의 간격이 업ᄉᆞ미 ᄯᅩᄒᆞᆫ 덕셩의 ᄒᆞᆫ ᄯᅳᆺ흘 볼지라 (10: 14ㄴ)

ㄴ. 반ᄉᆡᆼ이 됴타 일ᄏᆞᆺ거ᄂᆞᆯ ᄂᆡ ᄀᆞᆯ오ᄃᆡ 비록 그러ᄒᆞ나 이 말을 ᄂᆡᄂᆞᆫ 재 ᄯᅩᄒᆞᆫ 그 허믈을 드ᄅᆞ미 그 ᄆᆞᄋᆞᆷ의 깃브미 ᄆᆞᆺᄎᆞᆷᄂᆡ 기림을 듯ᄂᆞᆫ 즐거옴만 ᄀᆞᆺ지 못ᄒᆞ니 저컨ᄃᆡ 내 몸이 ᄯᅩᄒᆞᆫ 쇼인을 면치 못ᄒᆞᆯ가 ᄒᆞ노라 (17: 27ㄱ)

(9) ㄱ. 일변 깃브며 일변 슬프니 이 괴로온 회포ᄅᆞᆯ 엇지 ᄒᆞ리오 (15: 5ㄱ)

ㄴ. 피ᄎᆞ의 서로 간예ᄒᆞᆷ이 업ᄉᆞᄃᆡ ᄒᆞᆫ가지로 심댱이 서로 비최여 잠간 깃브며 잠간 슬푸미 말노 가히 니ᄅᆞ지 못ᄒᆞᆯ 거시오 (18: 9ㄴ)

(10) 이ᄂᆞᆫ 구구ᄒᆞᆫ 과명이 족히 깃블거시 아니라 이ᄅᆞᆯ 쟈뢰ᄒᆞ야 족하ᄅᆞᆯ 사괴미 진짓 큰 깃브미로다 (18: 17ㄴ)

3.5.2.2. ‘젛-’ 과‘ 져허ᄒᆞ-’

중세국어 시기의 ‘젛-’구문은 ‘NP_1이 NP_2을 젛-’, ‘NP_1에 젛-’ 등의 구조를 보이지만 이 자료에서는 ‘NP_0이 NP_1을 젛-’, ‘NP_1의 NP_2을 젛-’ 구문유형이 보인다.

먼저,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은 ‘NP_1의 NP_2을 젛-’의 구조로 나타나는데 ‘NP_2을’은 ′젛-′의 이유나 원인 등을 뜻하는 명사구이다.

(11) ㄱ. ᄃᆡ개 종밍의 셩식을 져호야 말ᄒᆞ기ᄅᆞᆯ 다 어려이 넉이ᄂᆞᆫ 거동이라 (7: 3ㄱ)

ㄴ. 이 일도 병즁의 죽기ᄅᆞᆯ 져허ᄒᆞᄂᆞᆫ ᄡᅴ오 (13: 25ㄴ)

ㄷ. ᄂᆡ 비록 은냥을 더 쥬고져ᄒᆞ나 역관들의 시비ᄅᆞᆯ 져허ᄒᆞᄂᆞ니 (15: 2ㄱ)

ㄹ.이ᄂᆞᆫ 천고의 드믄 일이오 즁국 ᄉᆞ람을 ᄒᆞᆫ 번 들념즉ᄒᆞᆫ ᄉᆞ젹이로ᄃᆡ 본됴의 협핍ᄒᆞ믈 져허ᄒᆞ냐 (17: 24ㄴ)

(12) ㄱ. <u>ᄃᆡ인들이</u> 괴로이 <u>ᄂᆡᆨ이믈</u> <u>저허ᄒᆞ노라</u> (13: 34ㄴ)

ㄴ. <u>이목이</u> <u>번거ᄒᆞ믈</u> <u>저허ᄒᆞ노라</u> (14: 6ㄴ)

ㄷ. 졔독 ᄃᆡ인의 죵 ᄒᆞ나히 문밧긔 ᄃᆡᆨ희여 아문의 범ᄉᆞᄅᆞᆯ 술피니 <u>ᄃᆡᄉᆞ와 통관들이</u> 다 <u>저허ᄒᆞᄂᆞᆫ지라</u> (15: 13ㄱ)

ㄹ. 즁외의 ᄇᆞᆫ별을 위ᄒᆞᆷ이 아니라 <u>죽기ᄅᆞᆯ</u> <u>저허ᄒᆞᄂᆞᆫ</u> 연괴니 (15: 25ㄴ)

(12)는 'NP$_0$이 NP$_1$을 젛- ' 구문유형을 보인다.

'저허ᄒᆞ-'는 '젛-'에 '- 어 ᄒᆞ-'가 결합된 것으로 선행 요소의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으로 통사 범주상의 차이는 없다,

(13) ㄱ. 만일 역관들이 드ᄅᆞ면 죄칙이 도라올가 저허ᄒᆞ노라 ᄒᆞ니 (7: 4ㄱ)

ㄴ. 드러갈가 져허ᄒᆞ더니 입을 열ᄆᆡ 의연히 밧고히니 (7: 13ㄱ)

ㄷ. 쥬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샹졍일은 ᄐᆡᄒᆞᆨ의 셕치ᄒᆞᄂᆞᆫ 날이니 이 날은 션비들이 만히 모이니 ᄒᆞᆫ 번 보암즉ᄒᆞ거니와 다만 텬ᄌᆞ의 ᄐᆡᄒᆞᆨ이니 외국 ᄉᆞ신이 편치 못ᄒᆞᆯ가 저허ᄒᆞ노라 (11: 14ㄱ)

ㄹ. 노야의게 죄ᄅᆞᆯ 어들가 저허ᄒᆞᆯ 쁜이 아니라 평ᄉᆡᆼ의 무식ᄒᆞᆫ 인믈이오 (11: 22ㄱ)

ㅁ. ᄂᆡ ᄀᆞᆯ오ᄃᆡ 이 자리ᄂᆞᆫ 인군의 긔구로도 오히려 샤치ᄒᆞᆫ 졔되라 엇지 범인의 안ᄌᆞᆯ 곳이리오 간 ᄉᆞ이라도 과분ᄒᆞᆫ ᄌᆡ앙이 이실가 저허ᄒᆞ노라 ᄒᆞ니 (11:30ㄱ)

ㅂ. ᄯᅩ 그ᄃᆡ의 ᄃᆡ인들이 고이히 ᄂᆡᆨ일가 져허ᄒᆞ노라 (12: 16ㄴ)

ㅅ. 다만 오두의 힘이 오라지 아냐 슴슴ᄒᆞᆯ가 져허ᄒᆞ노라 (14: 31ㄴ)

ㅇ. <u>아문이</u> 고이히 ᄂᆡᆨ일가 <u>저허ᄒᆞ고</u> 형비의게 ᄒᆡ로옴이 이실가 념녀ᄒᆞᆷ이라 (17: 19ㄴ)

ㅈ. ᄇᆞ야흐로 엄ᄒᆞ니 살풍경이 될가 져허ᄒᆞ노라 (17: 21ㄴ)

ㅊ. ᄂᆡ ᄀᆞᆯ오ᄃᆡ 우믈쇽의 개고리 죠고만 겨을 쟈랑코져 ᄒᆞ다ᄀᆞ 바다 쟈라의 무릅흘 샹ᄒᆞᆯ가 져허ᄒᆞ노라 (17: 36ㄴ)

ㅋ. ᄂᆡ ᄀᆞᆯ오ᄃᆡ 향허ᄂᆞᆫ 반ᄃᆞ시 형으로 ᄌᆞ쳐ᄒᆞ믈 써리지 아닐 거시오 오직 담헌이 오히려 긔기ᄅᆞᆯ 면치 못ᄒᆞᆯ가 져허ᄒᆞ노라 (17: 39ㄱ)

ㅌ. 바다 ᄇᆞ람이 비ᄅᆞᆯ 브러 의상을 적시라 져허ᄒᆞ노라 (18: 11ㄴ)

(13)은 추측의 '-ㄹ가'에 '젛-'이 통합된 유형이다.

'NP$_1$도 NP$_2$ᄅᆞᆯ 젛- ' 구문유형도 보인다. 'NP$_1$'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가 쓰였다.

(14) 이 일도 병즁의 죽기를 저허ᄒᆞᄂᆞᆫ 쎠오 (13: 25ㄴ)

(15) ㄱ. 취졸을 보기가 져허ᄒᆞᄂᆞᆫ 긔식이러라 (17: 8ㄴ)

'NP$_1$이 젛-' 구문유형도 나타난다.

(16) 졔독 ᄃᆡ인의 죵 ᄒᆞ나히 문밧긔 ᄃᆡ희여 아문의 범ᄉᆞᄅᆞᆯ ᄉᆞᆯ피니 ᄃᆡᄉᆞ와 통관들이 다 저허ᄒᆞᄂᆞᆫ지라 (15: 13ㄱ)

다음은 '져컨ᄃᆡ-' 구문유형이다.

(17) ㄱ. 갑흘 거시오ᄃᆡ 다만 져컨ᄃᆡ 외국의 쳔ᄒᆞᆫ 자최 다 혼쟈의 ᄭᅥ리믈 념녀ᄒᆞ여 (7: 13ㄱ)

ㄴ. 이곳의 니ᄅᆞ러 인ᄀᆡᆨ이 부요ᄒᆞ믈 보니 져컨ᄃᆡ 겨ᄅᆞᆯ이 업ᄉᆞᆯ가 ᄒᆞ노라 (17: 37ㄴ)

ㄷ. 사ᄅᆞᆷ의 됴흔 고졀 보ᄆᆡ 다만 즁심의 ᄀᆞᆷ촌 ᄯᆞᄅᆞᆷ이라 ᄂᆞᆺ촐 ᄃᆡᄒᆞ여 말노 기리믈 져컨ᄃᆡ 서로 아당ᄒᆞᄂᆞᆫ 교도의 도라갈가 저허ᄒᆞ노라 (17: 14ㄴ)

3.5.2.3. '슬프-'

'슬프다'는 그 대상에 대해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이나 슬픈 뜻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아래의 예문처럼 '슬프다' 만으로 발화되는 문장은 감탄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슬프다'는 그와 관련된 문장 앞에 나와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슬프다 S' 구문유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8)은 '너 ᄌᆞ의 힝연이 슬프다'로 다시 고쳐 쓸 수 있다. 이 유형과 같은 예문들의 가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18) ㄱ. 슬프다 너 ᄌᆞ의 힝연이 (2: 3ㄴ)

ㄴ. 슬프다 사ᄅᆞᆷ이 알니 젹도다 (2: 4ㄴ)

ㄷ. 슬프다 이런 변화ᄒᆞᆫ 긔믈을 오랑키ᄅᆞᆯ 맛뎌 ᄇᆡᆨ년이 넘도록 능히 회복ᄒᆞᆯ 모칙이 업ᄉᆞ니 만여리 즁국ᄀᆞ온ᄃᆡ 엇지 사람이 잇다 ᄒᆞ리오 (6: 4ㄱ)

ㅂ. 슬프다 말셰의 풍속이 박익ᄒᆞ야 교도의 망ᄒᆞᆷ이 오란지라 (12: 27ㄴ)

ㅅ. 슬프다 텬하의 ᄯᅳᆺ 잇ᄂᆞᆫ 사람은 맛당이 이 ᄆᆞ암을 짐작ᄒᆞ리로다 (13: 13ㄴ)

ㅇ. 슬프고 슬프도다 셜니 즁국의 탁싱홈이 다힝ᄒᆞ리로다 (16: 27ㄴ)

ㅈ. 슬프다 엇지 네속을 붉혀 의롤 씨쳐 기리 졔형으로 더브러 서로 손을 잇글며 막디롤 쓰으려 네솔과 흐ᄅᆞ는 믈 가온디 한가히 놀니오 (17: 5ㄱ)

ㅊ. 쏘 ᄀᆞᆯ오디 집이 가난ᄒᆞ고 아들이 업ᄉᆞ미 빅수의 과공을 일삼으니 슬프고 슬프도다 (17: 30ㄱ)

ㅋ. 통연히 흉치롤 여러 오린 븡우와 다름이 업ᄉᆞ니 슬프다 사름이 셰샹의 이시미 죠고만 득실이 다 각각 명이 잇ᄂᆞ니 (18: 7ㄴ)

'NP_0이 슬프-' 구문유형도 보이는데 이는 선행문장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구문이다.

(19) ㄱ. 녈식 깁흔 슬프믈 픔엇도다 (2: 4ㄴ)

ㄴ. ᄌᆞ연이 ᄆᆞᄋᆞᆷ이 슬프도다 (16: 9ㄱ)

ㄷ. ᄇᆞ람 남긔 슬프고 탄식홈이 ᄀᆞ득ᄒᆞ엿도다 (17: 31ㄱ)

ㄹ. 반싱이 복죠히롤 챵황이 쁘즌 후의 ᄀᆞᆯ오디 이 말을 보미 진실노 ᄆᆞᄋᆞᆷ이 슬프도다 (17: 18ㄴ)

다음 문장은 'NP_1의 슬프-' 구문유형을 보인다.

'NP의 슬프-'의 구조를 가지며, 앞부분의 '슬프-'는 의미상 뒷 문장의 '슬프-'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 구문은 '살아서 이별하는 것이 슬픈 것이고 이보다 더한 슬픔은 없도다'의 의미를 가진다.

(20) ㄱ. 무숨 니별의 슬픈 말이 잇는가 시브다 ᄒᆞ니 (12:32ㄱ)

ㄴ. 거믄고 소리 져의 슬픈 ᄆᆞᄋᆞᆷ을 더옥 움즈일가 ᄒᆞ여 (12: 24ㄱ)

ㄷ. 두 형을 만난 후의 훌훌이 니별의 슬프믈 이긔지 못ᄒᆞ야 (13: 19ㄱ)

ㄹ. 평즁의 ᄀᆞᆯ오디 아들이 업고 쏘한 고분의 슬프믈 당ᄒᆞ야 (17: 30ㄱ)

3.5.2.4. 슳-'과 '슬허ᄒᆞ-'

'슳-'과 '슬허 ᄒᆞ-'는 '젛-'과 '저허ᄒ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사상의 차이는 없는 동사이다. 역시 목적어 중심 구문으로 본 자료에서는 'NP이 동명사 슬ᄒᆞ-'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자료에 나타난 '슬허ᄒᆞ-'는 현대국어의 '슬퍼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먼저,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은 'NP0 NP1을 슬허ᄒᆞ-'의 구문유형을 보인다.

(21) ㄱ. 강시 그 도라올 긔약이 업ᄉᆞ믈 슬허ᄒᆞ여 어린 ᄌᆞ식을 잇글고 (2: 25ㄱ)
ㄴ. ᄇᆡᆨ셩이 도탄의 섀지믈 슬허ᄒᆞ샤 스ᄉᆞ로 목을 ᄆᆡ야 샤딕을 조ᄎᆞ시니 (2: 31ㄱ)
ㄷ. 셰상을 도라 보아 즁국이 오래 민믈ᄒᆞ믈 슬허ᄒᆞ니 ᄒᆞᆫ낫 셔ᄉᆡᆼ이 부졀업ᄉᆞᆫ 강개ᄅᆞᆯ 니긔지 못ᄒᆞᆯ너라 (4: 13ㄱ)

(22)는 'NP0이 슳-'의 구문유형을 보인다.

(22) ㄱ. ᄂᆡ여 노ᄒᆞ니 그 사ᄅᆞᆷ이 보고 손을 저허 슬타ᄒᆞ고 (4: 4ㄴ)
ㄴ. 이 지현이 홀노 슬허ᄒᆞ기 이 지경의 니로니 엇지 착지 아니ᄒᆞ리오 (4: 17ㄴ)
ㄷ. 션ᄉᆡᆼ이 슬허ᄒᆞᆷ이 녜의 지나니 (13: 24ㄱ)

'NP1을 슬허ᄒᆞ-' 구문유형도 나타난다.

(23) ㄱ. ᄂᆡ별을 과도히 슬허ᄒᆞ니 ᄯᅩ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약ᄒᆞ고 그ᄅᆞ시 젹은 사람이로ᄃᆡ (12: 25ㄴ)
ㄴ. 서로 만나지 못ᄒᆞᆷ을 슬허ᄒᆞᆯ ᄲᅳᆫ이러니 (12: 27ㄱ)
ㄷ. 뎡ᄃᆡᄒᆞᆫ 말을 슬희여 ᄒᆞᄂᆞᆫ고로 (16: 10ㄴ)
ㄹ. 그러나 이 사ᄅᆞᆷ의 말을 드ᄅᆞ니 죡해 어졔 편지를 보ᄆᆡ 슬허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니긔지 못ᄒᆞ더라 ᄒᆞ니 (18: 19ㄴ)

3.5.2.5. '즐기-'와 '즐겁-'

먼저,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는 'NP1을/를 즐기-' 구문유형으로 현대국어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동사이다.
(25)는 부사어 'ᄀᆞ장'에 '즐기-'가 결합된 구조를 보인다.

(24) ㄱ. 헌화ᄅᆞᆯ 즐기디 아니미오 (6: 9ㄱ)
ㄴ. 이 일을 알면 필연 쇼인의 거간ᄒᆞᆫ 줄을 즐기지 아닐 거시니 (7: 5ㄱ)
ㄷ. 승부ᄅᆞᆯ ᄃᆞ토아 서로 즐기ᄂᆞᆫ지라 (12: 30ㄴ)
ㄹ. 엇지 반ᄃᆞ시 죽을 말을 즐겨 ᄒᆞ고져 ᄒᆞ리오 (13: 12ㄱ)

ㅁ. 술 먹기ᄅᆞᆯ 즐겨ᄒᆞᆯ진ᄃᆡ (16: 35ㄱ)
ㅂ. 쥬ᄉᆡᆼ이 ᄂᆞᆾ빗ᄎᆞᆯ 변ᄒᆞ고 ᄃᆡ답이 업거ᄂᆞᆯ ᄂᆡ ᄃᆞ시 ᄀᆞᆯ오ᄃᆡ 무ᄅᆞᆷ이 이시ᄃᆡ ᄃᆡ답기ᄅᆞᆯ 즐기지 아니니 (20: 4ㄱ)

(25) 도로 드러가 ᄑᆡᆼ뉴ᄅᆞᆯ 드ᄅᆞᆯ시 오림포와 셔종현이 다 므ᄅᆞᆸ흘 티며 ᄀᆞ장 즐기ᄂᆞᆫ 거동이러라 (7: 29ㄱ)

'NP_0이 즐기-' 구문 유형도 보이는데 'NP_0'은 모두 인물을 의미한다.

(26) ㄱ. 궁지 즐겨 아니믈 듯고 ᄃᆡ단이 무안ᄒᆞ야 (11: 2ㄴ)
ㄴ. 궁지 즐겨 밧지 아니ᄒᆞ더라 ᄒᆞ니 (11: 21ㄴ)

(27)은 의문사에 '즐기-'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다. (27ㄴ)은 의문사에 'NP을 즐기-'의 구조를 가진다. '즐기-'의 경험주가 표면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상정할 수 있다.

(27) ㄱ. ᄯᅩ 고루ᄒᆞᆫ 소견은 별노 ᄋᆡᄃᆞᆯ온 곳이 이시니 엇지 즐겁기ᄅᆞᆯ 의논ᄒᆞ리오 (14: 19ㄱ)
ㄴ. 엇지 반ᄃᆞ시 죽을 말을 즐겨ᄒᆞ고져 ᄒᆞ리오 (13: 12ㄱ)
ㄷ. 이러므로 훌훌ᄒᆞᆫ ᄆᆞ음이 ᄌᆞ연 즐거옴이 업ᄉᆞ니 엇지 구구히 니별을 앗길 ᄲᅳᆫ이리오 (14: 30ㄴ)
ㄹ. ᄃᆡ개 ᄆᆞ음의 즐기지 아니ᄒᆞᄂᆞᆫ ᄇᆡ 잇ᄂᆞ니 (16: 10ㄴ)
ㅁ. 이졔 공교히 인연을 합ᄒᆞ야 수십일 ᄉᆞ이의 서로 즐거오미 ᄯᅩᄒᆞᆫ 극진ᄒᆞ도다(18: 15ㄴ)

이밖에 나타나는 구문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8) 뎨ᄂᆞᆫ 평ᄉᆡᆼ이 고기ᄅᆞᆯ 즐기지 아니ᄒᆞ니 (15: 14ㄴ)

(29) 반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근본은 죽은 사ᄅᆞᆷ을 즐기게 ᄒᆞ미러니 (14: 27ㄴ)

(30) ㄱ. 셩픔이 술을 즐기ᄃᆡ (16: 10ㄱ)
ㄴ. ᄯᅩᄒᆞᆫ 가히 슬플 ᄯᆞᄅᆞᆷ이라 (17: 2ㄴ)

이제 ‘즐겁-’ 구문유형을 살펴보겠다.
(31)은 ‘NP의 즐겁-’ 형식으로 경험주는 ‘강씨’이다.

(31) ㄱ. 강시는 흔낫 겨집이라 버러지 곳흔 몸이오 평싱의 고로온 운슈롤 만나고 흔 업순 셜움 픔어 홍안이 규방의 즐거오믈 ᄇ리고 (2: 26ㄴ)
ㄴ. 닉 엄싱드려 닐너 골오딕 동긔 스이의 이런 ᄉ우의 즐거오미 이시니 (12: 14ㄱ)
ㄷ. 공안의 즐거오믈 방블이 싱각ᄒ니 (12: 31ㄴ)
ㄹ. 사룸을 어더 ᄆ음의 합ᄒ는 일을 의논ᄒ믄 텬하의 즐거온 일이라 ᄒ야 (14: 2ㄱ)
ㅁ. 이졔 몸이 뭇도록 니턱의 즐거오믈 베프지 못ᄒ므로 (14: 2ㄴ)
ㅂ. 셩셰낙ᄉ 네 ᄌ롤 쎠시니 셩흔 셰샹의 즐거온 일이라 니룸이라 (14: 20ㄴ)
ㅅ. 오히려 당안의 즐거오믈 싱각ᄒ니 (15: 4ㄱ)
ㅇ. 평즁이 골오딕 긔좀은 흔 형과 흔 아을 어드니 ᄆ음의 즐겁기 엇더ᄒ뇨 (17: 12ㄱ)
ㅈ. 이졔 공교히 인연을 합ᄒ야 수십일 ᄉ이의 서로 즐거오미 쏘흔 극진ᄒ도다(18: 15ㄴ)

‘NP_1이 즐겁-’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아 나타난다.

(32) 이러므로 홀홀흔 ᄆ음이 ᄌ연 즐거옴이 업ᄉ니 엇지 구구히 니별을 앗길 쁜이리오 (14: 30ㄴ)

지금까지 살펴본 심리동사구문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궂-/ 깃거ᄒᆞ-	NP_1이 궂-
젛-/ 저허ᄒᆞ-	NP_1의 NP_2올 젛-
	NP_0이 NP_2을 젛-
	NP_1도 NP_2롤 젛-
	NP_1이 젛-
슬프-	NP_0이 슬프-
	NP_1의 슬프-
슳-/ 슬허ᄒᆞ-	NP_0 NP_1을 슬허ᄒᆞ-
	NP_0이 슳-
	NP_1을 슬허ᄒᆞ-
즐기-/즐겁-	NP_1을/를 즐기-
	NP_0이 즐기-
	NP_1의 즐겁-
	NP_1이 즐겁-

3.6. 사유동사구문

3.6.1. 사유동사구문의 특징

이 구문은 목적어 중심 구문으로 기본 구조는 국어의 전형적인 'S O V'유형인 'NP_1이 NP_2을 V'의 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필수적으로 목적어 명사구 'NP_2'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언제나 목적어 'NP_2'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화자나 청자사이에 구정보로 목적어 'NP_2'가 알려진 것일 때 'NP_2'가 생략되기도 한다. 중세국어의 사유동사 구문 가운데 'ᄉᆞ랑ᄒᆞ-'가 '愛'와 '思,惟'를 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愛'의 뜻을 가지는 중세국어 구문은 'N을 ᄉᆞ랑-'와 '호몰 ᄉᆞ랑ᄒᆞ-'의 구문으로만 나타나는데 '思,惟'의 뜻을 가지는 구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ᄉᆞ랑ᄒᆞ-'와 거의 같은 구문 유형을 보이는 동사가 사유동사 '너기-'이다. 이 '너기-'는 사유동사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용법이다. 이들은 주어가 다 유정체언이며 여격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49] 여기서는 본 자료에서 보이는 예들을 묶어서 살피고자 한다.

49) 이현희(1992:234-66)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포괄적 사유구문과 유표적 사유구문으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3.6.2. 사유구문의 유형

3.6.2.1. ‘밋-’50)

이 구문은 다른 구문들에 비해 나타나는 양상이 단순하다.

(1)은 ‘NP_1을 밋’의 유형을 취하는데 주어로는 유정체언이 온다. ‘믿-’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믿음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1) ㄱ. 변방 오랑캐 군ᄉᆞ의 강ᄒᆞᆷ을 밋고 (1: 2ㄱ)
ㄴ. 덕워 말을 분명이 아디 못ᄒᆞ니 그 말을 밋디 못ᄒᆞᆯ너라 (6: 6ㄱ)
ㄷ. 공즁의 드러나니 수보롤 블너셔면 종시 그림인 쥴을 밋지 못ᄒᆞᆯ지라 (7: 23ㄱ)
ㄹ. 이롤 밋지 못ᄒᆞᄂᆞ니라 ᄒᆞ더라 (12: 4ㄴ)
ㅁ. 나히 열네술이나 인믈이 극히 셩악ᄒᆞ야 드러오면 가챠ᄒᆞᆷ을 밋고 작난과 침노ᄒᆞ는 말이 만흐니 (11: 18ㄴ)
ㅂ. 말이 이의 닐으믄 서로 깁히 ᄆᆞ옴을 허ᄒᆞᆷ을 밋고 (17: 25ㄱ)

‘NP_0는 밋-’ 구문유형은 주어로 유정체언이 온다.

(2) ㄱ. 궁ᄌᆞᄂᆞᆫ 밋을 ᄉᆞ람이 아니라 ᄒᆞ고 (14: 17ㄴ)
ㄴ. ᄉᆞ틔우ᄂᆞᆫ 밋ᄂᆞᆫ ᄉᆞ람이 업ᄂᆞ니 (15: 17ㄴ)
ㄷ. 다만 덕유롤 ᄃᆞ려시나 쥰쥰ᄒᆞᆫ 인믈이 밋을 거시 업ᄉᆞ니 (20: 13ㄴ)

다음은 ‘부사어 밋지 아니ᄒᆞ-’, ‘NP_1의 NP_2이 밋지 아니ᄒᆞ-’의 구문유형을 나타낸다.

(3) 너 감히 밋지 아니ᄒᆞ거니와 (14: 23ㄱ)

(4) 이런고로 텬디ᄀᆞ온ᄃᆡ ᄒᆞᆫ ᄌᆞ 니별의 말이 밋지 아니ᄒᆞ야 (13: 1ㄴ)

‘NP_1의 NP_2을 밋-‘, ’NP_0이 NP_1을 밋-‘의 구문유형도 나타난다.

---

50) 이현희(1994:311)에서 사유구문을 무표적, 유표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믿-’, ‘ 信ᄒᆞ-’, ‘疑心ᄒᆞ-’, ‘혜-’구문은 유표적 사유구문으로 살폈다.

(5) ㄱ. ᄯᅩ 스ᄉᆞ로 <u>텬ᄌᆞ의</u> <u>완둔치 아니믈</u> <u>미더</u> (18: 16ㄱ)
ㄴ. ᄒᆞᆫ 셔반이 젼량 쥬인의게 십냥 은을 엇고져 ᄒᆞᆫᄃᆡ <u>젼량 쥬인의</u> <u>무죄ᄒᆞ믈</u> <u>밋고</u> 쥬지 아니ᄒᆞᆫᄃᆡ (20: 7ㄱ)

(6) <u>반형이</u> <u>ᄌᆡ조ᄅᆞᆯ</u> <u>밋어</u> 지리ᄒᆞᆫ 의논이 만흐니 (15: 19ㄴ)

이 자료에서는 (7)의 '미덥-'과 (8)의 '밋브-' 구문유형도 보인다.

(7) ㄱ. 셰팔이 ᄀᆞᆯ오ᄃᆡ 젼브터 즁들이 이 굼글 ᄆᆞᆫᄃᆞ라 사람을 속여 거즛 닐오ᄃᆡ 굼글 마치면 됴흔 일이 잇다ᄒᆞ니 비록 미덥지 아니ᄒᆞ나 즁들의 ᄆᆞᄋᆞᆷ을 깃기고져ᄒᆞ야 서로 희롱ᄒᆞᆫ다 ᄒᆞ니 (14: 15ㄴ)
ㄴ. 셔반들이 혹 닐오ᄃᆡ 만일 빅냥 은을 앗기지 아니ᄒᆞ면 스므날 ᄉᆞ이로 도모ᄒᆞ려니와 그러치 아니ᄒᆞ면 이십ᄉᆞ오일의 ᄯᅥ나리라 ᄒᆞ니 당샹 역관들이 이 ᄉᆞ연을 ᄉᆞ힝의 알외ᄃᆡ 그 말이 미덥지 아니ᄒᆞ야 응답지 아니ᄒᆞᆫ다 ᄒᆞ더라 (15: 4ㄴ)

(8) ㄱ. 대개 그 돌이 비록 밋브디 아니ᄒᆞ니 녜부터 젼ᄒᆞ여 니ᄅᆞᄂᆞᆫ 곳이니 필연 머지 아닐 거시오 (4: 7ㄱ)
ㄴ. 이ᄂᆞᆫ 황뎨의 첫번 니러나던 조상 노라치의 샹이라 일노ᄡᅧ 그 한을 프러 작난을 ᄭᅳᆺ치게 ᄒᆞ엿다ᄒᆞ니 이ᄂᆞᆫ 밋브디 아닌 말이오 (5: 22ㄴ)
ㄷ. 스ᄉᆞ로 닐오ᄃᆡ 이십여셰의 텬하ᄅᆞᆯ 귀경ᄒᆞᆯ ᄯᅳᆺ이 이셔 나라ᄒᆞᆯ ᄯᅥ나 텬하ᄅᆞᆯ 두루 보고 ᄡᅡ 밋흐로 도라 즁국을 드러 왓노라 ᄒᆞ여시니 그 말을 비록 밋브지 아니ᄒᆞ나 ᄃᆡ개 텬문셩과 산슈 녁법을 모ᄅᆞᆯ 거시 업ᄉᆞᄃᆡ (7: 1ㄴ)
ㄹ. 두어 뫼흘 너머 녯 경을 귀경코져ᄒᆞ면 오ᄂᆞᆯ ᄂᆡ예 밋쳐 ᄎᆡᆨ문을 가지 못ᄒᆞ리라 ᄒᆞ니 여러 말이 다 밋브지 아니커ᄂᆞᆯ 즉시 ᄯᅥ나 슈리ᄅᆞᆯ 힝ᄒᆞ야 길 ᄀᆞ의 죠고만 젼량이 잇거ᄂᆞᆯ (20: 14ㄱ)

'밋-' 구문에서는 'NP이'에 해당하는 구문 요소가 생략된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략이 가능한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략은 복합문이나 접속문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상위문이나 앞에 있는 문장에 보인 요소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영균 1996:286)을 보면 16세기 사유구문에서 주어가 생략된 문장은 명령문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이는 명령문의 주어가 청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자료에서 '밋-'과 결합된 문장은 대부분 평서문이다.

3.6.2.2. ‘ᄉᆡᆼ각ᄒᆞ-’

먼저,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예문은 ‘NP_1를 ᄉᆡᆼ각ᄒᆞ-’구문으로 주어가 생략되었다.

(9) ㄱ. 만나 ᄒᆞᆫ번 ᄡᅳ기를 ᄉᆡᆼ각ᄒᆞ더니 (2: 3ㄱ)
ㄴ. 너를 ᄉᆡᆼ각호니 본ᄃᆡ 병이 만흔디라 (2: 5ㄱ)
ㄷ. 네 일을 ᄉᆡᆼ각ᄒᆞ야 (2: 5ㄴ)
ㄹ. 도로혀 심양을 ᄉᆡᆼ각ᄒᆞ야 (4: 30ㄱ)
ㄹ. 녯 사람을 ᄉᆡᆼ각ᄒᆞ야도 ᄯᅩᄒᆞᆫ 드믄 일이라 (12: 2)
ㅁ. 녯 사람을 ᄉᆡᆼ각ᄒᆞ야도 ᄯᅩᄒᆞᆫ 드믄 일이라 (12: 24ㄴ)
ㅂ. 이 경샹을 ᄉᆡᆼ각ᄒᆞᆯ진ᄃᆡ 어리지 아니ᄒᆞ면 (14: 1ㄴ)
ㅅ. 진실노 혐의를 ᄉᆡᆼ각ᄒᆞ여 과히 념녀ᄒᆞᆯ 곳이 업술 거시오 (16: 7ㄴ)
ㅇ. 이즈음 니ᄅᆞ러는 연노의 귀경ᄒᆞᆯ 곳이 거의 진ᄒᆞ고 고국이 졈졈 갓가오니 집을 ᄉᆡᆼ각ᄒᆞ야 념녀와 근심이 날노 심ᄒᆞ야 (20: 12ㄱ)
ㅈ. ᄂᆡ ᄯᅩᄒᆞᆫ 바회ᄅᆞᆯ 의지ᄒᆞ야 다리ᄅᆞᆯ 쉬오며 계교ᄅᆞᆯ ᄉᆡᆼ각ᄒᆞᄃᆡ 창졸의 향ᄒᆞᆯ 곳을 졍치 못ᄒᆞ니 (20: 17ㄴ)

다음은 ‘NP_1의 NP_2을 ᄉᆡᆼ각ᄒᆞ-’의 구조를 가진 예문이다.

(10) ㄱ. 그 이 ᄃᆡ경의 니ᄅᆞᆯ 줄을 엇지 ᄉᆡᆼ각ᄒᆞ야시리오 (5: 2ㄱ)
ㄴ. 이곳의 안자 아국 긔상을 ᄉᆡᆼ각ᄒᆞ니 초죠 가련ᄒᆞ여 (6: 3ㄴ)
ㄷ. 여여의 후ᄒᆞᆫ ᄯᅳᆺ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ᄂᆞ뇨 (11: 9ㄴ)
ㅁ. 만일 ᄀᆡᆨ탁의 다른 회례ᄅᆞᆯ ᄉᆡᆼ각ᄒᆞ면 이는 지긔의 일이 아니니 (12: 28ㄴ)
ㄹ. 손의 회포는 ᄒᆞᆫ가지로 고산의 프ᄅᆞ믈 ᄉᆡᆼ각ᄒᆞ도다 (13: 14)
ㅁ. 필경의 손을 난호는 괴로오믈 ᄉᆡᆼ각ᄒᆞᄆᆡ 실노 다시 모히믈 원치 아니ᄒᆞ노라 (14: 4ㄴ)
ㅂ. 이 거조의 니ᄅᆞ니 그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을 ᄉᆡᆼ각건ᄃᆡ 엇지 슬프지 아니리오(14: 21ㄱ)
ㅅ. 우리의 자최ᄅᆞᆯ ᄉᆡᆼ각ᄒᆞ니 지현의 믈너가지 못ᄒᆞ믈 칙망치 못ᄒᆞ리라 ᄒᆞ더라(14: 21ㄴ)
ㅇ. 피ᄎᆞ의 인정을 ᄉᆡᆼ각건ᄃᆡ 엇지 니러치 아니ᄒᆞ며 (14: 30ㄴ)
ㅈ. 텬하 사ᄅᆞᆷ이 황샹의 은혜ᄅᆞᆯ ᄉᆡᆼ각지 아니리 업고 (14: 34ㄱ)

ㅊ. 오히려 댱안의 즐거오믈 ᄉᆡᆼ각ᄒᆞ니 (15: 4ㄱ)

ㅋ. 고인의 주ᄂᆞᆫ ᄯᅳᆺ을 ᄉᆡᆼ각ᄒᆞᄆᆡ 한갓 긔이ᄒᆞᆫ 음식을 귀히 넉일 분이 아니로다 (15: 14ㄴ)

ㅌ. ᄒᆞᆺ ᄉᆞ람이 쥬ᄌᆞ를 존슝ᄒᆞᆷ이 진실노 맛당ᄒᆞ거니와 뉵샹산의 댱쳐를 ᄉᆡᆼ각지 아니ᄒᆞ야 (16: 34ㄱ)

ㅍ. 나의 평ᄉᆡᆼ을 ᄉᆡᆼ각ᄒᆞᆯ진ᄃᆡ 엇지 ᄒᆞᆫ갓 괴롭기 극진ᄒᆞᆯ ᄲᅳᆫ이리오 (17: 30ㄱ)

ㅎ. 다ᄒᆡᆼ이 나의 얼굴을 ᄉᆡᆼ각지 말고 나의 말을 ᄉᆡᆼ각ᄒᆞᆯ지어다 (18: 15ㄴ)

‘NP_0ᄂᆞᆫ NP_1의 NP_2을 ᄉᆡᆼ각ᄒᆞ-’, ‘NP_0이 NP_1를 ᄉᆡᆼ각ᄒᆞ-’ 구문유형도 보인다.

(11) ㄱ. 손의 회포ᄂᆞᆫ ᄒᆞᆫ가지로 고산의 프ᄅᆞ믈 ᄉᆡᆼ각ᄒᆞ도다 (13: 14ㄴ)

ㄴ. 뎨ᄂᆞᆫ 평ᄉᆡᆼ을 ᄉᆡᆼ각ᄒᆞᄆᆡ 다ᄅᆞᆫ ᄃᆞ악이 업ᄉᆞ나 (17: 27ㄴ)

(12) 다 우레를 듯ᄂᆞᆫ 날ᄀᆞᆺ치 ᄒᆞ고 긔경을 당ᄒᆞᄆᆡ 샹히 긔운이 ᄭᅳᆫ허지ᄂᆞᆫ ᄯᅢ를 ᄉᆡᆼ각ᄒᆞ라 ᄒᆞ고 (18: 17ㄱ)

‘NPØ ᄉᆡᆼ각ᄒᆞ-’, ‘NP_1의 ᄉᆡᆼ각ᄒᆞ-’ 구문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3) ㄱ. 네 ᄉᆡᆼ각ᄒᆞ여 보라 (3: 24ㄴ)

ㄴ. 농암 션ᄉᆡᆼ 졀귀를 두어 번을 픈 후의 스ᄉᆞ로 ᄉᆡᆼ각ᄒᆞ니 만일 이곳의 니ᄅᆞ러 (3: 32ㄱ)

ㄷ. 각각 집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말을 니ᄅᆞ니 ᄆᆞ음이 심히 됴티 아니ᄒᆞ더라 (5: 10ㄴ)

(14) ㄱ. 만니의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ᄆᆞ음을 위루ᄒᆞ라 ᄒᆞ니 (12: 22ㄱ)

ㄴ. 그ᄯᅢ의 ᄉᆡᆼ각ᄒᆞᄃᆡ ᄒᆞ야 ᄆᆞ춤ᄂᆡ 일로ᄡᅧ 병이 나으나 (13: 25ㄱ)

(15) ㄱ. 쳔츄만셰의 기리 서로 ᄉᆡᆼ각ᄒᆞ리로다 (15: 3ㄱ)

ㄴ. 셔양국 의논을 참쟉ᄒᆞ야 우러러 텬문을 샹고ᄒᆞ고 업듸여 ᄆᆞ음의 ᄉᆡᆼ각ᄒᆞ야 (17: 4ㄱ)

ㄷ. 눈으로 ᄉᆞᆯ피며 ᄆᆞ음의 ᄉᆡᆼ각ᄒᆞᄆᆡ (17: 14ㄱ)

ㄹ. 도라간 후의 다시 ᄉᆡᆼ각ᄒᆞ여 만일 ᄉᆡ로 엇ᄂᆞᆫ 거시 이실진ᄃᆡ (17: 23ㄴ)

ㅁ. 이거시 뎨의 그ᄋᆞᆨ이 ᄉᆞ랑ᄒᆞ고 귀히 넉이ᄂᆞᆫ 비로다 (17: 27ㄴ)

ㅂ. 진짓 사룸으로 ᄒᆞ여곰 몸이 뭇도록 싱각ᄒᆞ야 닛지 못ᄒᆞ리로다 (13: 18ㄱ)

ㅅ. 쏘ᄒᆞᆫ 연괴 이시니 그디 이의 싱각지 못ᄒᆞᄂᆞᆫ지라 (19: 17ㄱ)

'싱각건디 S' 구문유형도 나타난다.

(16) ㄱ. 닉 싱각ᄒᆞ디 혹 못견디ᄂᆞᆫ 거동을 뵈면 저희 우임이 될가ᄒᆞ여 드디여 우ᄉᆞ며 말나ᄒᆞ니 (3: 11ㄱ)

ㄴ. 니덕셩이 듯고 됴타ᄒᆞ거ᄂᆞᆯ 드디여 장지 두 권과 부체 셰 병과 먹 셕댱과 쳥심원 셰 환으로 폐빅을 삼고 편지를 ᄆᆞᆫᄃᆞ라 홍명복을 블너 쓰이니 그 글의 ᄀᆞᆯ오디 업드려 싱각건디 신원의 큰 복을 바다시리로다 (7: 8ㄴ)

ㄷ. 업듸여 싱각건디 밤이 도라오미 신명이 호위ᄒᆞ야 더옥 복을 바다시리로다 (10: 14ㄴ)

ㄹ. 이졔 싱각건디 엇지 유도의 의논ᄒᆞᆫ 말이 지극히 젹실ᄒᆞ고 지극히 평슌ᄒᆞ니 엇지 만니외도의 구ᄒᆞ고져 ᄒᆞ리오 (13: 25ㄴ)

ㅁ. 닉 ᄀᆞᆯ오디 희ᄌᆞ의 쳔ᄒᆞ믈 닛고 녯 의관을 흠모ᄒᆞ야 이 거조의 니로니 그 사룸의 ᄆᆞᄋᆞᆷ을 싱각건디 엇지 슬프지 아니리오 (14: 21ㄱ)

ㅂ. 업드여 싱각건디 존체만복ᄒᆞ리로다 (15: 10ㄴ)

ㅅ. 아국 ᄉᆞ람의 교만ᄒᆞᆫ 픙속을 싱각건디 몸이 지현이 되여 체면이 ᄀᆞ장 존중ᄒᆞ니 외국의 미쳔ᄒᆞᆫ ᄉᆞ람을 보미 엇지 이ᄀᆞᆺ치 ᄉᆞᄉᆞ로 ᄀᆞᄇᆡ야히 넉이리오 (19: 9ㄱ)

3.6.2.3. '의심ᄒᆞ-'

'의심'은 국어에서 명사로서 'ᄒᆞ-'와 통합하여 '의심을 ᄒᆞ-' 동사구와 '의심ᄒᆞ-'라는 타동사를 형성한다. 그런데 '의심을 ᄒᆞ-'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지만 '의심ᄒᆞ-'라는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한다. 이 가운데 '의심을 ᄒᆞ-'는 의심의 내용에 관심을 두고 '의심ᄒᆞ-'는 의심하는 사유행위에 관심을 둠을 말하고 있다. 중세국어에서 '의심ᄒᆞ다' 동사의 구문 구조는 'NP을 의심ᄒᆞ-', '호ᄆᆞᆯ 의심ᄒᆞ-'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토대로 본 자료의 구문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다음은 명사 '의심'으로 사용된 구문유형이다.

(17) 셔반 부개 마침 드러 왓거ᄂᆞᆯ 어제 두 셔반의 말을 니ᄅᆞ고 과히 의심을 말나ᄒᆞ니 부개 닐오디 다른 사룸은 과연 의심이 업지 아니커니와 그디ᄂᆞᆫ 념녀홀 일이 업ᄉᆞ

니 엇지 츌입을 막을 쁫이 이시리오 ᄒᆞ더라 (11: 15ㄱ)

'NP_0이 NP_1을 의심ᄒᆞ-' 구문유형을 보면 (18)의 주어는 문장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고, (19ㄱ)의 주어는 '노야(老爺)'임을 알 수 있다.

(18) 오랑캐 크게 깃거 허락ᄒᆞᄃᆡ 오히려 관문으로 드러 오기롤 의심ᄒᆞᄂᆞᆫ디라 (3: 31ㄴ)
(19) ㄱ. 노애 날을 의심ᄒᆞ야 다시 ᄒᆞᆫ 말이 업고 년ᄒᆞ야 ᄆᆞᆯ을 ᄐᆞ고 ᄃᆞᆫ니니 (4:10ㄱ)
ㄴ. 감히 형비롤 의심ᄒᆞ미 아니어놀 (15: 30ㄱ)

이외의 예문을 보면 (20ㄱ)과 (20ㄴ), (20ㄹ)은 '의심'이 명사로서 부사어 '다시', '과히'와, (20ㄷ)은 부사어 '더옥'에 '의심ᄒᆞ-'의 구조를 가진다.

(20) ㄱ. 도라올적은 아모ᄃᆡ라도 ᄒᆞᆫ가지로 가리니 노얘 ᄯᅩᄒᆞᆫ 다시 의심을 말나 (4: 10ㄴ)
ㄴ. 어졔 두 셔반의 말을 니ᄅᆞ고 과히 의심을 말나 ᄒᆞ니 (11: 15ㄱ)
ㄷ. 반싱이 ᄀᆞᆯ오ᄃᆡ 임의 드럿고 글니 너기지 아니ᄒᆞ니 다시 의심이 업ᄉᆞ리라 (14: 34ㄴ)

'NP_0은 NP_1을 의심ᄒᆞ-' 구문유형도 보인다.

(21) ㄱ. 이날은 ᄇᆞ람이 크게 니러 길의 씌글이 ᄀᆞ득ᄒᆞ고 ᄯᅩ 년일ᄒᆞ야 나드니 (중략) 셔반들은 뉴리챵 가는 줄을 더옥 의심ᄒᆞᄂᆞᆫ지라 (11: 15ㄱ)
ㄴ. 두 ᄉᆞ람이 서로 보며 ᄀᆞ장 의심ᄒᆞᄂᆞᆫ 긔식이 이시니 (17: 32ㄴ)

'NP_1로 의심ᄒᆞ-', 'NP_1나 의심ᄒᆞ-' 구문도 나타난다.

(22) 외로온 먼 남근 ᄃᆞᆺᄃᆡ로 의심ᄒᆞ니 ᄃᆡ긔 그 기운이 닉 ᄀᆞᆺ흐ᄃᆡ (4: 19ㄱ)

(23) 젼가의 니ᄅᆞᄂᆞᆫ 말을 드러시니 엇지 일호나 의심ᄒᆞᄂᆞᆫ ᄆᆞ음이 이시리오(11:2ㄱ)

(22)를 보면 여기서 'NP'는 유정체언이든 무정체언이든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되며, 'NP을 의심을 ᄒᆞ-' 구문은 나타나지 않는다.

'NP_0은 의심ᄒᆞ-', 'NP_1의 의심ᄒᆞ- '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다,

(24) ㄱ. 딕져 셔반들이 셔칙 좀샹을 넘녀ᄒᆞ여 나의 츌입을 별양 술피고 그 즁 뉴리챵은 더옥 의심ᄒᆞᄂᆞᆫ지라 (11: 10ㄴ)

ㄴ. 이윽고 여러 겨집이 나와 븟드러 깁흔 집으로 드러ᄀᆞ 일신을 목욕을 ᄀᆞᆷ기고 비단 의복을 닙히니 역졸이 더옥 의심ᄒᆞ야 필연 죽을 곳을 니ᄅᆞ럿다 ᄒᆞ엿더니 (20: 10ㄱ)

(25) ㄱ. 두 사람이 다 나히 졈으듸 각각 안경을 쎳거놀 ᄆᆞᄋᆞᆷ의 의심ᄒᆞ야 (11: 32ㄴ)

ㄴ. 아문이 의심홀 일이 아니니 (12: 17ㄱ)

ㄷ. 내 무ᄅᆞ듸 오삼계 처음으로 본됴의 항복ᄒᆞ여 셩즁으로 드릴 쎄의 본됴의 의심ᄒᆞᆷ을 념녀ᄒᆞ여 슈만 군ᄉᆞ로 당셩을 허다 ᄒᆞ니 (19: 16ㄴ)

'NP_1을 의심ᄒᆞ-' 구문유형도 보인다.

(26) 이 엄홀 쎄의도 역관과 하인이 근쳐 푸ᄌᆞ의 츌입이 무상ᄒᆞᆫ지라 아문을 지나도 먼니 나가믈 의심치 아니ᄒᆞ듸 나는 힝식이 다ᄅᆞ고 무샹ᄒᆞᆫ 츌입이 업술 븐 아니라(2: 1ㄴ)

3.6.2.4. '너기-'

중세국어의 '너기-'는 'ᄆᆞᅀᆞᆷ'에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뜻을 담고 동사로 사유 대상인 명사구는 '너기-'만의 목적어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사유 대상인 명사구는 대개 '부사어 # 너기-'의 구조에서 그 목적어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호믈'과 같은 동명사 구성이나 'ᄒᆞᆫ 둘'과 같은 명사구 보문 구성은 '너기-'의 직접적인 목적어로 나타날 수 있었다. 이것은 '너기-'가 사유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너기-'는 종결어미를 갖춘 완전한 문장들을 그 사이에 어떠한 요소도 개입시키지 않고 보문으로 삼기도 한다. 중세국어 시기의 '너기-'구문은 '{홈, 명사구 보문}을 너기-', '{NP,홈, 명사구 보문}을 # 부사어 # 너기-', '{NP로 NP에} # 부사어 # 너기-' 등이 구조로 나타난다. 이를 기초로 하여 본 자료의 '너기-'구문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NP_0{은,이} NP_1을 너기-' 구문유형을 보인다.

(27) ㄱ. 김형은 날이 졀물 괴로이 넉이고 데ᄂᆞᆫ 날이 길믈 괴로이 넉이미라 ᄒᆞ니 (15: 13

ㄴ)

ㄴ. 이곳치 과도ᄒᆞᆫ 경호로 칭호로 경이히 허홈이 이신 이ᄂᆞᆫ 동국을 도로혀 업수이 넉이미로다 (17: 15ㄴ)

ㄷ. 뇌 ᄃᆞ시 골오되 무룹이 이시되 되답기롤 즐기니 아니니 이ᄂᆞᆫ 외국 ᄉᆞ람을 더러이 넉여 족히 ᄀᆞᄅᆞ치지 못ᄒᆞ리라 홈이로다 (20: 4ㄱ)

(28) ㄱ. 여러 통관이 셔로 보며 뇌 말ᄒᆞ믈 ᄀᆞ장 귀히 넉이ᄂᆞᆫ 긔쉭이 이시니 (5: 29ㄱ)

ㄴ. 아문이 ᄯᅩᄒᆞᆫ 현연이 허ᄒᆞ기롤 어려히 넉인다ᄒᆞ니 (6: 5ㄴ)

ㄷ. 원나라 군신이 그 츙절을 착히 넉여 브되 항복을 밧고져 ᄒᆞ야 (6: 17ㄱ)

ㄹ. 그 즁 ᄒᆞᆫ 사롬이 뇌 말을 슈샹이 넉이ᄂᆞᆫ 긔쉭이러라 (11: 30ㄴ)

ㅁ. 여러히 탁ᄌᆞ의 업듸려 말을 무ᄅᆞ되 다 모양이 언건ᄒᆞ고 우리롤 ᄀᆞ장 귀히 넉이ᄂᆞᆫ 거동이어ᄂᆞᆯ (11: 30ㄱ)

ㅂ. 되져 이곳 사람이 됴션을 업슈이 넉이고 온갓 믈가롤 과도히 니ᄅᆞ미 이러ᄒᆞ니라 (13: 12ㄴ)

ㅅ. 다만 형의 슈젹을 어더 고인이 ᄯᅳᆺ을 귀히 넉이고져 ᄒᆞ노라 (13: 29ㄴ)

ㅇ. 박ᄒᆞᆫ 픙속이 잔미ᄒᆞᆫ 목숨을 ᄀᆞ빅야이 넉이니 (15: 4ㄴ)

ㅈ. 쥬싱이 다만 말노 되답ᄒᆞ고 글노 되답ᄒᆞ기롤 어려이 넉이ᄂᆞᆫ 긔쉭이라 (20: 3ㄱ)

다음의 예는 중세국어 시기부터 있어 온 'N을 부사어 너기-'구조로 명사가 목적어로 나타난 예인데 부사어는 '-이', '-히' 파생부사어가 나타난다. '$NP_0Ø$ NP_1을/를 너기-' 구문유형으로 나타난다.

(29) ㄱ. 네 슈리 도ᄂᆞᆫ 길흘 괴로히 넉여 칭탁ᄒᆞᄂᆞᆫ 말이 이시니 (4: 10ㄱ)

ㄴ. 뇌 길흘 모로노라 일넛고 가기롤 괴오이 넉임이 아니어ᄂᆞᆯ (4: 10ㄱ)

ㄷ. 뇌 엇지 수리 길흘 괴로이 넉이리오 (4: 10ㄴ)

아래의 (30ㄱ)은 동명사 구성에 조사 '-도'에 부사어 '심히', '블ᄉᆞ이'가 결합되었다. (31)은 연결형 '-거ᄂᆞᆯ'에 '부사어'가 결합되어 나타난 경우이다.
' NP_1 도 넉이-' 구문유형을 보여준다.

(30) ㄱ. 듯기도 심히 블ᄉᆞ이 넉이더니 그 션비 역관을 여러번 보며 심히 (4: 15ㄱ)

ㄴ. 더욱 업슈로이 넉이미 될듯 ᄒᆞ거놀 (14: 18ㄴ)

ㄷ. ᄀᆞ장 어려이 넉이ᄂᆞᆫ 긔쇡이오 (15: 11ㄱ)

(31) ㄱ. 그 션비 말을 드러시ᄃᆡ 다른 말을 아니코 그 쳥심원을 ᄀᆞ져 가거ᄂᆞᆯ 고이히 너겻더니 (4: 16ㄴ)

ㄴ. 그 겨집들과 아ᄃᆞᆯ이 다 눈믈을 먹이거ᄂᆞᆯ 괴이히 넉여 무ᄅᆞᄃᆡ (4: 16ㄴ)

'NP_0이 NP_1의 너기-' 구문유형도 나타난다.

(32) 엄싱이 나의 블안이 넉이믈 념녀ᄒᆞ야 (15: 19ㄱ)

(33)은 'NP_1이 넉이-' 구문유형을 보인다.

(33) ㄱ. 역관들이 민망이 넉여 뎡당 븍편의 빈 집을 비러 ᄉᆞ횡이 쉬시게 ᄒᆞ니 (5: 2ㄴ)

ㄴ. 샹공이 필연 고이히 넉여시리로ᄃᆡ (11: 2ㄱ)

미매ᄒᆞᄂᆞᆫ 사람과 다른 손들이 죵용이 슈작홀 길히 업고 쥬인이 괴로이 넉이ᄂᆞᆫ 긔쇡이 잇거ᄂᆞᆯ (11: 28ㄴ)

ㄷ. 그ᄃᆡ들이 괴로이 넉일 ᄲᅮᆫ이 아니라 (11: 30ㄴ)

ㄹ. ᄃᆡ인이 고이히 넉이미 업ᄉᆞ면 (12: 16ㄴ)

ㅁ. 굿보ᄂᆞᆫ ᄉᆞ람이 기로가 집안히 미만ᄒᆞ야 쥬인이 극히 괴로이 넉이니 ᄒᆞᆫ 곳의 오릭 머므지 못ᄒᆞ고 그림ᄑᆞᄂᆞᆫ ᄑᆞ지 잇거ᄂᆞᆯ (19: 22ㄴ)

ㅂ. 힝식이 극히 허슈ᄒᆞ고 평즁은 더욱 어려이 넉이ᄂᆞᆫ지라 (20: 13ㄴ)

다음은 'NP_1만 넉이-', 'NP_1을 넉이-', 'NP_1의 넉이-'

(34). 첫 번 볼제ᄂᆞᆫ 소상만 넉엿더니 갓가이 간 후의 그림인 줄을 ᄭᆡ치나 (7: 25ㄱ)

(35) 샹공을 감히 업수히 넉인 ᄯᅳᆺ이 아니니 그런 줄을 아ᄂᆞᆫ다 (11: 2ㄱ)

(36) ᄂᆡ 나가믈 금ᄒᆞ나 안면이 닉은고로 말을 어려이 넉여 몸을 숨기ᄂᆞᆫ가 시브고 (15: 13ㄱ)

(37) ㄱ. 우리 왕ᄂᆡᄒᆞ믈 드ᄅᆞ미 고이히 넉이ᄂᆞ니 업ᄂᆞ냐 (15: 20ㄱ)

ㄴ. 남글 됴히 넉이면 ᄲᅧ롤 어더ᄃᆞ가 심으면 즉시 나ᄂᆞ니라 하더라 (14: 5ㄴ)

ㄷ. 반싱이 ᄀᆞᆯ오ᄃᆡ ᄃᆡ국을 두려이 넉이미냐 (17: 32ㄴ)

ㄹ. 도모지 날을 더러이 너기미니 여러 마를 ᄒᆞᆯ 거시 업도다 (17: 34ㄱ)

ㅁ.임의 그 필법을 됴히 넉이면 (18: 32ㄱ)

(38) ㄱ. 겨유 져재 아희의 에엿비 넉이믈 엇고 (15: 23ㄴ)

ㄴ. ᄃᆡ져 븍경 사ᄅᆞᆷ이 아국 하졸을 보아 간ᄉᆞᄒᆞᆫ 말과 무식ᄒᆞᆫ 거동을 닉이 지닉ᄂᆞᆫ 지라 도처의 더러이 넉이고 홀ᄃᆡ홈이 이러ᄒᆞ더라 (19: 2ㄱ)

(39)는 'NP1의 NP2을 넉이-' 구문유형을 나타낸다.

(39) ㄱ. 엇지 대감의 사오자의 안쟈믈 감히 평안이 넉이리오 (7: 17ㄱ)

ㄴ. 나의 무안이 넉으믈 그ᄅᆞ다 ᄒᆞᄂᆞᆫ 거동이라 (15: 24ㄴ)

ㄷ. ᄃᆡ개 그 문필이 극히 괴졸ᄒᆞ니 이러므로 초두의 ᄃᆡ답기를 어려이 넉이미러라 (20: 4ㄱ)

ㄹ. ᄯᅩ 그ᄃᆡ의 ᄃᆡ인들이 고이히 넉일가 져허ᄒᆞ노라 (12: 16ㄴ)

ㅁ. ᄯᅩ ᄀᆞᆯ오ᄃᆡ 근년은 인심이 녜일이 업서 죠고만 지믈을 위ᄒᆞ야 사ᄅᆞᆷ을 죽을 곳의 너키를 어려히 넉이지 아니ᄒᆞᄂᆞ니 (20: 7ㄱ)

(40) 져로 먹기를 어려히 넉일가 ᄒᆞ야 (13: 22ㄴ)

3.6.2.5. '혜-'

'미루어 생각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혜다'는 산술적으로 '세다'로도 쓰일 수 있는 동사이지만 그 사용 범위가 명백하지는 않다. 중세국어 시기의 '혜-'구문 구조는 'NP도 NP을 혜-', 'NP을 혜-'이다.

본절에서는 사유를 표현하는 구문으로 '혜다', '혜아리다'를 다루기로 한다.

아래 예문에서 (41)의 구조는 'NP0는 NP1Ø 혜디 아니-'구조이다. (42)의 'ᄉᆞᄉᆞ로'에 '혜아리-'의 구조를 보인다.

(41) ㄱ. 갑쇠 다쇼ᄂᆞᆫ 내 혜디 아니리라ᄒᆞ니 왕개 감샤ᄒᆞ여라ᄒᆞ더라 (2: 15ㄴ)

(42) ㄱ. 아람작ᄒᆞᆫ ᄌᆡ죄 아니로ᄃᆡ 망녕도이 스ᄉᆞ로 혜아리지 아니ᄒᆞ야 (7: 8ㄱ)

ㄴ. 업드려 문견이 고두ᄒᆞ니 스ᄉᆞ로 혜아리매 세상의 무ᄉᆞᆷ ᄇᆞ랄 일이 이시리오 (12: 27ㄱ)

ㄷ. 스ᄉᆞ로 혜아리지 아니믈 ᄭᆡ치지 못ᄒᆞ더니 (12: 27ㄴ)

ㄹ. 글시의 공졸은 혜디 아닐 거시오 (15: 3ㄱ)

이밖에 나타나는 구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43)는 'NP$_1$의 혜-'구조로 '옛사람이 서로 봄에 폐백을 잡는 것을 본받음이니 오직 선생이 헤아려 살피기를 바란다'의 의미이다. 'NP'는 속격의 '-의'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주어의 기능을 담당한다.

(43) ㄱ. 녯 사람이 셔로 보매 폐ᄇᆡᆨ을 잡으믈 본바드미니 오직 션ᄉᆡᆼ의 혜아려 ᄉᆞᆯ피믈 ᄇᆞ라노라 (7: 9ㄱ)

ㄴ. ᄀᆞᆯ오ᄃᆡ 절강은 이곳의셔 수쳔니 밧기라 수쳔니 밧긔셔 과거룰 위ᄒᆞ여 힝역의 괴로오믈 혜지 아닐진ᄃᆡ 필연 명니의 ᄆᆞ음이 깁흔 사람이라 (11: 34ㄱ)

''NP$_1$로 혜-' 구문유형도 보인다.

(44) 이는 노ᄃᆡ의 비ᄒᆞ면 쳔ᄇᆡ만ᄇᆡ로 혜지 못ᄒᆞᆯ지라 (14: 19ㄱ)

'NP$_0$이 NP$_1$룰 혜아리-' 구문유형도 보인다.

(45) 미세ᄒᆞᆫ 믈건이 족히 볼 거시 업ᄉᆞ나 더러온 셩의룰 혜아릴가 ᄒᆞ노라 (15: 10ㄴ)

(46) 이윽히 ᄉᆡᆼ각ᄒᆞ면 비로소 형세룰 혜아려 용ᄆᆡᆼ 되어 결단ᄒᆞᆷ을 볼지라 (18: 14ㄴ)

(47) 업드려 문견이 고두ᄒᆞ니 스ᄉᆞ로 혜아리매 세상의 므ᄉᆞᆷ ᄇᆞ랄 일이 이시리오 (12: 27ㄱ)

이외의 사유동사구문유형으로 '닞'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NP$_1$을 닞-'의 구문유형을 나타낸다.

(48) ᄌᆞᆼ일의 말숨과 희학이 서로 얼굴을 닛고 ᄌᆞᆼ젹의 간격이 이시믈 ᄭᆡ치지 못ᄒᆞᆯ지라

(18: 7ㄴ)

(49) ㄱ. 마로 삼면의 방을 디오고 뜰을 둘너시니 비록 엄동이나 치위ᄅᆞᆯ 니즐너라 (1: 8ㄱ)

ㄴ. 이 압희 슈쳔니ᄅᆞᆯ 힝ᄒᆞ야 번화ᄒᆞᆫ 거동과 웅댱ᄒᆞᆫ 제도ᄅᆞᆯ 난만이 보앗시ᄃᆡ 죵시 이날 긔이ᄒᆞ던 줄을 닛디 못ᄒᆞᆯ너라 (1: 19ㄱ)

ㄷ. 감히 ᄒᆞᆫ 탑의 ᄯᅡ라 뫼시던 날을 니ᄌᆞ랴 (13: 15ㄴ)

ㄹ. 스ᄉᆞ로 말ᄒᆞ며 스ᄉᆞ로 우ᄉᆞ며 년년ᄒᆞᆫ ᄉᆡᆼ각을 적이 니즐 ᄃᆞᆺᄒᆞ더니 (14: 1ㄴ)

ㅁ. 형의 ᄀᆞᄅᆞ치믈 닛지 아니ᄒᆞᄃᆡ (15: 30ㄴ)

ㅂ. 오ᄂᆞᆯ 말을 닛지 아니리라 ᄒᆞ엿도다 (17: 33ㄱ)

ㅅ. 이ᄂᆞᆫ 나의 졸ᄒᆞᆫ 글시라 필법이 볼 거시 업ᄉᆞ나 도라가 벽 우희 브치고 사ᄅᆞᆷ을 닛지 아닐가 ᄒᆞ노라 (18: 29ㄴ)

ㅇ. 관의 머믈 ᄯᅢ의 우연이 남방 거인을 만나 서로 니별ᄒᆞᆫ 글이 이시니 졸ᄒᆞᆷ을 닛고 ᄀᆞᄅᆞ치믈 쳥ᄒᆞ거니와 (18: 31ㄱ)

'NP_1의 NP_2을 닛-'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50) 수쳔니 힉녁의 괴로오믈 닛고 ᄒᆡ외의 보지 못ᄒᆞᆫ ᄉᆞ람을 위ᄒᆞ야 (17: 10ㄱ)

다음은 부사어에 통합되어 나타난 유형이다.

(51) ㄱ. 평즁이 ᄀᆞᆯ오ᄃᆡ 김ᄃᆡ인이 두 형을 보ᄂᆡᆫ 후의 ᄆᆞ음이 챵연ᄒᆞ야 지금 닛지 못ᄒᆞᄂᆞ니라 (13: 19ㄱ)

ㄴ. 임의 ᄉᆡᆼ젼은 다시 만날 긔약이 업ᄉᆞ니 각각 ᄌᆞ손을 경계ᄒᆞ야 ᄃᆡᄃᆡ로 네일을 강논ᄒᆞ야 감히 닛지 아니ᄒᆞ면 혹 피ᄎᆞ 후ᄉᆡᆼ이 이젼 연븐을 ᄭᅳᆫ치 아니ᄒᆞ야 (14: 2ㄴ)

ㄷ. ᄒᆞᆫ 번 니별ᄒᆞ미 ᄆᆞᄎᆞᆷᄂᆡ 서로 니ᄌᆞ며 말이 이셔도(18: 15ㄱ)

ㄹ. 난공은 스ᄉᆞ로 ᄉᆞ랑ᄒᆞ고 만일 서로 닛지 아니커든(18: 15ㄴ)

지금까지 살펴본 사유동사구문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밋-	NP_1을 밋-
	NP_0ᄂᆞᆫ 밋-
	NP_1의 NP_1{의,을} 밋-
	NP_0이 NP_1을 밋-
ᄉᆡᆼ각ᄒᆞ-	NP_1을/를 ᄉᆡᆼ각ᄒᆞ-
	NP_1의 NP_2을 ᄉᆡᆼ각ᄒᆞ-
	NP_0ᄂᆞᆫ NP_1의 NP_2을 ᄉᆡᆼ각ᄒᆞ-
	NP_0이 NP_1을/ᄅᆞᆯ ᄉᆡᆼ각ᄒᆞ-
	NP_1 ᄉᆡᆼ각ᄒᆞ-
	NP_1의 ᄉᆡᆼ각ᄒᆞ-
의심ᄒᆞ-	NP_0{이,은} NP_1을 의심ᄒᆞ-
	NP_1로 의심ᄒᆞ-
	NP_1나 의심ᄒᆞ-
	NP_1은 의심ᄒᆞ-
	NP_1의 의심ᄒᆞ-
너기-	NP_0{이,은} NP_1을 너기-
	NP_1도 넉이-
	NP_0이 NP_1의 너기-
	NP_0이 넉이-
	NP_1만 넉이-
	NP_1을 넉이-
	NP_1의 넉이-
	NP_1의 NP_1을 넉이-
혜-	NP_0ᄂᆞᆫ NP_1 혜-
	NP_1의 혜-
	NP_1로 혜-
	NP_0이 NP_1ᄅᆞᆯ 혜아리-

본절에서는 사유동사구문으로 ‘밋다’, ‘ᄉᆡᆼ각ᄒᆞ다’, ‘ᄉᆞ랑ᄒᆞ다’, ‘의심ᄒᆞ다’, ‘너기다’, ‘상고ᄒᆞ다’, ‘혜다’, ‘닞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구문들은 목적어 중심 구문으로 기본 구조는 ‘NP이 NP을 V’의 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목적어 중심 구문이긴 하지만 언제나 목적어를 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구문에 따라 생략이 되기도 한다.

3.7. 인지동사구문

3.7.1. 인지동사구문의 특징

인지는 장경희(1985:15)에서 정보의 종류, 획득, 활용하는 과정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 본절에서 다룰 인지동사의 구문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인지동사는 상당히 의미론적인 것이지만 여기서는 통사적인 특성 가운데 구문구조만을 다룬다. 특히 인지동사에서 ‘알-’과 그 반의어인 ‘모ᄅᆞ-’의 구문 유형을 살펴 보고자 한다.

3.7.2. 인지구문의 유형

3.7.2.1 알-’

먼저 ‘(명사구 보문 구성, 호믈)을 알-’이 결합된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ㄱ. 냥친이 ᄯᅩᄒᆞᆫ 평ᄉᆡᆼ의 고심이 잇ᄂᆞᆫ 쥴 아ᄅᆞ시ᄂᆞᆫ디라 (1: 3ㄱ)
ㄴ. 믈이 만흔 줄을 알디라 (1: 6ㄴ)
ㄷ. ᄂᆡ 약간 말을 아ᄂᆞᆫ 줄을 아ᄂᆞᆫ디라 (1: 23ㄴ)
ㄹ. 그ᄃᆡ 이 부쳐ᄅᆞᆯ 다 아노냐 (3: 2ㄴ)
ㅁ. 무식ᄒᆞᆫ 겨집과 미거ᄒᆞᆫ ᄋᆞ희들이 입을 버리ᄆᆡ 다 긔이ᄒᆞᆫ 문ᄌᆞᄅᆞᆯ ᄡᅳ니 일노 보아도 한어의 귀ᄒᆞ믈 알너라 (3: 7ㄱ)
ㅂ. 이곳은 ᄉᆞ람의 ᄐᆡ눈을 ᄑᆞ쥬고 갑ᄉᆞᆯ 밧ᄂᆞᆫ 당시 잇ᄂᆞᆫ디라 사람의 ᄉᆡᆼ니 어려온 줄을 알너라 5: 29ㄴ)
ㅅ. 삼 남긴 줄 알 길히 업고 ᄉᆞ면으로 놉히 ᄃᆡᄅᆞᆯ 무으로 ᄃᆡ 우ᄒᆡ 쥬홍 난간을 둘너시니 필연 쳔년 고목이오 무ᄉᆞᆷ ᄉᆞ젹이 잇ᄂᆞᆫ 시브ᄃᆡ 알 길히 업더라 (6: 20ㄱ)
ㅇ. 요ᄉᆞ이 거인들은 열흘 드러도 ᄒᆞ나흘 아지 못ᄒᆞᄂᆞ니라 (15: 20ㄴ)
ㅈ. 이 ᄒᆞᆫ 말을 보아도 그 사ᄅᆞᆷ의 어질믈 가히 알니로다 (15: 23ㄱ)
ㅊ. 봉셩은 아국이 갓ᄀᆞ온 연고로 아국일을 닉이 아ᄂᆞᆫ디라 (1: 27ㄴ)
ㅋ. 통관들이 그 긔미ᄅᆞᆯ 아ᄂᆞᆫ지라 (15: 2ㄱ)
ㅌ. 엄ᄉᆡᆼ이 ᄀᆞᆯ오ᄃᆡ 형이 날을 알고 내 형을 아니(17: 29ㄴ)

중세국어에서 이 형식은 어떤 사건, 사태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상황에서 '알-'의 주체는 사건이나 사태가 일어났다는 정보를 가져 그 사건이나 사태가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이러한 구문은 형식명사 'ᄃᆞ, 곧, 줄, 바' 등의 보문명사가 오는데 보문자로는 '-ㄴ', '-ㄹ' 등을 취한다. 이는 본 자료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동명사 표현과 명사구 보문에는 그 내포된 술어의 주어로 주격형과 주어적 속격형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알-' 구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 구문은 'NP를 알-' 구조를 가진다.

(2) ㄱ. 역관ᄃᆞ려 그 사ᄅᆞᆷ이 글을 아ᄂᆞᆫ가 무ᄅᆞ라 ᄒᆞ니 (3: 19ㄴ)
ㄴ. ᄂᆡ ᄀᆞᆯ오ᄃᆡ 그러ᄒᆞ다 그ᄃᆡ ᄯᅩᄒᆞᆫ 호두셕을 아ᄂᆞᆫ다 (4: 8ㄱ)
ㄷ. 닐너시ᄃᆡ 션ᄇᆡ 문을 나지 아니ᄒᆞ야도 먼니 텬하 일을 안다 ᄒᆞ여시니 (4: 15ㄴ)
ㄹ. ᄂᆡ 왕가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네 져 믈 깃ᄂᆞᆫ 긔계ᄅᆞᆯ 일홈을 아ᄂᆞᆫ다 (4: 15ㄴ)
ㅁ. 됴션관이 남 편 셩 밋치라 밤의 이 목탁소ᄅᆡᄅᆞᆯ 드러 경구ᄅᆞᆯ 알너라 (5: 23ㄴ)
ㅂ. 슈역이 ᄂᆡ 의향을 아라 아니 너흐니 (5: 7ㄱ)
ㅅ. 내 ᄯᅩ ᄀᆞᆯ오ᄃᆡ ᄂᆡ 약간 한어ᄅᆞᆯ 아ᄂᆞᆫ디라 몬져 통ᄒᆞ라ᄒᆞ니 (5: 24ㄱ)
ㅇ. 다만 만쥬 언문과 만쥬 말을 알 ᄯᆞᄅᆞᆷ이라 이 사ᄅᆞᆷ이 나히 어리고 븍경을 첫번 ᄃᆞᆫ녀 가ᄂᆞᆫ 고로 말을 못ᄒᆞᆫ다 ᄒᆞ거ᄂᆞᆯ (3: 10ㄴ)
ㅈ. ᄂᆡ ᄀᆞᆯ오ᄃᆡ 말을 알고저ᄒᆞᆷ은 졍히 븍격 드러ᄀᆞ ᄡᅳ고저 ᄒᆞᄂᆞ니 (3: 13ㄱ)
ㅊ. 통관들이 그 긔미ᄅᆞᆯ 아ᄂᆞᆫ지라 (15: 2ㄱ)

다음 예문은 ' 부사어 알-' 구문이다.

(3) ㄱ. 듯보아 그 블상ᄒᆞᆫ 자최ᄅᆞᆯ 젹실이 알거든 ᄇᆡᆨ금을 쥬어 ᄒᆞ여곰 ᄌᆞ장을 출혀 고향으로 도라가게 ᄒᆞ고져 ᄒᆞ노라 (8: 2ㄱ)
ㄴ. ᄂᆡ 우셔 ᄀᆞᆯ오ᄃᆡ 약간 아노라 ᄒᆞ고 나오니라 (1: 26ㄱ)
ㄷ. 셰밀ᄒᆞᆫ 규모ᄅᆞᆯ 가히 알거시오 (2: 13ㄴ)
ㄹ. 풍속의 두터오믈 가히 알거시오 모히여 믈화ᄅᆞᆯ 밧고ᄆᆡ 픔슈ᄅᆞᆯ 평논ᄒᆞ고 (2: 25ㄴ)
ㅁ. 셕난간을 둘너 막아시니 ᄌᆞ시 아라보지 못ᄒᆞᆯ너라 (5: 29ㄴ)
ㅂ.. 비로소 입을 위ᄒᆞ야 망급ᄒᆞᆫ 줄을 알고 (17: 30ㄴ)
ㅅ. 열잇튼날 오면 ᄌᆞ시 아라 가ᄅᆞ치리라 ᄒᆞ니 (6: 30ㄴ)
ㅇ.. 궁ᄌᆞ의 귀경ᄒᆞᄂᆞᆫ ᄯᅳᆺ을 ᄂᆡ 임의 아라시니 사ᄅᆞᆷ을 적게 ᄃᆞ리고 (7: 3ㄴ)

위의 구문유형 중에서 (3ㄴ)은 '-오딕 알-', (3ㄹ)은 'NP를 부사어 알-'의 구조를 가진다. 'NP_1으로 알-' 구문유형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ㄱ. 그 슈작ᄒᆞ믈 딤쟉ᄒᆞ야 다 웃고 ᄒᆞ나히 귀롱ᄒᆞ야 ᄀᆞᆯ오딕 진짓 거술 그림으로 아는 가 시브더라 ᄒᆞ더라 (6: 5ㄱ)

ㄴ. 네 엇던 사ᄅᆞᆷ으로 아는다 (15: 25ㄴ)

'NP_0는 알-' 구문유형도 보인다.

(5) ㄱ. 뉴송녕이 ᄀᆞᆯ오딕 다만 우리 글ᄌᆞ를 힝홀 ᄲᅮᆫ이오 즁국 진셔는 아는 일이 업ᄂᆞ니라 (7: 24ㄱ)

ㄴ. 닉 ᄀᆞᆯ오딕 동국은 …… 다른 말은 아지 못ᄒᆞᄂᆞᆫ지라 (17: 23ㄴ)

ㄷ. 이ᄶᅴ의 ᄇᆞ람이 그치지 아니ᄒᆞ고 몬쥐와 모래들을 덥혀 샹쾌ᄒᆞᆫ 진짓 귀경은 알 길히 업더라 (19:3ㄱ)

ㄹ. 그 뒤히 가정 졍유의 ᄡᅳ다 ᄒᆞ딕 근본 ᄉᆞ젹은 알 길히 업더라 (20: 22ㄱ)

목적격 조사를 수반한 'NP_1을/를 알-' 구문유형도 보인다.

(6) ㄱ. 다만 만쥬 언문과 만쥬 말을 알 ᄯᆞᄅᆞᆷ이라 이 사ᄅᆞᆷ이 나히 어리고 븍경을 첫번 ᄃᆞᆫ녀 가는고로 말을 못ᄒᆞᆫ다 ᄒᆞ거놀 (3: 10ㄴ)

ㄴ. 이런 사람을 듯보아 그 블상ᄒᆞᆫ 자최를 적실이 알거든 (8: 2ㄱ)

ㄷ. 임의 보닉 거시 이시니 답장이 이셔야 바든 줄을 알니라 ᄒᆞ거놀 (11: 9ㄱ)

ㄹ. 첫 번 드러온 길히로딕 힝즁 ᄉᆞ정을 명ᄇᆡᆨ히 안다 ᄒᆞ더라 (11: 19ㄴ)

ㅁ. 두 졉칙은 맛당이 힘을 다ᄒᆞ야 ᄉᆞ연을 아라시며 (16: 12ㄱ)

ㅂ. 두 ᄉᆞ람의게 긔록ᄒᆞ야 보닌 것이 이시니 임의 딕강을 아라시리로다 (17: 3ㄴ)

ㅅ. 비로소 입을 위ᄒᆞ야 망급ᄒᆞᆫ 줄을 알고 (17: 30ㄴ)

ㅇ. 그 나라히 나경젹이란 ᄉᆞ람이 이셔 동븍 ᄶᅡ히 숨어 거ᄒᆞ여 텬문도슈를 깁히 알고 (18: 3ㄴ)

(7) ㄱ. 우리는 눈의 병이 이셔 먼딕를 보지 못ᄒᆞᄂᆞᆫ고라 (11: 32ㄴ)

ㄴ. 셔양국은 즁국 진셔를 아지 못ᄒᆞ면 (12: 3ㄴ)

ㄷ. ᄉᆞ방의 딕강 방위를 알냐 ᄒᆞ면 (12: 4ㄴ)

ㄹ. 동국은 다만 쥬즈를 알 ᄯᅳ람이오 (17: 23ㄴ)

다음은 'NP$_1$의 NP$_2$를 알-' 구문유형을 보인다.

(8) ㄱ. 이러므로 츌입의 다 아문을 알게 ᄒᆞ니 (12: 1ㄴ)
ㄴ. 그ᄃᆡᄂᆞᆫ 우리의 종인이어ᄂᆞᆯ 그ᄃᆡ의 머리 졔양을 보미 엇지 ᄆᆞ음을 셕이지 아니리오 (14: 20ㄱ)
ㄷ. 형비의 ᄯᅳ졀 알지 못ᄒᆞᄂᆞᆫ고로 (17: 20ㄱ)
ㄹ. 형이 ᄯᅩᄒᆞᆫ 데의 병통을 알 거시니 (17: 25ㄴ)
ㅁ. 그러나 형의 날을 알미 필연 나의 형을 아ᄂᆞ니만 ᄀᆞᆺ지 못ᄒᆞ리로다 (17 :29ㄴ)
ㅂ. 샹하의 슌젼ᄒᆞᆫ 금칠이니 믈역의 부비를 가히 알너라 (18: 35ㄱ)
ㅅ. 오히려 글의 귀ᄒᆞᆷ를 알미러라 (19: 13ㄴ)
ㅇ. 좌우의 셕벽이 ᄉᆨ긋듯ᄒᆞ니 이윽이 ᄇᆞ라보ᄃᆡ 어ᄂᆞ 곳의 길흘 통ᄒᆞᆫ 줄을 알 길히 업고 (20: 16ㄴ)

'NP$_0$이 알-'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다.

(9) ㄱ. ᄯᅩ 아문이 알면 (11: 19ㄴ)
ㄴ. 다른 사람이 알 일이 아니니 (11: 19ㄴ)
ㄷ. 비로소 텬하 일이 미리 알 길히 업고 (16: 33ㄴ)

3.7.2.2. '모ᄅᆞ-'

중세국어의 '알-' 구문과 '모ᄅᆞ-'구문은 같은 유형을 보이는데 이는 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알-'에서 보이는 유형이 '모ᄅᆞ-'구문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10)은 'NP을 모ᄅᆞ-'가 결합된 예다. '알-' 구문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0) ㄱ. 반찬 어려온 줄을 모ᄅᆞ고 왕닉ᄒᆞ니라 (1: 5ㄱ)
ㄴ. 구비마다 문이 이셔 아모ᄃᆡ로 드러 갈 쥴을 모롤디라 (1: 29ㄱ)
ㄷ. 무어신 줄을 모롤너라 (1: 29ㄱ)
ㄹ. ᄒᆞ나흔 뫼초리오 ᄒᆞ나흔 젹고 기시 금빗ᄀᆞᆺᄒᆞ니 일홈을 모롤너라 (2: 30ㄱ)
ㅁ. ᄃᆡ져 슈염이 만흔 쟈ᄂᆞᆫ 압편을 ᄉᆨ그니 만흐니 그 의ᄉᆞ를 모롤너라 (4: 12ㄴ)

ㅂ. 여러 사람이 더옥 우ᄉᆞ며 혹 희롱ᄒᆞ야 욕셜이 잇거ᄂᆞᆯ ᄂᆡ ᄭᅮ지져 녜법을 모른다 ᄒᆞ니 (11: 6ㄱ)

ㅅ. ᄭᅮᆺ히 두어 말을 보니 (17: 11ㄱ)

ㅇ. 비로소 입을 위ᄒᆞ야 망급ᄒᆞᆫ 줄을 알고 (17: 30ㄴ)

다음의 예문 역시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모ᄅᆞ-' 구문이다.

(11)은 'NP는 NP를 모ᄅᆞ-' 구조를 가지며 'NP를 알-' 구조와 차이가 없다. (12) 'NP의 NP을 모ᄅᆞ-', (13)은 'NP은/는 NP를 모ᄅᆞ-', (14)는 'NPØ NP을 모ᄅᆞ-'의 구조를 가진다.

(11) ㄱ. 그 겨집이 ᄀᆞᆯ오ᄃᆡ 노야ᄂᆞᆫ 그 말을 모ᄅᆞᄂᆞᆫ도라 (2: 18ㄴ)

ㄴ. 편디 ᄉᆞ연을 ᄃᆡ답디 아니홈은 셔양국은 즁국 진셔ᄅᆞᆯ 모ᄅᆞᄂᆞᆫ디라 (7: 9ㄴ)

ㄷ. 종밍이 ᄯᅩ ᄀᆞᆯ오ᄃᆡ 궁ᄌᆞᄂᆞᆫ 한어ᄅᆞᆯ 모ᄅᆞᆯ 거시 업ᄉᆞ니 더옥 귀ᄒᆞᆫ 일이라 ᄒᆞ고 (7: 7ㄱ)

(12) ㄱ. 이ᄂᆞᆫ 술의 취미ᄅᆞᆯ 모ᄅᆞᄂᆞᆫ 의논이로다 (11: 8ㄴ)

ㄴ. 사람의 술필 줄을 모롬이 엇지 ᄋᆡ듧지 아니ᄒᆞ리오 (12: 29ㄱ)

(13) 만일 다시 먹을진ᄃᆡ 이ᄂᆞᆫ 기리 법을 모ᄅᆞᄂᆞᆫ ᄉᆞ람이 될지라 (17: 7ㄱ)

(14) ㄱ. 왕개 ᄀᆞᆯ오ᄃᆡ 내 엇지 노야의 ᄯᅳᆺ을 모ᄅᆞ리오 (3: 24ㄴ)

ㄴ. ᄂᆡ 그 의ᄉᆞᄅᆞᆯ 딤작ᄒᆞᄃᆡ 모ᄅᆞᄂᆞᆫ 체ᄒᆞ고 (7: 6ㄱ)

ㄷ. 홍명복이 ᄀᆞᆯ오ᄃᆡ 그러ᄒᆞ면 그ᄃᆡ 즁국 글을 모ᄅᆞᄂᆞᆫ다 (7: 24ㄱ)

'NP_0은/는 모ᄅᆞ-' 구문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 ㄱ. 이 압히 년ᄒᆞ야 이시ᄃᆡ 술위 압히와 달나ᄒᆞ면 나ᄂᆞᆫ 모ᄅᆞᄂᆞᆫ 체ᄒᆞ니 (3:6ㄴ)

ㄴ. 유명ᄒᆞᆫ 선비 잇더니 아ᄂᆞᆫ다 ᄒᆞ니 둘히 서로 말ᄒᆞ고 다 모로노라 ᄒᆞ더라 (3:17ㄱ)

ㄷ. 이런고로 말은 비록 분명티 아니나 언문은 모ᄅᆞᄂᆞ니 업ᄉᆞ니 (4: 19ㄴ)

지금까지 살펴본 인지동사구문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알-	NP_1을 알-
	NP_1으로 알-
	NP_0{는,이} 알-
	NP_1의 NP_2를 알-
모르-	NP_1을 모르-
	NP_0{은/는} NP_1을 모르-
	NP_1의 NP_2을 모르-

3.8. 지각경험동사구문

3.8.1. 지각경험동사구문의 특징

본절에서 다룰 구문은 동사 '듣-'과 '보-'에 의해 표현되는 문장이다. '경험'은 실제로 겪어 보거나 겪은 것으로 인해 얻은 지식, 정보,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경험을 기준으로 시각경험, 청각경험, 감각경험, 정신적인 경험과 육체적인 경험, 직접경험과 간접경험 등을 나눌 수 있다. 본장에서는 대상 동사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의미 영역에 따라 통사적인 특성을 고려한 구문구조의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본자료에서 대상으로 삼은 경험동사는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듣다'와 '보다' 동사이다. 15세기의 '듣다'와 '보다' 동사구조를 언급한 이현희(1992:405-433)에서는 청각경험과 시각경험으로 나누어 다루었던 구문이다.

'듣-'이라는 동사는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 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수용하여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행위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보-'동사 역시 눈으로 보는 의미 외에 그 내용을 어떻게 인식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3.8.2. 지각경험동사구문의 유형

3.8.2.1. '보-'

아래의 예문들에서 '보다'의 경험대상은 모두 구체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그 대상은 생각, 사건, 가상의 존재일 수도 있다.

다음은 'NP₁을 보-'의 구조를 보여주는 구문유형이다.

(1) ㄱ. 네 시젼을 낡으믈 보아시니 (1: 4ㄴ)

ㄴ. 첫번으로 언덕을 보ᄂᆞᆫ디라 (1: 6ㄱ)

ㄷ. 곽개 ᄀᆞᆯ오ᄃᆡ 일이 이시면 아ᄒᆡ들을 긔걸ᄒᆞ고 일이 업고 죵용ᄒᆞᆫ 적이면 혹 ᄎᆡᆨ을 보노라 (1: 19ㄴ)

ㄹ. 압ᄒᆞᆯ 보고 뒤ᄒᆞᆯ 니ᄌᆞ며 복을 탐ᄒᆞ고 화ᄅᆞᆯ ᄉᆡᆼ각디 아니ᄒᆞ니 그 미혹ᄒᆞᆷ을 보리로다 (1: 20ㄱ)

ㅁ. ᄂᆡ ᄀᆞᆯ오ᄃᆡ 그럴분이 아니라 ᄇᆡᄂᆞᆫ 겨집이 다 발이 적고 발 큰 겨집은 ᄒᆞ나ᄒᆞᆯ 보지 못ᄒᆞ니 (4: 11ㄱ)

ㅂ. 너희도 비록 한군이나 근본은 한인과 ᄒᆞᆫ가디라 져런 거ᄉᆞᆯ 보거든 각별이 블상이 넉이라 (4: 11ㄱ)

ㅅ. 비록 아국 의관을 보고 겻ᄎᆞ로 죠타ᄒᆞ나 (4: 17ㄴ)

ㅇ. 여러곳 큰 길이 ᄉᆞ면으로 갈니여 길마다 두 줄 버들이 쏫촐 보지 못ᄒᆞ고 (4: 18ㄴ)

ㅈ. 비 갠후와 ᄒᆡ빗치 ᄃᆞᆺ거온 적이면 무ᄉᆞᆷ 긔운이 들을 덥고 슈플을 ᄌᆞᆷ가 십여리 밧근 ᄯᅡᄒᆞᆯ 보지 못ᄒᆞ고 (4: 18ㄴ)

ㅊ. 누른 옷 닙은 즁이 그 사람을 보고 이 ᄉᆞ연을 니ᄅᆞ니 (6: 21ㄱ)

ㅋ. 뎨의 능엄경을 봄은 다름이 아니라 년젼의 즁ᄒᆞᆫ 병을 어더 죽기ᄅᆞᆯ 님ᄒᆞᄆᆡ 우연이 글을 보더니 (13: 25ㄱ)

ㅌ. 동국은 허장두ᄅᆞᆯ 일ᄏᆞᄅᆞᆷ은 븟그리ᄂᆞ도다 다시 션ᄉᆡᆼ을 보ᄆᆡ 족히 쳔고의 일ᄏᆞᄅᆞ리라 (14: 15ㄴ)

ㅍ. 즁국 소셜을 보ᄆᆡ 일노 인연ᄒᆞ야 (14: 28ㄱ)

ㅎ. 셰팔을 드려 보ᄂᆡ 머므ᄂᆞᆫ 관원을 보고 (17: 6ㄴ)

(2)는 'NP₀이 NP₁을 보-' 구문유형을 보인다.

(2) ㄱ. 통관이 문의 니ᄅᆞ러 ᄉᆞ신의 나오믈 지쵸ᄒᆞᄃᆡ 부ᄉᆡ 그 말ᄊᆞ믈 보고 (5:15ㄱ)

ㄴ. 관원이 역관 변한긔ᄅᆞᆯ 보고 반겨ᄒᆞᄂᆞᆫ 거동이로ᄃᆡ (5: 18ㄱ)

ㄷ. 왕개 ᄂᆡ 즁치막을 보고 여러먼 됴타 닐ᄏᆞᄅᆞ니 (5: 21ㄴ)

ㄹ. 션 곳은 깁흔 감실 ᄀᆞᆺᄒᆞ니 첫 번 볼제ᄂᆞᆫ 소상만 넉엿더니 갓가이 간 후의 그림인 줄을 ᄭᆡ치나 안졍이 사람을 보ᄂᆞᆫ ᄃᆞᆺᄒᆞ니 (7: 25ㄱ)

ㅁ. 두 사람이 셔시믈 보고 지조ᄅᆞᆯ 쟈랑코ᄌᆞ ᄒᆞ야 (11: 7ㄱ)

ㅂ. 셔반 ᄒᆞ나히 날을 보고 닐오ᄃᆡ 날마다 귀경을 ᄃᆞᆫ니니 (11: 10ㄱ)

ㅅ. 그ᄃᆡ 동모 ᄒᆞ나히 우리 나오믈 보고 (11: 11ㄱ)

ㅇ. 도적 황소ᄅᆞᆯ 치ᄆᆡ 격셔ᄅᆞᆯ 지어 텬하의 뎐ᄒᆞ니 황쇠 그 격셔ᄅᆞᆯ 보ᄆᆡ (15: 8ㄱ)

ㅈ. 부ᄉᆡ 여러 션비ᄅᆞᆯ 모화 정제ᄒᆞᆫ 거동을 보고져 ᄒᆞ야 (17: 8ㄴ)

ㅊ. 이곳의 니ᄅᆞ러 인ᄀᆡᆨ이 부요ᄒᆞ믈 보니 (17: 7ㄴ)

ㅋ. 계뷔 니ᄅᆞ시ᄃᆡ 셩문을 들ᄆᆡ ᄒᆞᆫ ᄉᆞᄅᆞᆷ이 ᄒᆡᆼ식을 보고 반기며 됴히 넉이ᄂᆞᆫ 긔ᄉᆡᆨ이 ᄂᆞᆺ치 드러나거ᄂᆞᆯ (18: 28ㄱ)

ㅌ. 여러 ᄉᆞ람이 나의 글ᄌᆞ 쓰믈 보고 일시의 ᄃᆡ쇼ᄒᆞ고 (19: 13ㄱ)

ㅍ. 븍경 사ᄅᆞᆷ이 아국 하졸을 보아 간ᄉᆞᄒᆞᆫ 말과 무식ᄒᆞᆫ 거동을 닉이 지ᄂᆡᄂᆞᆫ지라(19: 22ㄱ)

ㅎ. ᄉᆞᄒᆡᆼ이 녕 우히 묘당의 머므러 편지ᄅᆞᆯ 보신다 ᄒᆞ거날 (20: 12ㄱ)

다음은 'NP이 NPØ 보-', 'NP이 보-' 구문유형을 가진다.

(3) 그 휘항이 ᄡᅡ히 ᄂᆞ려 지매 왕개 보고 (1: 18ㄴ)

(4) ㄱ. 다 ᄯᅩ로 노힌 듯ᄒᆞ거ᄂᆞᆯ ᄂᆡ 평즁을 ᄀᆞᄅᆞ쳐 보라ᄒᆞ니 평즁이 보고 ᄀᆞᆯ오ᄃᆡ (6: 5ㄱ)

ㄴ. 혹 소ᄅᆡᄅᆞᆯ 잘ᄒᆞ지 못ᄒᆞ야 사람이 보디 아니ᄒᆞ고 (6: 30ㄱ)

ㄷ. 궁직 그 먹을 브ᄃᆡ 등한이 보지 말나 ᄒᆞ더라 (11: 3ㄱ)

ㄹ. 이ᄂᆞᆫ 나의 졸ᄒᆞᆫ 글시라 필법이 볼 거시 업ᄉᆞ나 (18: 29ㄴ)

(5)는' NP_0ᄂᆞᆫ NP_1ᄅᆞᆯ 보-' 구문유형을 가진다.

(5) ㄱ. 죵인이 ᄀᆞᆯ오ᄃᆡ 은 슈쳔냥이 될 듯ᄒᆞᄃᆡ 나ᄂᆞᆫ 노야ᄅᆞᆯ 잠간 보고 말을 ᄒᆞ고져ᄒᆞ니 (4: 20ㄱ)

ㄴ. 그 셩과 나흘 믓고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우리 역관을 보ᄆᆡ 고이히 넉이지 아니ᄒᆞᄂᆞᆫ다(4: 23ㄴ)

ㄷ. 나ᄂᆞᆫ 됴션 사람을 보면 아비 본 듯ᄒᆞ여라 ᄒᆞ거ᄂᆞᆯ (5:5ㄴ)

ㄹ. 뉴구국 ᄉᆞ신은 그 거동을 보고 (5: 8ㄴ)

ㅁ. 뉴구국 ᄉᆞ신은 아국 ᄉᆞᄒᆡᆼ의 ᄒᆡᆼ녜ᄒᆞᆷ을 보앗고 (5: 9ㄴ)

(6)은 'NP₁의 NP₂롤 보-' 구문유형을 가진다.

(6) ㄱ. 무릐ᄃᆡ 년젼의 셔양국 눈도롤 보니 (12: 4ㄴ)
ㄴ.뎨의 능엄경을 봄은 다름이 아니라 (13: 25ㄱ)
ㄷ. 동국의 허다ᄒᆞᆫ 놉흔 션비롤 보지 못ᄒᆞ엿거놀 (17: 15ㄴ)
ㄹ.두 형의 슈젹을 보지 못ᄒᆞ니 ᄀᆞ장 창연ᄒᆞ도다 (18:6ㄴ)
ㅁ. 어제 뉵형의 편지롤 보ᄆᆡ ᄆᆞ음이 놀납고 담이 써러져 (18: 14ㄴ)
ㅂ. 여닐곱 ᄉᆞᄅᆞᆷ이 돌 우희 느러 안자 나의 올나가믈 보고 (18: 33ㄴ)
ㅅ. 외국의 미쳔ᄒᆞᆫ ᄉᆞ람을 보미 엇지 이ᄀᆞᆺ치 스ᄉᆞ로 ᄀᆞᄇᆡ야이 넉이리오 (19: 9ㄱ)
ㅇ. 쥬인의 얼굴을 보미 쏘ᄒᆞᆫ 희고 죠촐ᄒᆞ야 진짓 션비의 모양이니 (19: 11ㄱ)

'NP₁에 보-', 'NP₁은 보-','NP₁의 보-' 구문유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7) 김가지 일긔롤 상고ᄒᆞ면 이날 븐원의 ᄃᆞ니ᄂᆞᆫ 겨집이 만타ᄒᆞ여시ᄃᆡ 길히 흔히 보지 못ᄒᆞ니 (4: 30ㄱ)

(8) ㄱ. 이윽고 오문 안희셔 박셕의 ᄆᆞᆯ굽소릐 어즈러이 나니 그 모양은 보지 못ᄒᆞ고 (5: 14ㄱ)
ㄴ. 셰팔이 뎐쥬당을 ᄃᆞ녀와 닐오ᄃᆡ 두 사람은 보지 못ᄒᆞ고 (7: 3ㄴ)
ㄷ. 션비 복싱은 볼 거시 잇고 (11: 11ㄴ)
ㄹ. 이 긔졀은 ᄎᆞ마 보지 못ᄒᆞ리로다 ᄒᆞ고 (17: 12ㄴ)

(9) 셔편은 미륵블의 소상을 안쳐시ᄃᆡ 입을 여러 웃ᄂᆞᆫ 모양이니 아국의 보지 못ᄒᆞ던 데 되오(19: 20ㄱ)

(10) ㄱ. 초 ᄉᆞ일 뎡양문 밧긔가 희ᄌᆞ 노름 보다 (6:1ㄱ)
ㄴ. 오일 ᄐᆡ혹 부혹 문승샹 모옹화궁 네 곳 보다 (6:12ㄴ)

'NP₁의 NP₂을 보-' 구문유형도 나타난다.

(11) ㄱ. 길 ᄀᆞ온ᄃᆡ 씌 글을 싸브러 무어술 줍ᄂᆞ니 만흐니 이ᄂᆞᆫ 혹 ᄃᆞ른 돈닙흘 어듬이니 가지 일긔 이 말을 보앗더니 (6: 3ㄱ)

ㄴ. 엄싱이 골오디 형과 김형의 지조를 볼진디 (15: 21ㄴ)

ㄷ. 농문의 놉흔 뫼흘 보는도다 (15: 39ㄱ)

ㄹ. 화항의 고기룰 보미오 (12: 9ㄴ)

ㅁ. 이곳 겨집의 바누질호눈 양을 보지 못호디(16:3ㄱ)

ㅂ. 뉵싱의 편지룰 일힝이 보고 다 긔걸훈 인믈을 차탄호더라 (17: 6ㄴ)

ㅅ. 뉵형의 언논과 긔상을 보미 엇지 스람의 계괴 만코즈호리오 (17: 25ㄱ)

ㅇ. 이러므로 스람의 허믈을 보미 (17: 27ㄴ)

ㅈ. 이곳의 니루러 디국의 긔이훈 그루술 보미 (18: 24ㄴ)

ㅊ. 이쩌의 여러 오히들이 글 닑기룰 긋치고 쥬싱의 거동을 보고 고이히 넉이눈지라 (20: 3ㄴ)

다음은 'NP₁으로(만) 보-', 부사에 '보-'가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

(12) ㄱ. 이눈 녯 졔도룰 눈으로만 보게 홈이오 (8: 14)

ㄴ. 이눈 거울노 쓰눈 거시 아니오 좌우의 버려 광치만 보게 홈이러라 (8: 14ㄴ)

(13) 언덕 우흔 버들을 심거 ᄀ을 보지 못호니 쏘훈 귀경이오 (11: 4 ㄱ)

(14) ㄱ. 그 밋히 니루러 졔도룰 즈시 보니 세층 집이로디 (11: 4ㄱ)

ㄴ. 아릭셔 ㅂ라보미 비록 즈시 보지 못호야 (11: 4ㄱ)

'NP_1이 NP_2의 NP_3을 보-', 'NP1의게 NP2의 NP3룰 보-'구문유형이 보인다.

(15) ㄱ. 댱싱이 갑군의 거동을 보고 (11: 19ㄱ)

ㄴ. 캉 아릭 교위의 안쟈 서로 큰 탁즈룰 디호야 다시 보고 엄싱이 도라와 반싱의 말을 보미 (17: 22ㄱ)

(16) 반싱의게 그 부인의 시룰 보아지라 호니 (15: 11ㄴ)

3.8.2.2. '듣-'

먼저, 예문을 살펴보겠다.

'NP_1ᄋᆡ셔 듯–' 구문유형은 명사구 표지 'ᄋᆡ셔'가 사용될 경우 'ᄋᆡ셔' 는 처소를 나타낸다.

(17) ㄱ. 신광뎡의 니로니 길희셔 드로니 (1: 7ㄱ)

ㄴ. 나모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만나 ᄃᆡ령ᄉᆞ 길흘 무ᄅᆞ니 젼량의셔 드른 말과 ᄀᆞᆺ흔지라 (20: 14ㄴ)

'NP_1을 듯–'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8) ㄱ. 그 거동을 ᄃᆡ강 드ᄅᆞ니 (1: 7ㄱ)

ㄴ. 겨집들의 말ᄒᆞᄂᆞᆫ 소ᄅᆡᄅᆞᆯ 드ᄅᆞ면 다 믉고 ᄀᆞᄂᆞ라 진짓 ᄢᅬ고리 소ᄅᆡ ᄀᆞᆺᄒᆞ니 그 소ᄅᆡᄅᆞᆯ 드ᄅᆞᄆᆡ (1: 7ㄱ)

ㄷ. 두어 곡됴ᄅᆞᆯ 드ᄅᆞ니 (1: 9ㄱ)

ㄹ. 그 말을 드로니 더 ᄀᆞ징ᄒᆞᆫ 지라 (1: 9ㄴ)

ㅁ. 이 ᄆᆞ올 일홈을 듯고 (4: 14ㄴ)

ㅂ. 됴션사람이 거ᄌᆞᆺ말을 잘ᄒᆞᆫ다ᄒᆞ니 ᄀᆞ장 붓그럽고 ᄎᆡᆨ ᄑᆞᄂᆞᆫ 사람은 나히 졈은디라 그 션비 말을 드러시ᄃᆡ (4: 16ㄴ)

ㅇ. 각각 술종을 서로 권ᄒᆞ며 우리 우ᄉᆞ믈 듯고 ᄯᅩᄒᆞᆫ 셔로 말ᄒᆞ며 우ᄉᆞ니 (11:8ㄴ)

ㅈ. ᄂᆡ ᄀᆞᆯ오ᄃᆡ 오히려 명ᄇᆡᆨ지 못ᄒᆞ니 놉흔 의논을 듯고져 ᄒᆞ노라 (11:12ㄴ)

ㅊ. 그 논화 주ᄂᆞᆫ 연고ᄅᆞᆯ 드ᄅᆞ니 (11:18ㄱ)

ㅋ. 그 집 일홈을 드ᄅᆞᄆᆡ 엇지 그 의ᄉᆞᄅᆞᆯ 일ᄏᆞᄅᆞᆷ이 업ᄉᆞ리오 (15: 37ㄱ)

ㅌ. ᄆᆞᆺ참 본됴 의관 졔도ᄅᆞᆯ 드른 말이 이신 (17: 18ㄱ)

ㅍ. 이 말을 ᄂᆡᄂᆞᆫ 쟤 ᄯᅩᄒᆞᆫ 그 허믈을 드ᄅᆞᄆᆡ (17: 27ㄱ)

ㅎ. 그 소ᄅᆡᄅᆞᆯ 드ᄅᆞᄆᆡ 더옥 놀나 죽기ᄅᆞᆯ 다ᄒᆞ여 닷더니 (20:1 8ㄱ)

'NP_1의 듯–'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9) ㄱ. 그 즁이 크게 소ᄅᆡᄒᆞ야 날을 보친다ᄒᆞ고 ᄠᅱ더나 내 ᄀᆞ슴을 밀티니 좌우의 듯ᄂᆞᆫ ᄉᆞᄅᆞᆷ이 다 ᄃᆡ쇼ᄒᆞ더라 (1: 9ㄴ)

ㄴ. ᄯᅩ 젼의 드ᄅᆞ니 (6: 14ㄱ)

ㄷ. 일젼의 드ᄅᆞ니 됴션의 졍뎐법이 그져 잇다 ᄒᆞ니 (11: 12ㄱ)

‘NP_0이 듯-’ 구문유형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0) ㄱ. ᄆᆞᆺ춤 두어 사ᄅᆞᆷ을 만나 슈작ᄒᆞ더니 그 사ᄅᆞᆷ들을 지현의 ᄋᆞᄃᆞᆯ이라 지현이 듯고 (4: 17ㄱ)
ㄴ. 이날 ᄐᆡ혹으로 몬져 가기ᄅᆞᆯ 뎡ᄒᆞ니 역관 홍명복이 듯고 (6: 14ㄱ)
ㄷ. 만일 역관들이 드ᄅᆞ면 죄칙이 도라올가 저허ᄒᆞ노라 ᄒᆞ니 (7: 4ㄱ)
ㄹ. 평즁이 듯고 혀ᄅᆞᆯ ᄎᆞ며 탄식ᄒᆞ야 ᄀᆞ로ᄃᆡ (11: 8ㄱ)
ㅁ. 셔반히 듯지 아니ᄒᆞ고 (11: 14ㄴ)
ㅂ. 왕개 듯고 노야의 말이 올타ᄒᆞ고 나가더라 (11: 17ㄱ)
ㅅ. 부ᄉᆡ 듯고 (12: 17ㄱ)
ㅇ. 여예 듯고 보ᄂᆡᆯ 거ᄉᆞᆯ 이윽이 걱정ᄒᆞ다가 (16: 1ㄱ)
ㅈ. 셰팔과 약간 한어ᄒᆞᄂᆞᆫ 하인들이 듯고 다 웃더라 (17: 8ㄱ)
ㅊ. 부ᄉᆡ 듯고 ᄀᆞ장 뉘웃더라 (19: 3ㄱ)
ㅋ. 황샹이 듯고 븍격으로 올녀ᄂᆡ 고의의 ᄃᆞᆫᄃᆞᆫ이 ᄀᆞᆷ초니 (20: 6ㄱ)
ㅌ. 그 군ᄉᆡ 듯고 크게 놀나 창황이 제 귀ᄅᆞᆯ 막으니 (20: 8ㄱ)

‘NP_1도 듯-’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다.

(21) ㄱ. ᄯᅩᄒᆞᆫ ᄉᆞ면이 젹젹ᄒᆞ여 숨소ᄅᆡ도 듯지 못ᄒᆞ고 (5: 13ㄴ)
ㄴ. 말과 노ᄅᆡ도 아라 드ᄅᆞᆯ 길히 업ᄂᆞᆫ지라 (6: 10ㄴ)
ㄷ. ᄂᆡ ᄀᆞᆯ오ᄃᆡ 심상ᄒᆞᆫ 말시도 아라 듯기ᄅᆞᆯ (7: 18ㄱ)

‘NP_1의 NP_1ᄅᆞᆯ 듯-’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다.

(22) ㄱ. 평즁의 소ᄅᆡᄅᆞᆯ 듯고 다 슈상이 넉이거ᄂᆞᆯ (11: 6ㄱ)
ㄴ. 뉴랑의 ᄭᅬ고리ᄅᆞᆯ 드ᄅᆞ미오 (12: 9ㄴ)
ㄴ. 이제 형의 의논을 드ᄅᆞ미 실노 쳔만현격ᄒᆞᆷ이로다 (14: 32ㄴ)
ㄷ. 이런 졍 외의 말을 드ᄅᆞ니 엇지 븟그럽지 아니리오 (14: 26ㄱ)
ㄹ. 다시 그 못과 졍ᄌᆞ의 경치ᄅᆞᆯ 드ᄅᆞ미 (15: 7ㄱ)
ㅁ. 슈셔ᄅᆞᆯ 밧드미 혼텬의 졔도ᄅᆞᆯ 드ᄅᆞ니 가히 ᄆᆞᄋᆞᆷ ᄀᆞ온ᄃᆡ 셩신을 버리다 니ᄅᆞ리로다 (17: 6ㄴ)
ㅂ. 이윽고 나와 닐오ᄃᆡ 조교 관원이 이셔 ᄉᆞ힝의 오시믈 듯고 의복을 졍졔ᄒᆞ고

(17: 7ㄱ)

ㅅ. 뎨를 가ᄅᆞ친 말은 진실노 됴흔 약이오 오형의 병통을 듯고져 ᄒᆞᆯ진ᄃᆡ (17: 25ㄴ)

ㅇ. 두 형의 ᄀᆞᄅᆞ치믈 드로ᄆᆡ 오경의 죵소ᄅᆡ롤 듯고 (17: 27ㄱ)

ㅈ. 그러나 이 사ᄅᆞᆷ의 말을 드ᄅᆞ니 (18: 19ㄴ)

ㅊ. ᄒᆞ올노 이곳의 ᄀᆞ장 셩ᄒᆞ고 솔ᄉᆞ이의 ᄒᆞᆯ연이 두견의 소ᄅᆡ롤 드ᄅᆞ니 비로소 깁흔 뫼흔 줄을 ᄭᆡ칠너라 (20: 15ㄴ)

ㅋ. 범의 소ᄅᆡ롤 듯ᄂᆞᆫ 둣ᄒᆞ니 (20: 18ㄱ)

'NP_0[이,ᄂᆞᆫ] NP_1을 듯-'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3) ㄱ. 건냥관이 드러와 음식 보낸 일을 듯고 ᄉᆞ오ᄃᆡ (7: 5ㄱ)

ㄴ. 평즁이 그 우숨을 드ᄅᆞᄃᆡ 도라 보지 아니ᄒᆞ고 (11: 6ㄱ)

ㄷ. 우리 우ᄉᆞ믈 듯고 ᄯᅩ흔 셔로 말ᄒᆞ며 우ᄉᆞ니 우리롤 조롱ᄒᆞᄂᆞᆫ 거동이러라 (11: 8ㄴ)

ㄹ. 금나라 님군 완안냥이 이 글을 드ᄅᆞ매 (12: 9ㄱ)

ㅁ. 반싱이 평즁의 셩을 듯고 (12: 10ㄱ)

ㅂ. 우리 ᄃᆡ인들이 그ᄃᆡ의 소문을 듯고 (12: 16ㄴ)

ㅅ. ᄃᆡ명이 웅하의 죽으믈 듯고 (17: 24ㄱ)

(24) ㄱ. 이ᄂᆞᆫ 젹실흔 증거롤 듯지 못ᄒᆞ여시니 (11:13ㄴ)

ㄴ. 궁즈ᄂᆞᆫ 그 인픔을 드ᄅᆞ니 ᄀᆞ장 됴흔 ᄉᆞ람인가 시브거니와 (14: 36ㄱ)

ㄷ. 이ᄂᆞᆫ 셩명을 듯지 못ᄒᆞ얏고 (17: 17ㄴ)

'NP_1으로 듯-' 'NP_1긔 듯-', 'NP_1의 NP_1을 NP_3을 듯-'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5) 젼문으로 드론 말이 이시매 (12: 26ㄴ)

(26) 저즈음긔 드ᄅᆞ니 더러온 인믈을 과도히 ᄉᆞ랑ᄒᆞ야 (15: 10ㄴ)

(27) ㄱ. 녯적의 외국 ᄉᆞ신이 듕국의 드러와 녜 고ᄉᆞ의 쳥비각을 지으믈 듯고 보기롤 구ᄒᆞ야 (15: 37ㄱ)

ㄴ. 등싱이 우서 ᄀᆞᆯ오ᄃᆡ 비록 아ᄃᆞᆯ이 업ᄉᆞ나 아의 아ᄃᆞᆯ이 이시믈 듯지 모사하얏ᄂᆞᆫ 자 (18: 28ㄴ)

'NP_0ᄂᆞᆫ 부사 듯-' 구문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8) <u>그ᄃᆡᄂᆞᆫ</u> 그ᄅᆞᆺ <u>드ᄅᆞᆫ</u>말이로다 (13: 12ㄱ)

지금까지 살펴본 지각경험동사구문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d rowspan="10">보-</td><td>NP_1을 보-</td></tr>
<tr><td>NP_0{이,ᄂᆞᆫ} NP_1을 보-</td></tr>
<tr><td>NP_1이 보-</td></tr>
<tr><td>NP_1의 NP_2{을/ᄅᆞᆯ} 보-</td></tr>
<tr><td>NP_1에 보-</td></tr>
<tr><td>NP_1은 보-</td></tr>
<tr><td>NP_1의 보-</td></tr>
<tr><td>NP_1으로(만) 보-</td></tr>
<tr><td>NP_1이 NP_2의 NP_3을 보-</td></tr>
<tr><td>NP_1의게 NP_2의 NP_3을 보-</td></tr>
<tr><td rowspan="7">듣-</td><td>NP_1을 듯-</td></tr>
<tr><td>NP_1의 듯-</td></tr>
<tr><td>NP_1ᄋᆡ셔 듯-</td></tr>
<tr><td>NP_1이 듯-</td></tr>
<tr><td>NP_1도 듯-</td></tr>
<tr><td>NP_1의 NP_1ᄅᆞᆯ 듯-</td></tr>
<tr><td>NP_0ᄂᆞᆫ 듯-</td></tr>
</table>

3.9 청원동사구문

3.9.1 청원동사구문의 특징

본절에서는 '원ᄒᆞ-', '청ᄒᆞ-'와 같은 바람을 가진 동사들이 구성하는 구문구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구문은 마음 속의 내적 사유를 말로 나타내거나 자신의 내적 사유로 남아있는 뜻을 표현하는 구문으로 '청ᄒᆞ-', '원ᄒᆞ-', 'ᄇᆞ라-'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절에서는 '청ᄒᆞ-'

와 '원-' 구문만을 대상으로 살펴 본다. 중세국어에서 명사 '請'과 '願'은 뚜렷이 구분되는데 의미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원래 '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다거나 다른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의미하며 '請'은 주체가 상대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둘은 항상 행위에 대한 바람만을 의미했었다. 이들이 동사문으로 나올 때는 '請ᄒᆞ-'와 '願ᄒᆞ-'로 나타난다. 이 문장은 화법동사구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청원동사로 구성된 문장의내용이 청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구문이 갖는 구조에만 관심을 갖고자 한다.

3.9.2 청원동사구문의 유형

3.9.2.1. '원ᄒᆞ-'

원래 '원ᄒᆞ-'는 성격상 여격어를 요구하지 않는 동사이다. 어떤 경우에는 '원ᄒᆞ-'가 '청ᄒᆞ-'와 같은 성격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 때는 여격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음은 'NP$_1$를 원ᄒᆞ-'구문으로 청원동사구문의 가장 기본구조를 보여 준다.

(1) ㄱ. 이러므로 ᄂᆡ 평ᄉᆡᆼ의 ᄒᆞᆫ번 보기를 원ᄒᆞ야 ᄆᆡ양 근녁과 뎡도를 계량ᄒᆞ고 (1: 2ㄴ)
ㄴ. ᄇᆡ호기를 원ᄒᆞᄂᆞᆫ 뜻이 평ᄉᆡᆼ의 매치엿ᄂᆞᆫ지라 (7:13ㄱ)
ㄷ. 그으이 ᄒᆞᆫ 번 보기를 원ᄒᆞᄃᆡ 특별이 힝식이 우리와 다른지라 (12: 16ㄴ)
ㄹ. 뜻 ᄀᆞ온ᄃᆡ 사ᄅᆞᆷ을 ᄒᆞᆫ 번 만나기를 원ᄒᆞᄃᆡ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이 ᄂᆡ ᄆᆞᄋᆞᆷ과 갓지 아니ᄒᆞ고 ᄂᆞᆽ출보ᄆᆡ 일홈을 드ᄅᆞᆷ의 밋지 못ᄒᆞ니 (14: 2ㄱ)

(2)는 '원컨ᄃᆡ'에 후행하는 문장 S가 평서문으로 나타나있다.

(2) ㄱ. 원컨ᄃᆡ 됴흔 의논을 드러 ᄒᆡ외에 고죽ᄒᆞᆫ 소견을 ᄇᆞᆰ히고져ᄒᆞ노라 (3: 4ㄱ)
ㄴ. 평즁이 ᄀᆞᆯ오ᄃᆡ 원컨ᄃᆡ 그ᄃᆡ의 놉흔 글을 귀경코져 ᄒᆞ노라 (12: 10ㄴ)
ㄷ. 인간의 원컨ᄃᆡ 김셩님을 니별ᄒᆞ고 ᄃᆡᄒᆞ의 기리 두목지를 조ᄎᆞ리라 ᄒᆞ야시니 (13:21ㄱ)
ㄹ. ᄂᆡ ᄀᆞᆯ오ᄃᆡ 유도의 요긴ᄒᆞᆫ 공부를 의논ᄒᆞᄆᆡ 몬져 혼자 아는 곳을 됴심ᄒᆞ라 ᄒᆞ야시니 원컨ᄃᆡ 그 의ᄉᆞ를 ᄌᆞ시 듯고져 ᄒᆞ노라 (13: 27ㄴ)
ㅁ. 블도의 뉸회ᄒᆞᄂᆞᆫ 의논이 만일 헛되이 아닐진ᄃᆡ 원컨ᄃᆡ 후ᄉᆡᆼ을 기ᄃᆞ려 서로 아이 되며 형이 되고 ᄉᆞᄉᆡᆼ이 되며 벗이 되야 (14: 2ㄴ)

ㅂ. 즁국 사람이 일즉 글을 두어 골오디 원컨디 고려국의나 흔번 금강산을 보아지라 흐고 (15: 9ㄴ)

(3)은 'NP$_0$은/는 NP$_1$롤 원흐-'의 구조를 가진다. 이 구문 구조에서는 후행문이 명령문이나 평서문으로 나타난다.

(3) ㄱ. 문시죵은 닉 흔번 보기롤 원흐는 거시니 네 밧비 만나기롤 도모흐라 (8: 3ㄴ)
ㄴ. 데눈 벼슬을 원치 아니흐고 도라가 젼간의 늙고저 흐노라 (15: 24ㄴ)

(4)는 'NP$_1$으로 NP$_2$을 원-' 구문유형을 나타낸다.

(4) 엄싱이 골오디 귀흔 가문으로 공명을 원치 아니흐고 (12: 24ㄴ)

'NP$_1$의 원흐-' 구문유형도 나타난다.

(5) 우리의 원흐는 바는 스랑흐는 부모롤 기드림의 다름이 업더라 (14: 5ㄴ)

'NP$_1$'에 통합되는 '-의'는 주어적 속격으로 '우리의'는 '우리가'로 해석될 수 있다.

3.9.2.2. '쳥흐-'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NP$_1$을 NP$_2$를 쳥흐-', 'NP$_1$이 NP$_2$로 NP$_3$롤 쳥흐-'의 구조를 가지는 구문이다.

(6) 이 뜻을 술와 가기를 쳥흔디 냥친이 쏘흔 평싱의 고심이 잇는 쥴 아르시논디라(1:3ㄱ)
(7) ㄱ. 오후의 샹쇠 사롬 보닉여 흔 가지로 놀기롤 쳥흐거놀 강잉흐야 물을 트고 가다가 (1: 7ㄱ)
ㄴ.. 평즁이 쏘흔 흔 가지로 가기롤 쳥흐거놀 이의 평즁을 더블고 (1: 24ㄱ)
ㄷ. 덕유로 흐여곰 흐여곰 드러가 셩댱 보기롤 쳥흐라 흐니 (1 :24ㄱ)

'NP_1을 청ᄒᆞ-'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8) ㄱ. ᄒᆞᆫ 푸ᄌᆞᄅᆞᆯ 드러가니 여러 역관이 이곳 창 ᄃᆡ흰 관원을 청ᄒᆞ여 (2: 26ㄴ)

ㄴ. 이날 아참의 드러오ᄃᆡ ᄆᆞᆽ춤 통관 오림픠 제 집의 음식을 ᄀᆞᆽ초고 일ᄒᆡᆼ 역관을 청ᄒᆞ야 노ᄂᆞᆫ디라 (7: 2ㄴ)

ㄷ. 이날 니덕셩을 청ᄒᆞ야 ᄒᆞᆫ가지로 ᄃᆞᆫ니기ᄅᆞᆯ 언약ᄒᆞ고 (7: 8ㄱ)

ㄹ. 그 지현이 이러 안흐로 드러ᄀᆞ ᄂᆡ당의 여러 사ᄅᆞᆷ을 다 청ᄒᆞ야 교위의 안티고 (3: 17ㄱ)

ㅁ. 삼방의 비ᄒᆡᆼᄒᆞ여 오던 역관을 다 청ᄒᆞ여 ᄒᆞᆫ가지로 먹으니라 (5: 20ㄴ)

ㅂ. 다리 쉬오기ᄅᆞᆯ 청ᄒᆞ고 다ᄅᆞᆫ 역관의 마두도 졔 관원이 술위 ᄐᆞ면 다 ᄆᆞᆯ을 ᄐᆞᄂᆞᆫ디라 (2: 1ㄴ)

ㅅ. ᄂᆡᆯ기ᄅᆞᆯ 청ᄒᆞ거ᄂᆞᆯ 즉시 니러나니 죽샹이 드러 왓거ᄂᆞᆯ (3: 12ㄴ)

ㅇ. 덕유ᄅᆞᆯ 다시 브려 셰팔을 ᄃᆞ리고 ᄂᆡ여 보ᄂᆡ기ᄅᆞᆯ 청ᄒᆞ라 ᄒᆞ니 (7: 3ㄴ)

ㅈ. 두 사람이 나와 마ᄌᆞ니 좌ᄅᆞᆯ 청ᄒᆞ고 한훤을 파ᄒᆞᆫ 후의 ᄯᅩ 필담을 청ᄒᆞᆫᄃᆡ 뉴숑녕이 사람을 블너 글 ᄡᅳᄂᆞᆫ 션비ᄅᆞᆯ 청ᄒᆞ니 미쳐 드러 오지 못ᄒᆞ엿ᄂᆞᆫ지라 (12: 2ㄱ)

ㅊ. 나라히 슈유ᄅᆞᆯ 고ᄒᆞ야 근친을 청ᄒᆞ노니 (15: 24ㄱ)

ㅋ. 남의게 손을 비더니 이제 쳘교의 청ᄒᆞᄆᆡ 니ᄅᆞ러ᄂᆞᆫ (15: 39ㄴ)

다음은 'NP_1ᄃᆞ려 청-', 'NP_1의 청-', ' NP_1긔 청-', 'NP_1으로 청-' 구문유형을 보인다.

(9) ᄂᆡ 고이 녁여 쥬인ᄃᆞ려 다시 청ᄒᆞ여 오라 ᄒᆞ니 (3: 4ㄴ)

(10) ㄱ. 십뉵일 ᄒᆡ 난후의 길흘 ᄯᅥ날ᄉᆡ 왕개 제 아ᄌᆞᄆᆡ 청으로 청심환을 구ᄒᆞ거ᄂᆞᆯ ᄒᆞᆫ 환을 주니라 (3: 14ㄴ)

ㄴ. 아국의 청ᄒᆞᄂᆞᆫ 일이 이시면 좃지 아니미 업ᄉᆞ니 (14: 34ㄱ)

(11) 너희 낭ᄌᆞ산이 ᄯᅩᄒᆞᆫ 됴션 ᄯᅡ히니 너도 만일 우리나라히 황뎨긔 청ᄒᆞ야 녯 ᄯᅡ흘 도로 ᄎᆞᄌᆞ면 (3: 11ㄱ)

(12) ㄱ. 년젼은 아국 ᄉᆞᄒᆡᆼ이 드러오면 이 ᄆᆞ올 사람이 스ᄉᆞ로 고려ᄌᆞ손이로라 일ᄏᆞᆺ고 각각 집으로 청ᄒᆞ야 ᄃᆡ졉이 관곡ᄒᆞ더니 (3: 14ㄴ)

ㄴ. 궁ᄌᆞᄅᆞᆯ 이리로 청코져 ᄒᆞ노니 (11: 22ㄱ)

ㄷ. 부싀 이 소식을 듯고 평즁을 블너 ᄂᆡ일 몬져 ᄎᆞ져 보고 관으로 쳥ᄒᆞ야 오라 ᄒᆞᄂᆞᆫ지라 (12: 6ㄱ)

ㄹ. 댱개 드러 가더니 이윽고 ᄂᆡ당으로 쳥ᄒᆞ고 (12: 2ㄱ)

ㅁ. 아직 나의 캉으로 쳥ᄒᆞ야 됴반을 ᄃᆡ접ᄒᆞᆫ 후의 (12: 18ㄴ)

다음은 'NP1를 NP2를 쳥-' 구문유형을 나타낸다.

(13) ㄱ. 드ᄃᆡ여 김복셔롤 맛져 삭이기롤 쳥ᄒᆞ라 ᄒᆞ고 (11: 10ㄱ)

ㄴ. ᄉᆞ매롤 븟드러 가기롤 쳥ᄒᆞᄃᆡ 죵시 듯지 아니ᄒᆞ고 (11: 19ㄱ)

(14) 원컨ᄃᆡ ᄀᆞᄅᆞ치믈 쳥ᄒᆞ노라 (11:1 3ㄱ)

'NP1로 NP2를 쳥-', 'NP1으로 쳥-', 'NP1Ø 부사어 쳥-' 구문유형을 보여준다.

(15) 이ᄯᆡ 밥을 나오고 ᄒᆞᆫ가지로 먹기롤 쳥ᄒᆞ거놀 사양치 아니ᄒᆞ고 먹을ᄉᆡ (15: 14ㄱ)

(16) 역관 됴명희 동힝ᄒᆞ기롤 쳥ᄒᆞ거놀 (11: 23ㄱ)

(17) 문 직힌 댱개 즉시 쳥ᄒᆞ야 외당의 안치거놀 (12: 2ㄱ)

다음은 부사어에 통합된 '쳥ᄒᆞ-' 구문유형이다.

(18) ㄱ. 누누히 쳥ᄒᆞ니 (12: 4ㄱ)

ㄴ. 여러번 쳥ᄒᆞ거놀 (12: 6ㄴ)

ㄷ. 샹방 군관 ᄒᆞ나히 은을 가져오믈 듯고 ᄇᆞ야흐로 쳥코ᄌᆞ ᄒᆞ더니 (12: 26ㄱ)

ㄹ. 아문의 막히여 누누히 쳥ᄒᆞᆫ 후의 비로소 허락을 바드니 (15: 13ㄴ)

ㅁ. 홀노 창기의 시롤 권권히 쳥홈은 무솜 의ᄉᆡ뇨 (15: 19ㄴ)

'NP1의 NP2을 쳥-' 구문유형을 보인다.

(19) ㄱ. 즉시 평즁의게 ᄀᆡ별ᄒᆞ야 갓가온 푸ᄌᆞ의 두 사람을 쳥ᄒᆞ야 잠간 기ᄃᆞ리라 ᄒᆞ고 (12: 18ㄱ)

ㄴ. 평즁이 네 당 됴회로 두 사룸의 그림을 쳥ᄒᆞ니 그리기를 뭇ᄎᆞᄆᆡ (13: 30ㄴ)

ㄷ. 우리 ᄯᅥ나는 날의 두 형을 쳥ᄒᆞ야 (13: 32ㄱ)

(20) 사람을 도라 보닌 후의 평즁을 청ᄒᆞ야 ᄂᆡ일 ᄒᆞᆫ가지로 가기롤 언약ᄒᆞ고 (13: 16ㄱ)

(21) 손이 만하 답댱을 ᄌᆞ시 못ᄒᆞ고 이목이 번거ᄒᆞ야 쳥ᄒᆞ여 보지 못ᄒᆞ노라 ᄒᆞ고 (14: 3ㄴ)

‘ NP_1이 NP_2롤 청-’의 구문유형을 가진다.

(22) 셔종ᄆᆡᆼ이 보기롤 쳥ᄒᆞᆫ다 ᄒᆞ거놀 (14: 35ㄴ)

이외의 구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3) ㄱ. 셔반 ᄒᆞ나히 드러왓거놀 쳥ᄒᆞ여 캉 우희 안티고 여러 말을 슈작ᄒᆞ니(6:30ㄴ)

ㄴ. 건냥관이 무ᄅᆞᄃᆡ 우리 ᄒᆡᆼ즁의 누고누고 청ᄒᆞ야 가는다(3:21ㄴ)

3.9.2.3. ‘ᄇᆞ라-’

먼저,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P_1롤 ᄇᆞ라-’ 구문유형의 명사구는 동명사 형태를 취하며 ‘ᄇᆞ라-’구문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문이다.

(24) ㄱ. ᄂᆡ ᄀᆞᆯ오ᄃᆡ 나는 외국 사람이라 즁국 체례롤 모ᄅᆞ고 망녕도이 ᄑᆡᆼ노야의 집의 나아가 두 노야의 념녀롤 ᄭᅵ치니 (중략) ᄒᆡᆼ젼의 다시 만날 길히 업ᄉᆞ니 이 결연ᄒᆞᆫ ᄯᅳᆺ을 닐위기 롤 ᄇᆞ라노라 (11: 13ㄴ)

ㄴ. ᄂᆡ ᄀᆞᆯ오ᄃᆡ 그ᄃᆡ는 츌신ᄒᆞᆫ 사람다ᄅᆞ니 우리롤 만나도 체례의 구애홀 일이 업술지라 우리 머므는 곳으로 ᄒᆞᆫ 번 왕굴ᄒᆞ기롤 ᄇᆞ라노라 (11: 14ㄴ)

ㄷ. ᄃᆡ강을 긔록ᄒᆞ야 술피기롤 ᄇᆞ라노니 (12: 28ㄱ)

(25) ㄱ. 죵젹을 방ᄌᆞ히 못홈이니 술펴 용셔ᄒᆞ믈 업듸여 ᄇᆞ라노라 (11: 9ㄴ)

ㄴ. 후 사람이 보기롤 분명치 못ᄒᆞ니 ᄌᆞ시 ᄀᆞᄅᆞ치믈 ᄇᆞ라노라 (11: 12ㄴ)

ㄷ. 이 글을 머믈너 더러온 ᄯᅳᆺ을 펴노니 술펴 용셔ᄒᆞ믈 ᄇᆞ라노라 (11: 29ㄱ)

ㄹ. 아문이 허티 아니ᄒᆞ면 드러올 길히 업ᄉᆞ니 날을 위ᄒᆞ야 쥬션ᄒᆞ믈 ᄇᆞ라노라 (11:15ㄴ)

ㅁ. 브졀업ᄉᆞᆫ ᄉᆞ려ᄅᆞᆯ ᄯᅥᆯ치고 삼가 조셥ᄒᆞ믈 ᄇᆞ라노라 (13: 2ㄱ)

ㅂ. ᄯᅩᄒᆞᆫ 젹은 일이라 니ᄅᆞ지 못ᄒᆞᆯ지라 ᄉᆞᆯ펴 조심ᄒᆞ믈 다시 ᄇᆞ라노라 (3: 2ㄱ)

ㅅ. 혹 다ᄅᆞᆫ 손이 이시면 더옥 낭ᄑᆡᄅᆞᆯ 면치 못ᄒᆞᆯ 거시니 ᄌᆞ셔히 지휘ᄒᆞ믈 ᄇᆞ라노라 (3: 2ㄴ)

ㅇ. 형은 더러온믈 혐의치 말고 아ᄅᆞᆷᄃᆞ온 의논을 만히 니ᄅᆞ믈 ᄇᆞ라노라 (13: 28ㄴ)

ㅈ. 젼약과 됴희ᄂᆞᆫ ᄒᆡᆼ즁의 가져온 거시니 샹고ᄒᆞ야 바드믈 ᄇᆞ라고 동국 픙속은 셔독과 셔화의 년호ᄅᆞᆯ 쓰지 아니ᄒᆞ니 이후ᄂᆞᆫ 더러온 픙속을 조챠믈 ᄇᆞ라며 (14: 3ㄱ)

ㅊ. 각각 두어 말노 그 우희긔록ᄒᆞ야 협즁의 머므ᄅᆞ믈 ᄇᆞ라노라 (14: 5ㄴ)

ㅋ. 형ᄇᆡ도 이 언약을 져ᄇᆞ리지 아니믈 ᄇᆞ라노라 (14: 34ㄴ)

다음은 ‘NP_1Ø NP_2를 NP_3의 ᄇᆞ라-’ 구문유형이다.

(26) ᄂᆡ 노야ᄅᆞᆯ ᄯᆞ라오ᄆᆡ ᄇᆞ라ᄂᆞᆫ 거시 젹지 아니터니 다만 십냥 은을 주니 엇지 노야의 ᄉᆞ랑ᄒᆞ던 ᄇᆞ람이 이시리오 (11: 17ㄱ)

지금까지 살펴본 청원동사구문유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ᄒᆞ-	NP_0은 원ᄒᆞ-
	NP_1을 원ᄒᆞ-
	NP_1으로 NP_2을 원ᄒᆞ-
	NP_1의 원ᄒᆞ-
청ᄒᆞ-	NP_1을 NP_2을 청ᄒᆞ-
	NP_0이 NP_1로 P_2을 청ᄒᆞ-
	NP_1로 청ᄒᆞ-
	NP_1을 청ᄒᆞ-
	NP_1ᄃᆞ려 청ᄒᆞ-
	NP_1의 청ᄒᆞ-
	NP_1ᄀᆡ 청ᄒᆞ-
	NP_1으로 청ᄒᆞ-
	NP_1로 NP_2을 청ᄒᆞ-
	NP_1의 NP_2을 청ᄒᆞ-
	NP_1이 NP_2을 청ᄒᆞ-
ᄇᆞ라-	NP_1을 ᄇᆞ라-
	NP_1 NP_2을 NP_3ᄋᆡ ᄇᆞ라-

3.10. 화법동사구문

3.10.1. 화법동사구문의 특징

화법동사는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동사 속에 여격어와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나타나난다. 화법동사구문은 'NP_1이 NP_2에게 NP_3을 V'을 기본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본 절에서는 명사구의 생략이나 그외의 명사구들이 올 수 있는 구문을 살펴 몇 가지를 유형화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 구문은 여격어가 필수적인 문장으로 문장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볼 구문은 '니ᄅᆞ-', 'ᄀᆞᆯ-' ,' 닐ᄋᆞ-'이다. 현대국어의 '말하-'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니ᄅᆞ-'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글자나 문장을 해석하는데도 쓰여 '뜻한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화법동사구문에서 '니ᄅᆞ-'는 그에 대한 주어와 동사구 내에서 여격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중세국어의 화법동사 구문은 'NP_1이 NP_2에게 NP_3을 V'가 기본이 되는데 이는 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중세국어의 화법구문에서는 목적어 'NP_3을'의 'NP_3'은 'ᄒᆞᆷ'동명사 구성어로 나타난 경우도 있

었다. ‘홈’동명사 구성이 목적어로 실현될 때에는 ‘니ᄅᆞ-’의 주체는 중립적인 표현을 보여주지만 본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3.10.2 화법동사구문의 유형

‘니ᄅᆞ-’는 여격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이며 중세국어 시기의 기본적인 구문 구조는 “NP_1이 NP_2에게 NP_3을 니ᄅᆞ-’였다. 이때 목적어 ‘NP_3을’의 ‘NP’는 ‘-옴/움-’의 동명사형으로 대치되어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의미해석상의 차이가난다. 즉 ‘NP_3을’이 목적어일 때에는 ‘니ᄅᆞ-’의 대상으로 해석되지만, ‘-옴/움’의 동명사 표현이 목적어로 나타날 때에는 ‘NP_3을’의 ‘NP’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 일이나 사태 등으로 해석된다.

‘NP_0이 니ᄅᆞ-’ 구문유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ㄱ. 역관들이 닐오ᄃᆡ 젼브터 동디 ᄉᆞ힝이 ᄃᆡ동강을 빅로 건넌적이 업더니 (1: 5ㄴ)
ㄴ. 닉 닐오ᄃᆡ 우리 셩즁을 귀경코ᄌᆞᄒᆞᄃᆡ 길흘 모ᄅᆞ논디라 (1: 28ㄴ)
ㄷ. 건냥관이 니로ᄃᆡ 술은 금녕이 이셔 드리지 못홀 거시오 (2: 5ㄴ)
ㄹ. 닉 닐오ᄃᆡ 햐쳐의 니ᄅᆞ러 다시 의논ᄒᆞ여 ᄒᆞ리라 (2: 7ㄴ)
ㅁ. 슈역이 닐오ᄃᆡ 우리 둘흔 ᄒᆞᆫ 탁ᄌᆞ의 먹으려니와 (2: 8ㄴ)
ㅂ. 슈역이 니로ᄃᆡ 죽은 ᄉᆞ롬의 큰 아들을 칙문셔 보니 (2: 10ㄱ)
ㅅ. 닉 니ᄅᆞᄃᆡ 제 한아비 집의가 곡이나 ᄒᆞᆫ다 (2: 10ㄴ)

중세국어의 ‘니ᄅᆞ-’ 동사는 주어로 有情體言과 無情體言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無情體言일 경우에는 ‘-애셔’와 같은 처격조사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무정체언이 ‘니ᄅᆞ-’의 주어가 될 수 있으나 보편적인 아니었다. 본 자료의 ‘니ᄅᆞ-’ 동사의 주어로는 有情體言만이 나타난다.

다음은 ‘니ᄅᆞ-’의 여격어로 오는 명사구이다. 여격어는 ‘NP이 니ᄅᆞ-’에 오는 ‘NP이’처럼 유정체언이 오는게 원칙이지만 무정체언도 나타난다. 본 자료에서 나타나는 명사구 표지는 ‘-ᄃᆞ려’, ‘-긔’로 국한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 보이는 구문구조는 ‘NP_0이 NP_1ᄃᆞ려 니ᄅᆞ-’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2) ㄱ. 닉 건냥관ᄃᆞ려 닐오ᄃᆡ 만니 타국의 동셩을 어드니 가히 반갑도다 (2: 5ㄱ)
ㄴ. 이날 닉 왕가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그 휘항이 닉 거시 아니오 (3 :24ㄱ)

‘NP_0ᄃᆞ려 니ᄅᆞ-’ 구문유형도 보인다.

(3) ㄱ. 날ᄃᆞ려 닐오ᄃᆡ 너희 ᄉᆞ신의 의관이 진짓 녯 졔되니 (5: 12ㄴ)

ㄴ. 역관ᄃᆞ려 닐오ᄃᆡ ᄃᆡ국 각노도 못ᄒᆞᄂᆞᆫ 닐을 ᄉᆞ신이 ᄒᆞᆫ다 ᄒᆞ고 (5: 13ㄴ)

ㄷ.이날 덕형ᄃᆞ려 닐너 진가의게 제 말노 니ᄅᆞ라 ᄒᆞ니라 (11: 10ㄱ)

'NP_0ᄃᆞ려 NP_1을 니ᄅᆞ-' 구문유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ㄱ. 왕가ᄃᆞ려 망히뎡 가고져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니로니 (3: 30ㄴ)

ㄴ. 덕유ᄃᆞ려 향가ᄅᆞᆯ 보거든 그 ᄉᆞ연을 니ᄅᆞ라 ᄒᆞ엿더니 (4 : 21ㄱ)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러한 여격어도 有情體言과 無情體言이 나타나는데 無情體言이 여격어로 나타날 때는 역시 처격조사 '-애'가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본 자료에서 無情體言의 여격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NP_0은 NP_1을 니ᄅᆞ-' 구문유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 ㄱ. 비로소 븍경 캉 졔양이 이러ᄒᆞᆫ 줄을 아니 캉이라 ᄒᆞᄂᆞᆫ 말은 한어의 블 싸히ᄂᆞᆫ 구돌을 니ᄅᆞ미라 (1: 21ㄱ)

ㄴ. 만쥬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근본 오랑킈 ᄌᆞ손이오 ᄇᆡᆨ셩은 한인을 니ᄅᆞ미니 한군도 ᄯᅩᄒᆞᆫ 한인이로ᄃᆡ (2: 4ㄴ)

ㄷ. 죵시 허티 아니ᄒᆞ니 완쉬여란 말은 황뎨ᄅᆞᆯ 니ᄅᆞ미라 (2: 28ㄴ)

ㄹ. 양한지라ᄒᆞᄂᆞᆫ 거ᄉᆞᆫ ᄀᆞᆺ나희ᄅᆞᆯ 니ᄅᆞᆯ 말이라 (4: 19ㄴ)

ㅁ. 연의란 말은 습의ᄅᆞᆯ 니ᄅᆞᆷ이니 외국ᄉᆞ신이 즁군 녜절의 닉지 못ᄒᆞ다ᄒᆞ야 (5:7 ㄴ)

ㅂ. 국ᄌᆞ감은 ᄐᆡ혹을 니ᄅᆞ미니 텬ᄌᆞ의 학이라 (6: 18ㄴ)

위의 예문들은 특정한 청자를 상대로 하지 않는 문장들로 불특정 다수를 청자로 한다. 여기서의 '니ᄅᆞ-'는 단순히 입으로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뜻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중세국어의 경우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의미해석에 해당되는데 이처럼 '니ᄅᆞ-'는 새로 주어진 정보나 인용문적인 문장은 이미 주어진 정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니ᄅᆞ-'가 의미해석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여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중세국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NP_0(으)로 NP_1을 니ᄅᆞ-'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ㄱ. 역관으로 그 말을 니로니 갑군이 ᄎᆡᄅᆞᆯ 노코 믈너셔더라 (1: 20ㄴ)

ㄴ. 우리 말노 일홈을 니로ᄃᆡ 다 분명티 아니하더라 (1: 26ㄱ)

'NP_0이 NP_1을 니ᄅᆞ-' 구문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ㄱ. 건낭관이 ᄯᅩᄒᆞᆫ 나의 드러온 곡졀을 니로니 (4: 24ㄴ)

ㄴ. 셰팔이 귀경ᄒᆞ고져ᄒᆞᄂᆞᆫ ᄠᅳᆮ을 니ᄅᆞᆫᄃᆡ 틱감이 즉시 졈은 틱감 ᄒᆞ나흘 블너 무ᄉᆞᆷ 말을 니ᄅᆞ더니 이윽고 열쇠ᄅᆞᆯ 가디고와 드러 가기ᄅᆞᆯ 쳥ᄒᆞ거ᄂᆞᆯ (6: 2ㄴ)

중세국어에서처럼 (6)은 'NP을 니ᄅᆞ-'의 기본 구문 구조를 이룬다. 여기서 '니ᄅᆞ-'는 'NP을'의 대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6ㄱ)는 '역관으로 그 말에 대해 말하니'의 의미를 가지고 (6ㄴ)'우리말로 일홈에 대해'와 '가고자 하는 뜻에 대해'의 의미를 가진다.

아래 예문은 'NP을 니ᄅᆞ-' 구문에서 특이한 '말을 니ᄅᆞ-'구문이다.

(8) ㄱ. 각각 집 ᄉᆡᆼ각ᄒᆞᄂᆞᆫ 말을 니ᄅᆞ니 ᄆᆞᄋᆞᆷ이 심히 됴티 아니ᄒᆞ더라 (5: 10ㄴ)

ㄴ. 사ᄅᆞᆷ을 블너 무순 말을 니ᄅᆞ더라 (4: 17ㄴ)

ㄷ. 즉시 졈은 틱감 ᄒᆞ나흘 블너 무ᄉᆞᆷ 말을 니ᄅᆞ더니 (6: 22ㄴ)

이현희(1991:34)를 보면[51] 중세국어의 '마ᄅᆞᆯ 니ᄅᆞ-'에서의 '말'은 구문에 따라 '어떠한 음성의 말을 하거나 어떠한 소리로 말한다는 형식'을 들어 의미내용보다는 음성형식에 더 큰 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5)의 예는 '음성'이나 '소리'로 말함을 의미하지는 않고 오히려 '어떠한 의미가 있는 말'을 하는 것으로 '말'의 '의미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식명사 'ᄃᆞ, 곧, 줄'이 보문명사가 될 때에 의미해석 구문으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이들 차이는 형식명사 자체의 의미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닐오ᄃᆡ S ᄒᆞ'구조를 보이는 구문이다.

중세국어의 '니ᄅᆞ-'는 피인용문 앞에 나올 때만 '닐오ᄃᆡ'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드물지만 연결어미 '-니'나 '-아/어'에 통합되어 나타난다. 연결어미 '-니'는 전제의 뜻을 가지고

51) 이현희(1991: 34-35)의 예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1) ㄱ. 니르시논 마론(석 9:27)

ㄱ'. 믌 겨레 비췬 ᄃᆞᇌ 비츨 닐온 마리니(몽산 43)

ㄴ. 虛空애셔 마ᄅᆞᆯ 닐오ᄃᆡ(월석 7:29)

ㄴ.' 涅槃樂ᄋᆞᆯ 證케 ᄒᆞ라 이 말 닐어시ᄂᆞᆯ(월석 21:83)

(2). ㄱ. 世間이 無常ᄒᆞ니 어셔 나쇼셔 ᄒᆞᇙ 소리ᄅᆞᆯ ᄒᆞ게 ᄒᆞ며(석 3:22)

ㄴ. 獅子聲ㅅ 말 ᄒᆞ샤(월곡 기 54)

ㄴ'. 獅子 목소리로 니ᄅᆞ샤ᄃᆡ(석 3:29)

있으며 연결어미 '-아/어'는 'S ᄒᆞ-'에 대해 '니ᄅᆞ-'가 언급될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9) ㄱ. 녜부터 닐으기ᄅᆞᆯ 역관이 강을 건너면 ᄉᆞ촌을 물나본다 ᄒᆞ더니 (2: 24ㄱ)
ㄴ. 셰팔이 니ᄅᆞᄃᆡ 이ᄂᆞᆫ 셔산 ᄉᆞ십니ᄅᆞᆯ 니어 강 좌우로 지은 집이니 황뎨의 노리ᄒᆞᄂᆞᆫ 곳이라 ᄒᆞ더라 (11: 5ㄴ)

(10) ㄱ. 쥬인이 올나와 무ᄅᆞᄃᆡ 손은 무어ᄉᆞᆯ 먹고져 ᄒᆞᄂᆞᆫ다 ᄒᆞ거ᄂᆞᆯ ᄂᆡ 닐오ᄃᆡ 우리ᄂᆞᆫ 술을 먹지 못ᄒᆞ니 아모 것이라도 뇨긔 ᄒᆞᆯ 거ᄉᆞᆯ 만히 가져오라 ᄒᆞ니 (11: 8ㄱ)
ㄴ. 덕위 드러와 닐오ᄃᆡ 당싱이 ᄒᆞᆯ나 문밧긔 왓거ᄂᆞᆯ 즉시 쳥ᄒᆞ여 드려오랴 ᄒᆞ더니 (11: 19ㄱ)
ㄷ. 셰팔이 닐오ᄃᆡ 이ᄂᆞᆫ 샤벼ᄉᆞᆯ이오 황뎨의 근시ᄒᆞᄂᆞᆫ 아히라 ᄒᆞ더라 (13: 4ㄱ)
ㅁ. 니셰팔이 닐오ᄃᆡ 이 믈은 티화문 밧그로셔 흘너 나온다 ᄒᆞ더라 (13: ㄱ)
ㅂ. 오림포와 셔죵현이 잇거ᄂᆞᆯ 나아가 읍ᄒᆞ고 닐오ᄃᆡ 어졔 쳬례ᄅᆞᆯ 모ᄅᆞ고 망녕되이 몽고관을 드러가 여러 노야들의 념녀ᄅᆞᆯ ᄭᅵ치니 극히 블안ᄒᆞ여 ᄒᆞ노라 (11:1ㄱ)
ㅅ. 두 통관이 ᄀᆞᆯ오ᄃᆡ 어졔 김판ᄉᆞᄅᆞᆯ 보고 그 연고ᄅᆞᆯ 임의 닐너시니 엇지 블안ᄒᆞᆷ이 이시리오 (11: 1ㄱ)

'NP_0이 ᄀᆞᆯ오ᄃᆡ' 구문유형을 보이는 구문으로 'NP이 니ᄅᆞ-'구문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NP이 V' 구조는 본 자료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11) ㄱ. <u>덕위 ᄀᆞᆯ오ᄃᆡ</u> 이거ᄉᆞᆫ 피폐ᄒᆞᆫ 곳이라 (1: 29ㄱ)
ㄴ. <u>건냥관이 ᄀᆞᆯ오ᄃᆡ</u> 첫번은 예ᄉᆞ 그러ᄒᆞ니 날이 오라면 ᄎᆞᄎᆞ 나을거시오 (1: 22ㄱ)
ㄷ. <u>쥬인이 ᄀᆞᆯ오ᄃᆡ</u> 다리ᄅᆞᆯ 알ᄂᆞᆫ다 ᄒᆞ거ᄂᆞᆯ ᄂᆡ 닐오ᄃᆡ 우리 힝즁의 의원이 이시니 보고져 ᄒᆞᄂᆞ냐 (1: 24ㄴ)
ㄹ. <u>왕개 ᄀᆞᆯ오ᄃᆡ</u> 밧 수십 일경이 이셔 상년의 오륙 ᄇᆡᆨ셕을 차작ᄒᆞ엿더니 (2: 4ㄱ)
ㅁ. <u>ᄂᆡ ᄀᆞᆯ오ᄃᆡ</u> 내 한어ᄅᆞᆯ ᄇᆡ호고져 ᄒᆞᄃᆡ 모ᄅᆞᄂᆞᆫ 말이 만코 (3:12ㄴ)
ㅂ. <u>왕개 ᄀᆞᆯ오ᄃᆡ</u> 노애 날을 극진이 사랑ᄒᆞᄂᆞ니 (4: 10ㄱ)

중세국어처럼 본 자료에 나타나는 'ᄀᆞᆯ다'는 '말ᄒᆞ다, 묻다' 등의 동사와 나타나고 있다.

(12) ㄱ. 스ᄉᆞ로 <u>말ᄒᆞ여 ᄀᆞᆯ오ᄃᆡ</u> 심양ᄶᆞ지ᄂᆞᆫ ᄂᆡ 임의 어더 노핫거니와 (2: 22ㄴ)
ㄴ. ᄂᆡ 그 ᄉᆞᄅᆞᆷ을 쳥ᄒᆞ야 캉 우희 안티고 <u>무러 ᄀᆞᆯ오ᄃᆡ</u> 벽 우희 셔화ᄅᆞᆯ 보고 탁ᄌᆞ

의 약간 셔칙이 이시니 (4: 3ㄴ)

위의 예는 'ᄀᆞᆯ-'이 '말하다'라는 의미 외의 다른 기능을 보여 준다. '말ᄒᆞ다', '묻다'는 모두 화법동사로서 문장을 통해 그 의미를 보면 위의 구문들은 인칭으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ᄀᆞᆯ-'앞에 오는 동사들은 모두 화법동사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ᄀᆞᆯ오ᄃᆡ'는 인용부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ᄀᆞᆯ오ᄃᆡ'는 여격어의 명사구 표지로 '-에게', '-ᄭᅴ', '-ᄃᆞ려'가 사용되었는데 본 자료에서는 '-ᄃᆞ려'의 예만 보인다. 'NP_1ᄃᆞ려 ᄀᆞᆯ오ᄃᆡ' 구문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ㄱ. ᄂᆡ 쥬인ᄃᆡ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1: 26ㄱ)

ㄴ. 그 ᄋᆞᄃᆞᆯᄃᆞ려 ᄀᆞᆯ오ᄃᆡ (3: 8ㄴ)

ㄷ. ᄂᆡ 평즁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우리 힝녀의 슈고롤 도라 보디 아니ᄒᆞ고 (4: 7ㄱ)

위의 (ㄷ)은 문면에 주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본문을 보면 주어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구문'NP이 NPᄃᆞ려 V'의 구조를 보인다.

여격어 표지 '-ᄃᆞ려'는 '與'의 번역으로 'ᄃᆞ리다'에서 기원한 것으로 위의 '-ᄃᆞ려'의 예들은 모두 평칭의 有情體言에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ᄀᆞᆯ오ᄃᆡ S ᄒᆞ'구문을 보이는 예들이다. 'S'에 올 수 있는 문장들은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등이 가능하다.

(14) ㄱ. ᄂᆡ ᄀᆞᆯ오ᄃᆡ 아모거시라도 뇨긔ᄒᆞᆯ 거ᄉᆞᆯ 밧비 ᄀᆞ져오라 ᄒᆞ니 (1: 30ㄴ)

ㄴ. 쥬인이 ᄀᆞᆯ오ᄃᆡ 이ᄂᆞᆫ 녯젹의 동으로 너희 나라ᄒᆞᆯ 치던 당태종이라 ᄒᆞ거ᄂᆞᆯ (2: 14ㄱ)

ㄷ. 노픠 우셔 ᄀᆞᆯ오ᄃᆡ 사ᄅᆞᆷ은 늙어도 ᄉᆞᆺᄎᆞᆫ 늙디 아니ᄒᆞᄂᆞ니라 ᄒᆞ더라 (2: 17ㄴ)

아래는 직접인용을 나타내는 예들이다.

(15) ㄱ. ᄂᆡ ᄀᆞᆯ오ᄃᆡ 네 진짓 간샤한 인믈이로다 (4: 10ㄱ)

ㄴ. 왕개 ᄀᆞᆯ오ᄃᆡ 젼랑이 극히 더럽고 게 안ᄌᆞᆫ 놈들이 다 도적ᄀᆞᆺᄒᆞᆫ 더러온 인믈이라 (2:3ㄴ)

ㄷ. 슈역이 ᄀᆞᆯ오ᄃᆡ 저런거ᄉᆞᆯ 어이 네문으로 칙망ᄒᆞ리오 (2: 10ㄱ)

ㄹ. ᄂᆡ ᄀᆞᆯ오ᄃᆡ 첫 번이로라 (2: 32ㄱ)

ㅁ. 쥬인이 ᄀᆞᆯ오ᄃᆡ 첫번이면 엇디 말을 능히 ᄒᆞᄂᆞ뇨 (2: 32ㄱ)

ㅂ. 왕개 ᄀᆞᆯ오ᄃᆡ 나는 ᄒᆞᆯ 말이 업ᄉᆞ니 노애 됴흔 말을 ᄒᆞ면 ᄂᆡ ᄃᆡ답ᄒᆞ리라 (3: 12ㄴ)

ㅅ. ᄂᆡ ᄀᆞᆯ오ᄃᆡ 네 ᄯᅳᆺ이 그러ᄒᆞ면 ᄂᆡ 엇지 의심ᄒᆞ리오 다만 네 말과 ᄆᆞᄋᆞᆷ이 셔로 응티 아닐가 ᄒᆞ노라 (4: 10ㄴ)

ㅇ. 평즁이 ᄀᆞᆯ오ᄃᆡ 고기 눈으로 븕은 구슬의 비기미니 엇지 감히 당ᄒᆞ리오 (13:18ㄴ)

ㅈ. 엄싱이 ᄀᆞᆯ오ᄃᆡ 어제 집 죵을 샹 주어 보ᄂᆡ미 과히 후ᄒᆞ도다 (13 :18ㄴ)

'니ᄅᆞ-'와는 달리 '묻-'은 주로 의문문을 인용하는 동사로 사용된다. 중세국어에서 '묻-'은 '질문'과 '방문'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였다. 후자로 사용될 때는 항상 'NP를 묻-'형식으로 사용되었다. '질문'의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사동사 '물이-'가 존재했다. '묻-'은 반드시 그 주어로 유정체언을 요구하며 여격어가 필요한 동사이다. 여격어가 무정체언일 경우에는 '니ᄅᆞ-'의 예처럼 처격조사 '-애'에 통합되어 나오기도 했다. 타동사인 '묻-' 동사의 가장 기본 구문은 'NP이 NP의게 NP을 묻-'으로 나타난다. 중세국어의 경우 이 구문은 명사구 'NP을 묻-', '호뫌 묻-'형태로 나타나며 종결어미를 갖춘 문장이 '묻-'의 보문으로 사용될 경우 'S({ᄒᆞ야, 호뫌}묻-)'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본 자료에서는 '방문'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으며 '질문'의 의미를 갖는 구문 만을 대상으로 한다.

'NP_0이 NP_1ᄃᆞ려 묻-' 구문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NP이 NPᄃᆞ려 묻-', 'S 묻-', 'NP이 NP을 묻-', 'NP을 묻- '의형태로 나타난다. 또는 ′묻-'이 ′S′앞에 전치되어 나오기도 한다.

(16) ㄱ. 쥬인이 슈상이 너여 역관ᄃᆞ려 뭇거ᄂᆞᆯ (1: 23ㄱ)

ㄴ. 건냥관이 악가ᄃᆞ려 무러 ᄀᆞᆯ오ᄃᆡ 우리 처음으로 보아도 큰 연분이오 (2: 5ㄱ)

ㄷ. 쥬인이 날ᄃᆞ려 무로ᄃᆡ 됴션 사ᄅᆞᆷ들도 여술 먹노냐ᄒᆞ거ᄂᆞᆯ (2: 31ㄴ)

ㄹ. 쥬인ᄃᆞ려 무ᄅᆞ니 쥬인이 ᄀᆞᆯ오ᄃᆡ 됴션 ᄉᆞᄅᆞᆷ들이 왓는고로 그리ᄒᆞ노니라 (4: 9ㄴ)

ㅁ. ᄂᆡ 왕가ᄃᆞ려 무론ᄃᆡ 왕개 ᄃᆡ답지 아니코 븟그리는 거동이 잇거ᄂᆞᆯ (4: 20ㄱ)

'S 묻-' 형식으로 여기서 S는 물음의 내용이 구체적인 발화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 예들은 모두 S가 직접 발화된 문장들이다.

(17) ㄱ. 내 의심ᄒᆞ야 여러 번 무로니 왕개 ᄀᆞᆯ오ᄃᆡ ᄂᆡ일은 연교포의 슉소ᄒᆞ노니 (4: 20ㄱ)

ㄴ. 여러보니 속의 너흔거시 밀기름 ᄀᆞᆺ흔 거시라 무로니 왕ᄀᆡ 니ᄅᆞᄃᆡ 약ᄃᆡ 기롬으로 ᄆᆞᆫᄃᆞᆫ 거시니 (4: 20ㄴ)

'NP₁을 묻-' 구문유형에서 'NP'은 '묻-'의 언급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묻는 것이 부각된다.

(18) ㄱ. 그 연고ᄅᆞᆯ 무로니 말이 이셔도 길히셔 니ᄅᆞ라 ᄒᆞ고 가기ᄅᆞᆯ ᄌᆡ촉ᄒᆞ거ᄂᆞᆯ (2: 3ㄴ)

ㄴ. ᄂᆡ 그 셩과 나ᄒᆞᆯ 뭇고 ᄀᆞᆯ오ᄃᆡ 그ᄃᆡ 우리 역관을 보ᄆᆡ 고이히 넉이지 아니ᄒᆞᄂᆞᆫ다 (4: 23ㄴ)

ㄷ. 그 ᄆᆞᆯ 먹이ᄂᆞᆫ 법을 무로니 왕개 니로ᄃᆡ 집의셔 브리지 아닐 적은 굴네ᄅᆞᆯ 벗겨 들의 ᄂᆡ여 노하 플을 ᄯᅳᆺ길 ᄯᆞᄅᆞᆷ이오 (4: 24ㄱ)

ㄹ. ᄂᆡ 나ᄅᆞᆯ 뭇거ᄂᆞᆯ ᄂᆡ ᄃᆡ답ᄒᆞᄃᆡ 헛도이 삽십여세ᄅᆞᆯ 지ᄂᆡ엿노라 ᄒᆞ니 이거시 ᄯᅩᄒᆞᆫ 즁국 나ᄒᆞᆯ 니ᄅᆞᄂᆞᆫ 법이라 (4: 24ㄴ)

ㅁ. 그 벼ᄉᆞᆯ 일홈을 무로니 홍노시 관원이라ᄒᆞ니 아국인의 벼ᄉᆞᆯ인가 시브더라 (5: 3ㄱ)

ㅂ. 그 연고ᄅᆞᆯ 무로니 운귀 닐오ᄃᆡ 한아븨 복이 이시ᄆᆡ ᄇᆡᆨ일 젼은 ᄉᆡᆨ지 아닛노라ᄒᆞ니 저희 녜문인가 시브더라 (5: 22ㄱ)

위의 예문들은 모두 '-에 대해'로 의미로 해석되는 구문들이다. 즉 '연고에 대해', '성과 나이에 대해', ' 말 먹이는 법에 대해', '나이에 대해', '일홈에 대해' 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니ᄅᆞ-'구문과는 달리 'ᄀᆞᆯ오ᄃᆡ, 닐오ᄃᆡ, 니ᄅᆞᄃᆡ' 앞에서 사용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묻-'이 화법동사라는 측면을 제시해 준다.

이외 '무로ᄃᆡ S', '묻노니, 묻노라 S형식'을 찾아 볼 수 있다.

(19) ㄱ. 겻히 션 사람ᄃᆞ려 가마니 무ᄅᆞ니 닐오ᄃᆡ 이ᄂᆞᆫ 사람도 즘싱도 아니니 운남 ᄯᅡ히셔 온 거시라 (11: 21ㄱ)

ㄴ. 그 즁 담배ᄃᆡ ᄑᆞᄂᆞᆫ 곳의 별양 ᄀᆞ늘고 쟉은 ᄃᆡ 잇거ᄂᆞᆯ 무로니 아희들이 먹으며 희롱ᄒᆞᄂᆞᆫ 거시라 ᄒᆞ고 혹 ᄃᆡ통이 별양 커 젹은 술잔 만ᄒᆞᆫ 거ᄉᆞᆫ 무로니 ᄒᆞᆫ 번 담배ᄅᆞᆯ 픠워 여러 사람이 돌녀 먹ᄂᆞᆫ 거시라 ᄒᆞ고 (11: 23ㄴ)

ㄷ. 인믈이 개개 쥰슈ᄒᆞ거ᄂᆞᆯ 무ᄅᆞ니 다 한인이오 황셩 사람이로라 ᄒᆞ더라 (11: 30ㄱ)

ㄹ. 닉 무ᄅᆞ딕 우리는 외국 사람이라 그대의 소견의 필연 몽고와 다룸이 업ᄉᆞ리로다 (11: 30ㄱ)

ㅁ. 이쩌 숑녕이 셰팔ᄃᆞ려 무ᄅᆞ딕 너희 노애 말이 극히 분명ᄒᆞ니 필연 첫 길히 아닌가 시부다 ᄒᆞ더라 (12; 2ㄴ)

'니ᄅᆞ다', '굴다', '묻다' 구문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구문은 'NP이 니ᄅᆞ-', 'NP이 NPᄃᆞ려 니ᄅᆞ-', 'NP를 니ᄅᆞ-', 'NP이 굴-' 등의 구조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니ᄅᆞ-'와는 달리 '묻-'은 주로 의문문을 인용하는 동사로 사용된다. '묻-'은 중세국어시기에는 '질문'과 '방문'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였다. 본장에서는 '질문'의 의미를 갖는 구문 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구문의 구조는 'NP이 NPᄃᆞ려 묻-', 'S 묻-', 'NP이 NP을 묻-', 'NP을 묻-', '묻-'이 'S'앞에 전치되어 나오기도 한다. 이외에 'NP이 NPᄃᆞ려 묻-', 'NP을 묻-'의 구조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묻-'구문은 '니ᄅᆞ-' 구문과는 달리 '굴오딕, 닐오딕, 니ᄅᆞ딕' 앞에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외 '무로딕 S', '묻노니, 묻노라 S형식'을 찾아 볼 수 있었고, '일홈ᄒᆞ-' 구조의 형태로 나타나는 구문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18세기의 한글 필사본 ≪을병연행록≫에서 보이는 문법사적 특징을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으로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형태· 서지학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을병연행록≫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을병연행록≫은 1765(영조 41)년 · 1766(영조 42)년에 걸쳐 湛軒 洪大容(1731∼1783)이 35세 때 季父인 洪檍의 燕行使行에 자제군관으로 수행하였을 때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보이는 새로운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그가 가장 원하는 바였던, 異域의 아름다운 秀才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 그들과 토론하는 모습이 실려 있는 한글 필사본이다. 이 자료는 숭실대본과 장서각본이 있는데 장서각본과 숭실대본을 비교해 본 결과 본 자료가 18세기 중기의 작품으로 판본의 문헌들과 특별히 다른 국어학적인 차이점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 필사경위나 매 권 말미의 필사부기에 따라 숭실대본을 母本으로 파악한다면, 이 숭실대본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장서각본도 18세기 중기의 국어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1에서는 한글본인 숭실대본과 장서각본을 형태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1.2에서는 한문본 ≪담헌연기≫를 살펴보았다. 1.3에서는 한글본을 상대로 제목과 내용을 비교하였다. 또한 2장에서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들어 본자료의 문법사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세국어에서는 형식명사 '줄'에 대격조사가 통합한 예가 거의 없었는데,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대격조사에 결합한 예가 많이 보이며, '냥'은 원래 중세국어에서의 '양'(←樣)을 이어받은 것이다. 표기상의 차이를 보이는 점이 특이하게 나타난다.

(2) 중세국어 이래 不定稱으로 사용되지 않고 未知稱으로만 사용되던 '엇더ㅎ-', '어느', '므슴'과 같은 것들이 부정칭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대국어 단계에 부사 '그르'에 접미사 '-ㅅ'이 더 통합한 '그릇'이라는 파생부사가 새로이 나타났는데, 이 자료에는 모음조화에서 어긋난 '그롯'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조사 가운데 중세국어의 것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여격표지를 살펴보았다. 중세국어에서는 '게'가 '-ㅅ'이나 '-의'가 개재되지 않은 채 명사구에 직접 통합하는 예는 극히 드물어 '뭏'(馬)에 '게'가 직접 통합한 '뭏게' 정도만 확인되었으나, 이 문헌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명사구에 '게'가 직접 통합한 경우가 상당수

보인다. 조사의 기능이 변화한 예로는 대표적으로 '-으로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자격, 도구의 기능, 경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세국어 명사 'ᄌᆞ슴'에서 변화된 '즈음'이 명사적인 용법 외에 조사적인 용법(열여닐곱 즈음이오(4:26ㄱ))을 보이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4) 근대국어 시기에 '어리-'가 "愚"에서 "幼"로의 의미변화를 일으킴으로써 "幼"의 의미를 가졌던 '졈-'은 사라지고 "壯"의 의미를 가지는 '졈-'만 살아 남게 되었다. 본 자료에서는 '어리-'가 "幼"의 의미로, '졈-'이 "壯"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졈-'과 '어리-'의 의미 변화와 어휘의 경쟁 현상은 형태변화까지 일으켜 '졈-'이 '졂-'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5) 중세국어 단계에서 '만ᄒᆞ-'(多), '올ᄒᆞ-'(是)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용언들은 근대국어 초기 단계에 '많-'과 '옳-'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어간의 재구조화 현상을 본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6) 중세국어의 동사 '웃-'은 "ㅿ"의 음가 소실로 인해 '우-'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문헌에는 '우-' 외에 방언형이라고 판단되는 '웃-'도 함께 나타난다. 중세국어에서 쌍형적인 모습을 보이던 존재동사 '이시-', '잇-'은 19세기 중엽에 가서 '잇-'으로 단일화되지만 문헌에서는 '이시-'와 '잇-'의 쌍형적인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이 문헌은 18세기 후반의 자료로 취급되어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세국어에서 피인용문 뒤에 나오던 인용동사 'ᄒᆞ-'는 뒷 구절과 이어질 때 대개 'ᄒᆞ야'로 나타났었는데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ᄒᆞ고'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7)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겟-'(내지 '-긧-')이 새로이 출현하였음이 특징적이다. 이 형태는 '-게 ᄒᆞ엿- ~ -게 ᄒᆞ여시- > -게 엿- ~ *-게 여시- > -겟-(-긧-) ~ -게시-(-긔시-) > -겠-'과 같은 단계적인 변화과정을 거쳐 문법화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긧-'이나 현대국어의 '-겠-'에서 파악되는 추정이나 의지의 의미가 파악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헌에 '-게 ᄒᆞ엿-'의 예는 많이 나타나나, '-게 ᄒᆞ야시-' 내지 '-게 ᄒᆞ여시-'나 '-긧-'은 많이 나오지 않는 점이 특이하게 생각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이 자료가 19세기 이전의 국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각 동사구문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본 자료에서 비교적 많이 보이는 구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3.1장에서는 계사구문을 살펴보았다.

표면적인 구문의 측면에서 보면 계사구문의 구조는 단조로울 수 있지만 개별 명사구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구문유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NP$_0$이 NP$_1$이-'에 참여하는 명사구 'NP$_0$'이나 'NP$_1$'은 단순명사 외에 관형사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 등 다양한 명사구가 다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NP$_0$에 대해 NP$_1$은 그 상태, 성격, 속성, 처소 등의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NP$_0$ 뒤에는 주격조사 '-이' 외에 주제의 보조사 '-은'이나 亦同의 보조사 '-도' 등이 통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다. 이 문헌에서는 NP$_1$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계사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니-' 구문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하나의 용언어간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NP$_0$이'와 관련해서 'NP$_0$'에 '-은' , '-도' 등의 보조사가 통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쁜(이) 아니-' 구문유형은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는데 이 구문유형은 대개 종속절을 구성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 'VP-ㄹ {쁜, 븐}이 아니라'는 일종의 무주어문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3.2에서는 존재동사구문을 살펴보았다. 존재동사 '잇-/이시-'와 '계시-'는 보조용언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없-'은 본용언으로만 사용되지 보조용언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잇-/이시-'는 동사적인 활용형을 보이나, '없-'과 '계시-'는 형용사적인 활용형을 보인다.

현대국어에서는 존재구문이 'NP$_0$이 NP$_1$에 {있-, 없-, 계시-}'의 구문유형을 보이고, 소유구문은 'NP$_1$이 NP$_0$이 {있-, 없-, 계시-}'의 구문유형을 보인다. 이 문헌자료에서도 그러한 구문유형을 보인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존재구문인데도 이중주어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없지 않고, 소유구문인데도 처격어 명사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잇-/이시-'구문은 존재동사와 소유동사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 가운데 'NP$_0$이 NP$_0$로 잇-/이시-'의 구문유형은 조격 명사구의 성격이 '상태나 기준', '자격', '방향'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매우 드문 유형에 속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업-' 구문 역시 존재구문과 소유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잇-/이시-' 구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유구문과 존재구문을 구별하는 것은 소유구문의 소유대상물이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단순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자료에서 '계시-' 구문은 우연인지는 모르나 모두 존재구문으로 사용된 문장들만 보일 뿐, 소유구문으로 사용된 예가 없음을 살펴보았다.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겨시-' 외에, 제2음절의 'i' 모음의 영향으로 제1음절에 'j'가 더 개재된 '계시-'로 나타난다. 따라서 근대국어 시기에 필사된 이 자료 역시 '겨시-'보다 '계시-'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동사어간을 '계시-'로 표기하였다. '계시-'의 구문유형은 무척 단순한데, 이 유형은 'NP$_0$이 겨시-'로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3에서는 평가구문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평가구문을 이루는데 쓰이는 형용사 '둏-', '어렵-', '쉽-', '맛당ᄒᆞ-', '올ᄒᆞ-'의 양상을 유형화하고 그 구문의 성격을 명사구의 차이에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3.4.에서는 비교동사구문의 특징과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자료에서 '더으-'나 '더ᄒᆞ-' 구문은 비교구문보다는 대부분 형용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ᄒᆞ-' 구문유형 가운데 'NP_1이 NP_2의 비ᄒᆞ-' 는 부정표현의 '비치 못ᄒᆞ-'로 되었고 그에 통합하는 문법형태 부분이 '-ㄹ너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낫-' 구문유형과 관련해서는 명사구 표지 '-의셔', '-로셔'는 모두 '-보다'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는 '-의셔', '-로셔'로 교체되는 것은 처소를 나타내다가 '-보다'의 의미로 진입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갓ᄒᆞ-'와 '다ᄅᆞ-' 구문유형은 그 용법이나 의미, 기능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교격 조사로 나타난 구문들은 명사구 표지 '-에셔', '의셔'를 사용하여 'NP_0는 NP_1에셔' 구조로 'NP_1이 NP_2이에셔 V', 'NP_1이 NPØ예셔', 'NP이에셔'로 나타남을 살펴 보았다.

3.5에서는 심리동사구문의 특징과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구문유형들은 주로 타동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깃거-'와 관련해서는 '깃거-'에 통합되어 '-어'가 '계기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슬프-'는 슬픈 마음이나 슬픈 뜻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의미하며 '슬프다' 만으로 발화되는 문장은 감탄문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6에서는 사유동사구문의 특징과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이 구문은 목적어 중심 구문으로 기본 구조는 국어의 전형적인 'S O V'유형인 'NP_1이 NP_2을 V'의 유형을 보여준다. 필수적으로 목적어 명사구 'NP_2'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언제나 목적어 'NP_2'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7에서는 인지동사구문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인지동사는 상당히 의미론적인 것이기에, 통사적인 특성 가운데 구문구조만을 살펴보았다.

중세국어의 '알-' 구문과 '모ᄅᆞ-'구문은 같은 유형을 보이는데 이는 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알-'에서 보이는 유형이 '모ᄅᆞ-'구문에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심리 동사와 심리 형용사를 포함해서 다루었다. 이러한 심리동사는 목적어 중심의 구문으로 심리동사는 주로 타동사로 쓰인다. 본절에서는 '깄다', '젛다', '슬프다', '즐기다', '슳다' 등을 유형화하여 의미와 통사적인 면에서 살펴보았다. '깄-'구문은 'NP의 NP을 깄-'의 구조로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깃거'에 통합되어 있는 '-어'는 중세국어 시기에 '이유'와 '계기성'의 의미가 있던 것으로 본 자료에서는 후자의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젛-' 구문 'NP의 NP을 젛-'의 구조로 나타나는데 NP을'은 '젛-'의 이유나 원인 등을 뜻하는 명사구이다. 그리고 외구심을 표현하는 S앞에 위치한 '젛-' 구문을 살펴보았다. 'NP이 NP을 젛-'구조를 살펴보았다. '저허ᄒᆞ-'는 '젛-'에 '- 어 ᄒᆞ-'가 결합된 것으로 선행 요소의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으로 통사 범주상의 차이는 없다. '슬프-'는 그 대상에 대해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픈 마음이나 슬픈 뜻을 가지고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그 예로 '슬프다' 만으로 발화되는 문장은 감탄문으로 볼 수 있었다.

3.8에서는 지각경험구문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본절에서는 '보-', '듣-'의 대상 동사

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의미 영역에 따라 통사적인 특성을 고려한 구문구조의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 구문유형에서는 경험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단어나, 절, 문장 등에 자류롭게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3.9 에서는 청원구문을 살펴보았다.

이 구문유형은 화법동사구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청원동사로 구성된 문장의 내용이 청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구문은 마음 속의 내적 사유를 말로 나타내거나 자신의 내적 사유로 남아 있는 뜻을 표현하는 구문으로 '청ᄒᆞ-', '원ᄒᆞ-', 'ᄇᆞ라-'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절에서는 '청ᄒᆞ-'와 '원ᄒᆞ-', 'ᄇᆞ라-' 구문을 살펴보았다. '원-'구문은 원해 '원ᄒᆞ-'는 성격상 여격어를 요구하지 않는 동사이지만 경우에 따라 '원ᄒᆞ-'가 '청ᄒᆞ-'와 같은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이 때는 여격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ᄇᆞ라-'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NP롤 ᄇᆞ라-' 구조이며 이밖에 'NPØ NP롤 NP의 ᄇᆞ라-' 등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10에서는 화법구문을 살펴보았다.

화법동사는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동사 속에 여격어와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나타나는데은 'NP_1이 NP_2에게 NP_3을 V'을 기본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본 절에서는 명사구의 생략이나 그외의 명사구들이 올 수 있는 구문을 살펴 몇 가지를 유형화하여 설명하였다. 이 구문은 여격어가 필수적인 문장으로 문장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현대국어의 '말하-'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니ᄅᆞ-'도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글자나 문장을 해석하는데도 쓰여 '뜻한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화법동사구문과 관련해서 여격 표지는 '-ᄃᆞ려', '-긔'로 국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본문에서 다룬 논의를 요약하였다.

그러나 많은 양의 언어 정보를 담고 있는 개별 문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룬 논의는 필자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일부를 다루었을 뿐이다. 이런 일부를 다룸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필자의 직관에 의존한 점도 있었다.

본고에서 행한 한글 필사본 ≪을병 연행록≫에 대한 동사구문의 연구는 이 자료가 지니고 있는 방대한 정보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한글 필사본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문헌 연구에 기반을 둔 국어사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숭실대본, 담헌연록
장서각본, 을병연행록

2. 논문 및 단행본

강동엽(1988),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문명의식, 우리문학연구 6·7집, 우리문학 연구회.
강신항(1982), 국어학사, 보성문화사.
강인선(1977), 15세기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고대민족문화연구소(1989), 중한사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고영근(1965), 현대국어의 서법 체계에 대한 연구 <선어말어미 '것'을 중심으로>, 국어연구 15.
______(1980), 중세어의 어미 활용에 나타나는 거/어의 교체에 대하여, 국어학 9.
______(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______(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고영근・남기심(1985),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고창운(1995), 서술씨끝의 문법화 과정, 국학자료원.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1(중세국어).
______________(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근대국어).
______________(1998),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국어).
______________(1999),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개화기국어).
국어사연구회 편(1997), 국어사연구, 태학사.
권재일(1982), 어미체계와 통사 기술, 언어학 5.
______(1985),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______(1994), 한국어 문법의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______(1996), "문법 형태소의 소멸과 생성",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김승곤 엮음), 박이정.
______(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김문식(1994), 18세기 후반 서울 學人의 淸學認識과 淸 文物 도입론, 규장각 17.
김민규(1985), 홍대용 사상에 관한 연구-의산문답의 분석을 중심으로, 홍익사학 2호, 홍익대 사학과
김문웅(1987), 근대국어 문법형태의 변천- 노걸대언해와 중간노걸대언해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학과 알타이어학.
김민수(1971/1992), 국어문법론, 일조각.
김방한(1986), "역사언어학에 있어서의 설명", 한글 192.
김상대(1985), 중세국어 구결문의 국어학적 연구, 한신문화사.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학교 출판부.
______(1996),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박이정.
김영욱(1989), 중세국어 원칙법 '-니'와 둘째 설명법 어미 '-니라'의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관악어문연구 14.
______(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김영신(1983), 중・근세국어 연구에 대한 반성: 어휘와 형태를 중심으로, 부산여대논문집14.
김영희(1998), 한국어 통사론을 위한 논의, 한신문화사.
김일근(1986), 언간의 연구, 건국대출판부.
김정수(1984), 17세기 한국말의 높임법과 그 15세기로부터의 변천, 정음사.
김정아(1985), 15세기 국어의 '-ㄴ가' 의문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4.
김종명(1985), "19세기 국어의 격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준(1983), 을병연행록,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학자료간행회.
______(1981),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문학사상 102호, 문학사상사.
______(1981), 홍대용과 을병연행록-한글로 쓰여진 가장 긴 중국 여행기, 문학사상 4월호.
______(1981), 을병연행록 해제, 장서각 39호.
______(1983), 18세기 실학파와 여행의 정신사-을병연행록을 둘러싼 외국체험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연구1, 명지대
______(1984), 열하일기를 이루는 홍대용의 화제들- 18세기 실학의 성격과 관련하여, 동방학지 44, 연세대 국학연구원
______(1985), 담헌연기와 을병연행록의 비교연구 -특히 한시번역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11, 민족문화 추진회.
______(1985),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문고.
______(1987), 홍대용평전, 대우학술총서 25, 민음사.
______(1990), 한국의 기행시. 이병도 박사 고희기념논총, 간행기념회.
______(1991), 홍대용론, 한국문학작가론, 나손선생추모론총, 현대문학사.

______(1996),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최강현 엮음, 한국기행문학작품연구, 국학자료원.
김태준・소재영(1987), 여행과 체험의 문학, 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김형수(1974), 담헌서 외집, 실학총서 4 탐구당
김훈태(1999), “근대국어의 ‘-게-’구문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수(1990), 내면 인용 구문의 해석, 주시경학보 6.
나진석(1971), 우리말 국어의 때매김 연구, 과학사.
남기심(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광학술자료사.
______(1973), 국어 완형보문법 연구, 계명대출판부.
남풍현(1977), 국어 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3, 탑출판사.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민현식(1991), 국어의 시상과 시간부사, 개문사.
민족문화추진위원회(1967/1989), 국역 담헌서(73권-77권), 민문고.
박병채(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박성래(1976), 홍대용의 우주론과 지전설, 한국학보 2, 일지사
______(1981), 홍대용의 과학사상, 한국학보 23, 일지사
박영준(1994), 명령문의 국어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박정규(1989), 18세기 후반 문헌의 표기법 연구, 국어연구 87,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백두현(1997), 현풍곽씨 언간 판독문, 어문론총 31호, 경북어문학회.
______(1998), 현풍곽씨 언간에 나타난 17세기의 풍습과 의례, 문헌과 해석, 1998, 여름.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______(1993), 국어 경어법의 변천,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정수(1990), 국어의 서법 체계에 관하여 -문말 서법을 중심으로 -, 강신항교수회갑기념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서태룡(1985), 국어의 명령형에 대하여, 국어학 14.
______(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국어학총서 13, 탑출판사.
______(1990), 활용어미,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______(1997), 어말어미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석주연(2000), ≪노걸대≫와≪박통사≫의 언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소재영(1984), 을병연행록의 한 연구, 숭실어문학 1집, 숭실대학교 국문학회.
______(1985),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국문학논총, 숭실대출판부.
소재영・김태준(1985), 여행과 체험의 문학 - 중국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송기중(1990), 한학서에 등장하는 중국어의 가치, 국어학논문집(강신항교수회갑기념논총집), 문학과지성사.
송 민(1997), 국어사의 시대 구분, 국어사연구, 태학사.
송철의(1993), 언어 변화와 언어의 화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신동욱(1982), 홍대용과 그의 시대, 한국학보 27, 일지사
안병희(1973), 중세국어 연구자료의 성격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9.1.
______(1982), 국어사자료의 서명과 권책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7.
______(1992ㄱ), 국어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______(1992ㄴ),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양오진(1998), 노걸대 박통사 연구- 한어문에 보이는 어휘와 문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봉학(1982), 북학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8, 서울대 국사학과.
유창돈(1962), 국어변천사, 통문관.
______(1964), 이조국어사연구, 선명문화사.
______(1980), 어휘사연구, 이우출판사.
이광호(1972), 중세국어의 대격 연구: 대격주제화의 시론으로, 국어연구 29.
______(1976), 중세국어 속격어미의 일고찰: 주어적・목적어적 속격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70.
______(1981), 중세국어 "곧ᄒᆞ-"의 통사 특성, 국어학 10.
______(1983), 후기 중세국어의 종결어미 '-다/라'의 의미, 국어학 12.
______(1984), 처격어미 '에'와 '에서'의 의미와 그 통합 양상, 어문학 3, 국민대.
______(1985), 격조사 '로'의 기능통합을 위한 시론, 선오당 김형기 선생 국어학 논총, 창학사.
______(1988), 국어 격조사 '을/를'의 연구, 탑출판사.
______(1993), 중세국어의 '사이시옷' 문제와 그 해석 방안, 안병희 선생 회갑기념논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______(1996), 언문간찰의 형식과 표기법, 정신문화연구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기문(1998), 개정 국어사개설, 태학사.
______(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이기문・장소원(1994), 국어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기백(1981), 국어 어미의 사적 연구(1), 어문논총 15.
이상복(1983), 한국어의 인용문 연구, 국어의 통사・의미론(고영근・남기심 편), 탑출판사.

이상은(1974), 담헌서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이숭녕(1961/198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이승욱(1971), 18세기 국어의 형태론적 고찰- 노걸대류의 국어 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동양학 1.
______(1971), 국어 문법 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______(1997), 국어 형태사의 연구, 태학사.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
이영경(1992),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08,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이옥련(1991), 국어의 부부칭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서울여대 박사학위논문.
이　용(1992), 18세기 국어의 시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우경(1995), 한국의 일기문학, 집문당.
이은경(1996), 국어의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이이화(1988), 홍대용, 인물한국사, 한길사.
______(1985), 박지원과 홍대용 - 깨어지는 봉건질서, 한국 근대인물의 해명
이익섭(1991),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인규(1977), 홍대용의 천문사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이주행(1988),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한샘.
______(1989), 국어 어미의 의미(1), 제효이용주박사회갑기념논문집, 한샘.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이필영(1992), 현대국어의 인용구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현희(1982ㄱ), 국어의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어연구 52.
______(1982ㄴ),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11.
______(1985), ‘ᄒᆞ다’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누러ᄒᆞ다’류와 ‘엇더ᄒᆞ다’류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2.
______(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______(1989), 국어 문법사 연구 30년(1959~1989), 국어학 19.
______(1990ㄱ), 중세국어 명사구 확장의 한 유형- 형식명사 ‘이’와 관련된 몇 문제, 강신항 교수 회갑 기념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______(1990ㄴ), 보문화,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______(1991ㄱ), 15세기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1): 화법, 사유, 인지, 감각동사의 구문 유형을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7.
______(1991ㄴ), 중세국어 명사문의 성격,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______(1993),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______(1994ㄱ),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______(1994ㄴ),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한국어문 2.
______(1994ㄷ),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한국문화 15.
______(1994ㄹ), 계사 '(-)이-'에 대한 통시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______(1994ㅁ), 노걸대언해류대비 및 현대어역, 고전작품 역주・연구 및 한국 근대화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______(1997), 중세국어의 강세접미사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문학논고(최태영선생화갑기념논문집), 태학사.
______(1998), ≪두율분류≫와 ≪두초당시≫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제 72차 한국문화연구소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요지.
______(1999ㄱ), 己丑燕行錄 卷之五, 서울학연구 제13호.
______(1999ㄴ), "똫다" 구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진단학보 87호.
이혜순(1996),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호권(1998), 석보상절의 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홍식(1996),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기중(1993), 연행록의 對淸의식과 對조선의식, 연민학보 1집, 연민학회.
임홍빈(1987), 국어의 명사구 확장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16.
______(1995), 필사본 한글 간찰의 해독과 문장 분절, 정신문화연구 19-3, 정신문화연구원.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1,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장경희(1977), 17세기 국어의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석진(1989), 화용론 연구, 탑출판사.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광현(1971), 18세기 후기 국어의 일고찰, 전북대 논문집 23.
정위영(1986), 연행록을 통해본 朝·淸문물교류,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조광(1980), 홍대용 정치사 연구, 민족문화연구 1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진단학회(1994), 담헌서의 종합적 검토, 제 22회 한국고전 연구심포지엄.
천관우(1984), 홍대용의 근대지향정신, 한국의 사상, 열음사.
최강현(1996), 한국 기행문학 작품 연구, 국학자료원.
최동주(199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범훈(1990), 한국어발달사, 통문관.
한동완(1991), 국어의 시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영균(1990), 불규칙활용,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한재영(1996), 16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______(1987), 국어 때매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______(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홍윤표(1993), 국어사 문헌자료 연구(근대편1), 태학사.
______(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______(1998), 국내 국어학 자료 발굴의 현황과 전망, 제 41회 국어국문학회 발표 요지.
홍은진(1997), 방각본 언간독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통권1호
______(1998ㄱ), 일가 친척 중 남성간의 언간 규식1, 문헌과해석, 통권2호.
______(1998ㄴ), 세시풍속에 어울리기를 청하는 언간 규식, 문헌과해석, 통권3호.
______(1998ㄷ), 구례 문화 유씨가의 한글 소지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13집, 고문서학회
______(1998ㄹ), 을병연행록의 문법사적 고찰, 제 24회 국어학회 발표 요지.
______(1999ㄱ), 근대 언간 규범서 '징보언간독'에 대하여, 숙명어문논집2호, 이옥련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어문학회.
______(1999ㄴ), 축하, 인사, 상고간의 언간 규식, 문헌과해석, 통권 6호.
______(1999ㄷ), 남성간의 언간 규식 2, 문헌과해석, 통권7호
______(2000ㄱ), 조선후기 한글 고문서의 양식, 고문서연구 16·17합집, 이수건·남풍현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고문서학회
______(2000ㄴ), 을병연행록의 중국어 차용 고찰, 제7회 한국어의미학회 발표 요지
______(2000ㄷ), 한글 牌字와 明文, 문헌과해석, 통권11호.
______(2000ㄹ), 구례 문화유씨가의 동약독법 언해, 통권12호.
______(2000ㅁ), 을병연행록 해제, 한글 필사본 도서 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홍재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황문환(1997), 16,17세기 언간의 상대경어법 연구.
황선엽(1995), 15세기 국어 '-으니'의 용법과 기원, 국어연구 135.
황원구(1973), 18세기 조선조에서의 역사의식의 성장과 만주에 대한 관심, 교육논집 6.
藤本幸夫(1994), 淸朝朝鮮通事小攷, 高田時雄 編, ≪中國語史の資料と方法≫,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研究報告.

ABSTRACT

A Study on Verb Phrases of the Hand-written Hangŭl Material Eulbyungyonghangrok

Eun - Jin Hong

Dept. of Korean Lang. & Li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haracterise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grammar and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verb phrase in the hand-written Hangul material Eulbyungyonghangrok in the late 18th century.

In chapter I, I discussed the aim of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and the review of previous analysis. In §1.1. I explained the necessity of Korean linguistic study of hand-written Hangul materials. In §1.2 two Korean versions and one Chinese version of Eulbyungyonghangrok from the point of view of morphology and bibiliography. In §1.3 I classified Eulbyungyonghangrok as a study of classical literature and historical aspects, the study of hand-written Hangul materials, and the study of syntactic structure of Korean. Most achievements were focused on classical literature and history of Eulbyungyonghangrok.

In chaper 2, I discuss the change of formal nouns, case markers, the endings of declinable words, etc.,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history of Korean grammar. This data indicates Korean writings before the 19th century.

In chapter 3,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verb-phrases were discussed. In 3.1, we examined the copula phrases- 'i-' and 'ani-'. Among the phrases 'i- 'the 'NP1' which means 'shape', are interesting sentences. In 3.2, the verb-phrases of existence are divided into existence phrases 'is-/isi-', 'əp-' and possessive phrases 'kyesi-'. 'kyesi-' only appeared in existence phrases. In addition to 'kyəsi', 'kyesi' appeared in modern Korean due to glide insertion under the influence of 'i' in the second syllable.

Since 'kyəsi' appeared more often than 'kyəysi', the verb stem is 'kyesi'. In §3.3, we examined evaluation verb-phrases 'toyh(됴)-', 'əlyəp (어렵)-', 'swip(쉽)-', 'olhʌ(올ᄒᆞ)-' and 'mattaŋhʌ(맛당ᄒᆞ)-'. In 3.4, we examined comparative verb phrases, 'təɨ(더으)-', 'təhʌ(더ᄒᆞ)-', 'pihʌ(비ᄒᆞ)-', 'nas(낫)-', 'kʌshʌ(ᄀᆞᆺᄒᆞ)-, 'tarʌ(다ᄅᆞ)-', which were not much different from forms in Middle Korean.

In 3.5, we examined psycho verb-phrases, 'kisk/kiskəhʌ(깄-/깃거ᄒᆞ)-', 'cyəh-/cyehəhʌ(졓-/져허ᄒᆞ)-', 'sɨlphɨ(슬프)-', 'sɨlh(슳)-' and 'sɨlhəhʌ(슬허ᄒᆞ)-', 'cɨlki(즐기)-' and 'cɨlkəp(즐겁)-', which were usually used as transitive verbs.

We found that the '-ə' incorporated with 'kiskə(깃거)' had the meaning of 'impetus'. We found that 'sɨlphɨ(슬프)-' stood for the subject of sad feeing or sad meaning and the sentence spoken only 'sɨlphɨta' was used as an exclamatory sentence. In 3.6, we examined thinking verb phrases, 'mis(밋)-', 'sʌyŋkakhʌ(ᄉᆡᇰ각ᄒᆞ)-', 'ɨsimhʌ(의심ᄒᆞ)-', 'nəki(너기)-' and 'hyəy(혜)-', which were objective phrases and they could be ommitted in some sentences.

3.7, we examined the cognitive verb-phrases, 'al(알)-' and 'morʌ(모ᄅᆞ)-'. These verb phrases indicate semantic characteristics. 'al(알)-' and 'morʌ(모ᄅᆞ)-' show similar behavior in sentences. In 3.9, we handled asking the verb phrases, 'wənha(원ᄒᆞ)-', 'cyəŋha(쳥ᄒᆞ)-' and 'pʌra(ᄇᆞ

라)-'. The 'wənhʌ(원ᄒᆞ)' did not to require dative but in some cases 'wənhʌ(원ᄒᆞ)-' behaves as 'cyəŋha(쳥ᄒᆞ)-' In that case the dative appears in a sentence.

In 3.10, we examined narative the verb phrases, 'nirʌta(니ᄅᆞ다)', 'kʌlta(ᄀᆞᆯ다)' and 'mutta(묻다)'. Unlike the phrases with 'nirʌ(니ᄅᆞ)-', the phrases with 'mut(묻)-' were used as the verb, usually quoting interrogative sentences. Also unlike the phrases with 'nirʌ(니ᄅᆞ)-', the phrases with 'mut(묻)-' were used in fornt of 'kʌlotʌy(ᄀᆞᆯ오ᄃᆡ)', 'nilotʌy(닐오ᄃᆡ)', 'nirʌtʌy(니ᄅᆞᄃᆡ)'

In chapter 4, I summarized what we discussed so far and leave remainings for the further study.